

#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 이민규 · 최훈석 · 권영미 · Steven Sloman  
· Eran Halperin



#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 연구책임자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이민규 (경상대학교 교수)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영미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Steven Sloman (Brown University, Professor)

Eran Halperi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Professor)

##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사업(2/4년차)

한반도 평화 연구(2): 평화인식과 평화교육의 간극과 함의

KINU 연구총서 19-22

---

|         |   |
|---------|---|
| 발행일     | 2019년 12월 30일   |
| 저자      | 박주화, 이민규, 최훈석, 권영미, Steven Sloman,<br>Eran Halperin       |
| 발행인     | 임강택   |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 편집인     | 통일정책연구실   |
| 등록      | 제2-02361호 (97.4.23)                                       |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 전화      | (대표) 02-2023-8000<br>(FAX) 02-2023-8296                   |
| 홈페이지    |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
| 기획·디자인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 인쇄처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 I S B N | 978-89-8479-997-4 94340<br>978-89-8479-989-9 (세트)         |
| 가격      | 19,000원   |

---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례

|                                      |            |
|--------------------------------------|------------|
| 요약 .....                             | 19         |
| <b>I. 서론 .....</b>                   | <b>27</b>  |
| 1.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마음 .....  | 35         |
| 2. 고착화된 갈등과 분단 .....                 | 38         |
| 3. 분단의 마음: 고착화된 갈등의 마음 .....         | 41         |
| 4. 화해의 마음 .....                      | 57         |
| 5. 소결 .....                          | 81         |
| <b>II. 기초분석 .....</b>                | <b>87</b>  |
| 1. 가치관 .....                         | 89         |
| 2. 사회적 신념과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         | 121        |
| 3. 분단의 마음 .....                      | 141        |
| 4. 화해의 마음 .....                      | 161        |
| 5. 통일, 대북정책, 그리고 올림픽 .....           | 175        |
| <b>III. 심층분석 .....</b>               | <b>193</b> |
| 1. 가치관이 화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         | 195        |
| 2.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화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 | 253        |

|  |            |
|--|------------|
| 3. 분단의 마음이 화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          | 281        |
| <b>IV. 해외 연구자의 시각 .....</b>              | <b>339</b> |
| 1. 가치관과 결과: 한반도 통일 논쟁의 두 프레임 .....       | 341        |
| 2. 갈등에 있어 집단 간 증오: 남북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 375        |
| <b>V. 결론 .....</b>                       | <b>401</b> |
| <b>참고문헌 .....</b>                        | <b>413</b> |
| <b>최근 발간자료 안내 .....</b>                  | <b>439</b> |

## 표 차례

|   |     |
|---|-----|
| 〈표 I-1〉 Rouhana, Keman, Nadler의 갈등타결, 갈등해결,<br>화해의 차이 ..... | 76  |
| 〈표 I-2〉 Rosoux의 화해 모델 .....                                 | 79  |
| 〈표 II-1〉 “평화”에 사회적 표상(1순위) .....                            | 91  |
| 〈표 II-2〉 “평화”에 대한 사회적 표상(1+2+3순위) .....                     | 92  |
| 〈표 II-3〉 “전쟁”에 대한 사회적 표상(1순위) .....                         | 92  |
| 〈표 II-4〉 “전쟁”에 대한 사회적 표상(1+2+3순위) .....                     | 92  |
| 〈표 II-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우익권위주의 .....                            | 95  |
| 〈표 II-6〉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지배성향, 반평등주의 및 사회지배성향의<br>평균 .....       | 98  |
| 〈표 II-7〉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자기초월 가치 및 자기고양 가치의<br>평균 .....          | 106 |
| 〈표 II-8〉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향상초점 및 예방초점의 평균 .....                   | 112 |
| 〈표 II-9〉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현재지향성 및 미래지향성의 평균 .....                 | 115 |
| 〈표 II-10〉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가치지향성 및 자기개념의 평균 .....                 | 120 |
| 〈표 II-11〉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주관적 안녕의 평균 .....                       | 123 |
| 〈표 II-12〉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정치적 효능감의 평균 .....                      | 125 |
| 〈표 II-13〉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의 평균 .....                  | 128 |
| 〈표 II-1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갈등 본질 가변성의 평균 .....                 | 131 |
| 〈표 II-1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민족정체감, 남한정체감의 평균 .....                 | 135 |



|   |     |
|---|-----|
| 〈표 II-16〉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단일민족 믿음의 평균                                | 137 |
| 〈표 II-17〉 인구통계학적 자기검열의 평균                                       | 140 |
| 〈표 II-18〉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전쟁, 방어전쟁, 평화에 대한 태도의 평균                    | 143 |
| 〈표 II-19〉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군사력을 통한 평화, 협력을 통한 평화의 평균                  | 146 |
| 〈표 II-20〉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제로섬 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 남한 우월성의 평균             | 150 |
| 〈표 II-21〉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악마화, 단결, 남한 정당성의 평균                        | 153 |
| 〈표 II-22〉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분단중심성의 평균                                  | 157 |
| 〈표 II-23〉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희망과 신뢰의 평균                                 | 163 |
| 〈표 II-2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북한과의 공감, 체제보장에 대한 공감, 핵실험 정당화에 대한 평균       | 165 |
| 〈표 II-2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공통의 희생자 인식, 동일민족 정체성,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에 대한 평균 | 169 |
| 〈표 II-26〉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 한반도 문제의 북한 책임, 용서 의도의 평균    | 174 |
| 〈표 II-27〉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단일국가 지향성과 평화적 공존 지향성의 평균                   | 179 |
| 〈표 II-28〉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관여정책 지지도와 압박정책 지지도의 평균                     | 183 |

|  |     |
|--|-----|
| 〈표 II-29〉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에<br>위배된다고 응답한 비율 .....       | 188 |
| 〈표 II-30〉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올림픽 단일팀에 반대하는 비율 및<br>단일팀이 평화에 기여한다고 비율 ..... | 191 |
| 〈표 III-1〉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 199 |
| 〈표 III-2〉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 200 |
| 〈표 III-3〉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 200 |
| 〈표 III-4〉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 201 |
| 〈표 III-5〉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br>표준편차 .....                | 201 |
| 〈표 III-6〉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 202 |
| 〈표 III-7〉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br>반응백분율(%) .....      | 203 |
| 〈표 III-8〉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br>평균 및 표준편차 .....      | 203 |
| 〈표 III-9〉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br>반응백분율(%) .....       | 204 |
| 〈표 III-10〉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br>반응백분율(%) .....      | 205 |
| 〈표 III-11〉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br>평균 및 표준편차 .....      | 205 |

|  |     |
|--|-----|
| 〈표 III-12〉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br>반응백분율(%) ..... | 205 |
| 〈표 III-13〉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 207 |
| 〈표 III-14〉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br>표준편차 .....         | 207 |
| 〈표 III-15〉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 207 |
| 〈표 III-16〉 정보 수용 노력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 208 |
| 〈표 III-17〉 정보 수용 노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 209 |
| 〈표 III-18〉 정보 수용 노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 209 |
| 〈표 III-19〉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br>반응백분율(%) .....  | 210 |
| 〈표 III-20〉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br>평균 및 표준편차 .....  | 210 |
| 〈표 III-21〉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br>반응백분율(%) .....   | 211 |
| 〈표 III-22〉 우익권위주의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 213 |
| 〈표 III-23〉 우익권위주의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 213 |
| 〈표 III-24〉 우익권위주의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 213 |
| 〈표 III-25〉 사회지배성향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 214 |
| 〈표 III-26〉 사회지배성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 214 |
| 〈표 III-27〉 사회지배성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 215 |

|  |     |
|--|-----|
| 〈표 III-28〉 향상초점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218 |
| 〈표 III-29〉 향상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219 |
| 〈표 III-30〉 향상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219 |
| 〈표 III-31〉 예방초점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219 |
| 〈표 III-32〉 예방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220 |
| 〈표 III-33〉 예방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220 |
| 〈표 III-34〉 미래지향성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221 |
| 〈표 III-35〉 미래지향성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222 |
| 〈표 III-36〉 미래지향성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222 |
| 〈표 III-37〉 주관적 안녕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 224 |
| 〈표 III-38〉 주관적 안녕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 224 |
| 〈표 III-39〉 주관적 안녕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 224 |
| 〈표 III-40〉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br>반응백분율(%) | 225 |
| 〈표 III-41〉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br>표준편차 | 225 |
| 〈표 III-42〉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br>반응백분율(%)  | 226 |
| 〈표 III-43〉 전쟁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 229 |
| 〈표 III-44〉 평화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 231 |

|  |     |
|--|-----|
| 〈표 III-45〉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br>분석결과 ..... | 233 |
| 〈표 III-46〉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        | 235 |
| 〈표 III-47〉 북한에 대한 신뢰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              | 237 |
| 〈표 III-48〉 정보 수용 노력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               | 239 |
| 〈표 III-49〉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       | 241 |
| 〈표 III-50〉 준거변수 별 예측변수들의 예측 방향 및 예측력 비교 .....      | 243 |
| 〈표 III-51〉 준거변수들 간 상관계수 .....                      | 245 |
| 〈표 III-52〉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                       | 257 |
| 〈표 III-53〉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 .....          | 259 |
| 〈표 III-54〉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 .....           | 261 |
| 〈표 III-55〉 경쟁적 희생자 의식 .....                        | 263 |
| 〈표 III-56〉 집단 간 용서 .....                           | 264 |
| 〈표 III-57〉 자기고양가치 .....                            | 267 |
| 〈표 III-58〉 자기초월가치 .....                            | 268 |
| 〈표 III-59〉 국가정체성 .....                             | 269 |
| 〈표 III-60〉 한민족정체성 .....                            | 270 |
| 〈표 III-61〉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 272 |
| 〈표 III-62〉 평화실현 수단-협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 273 |
| 〈표 III-63〉 평화실현 수단-군사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 274 |

|   |     |
|---|-----|
| 〈표 III-64〉 경쟁적 희생자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 275 |
| 〈표 III-65〉 집단 간 용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 275 |
| 〈표 III-66〉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화에 대한 태도 차이 .....                  | 285 |
| 〈표 III-67〉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 차이 .....             | 286 |
| 〈표 III-68〉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 차이 .....            | 286 |
| 〈표 III-69〉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북한에 대한 신뢰 차이 .....                  | 287 |
| 〈표 III-70〉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북한의 책임에 대한 판단 차이 .....              | 288 |
| 〈표 III-7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br>차이 .....      | 289 |
| 〈표 III-7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 290 |
| 〈표 III-73〉 북한에 대한 정서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 292 |
| 〈표 III-74〉 북한에 대한 정서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br>미치는 영향 .....     | 293 |
| 〈표 III-75〉 북한에 대한 정서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br>미치는 영향 .....    | 293 |
| 〈표 III-76〉 북한에 대한 정서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 294 |
| 〈표 III-77〉 북한에 대한 정서가 북한의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295 |
| 〈표 III-78〉 북한에 대한 정서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br>미치는 영향 ..... | 296 |
| 〈표 III-79〉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br>영향 .....     | 296 |

|   |     |
|---|-----|
| 〈표 III-80〉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 297 |
| 〈표 III-81〉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 298 |
| 〈표 III-82〉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 298 |
| 〈표 III-83〉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 299 |
| 〈표 III-84〉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 299 |
| 〈표 III-85〉 단결·일치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 300 |
| 〈표 III-86〉 단결·일치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 301 |
| 〈표 III-87〉 단결·일치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 301 |
| 〈표 III-88〉 단결·일치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 302 |
| 〈표 III-89〉 단결·일치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단결·일치가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 302 |
| 〈표 III-90〉 단결·일치가 핵, 미사일, 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 303 |
| 〈표 III-91〉 분단중심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 303 |
| 〈표 III-92〉 분단중심성이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 304 |
| 〈표 III-93〉 분단중심성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에 미치는 영향 ..                    | 305 |
| 〈표 III-94〉 분단중심성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 305 |
| 〈표 III-95〉 분단중심성이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 306 |

|   |     |
|---|-----|
| 〈표 Ⅲ-96〉 분단중심성이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 306 |
| 〈표 Ⅲ-97〉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다중응답 빈도분석 결과 .....                 | 307 |
| 〈표 Ⅲ-98〉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 309 |
| 〈표 Ⅲ-99〉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 310 |
| 〈표 Ⅲ-100〉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 311 |
| 〈표 Ⅲ-101〉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 312 |
| 〈표 Ⅲ-102〉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 313 |
| 〈표 Ⅲ-103〉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 314 |
| 〈표 Ⅲ-104〉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 315 |
| 〈표 Ⅲ-105〉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 317 |
| 〈표 Ⅲ-106〉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 319 |
| 〈표 Ⅲ-107〉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 320 |



|  |     |
|--|-----|
| 〈표 Ⅲ-108〉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br>영향 .....             | 322 |
| 〈표 Ⅲ-109〉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br>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 323 |
| 〈표 Ⅲ-110〉 정준상관함수의 통계적 유의성 .....                                | 325 |
| 〈표 Ⅲ-111〉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정서와 화해관련변인 간의<br>정준상관분석결과 .....          | 325 |
| 〈표 Ⅲ-112〉 정준교차적재량이 .30이상인 변인 .....                             | 326 |
| 〈표 Ⅳ-1〉 자기-고양 및 보수와 관련된 기본 가치의 정의 .....                        | 368 |
| 〈표 Ⅳ-2〉 계측된 변인 간의 산술평균, SD, 영차 상관관계 .....                      | 392 |
| 〈표 Ⅳ-3〉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감정 및<br>선행 변인의 영향 .....      | 393 |
| 〈표 Ⅳ-4〉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감정 및<br>선행 변인의 영향 .....      | 395 |

## 그림 차례

|  |     |
|--|-----|
| 〈그림 I-1〉 Lederach의 화해 모형 .....                                   | 71  |
| 〈그림 II-1〉 설문의 기본 구성 .....  | 89  |
| 〈그림 II-2〉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의 평균 .....                                  | 101 |
| 〈그림 II-3〉 연령 따른 보편적 가치의 평균 .....                                 | 103 |
| 〈그림 II-4〉 이념성향에 따른 보편적 가치의 평균 .....                              | 103 |
| 〈그림 II-5〉 가치지향성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                       | 118 |
| 〈그림 II-6〉 가치지향성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                       | 119 |
| 〈그림 II-7〉 이슈별 안정/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평균 .....                         | 133 |
| 〈그림 II-8〉 북한에 대한 정서의 평균 .....                                    | 159 |
| 〈그림 II-9〉 한국인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                      | 160 |
| 〈그림 II-10〉 북한주민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                       | 161 |
| 〈그림 II-11〉 단일국가 형성, 남북연합, 인적왕래 및 자유시장 형성에<br>대한 공감도 .....        | 177 |
| 〈그림 II-12〉 단일국가 형성, 남북연합, 인적왕래 및 자유시장 형성이<br>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 | 181 |
| 〈그림 II-13〉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br>여론 변화 .....             | 185 |
| 〈그림 II-14〉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다고<br>응답한 비율 .....          | 186 |
| 〈그림 II-15〉 현 시점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에 어긋났다고<br>응답한 비율 .....         | 187 |

|  |     |
|--|-----|
| 〈그림 II-16〉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문항에 응답 .....  | 190 |
| 〈그림 III-1〉 정준함수 1에서 정준교차적재량이 .3이상인 변인 간의<br>관계 .....   | 328 |
| 〈그림 III-2〉 정준함수 2에서 정준교차적재량이 .3이상인 변인 간의<br>관계 .....   | 328 |
| 〈그림 IV-1〉 통일의 명분 .....   | 342 |
| 〈그림 IV-2〉 “통일”의 네 가지 정의 중 한 가지를 가장 선호한 응답자와,<br>특별히 선호하는 정의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보다 복잡한<br>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 ..... | 346 |
| 〈그림 IV-3〉 정치적 신념에 따라 통일에 찬성 혹은 반대한 비율 .....  | 349 |
| 〈그림 IV-4〉 통일연구원의 2019년 설문조사 참가자 중 각각의 정치적<br>신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집착적 태도에 있어 표본의 상위<br>50%에 속하는 응답자 비율 .....    | 354 |
| 〈그림 IV-5〉 통일연구원의 2019년 설문조사 참가자 중 각각의 정치적<br>신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초연한 태도에 있어 표본의 상위<br>50%에 속하는 응답자 비율 .....    | 355 |



##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이중성(duality)의 마음으로 정의하였다. 비핵화, 남북협력, 평화협상, 제재 등을 둘러싼 남·북·미의 줄다리기를 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의 마음은 갈등을 종식하는 평화조성(peace making)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적 맥락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70년 분단의 적대적 갈등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 즉 평화의 수사학에 노출되어 있다. 국민의 이중적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갈등 속에서의 마음과 평화조성의 마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착화된 갈등 이론의 틀에서 갈등의 마음을 고찰하고, 화해 이론의 틀에서 평화조성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분단된 한반도가 고착화된 갈등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단은 ① 대규모 살육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였고, ② 전쟁으로 굳어진 분단은 70년 이상 장기화되었고, ③ 분단으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상대를 타자화(심지어 적대시)하는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④ 남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식으로 접근하며 사회적 갈등을 재생산해왔다. 결국 분단은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동시에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분단의 심리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장애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분단의 심리, 고착화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정”이 아닌 “공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정치·

사회적 제도와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기제는 생존을 위한 적응의 산물이며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맥락에서 본다면 갈등의 문화와 심리의 전환은 70여 년 동안 자신과 우리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있던 핵심적 기제의 변형이다. 장기간 생존의 기제로서 정당성을 인정했던, 그리고 그 정당성으로 개인적·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변화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분단과 같은 고착화된 갈등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전환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화해이다. 하지만 화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화해의 과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화해에 접근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해의 정의와 과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화해의 목표, 화해의 순서, 화해의 요소 등 한반도 화해의 다양한 쟁점에 있어 해외 사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화해를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화해의 정의를 제안하였다. 한반도의 화해를 남북의 신뢰, 우정, 진실, 세계관 등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상태와 과정을 목표로 제시하는 최대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는, 그래서 오히려 화해의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착화된 갈등의 정도가 깊은 한반도의 경우 ‘북한과 협력을 기초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최소주의적 접근에 근거한 정의가 더 적절할 것이다.

고착화된 갈등이론과 화해이론을 중심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는 우리 국민분단의 마음과 화해의 마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간 전쟁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평화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평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우리 국민이 큰 틀에서 화해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은 갈등과 화해의 이중성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군사력을 이용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는 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이었다,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고착화된 갈등의 심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고 있었으며, 분단의 역사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경쟁적 피해자 인식도 높은 수준이었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월하며 남한의 대의와 목표가 북한에 비해 더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우세하며 북한에 맞서 다양성보다는 일치와 단결,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은 열정, 희망, 즐거움, 낙관적, 사랑을 남한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사람들은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의 특질을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았으며 남북갈등의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화해를 위한 지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았으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의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의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국민이 비율이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율보다 높았다. 북한을 용서할 의향도 평균 이상이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우리 국민의 갈등지향적 마음과 화해지향적 마음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분단과 화해에 관한 심리의 연령 차이가 단순하게 소위 20대의 보수화로 대변되는 U형 패턴 문제로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관찰되었으며 이슈에 따라 이러한 선

호는 역전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연령차이는 전형적인 U형 패턴을 따른다. 20대와 60대의 제로섬 인식이 가장 강했고 40대의 제로섬 인식과 가장 낮았다. 반면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경쟁적 희생자 인식은 연령대만으로 보면 U형 패턴을 따른다. 하지만 연령을 다시 성별로 구분하는 경우 20대 여성은 40대 남성과 더불어 경쟁적 희생자 의식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지만 20대 남성은 경쟁적 희생자 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도 전통적인 U형 패턴과 상반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는 어느 한 방향으로 지배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북통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남녀 공히 젊은 층에서 낮았지만 특히 20~30대 여성층에서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남북관계의 희망, 북한에 대한 신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 등에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흥미로운 결과는 분단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답이었다. 분단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에서 20~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분단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0~30대의 응답은 20~30대의 북한과 화해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의 응답을 설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분단의 폭력성에 대한 20~30대의 무감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심층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결과는 분단의 심리와 평화의 심리가 가치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별, 연령, 정치적 태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더불어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성향, 미래지향성, 개인의 주관적 안녕, 가치지향성, 민족정체성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의 심리를 극복하고 화해의 심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 북한문제, 북핵문제, 대북·통일정책에만 한정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의와 평등, 포용의 가치와 결합될 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분석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고착화된 갈등이론이 제시하였듯이 북한에 대한 정서는 분단의 심리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정서를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북한에 대한 20개의 정서적 반응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 크게 3가지 정서-배타심, 우호감, 동정심-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타심은 ‘분노하는’, ‘화가 나는’, ‘증오스러운’, ‘두려운’, ‘무서운’, ‘불안한’, ‘수상한’, ‘긴장하는’, ‘절망스러운’, ‘성가신’, ‘걱정스러운’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고, 우호감은 ‘즐거운’, ‘행복한’, ‘정겨운’을 포함하며, 동정심은 ‘슬픈’, ‘연민’을 포함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세 차원의 정서가 분단의 심리와 화해의 심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층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분단의 심리, 화해, 고착화된 갈등, 분단중심성, 전쟁, 평화, 평화 공감대, 통일

# Abstract

##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This research aims to make a diagnosis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perceived by the public.’ We assume that the minds of the Koreans can be seen as a duality mode. As the public has watche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being engaged in a tug-of-war over denuclearization, inter-Korean relations, peace negotiations, and sanctions, their minds have seen a hope one side and felt unease on the other side. In order to fully grasp the dual aspects of people’s minds, this study contemplated the attitude of Koreans from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intractable conflict theory and looked into the minds of peace-making from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reconciliation.

Our results affirm that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epitom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ractable conflicts. It is evident that psychology of the Division presents an obstacle to realizing sustainable peace. However, this research emphasized that “empathy,” not “denial” is required to go beyond the psychology of the Division and intractable conflicts.

Previous research on reconciliation suggests that the most challenging aspect would be to have an agreement on the definition and process of reconciliation given a conflict. We propose the definition of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illingness to make peaceful relations based o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people by and large exhibited a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They considered inter-Korean relations to be a zero-sum game and showed a sense of competitive victim mentality toward North Korea given the public's perceived damages of South Korea compared to North Korea throughout the history of division conflicts.

At the same time, the public in the ROK has directionality toward reconciliation. Many people had hopes for resolv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d a relatively high level of willingness to embrace new information on North Korea. One of important findings of in-depth analysis is that the psychology of division and the psychology of peace are closely associated with a sense of value and appreciation of our society. In the meantime, an in-depth analysis addressed head-on the emotion toward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Psychology of division, reconciliation, intractable conflict, division-centrality, war, peace, consensus for peace, unification



# I. 서론

박주화 (통일연구원)





2018년부터 본격화된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도출 실패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발걸음은 2019년 6월 남·북·미 회동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새로운 길’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단이후 남·북, 북·미 간 신뢰수준을 고려한다면 남·북·미 간의 줄다리기 양상은 노적성해(露積成海)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북·미간 상호 신뢰 수준은 최악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상호 ‘기대이익’을 제시·조정하면서 이익교환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사슴 게임’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기대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피로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화해 연구는 이중성(duality)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sup>1)</sup> 이중성의 시대, 이중성의 마음은 갈등을 종식하는 평화조성(peace making)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중성의 맥락은 갈등의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상하

---

1)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5~926.

는 평화의 맥락의 특징도 함께 보유하게 된다. 국민들은 평화 협상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평화조성의 신호를 보지만, 협상의 당사들은 협상 실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시 폭력적인 대립의 길로 강제적으로 복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평화의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폭력의 수사학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화조성을 수용하지 않는다. 평화조성의 방해자들은 평화조성의 과정을 좌절시키고자 다양한 선동, 심지어 폭력 등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다. 따라서 평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는 종종 양극화와 사회 내 평화조성을 지지하는 그룹과 평화로운 해결로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룹을 분리하려는 분파주의가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의 움직임, 특히 정부차원의 평화협정의 가능성이 보일 때 사회 구성원은 이미 익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위험한 사회적 맥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분단이라는 환경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 삼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분단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환경이 되어 버렸다. 『2018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한반도가 ‘평화롭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36.6%)이 ‘평화롭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15.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정도(47.6%)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sup>2)</sup> 한반도 미래 세대의 절대 다수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낙청은 “후천성 분단인식결핍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통해 분단에 익숙해진 국민의 상황을 설명하였다.<sup>3)</sup> 한반도 평화에 대한 『2018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는 분단인식결핍이 후천성이 아니라

2) 통일교육원, 『2018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서울: 통일교육원, 2018), pp. 73~75.

3) 백낙청, 『2013년 체제 만들기』 (서울: 창작과 비평, 2012), p. 23.



선천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국민들의 희망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70년 동안 익숙해진 분단을 변경하는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일상의 삶에서 분단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국민에게 한반도의 평화는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가? 결국 지속가능한 정치·외교·군사적 평화구축과 평화조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적·심리적 평화구축과 평화조성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외교·군사적 평화 구축 과정에 비해 국민들의 정서적·심리적 평화조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70년 남북 국민들의 적대감을 한순간에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외교·군사적 신뢰구축은 정서적·심리적 변화를 담보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인 것이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동질성은 약화, 이질성과 적대감은 강화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악마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월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국가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세계관·이념화되면서 타협과 설득이 쉽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북한·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은 한국사회의 지배적 갈등으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70여 년 분단체제로 깊어진 심리적·문화적·삶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정서·심리적 이질성에 대한 정책 거버넌스는 취약한 상황이다. 2015년 이후 남북의 정서적·심리적 이질성에 초점을 둔 정책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온나라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서 ‘남북,’ ‘갈등,’ ‘통일’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언어차이에 대한 연구 2건만 확인할 수 있다. 남북통합 또는 남북갈등관리 정책 연구는 소수이며 이마저도 단일국가 형성

이후의 갈등 관리 및 통합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에 대한 심리·정서적 인식 조사는 이미지 중심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며 먼 미래의 통일이 아닌 현재와 근미래 지향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평화조성의 핵심은 평화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에 대한 국내 정책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통일교육의 대안으로 세계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제언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진단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이중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국민의 마음을 진단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이론을 기반으로 집단 간 갈등 해소를 연구한 정신의학자 바딤 볼칸은 갈등 해소는 진단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리적 진단은 자신의 갈등해소 이론인 나무 모형(TREE model)에서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볼칸에 따르면 갈등 당사자들의 내면의식-불안의 수준, 적대감, 기대 수준 등의 평가를 통해 심리적으로 ‘은폐된 대사(hidden transcript)’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에 대한 희망과 불안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성의 시기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갈등의 전환에 핵심적이라는 것이다.<sup>4)</sup> 갈등 역시 평화조성을 위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갈등의 DPT 패러다임(Diagnosis Prognosis resoluTion, 진단-예측-처방)에 따르면, 평화연구의 맥락에서 진단은 갈등으로 인한 고통의 상태와 생활의 향상, 행복과 평화의 상태의 경험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전술한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중성의 마음을 진단

---

4) 장원석, 『진실과 화해의 정치』 (서울: 온누리디앤피, 2018), pp. 143~145.

하는 것이 평화조성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이다.<sup>5)</sup>

본 과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심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먼저 이중성의 시대에 부합하는 이론을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설문을 구성하고 결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안과 갈등의 심리는 ‘고착화된 갈등(intractable conflict) 이론’, 평화의 심리는 ‘화해(reconciliation) 이론’을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이론에 기반한 설문 구성은 이중성의 시대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설문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회과학적으로 검증된 문항을 사용함으로써 내면의 인식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이중성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본 과제는 세계관과 우리 사회의 신념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국민의 평화인식 조사의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첫째, 고착화된 갈등(분단문화)을 평화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화해를 상정하고 이론적 논의와 화해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보완하였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세계관의 문항을 대폭 포함하였다. 특히 최근 20~30대의 통일인식 변화의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 정의, 평등, 자기고양, 자기초월 가치, 사회적 불안감, 개인이 미래의 사건이나 목표, 또는 현재의 사건이나 목표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를 나타내는 개인의 가치 지향성(현재-미래 지향성), 현재 상태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상태 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동기화되는 개인의 성향(조절 초점),<sup>6)</sup> 정치적 효능

---

5)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pp. 81~82.

6)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은 희망하는 이상(idea)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성공과 획득에 대한 접근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

감 등을 포함하였다. 관련하여 20대와 30대의 설문조사 대상을 각각 150명 추가하여 2030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서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저자들이 아는 한 북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넷째,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문항 대신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일에 대한 개념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최종 상태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남북단일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2018년 남북단일팀에 대한 문항은 2030 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2030의 반감이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경험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 가능하다. 이는 남북단일팀 구성이 예상되는 도쿄 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2030과 우리 사회의 기대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설문조사는 2019년 5~6월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도 포함시켰다. 표본의 수는 1,000명이며 2019년 3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현장실사는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

가 강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이용하였다. 현장실사에 앞서 넬슨کم퍼니코리아에서 조사원 교육을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는 현장 면접원에 의한 검증, 지역 감독원에 의한 검증, 본사 감독원에 의한 검증, 전산검증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마다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자들 중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 참가 여부와 면접 내용을 검증하였다. 원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산자료의 공개는 통일연구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 1.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과 마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토대가 되는 화해와 평화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평화의 문화가 요구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집단적인 맥락을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사회 과학에서 사회 맥락에 대한 이해는 사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맥락은 “상황을 둘러싼 물리적 현실, 사회 구조, 공동의 신념 체계가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잡하고 얽혀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sup>7)</sup> 사회적인 맥락의 중요성은 사회적 맥락이 사회적 구성

---

7) Richard D. Ashmore, Kay Deaux, and Tracy McLaughlin-Volpe, “An Organizing Framework for Collective Identity: Articulation and Significance of Multidimensi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0, no. 1 (2004), p. 131.

원이 만족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요와 목표, 당면과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사회적 맥락은 인적 행위의 공간과 경계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 한계, 자극, 억제 역할까지 담당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맥락은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관련성이 있다-사회 구성원을 결부시키고 공적 담론과 공적 안건의 중심 소재가 되며 사회 구성원이 수용 가능한 세계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확신하도록 관련 정보와 경험을 제공한다. 요약하면 사회적 맥락은 개인과 집단이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결정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사회 생활의 양상을 결정짓는 근거가 된다. 즉 사회적 맥락은 개인 및 집단의 삶의 모든 양상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sup>8)</sup>

1945년 광복 이후 넓게는 한반도, 좁게는 남한의 사회적 맥락이 분단의 문화, 남북 갈등의 문화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갈등(conflict)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의 목표나 이해가 직접적인 대치 관계, 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한다.<sup>9)</sup> 갈등은 단순히 무력 갈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Galtung은 갈등의 삼각형 모델에서 갈등은 모순(Contradiction), 태도(Attitude), 행동(Behavior)을 꼭짓점으로 가지는 삼각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순은 갈등 당사자 간 “목표의 양립 불가” 혹은 목표가 양립 불가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태도는 당사자들의 서로에 대한, 또 자신들에 대한 인식 및 오해를 포함하며 감정

8)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p. 926~927.

9)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5), p. 3;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 923.

적(정서), 인지적인(믿음), 행동의도(욕구, 의지) 요소로 구성된다. 마지막 요소인 행동은 협력이나 강압 및 조정(conciliation) 또는 적대적 행위들이 포함된다.<sup>10)</sup>

갈등은 갈등을 구조, 태도, 행동이 끊임없이 변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프로세스로 간주하였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들의 관계가 폭력적으로 변해가게 되는 동안, 역학(dynamic)이 형성되면서 갈등은 더욱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갈등 중인 집단은 자신의 생존과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갈등의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화되면서 갈등이 해결되기보다 심화·지속되는 악순환의 역동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 연구자들은 다양한 갈등의 양태를 장기 갈등(protracted conflicts), 숙적 관계(enduring rivalries), 악성갈등(malignant conflicts)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화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타협으로 해결 가능한 이익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화해의 과정이 필요 없다. 화해가 필요한 갈등은 근저에 있는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원인을 제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뿌리깊은 갈등(deep-rooted conflict)이다.<sup>11)</sup> 같은 맥락에서 Bar-Tal은 “갈등과 연루된 당사자들이 승리할 생각도 평화로운 해결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한세대 이상 지속되는 유형의 갈등,” 즉 갈등이 고착화된 경우(intractable conflict)에만 화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전쟁을 포함한 70년 분단을 경험하면서 남북한 공히 분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구조가 조직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

10)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 외 역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p. 168.

11) 다양한 갈등 유형의 특징은 John Wear Burton, *Resolving Deep-Rooted Conflict: A Handbook*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을 참고하면 된다.

12) Daniel Bar-Ta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21, no. 2 (2000), p. 355.

하면, 한반도의 사회적 맥락이 고착화된 갈등의 사회적 맥락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고착화된 갈등과 분단

고착화된 갈등을 겪고 있는 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13)</sup> 먼저 고착화된 갈등은 장기간, 최소한 한 세대 이상 지속된다. 즉, 적어도 한 세대는 갈등의 문화 속에서 태어났으며 결과적으로 갈등의 문화 이외에 다른 현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반복되는 대립을 경험하여, 그로 인한 반감과 적의가 점차 쌓여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착화된 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회 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끝나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갈등의 문화가 status quo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갈등을 평화적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역설적으로 폭력적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사회의 근본적인 목표, 필요, 또는 집단의 존재와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갈등 그 자체를 완전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갈등은 영토, 민족정체성, 국가의 지위, 경제, 종교, 또는 문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고착화된 갈등은 폭력적이다. 고착화된 갈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면전, 국지전, 또는 테러리스트 공격에 휘말려 사망하고

---

13)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 924.



상해를 입는다. 고착화된 갈등에서의 폭력은 그 빈도와 강도만 달라질 뿐 장기간 지속된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 특히 인명손실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엄청난 감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폭력의 결과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대우 및 보상, 물리적 폭력의 재발 방지 노력, 손실에 대한 복수 등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고착화된 갈등은 제로섬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타협의 여지를 찾지 않고 상대방의 손실을 자신의 이득, 반대로 자신의 손실은 상대방의 이득으로 인식한다. 고착화된 갈등은 협상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본래의 목표만을 고수하고자 하는 전면적인 갈등이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중용한다. 특히 자신의 욕구를 생존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 특히 양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협상과 양보를 고려하는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배제된다.

다섯째, 고착화된 갈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누구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 공히 분쟁은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분쟁이 장기화를 대비하며, 이는 사회 전반의 적응과 변화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고착화된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항상 분쟁에 관여하게 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 또는 집단적인 목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갈등과 관련한 사고를 쉽게 대입하고 결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 고착화된 갈등의 중심성은 공공 의제에서 갈등이 얼마나 부각되는지를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언론, 리더십, 기타 사회 제도는 큰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고착화된 갈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결과적으로 고착화된 갈등 사회는 방대한 물자(i.e., 군수, 기술, 및 경제) 및 심리적 투자를 통해 갈등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남한의 사회적 맥락을 고착화된 갈등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분단된 한반도는 고착화된 갈등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이 ① 대규모 살육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였고, ② 전쟁으로 굳어진 분단은 70년 이상 장기화되었고, ③ 분단으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상대를 타자화(심지어 적대시)하는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고, ④ 남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식으로 접근하며 사회적 갈등을 재생산하고 거기에 분단 상황을 활용해왔다. 이는 분단이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동시에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칭하여 ‘분단폭력’이라는 개념까지 나올 정도이다.<sup>14)</sup>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반도 주민들의 일상생활 뿌리를 내렸으며 상당 수준의 자기 재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15)</sup> 백낙청은 분단체제의 삶은 일상적 분단의 삶이며 분단을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우영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개인의 일상적 행위와 사고로부터 사회 전반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분단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홍영표는 남한의 사회적 맥락을 냉전문화로 설명하며 북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미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갈등을 주목하였다. 그는 한국사회의 갈등문화가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배타적 가치로 작동하였으며, 이러한 문

14) 한반도 분단의 폭력성은 김병로·서보희, 『분단 폭력 :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파주: 아카넷, 2016)를 참고하면 된다.

15)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 1998), pp. 17~18.

16) 이우영, “제3장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제4호 (2002), pp. 76~83.

화가 한반도 문제와 미국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관용과 이해보다는 이분법적 갈등과 불신의 가치를 확대시켰다고 평가하였다.<sup>17)</sup> 고착화된 갈등은 ‘분단체제론’, ‘분단구조론’, ‘냉전문화론’이 제기한 ‘분단의 일상적 영향력’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분단의 마음: 고착화된 갈등의 마음

#### 가. 고착화된 갈등의 심리적 요구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맥락은 개인과 사회에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요와 목표, 당면과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그렇다면 고착화된 갈등의 사회적 맥락이 집단과 개인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선행연구는 고착화된 갈등은 적어도 세 차원에서 심리적 변화를 요구한다.<sup>18)</sup> 첫째, 사회 구성원은 앎, 확실성, 안전성 확보, 긍정적인 정체성 등과 같이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든 충족해야 한다. 이는 인간이 개인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이다.

둘째, 고착화된 갈등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은 폭력적 갈등 상황에서 수반되는 긴장, 두려움, 기타 부정적인 심리학적 경험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착화된 갈등의 사회는 장기간 폭력,

17) 홍용표,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문화와 정치』, 제5권 2호 (2018), pp. 17~18.

18)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p. 1435.

인명손실, 위협, 위협, 물리적 자원의 부족, 역경 등과 같은 엄혹한 조건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고착화된 갈등과 관련된 사회가 직면하는 과제 중 하나는 개인과 집단 층위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심리적 기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고착화된 갈등 맥락 속에서의 개인은 적대 집단을 견뎌내는 데 용이한 심리적 조건을 개발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 적대적 집단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시련과 적응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패배하지는 않는 심리적 기제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 인내력, 개인적 희생, 결속력, 유대감, 사회 목표에 대한 집착, 결단력, 용기, 끈기 등과 같은 심리적 체계를 발전, 장려한다.

요약하면 고착화된 갈등의 사회적 맥락은 개인에게 자아실현이 아닌 생존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정치·사회적 제도와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기제는 생존을 위한 적응의 산물이며 나뭇 진화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평화문화, 화해문화를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는 전술한 고착화된 갈등의 특징, 그리고 후술할 고착화된 갈등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징이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분단의 맥락에서 본다면 갈등의 문화와 심리의 전환은 70여 년 동안 자신과 우리 사회를 생존하게 했던 핵심적 기제의 변경이다. 갈등의 종식은 상대에게 패배, 상대에게 정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사회·문화·심리

적 기제가 분단 기간 동안 생존을 위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왔다 는 점이다. 적어도 갈등의 전환을 위해서는 분단의 심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 나. 고착화된 갈등의 마음 내용

### (1)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

심리적 욕구, 스트레스 대처, 갈등에서의 승리라는 과제를 요구받 은 개인은 먼저 왜 자신이 이러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갈등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왜 분쟁이 일어났는 지, 어느 쪽의 책임이 있는지, 상대 집단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갈등에 대한 설명은 장기적 으로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으로 전이된다. 집단적인 기억은 과거 의 재현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의 역사로 기억하는 것이며 집단의 존재와 지속성에 대한 인식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20)</sup> 고착화된 갈등의 집단 기억은 적어도 네 개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분쟁의 발발 그리고 전개 과정을 정당화한다. 둘째, 고착화된 갈등의 집단적 기억은 내집단(in-group)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셋째, 집단 기억은 반대파의 정당성을 박탈한다. 넷째, 집단 기억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는 반대파에 의한 희생자로 제시된다.<sup>21)</sup>

---

19) 공감(empathy)은 상대의 상황 속에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이해이다(understanding). 공감은 상대에 대한 지지(support) 또는 동감(sympathy)을 의미하지 않는다. Ralph K White, *Fearful Warriors: A Psychological Profile of US-Soviet Relations* (New York: Free Press, 1984), pp. 160~161.

20)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pp. 1436~1438.

고착화된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전환기적 맥락이나 서사에 서 특정 개인(영웅, 또는 희생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은 특히 선택된 트라우마(chosen traumas) 그리고 선택된 영광(chosen glories)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택된 트라우마는 집단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로 유지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과정을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고착화된 갈등을 겪고 있는 사회는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독특하고 독보적인 것으로 만든다.<sup>22)</sup>

다시 말하면,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과거에 발생한 객관적인 역사를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 기억의 목표는 고착화된 갈등이 요구하는 심리적 요구, 즉 생존을 위한 것이다. 즉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 기억은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현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향되고, 선택적이면서, 왜곡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고착화된 갈등과 관련한 집단적 기억은 갈등의 역사를 빠르고 명백하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흑백사진처럼 제공한다.<sup>23)</sup>

또한 집단 기억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다수는 이를 과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이며, 사회의 타당한 역사라고 인식한다. 고착화된 갈등에 휘말린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 기억(i.e., 공적 기억(public memory))이 정부

---

21)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p. 936~937.

22) 장원석, 『진실과 화해의 정치』, p. 140.

23) Daniel Bar-Ta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eds. Mauro Galluccio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pp. 74~75.

기관으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내러티브(i.e., 공식 기억(official memory))와 일치한다. 많은 경우 집단 기억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교과서에 실리면서 공식적 역사의 정당성을 획득한다.<sup>24)</sup>

분단 한반도에서 집단기억은 적대세력의 야만성과 그와 비례하는 우리편의 희생으로 대표된다. 그것은 분단 일방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현실 양 측면을 정당화 해주는 토양이자 근거로 작용한다. 상대가 행한(것으로 기억되는) 반인간적인 행위가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쟁이 잉태한 다양한 적대의 식과 이분법적 판단은 사회 내 경쟁세력을 배제, 제압하는데 유용한 정치심리적 기제로 활용가능하다. ‘빨갱이’와 ‘반동분자’가 그 대표적인 상징이자 실제이다.

## (2) 고착화된 갈등사회의 사회적 신념

고착화된 갈등속의 개인은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념체계를 형성한다. 사회적 신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계관으로 인간이 갈등에 대한 장기적인 맥락을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체계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념의 한 유형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sup>25)</sup> 이념으로서, 고착화된 갈등의 사회적 신념은 사회 구성원의 조직된 행위를 지휘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기반을 대표하고 사회 지도자가 만든 의사 결정, 사회 제도의 발전, 그 기능의 방향을 제시한다. 즉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묶고 현재와 목표 그리고 열망을 연결하여 미래로 추동할 수 있는 힘을

---

24)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p. 1436.

25) Daniel Bar-Tal et al., "Ethos of Conflict: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8, no. 1 (2012), pp. 41~43.

부여하며, 사회적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고착화된 갈등의 맥락은 보수적인 심리적 경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극도의 불확실성하에서 발전하는 세계관은 변화에 저항하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sup>26)</sup> 아무리 혐오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다른 상태보다 더 쉽게 예측되고 상상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현상변경보다 현상유지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sup>27)</sup> 견디기 힘든 고착화된 갈등이지만 익숙해져 버린다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 보수적 이념이 발전하게 된다. 고착화된 갈등 사회가 발전시키는 이념은 적과 타협을 하기까지 생기는 잠재적인 위협과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상황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조하게 된다.

고착화된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신념체계가 큰 틀에서 8개의 상호 연관된 사회적인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먼저 자신의 목표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나와 우리 집단의 목표에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반면 적대적 집단의 목표를 부정하고 불법화한다. 목표의 정당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핵심 동기 역할을 하게 된다.

안보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고착화된 갈등 하에서 위협, 위험, 난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안보에 대한 신념의 가장 큰 목표는 생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위협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

26) Michael A. Hogg, "Uncertainty and Extremism: Identification with High Entitativity Group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in *The Psychology of Group Perception: Perceived Variability, Entitativity, and Essentialism*, eds. Vincent Yzerbyt et 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4), pp. 401~418.

27) Daniel Bar-Ta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p. 75.

28)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p. 937~938.



구성원을 동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긍정적이고 집단적인 자아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긍정적인 특징, 가치, 규범, 행위 패턴은 자신의 사회로 귀속시키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용기, 영웅심, 인내, 도덕심, 공평함, 신뢰, 진보 등이 대표적인 긍정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은 내 집단과 적대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도덕적 힘과 우월성을 가진다.

적을 불법화하는 사회적 신념은 적대 집단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의 경계 밖에 있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시민/인권을 누릴 가치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 특히 적을 불법화, 비인간화하는 신념은 적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된다.

애국심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충성, 사랑, 보살핌, 희생을 전파하여 국가와 사회에 애착을 강조한다. 애국심은 사회 결집과 헌신을 고취시키고 갈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특히 애국심은 집단을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 구성원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일치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적에 대항하여 하나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념은 사회를 강화시키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개발하며,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가 그 힘과 에너지를 적에 대항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다.

평화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평화를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긴다. 이러한 신념은 희망과 낙관론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평화에 대한 신념은 구체적이고 삶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 어둠이 깊은 터널 끝을 의미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희생자화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적이 자행한 부당한 손해, 악의적 행동,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어 나 자신을 적대 집단의 궁극적 희생자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자화에 대한 사회적 신념은 국제 사회로부터 도덕, 정치, 물리적 지원을 요청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고착화된 갈등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이 희생자라고 경쟁하게 되는 이를 경쟁적 희생자(competitive victimhoodness) 현상이라고 부른다.<sup>29)</sup> 경쟁적 희생자 현상은 고착화된 갈등의 해결에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는 상황은 화해의 핵심요소로 간주되는 ‘정의(justice)’와 ‘진실(truth)’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착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신념은 분쟁 적대세력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를 군사화, 일원화, 동원화 하는데 유용하다. 전쟁을 치른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을 바탕으로 충성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단결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경쟁적 희생자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고착화 된 사회에서의 신념은 분쟁세력들 사이는 물론 한 사회 내 경쟁세력 간에도 희생자다움의 경쟁을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호명한다. 즉 분단 한반도에서 사회적 신념은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오심, 공포감 같은 고착화된 갈등의 정서는 그런 사회적 신념의 자양분 역할을 한다. 그 경우 개인은 집단의 성원일 때 갈등의 정서가 증폭되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검열이나 소외의 형태로 소극적일 수 있다.

---

29) Masi Noor et al., “When Suffering Begets Suffering: The Psychology of Competitive Victimhood between Adversarial Groups in Violent Confli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6, no. 4 (2012), pp. 351~374.

### (3) 고착화된 갈등의 정서

고착화된 갈등 사회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증오(hatred, 절망(desperation), 두려움(fear) 등 일련의 감정 상태를 경험, 발전시킨다.<sup>30)</sup> 개인과 집단의 신념, 태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상태는 증오이다. 증오는 악의, 반감, 증오의 대상을 기꺼이 해치거나 심지어 제거하려는 마음으로 구성된 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향해 갖는 적대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증오는 외집단의 행위를 뿌리깊고 영속적인 악의 캐릭터에서 나왔다는 신념에서 발생한다. 그 결과, 증오는 적의 긍정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기대와 연결되고, 종합적으로 갈등의 계속성과 고조에 기반이 된다. 특히 단기적인 갈등관련 사건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자동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갈등을 악화시키는 정서적 근간이 된다. 더 나아가 증오가 집단 기준의 분노를 수반하고 그러한 감정이 갈등 발발 단계를 지배할 경우, 그 결과는 보다 더 파괴적이다.<sup>31)</sup>

두려움은 환경이 생존에 위협과 위험이 되는 상황에서 적응을 위한 핵심적인 회피 감정이다. 두려움은 생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의 조합이다. 증오가 갈등 상태에 있는 적을 바라보는 감정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면, 두려움은 폭력의 악순환을 깨려는 시도를 봉쇄한다. 갈등으로 인한 위협과 위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은 위협에 예고하는 신호에 지나

---

30) Eran Halperin, Keren Sharvit and James J. Gross,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ergroup Conflict: An Appraisal-Based Framework," in *Intergroup Conflicts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ical Press, 2011), pp. 83~103.

31) Eran Halperin et al., "Promoting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by Changing Beliefs About Group Malleability," *Science*, vol. 333, no. 6050 (2011), pp. 1767~1769.

치게 예민해지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끊임없는 준비태세를 유지한다.<sup>32)</sup> 두려움 신호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예민 상태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갈등과 관련한 이전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들고, 갈등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안을 생각하거나 위협을 감수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 안심할 수 있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위협을 감수하기 보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것을 선호한다.

#### 다.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마음의 기능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생성된 집단적 기억, 8가지 사회적 신념, 그리고 정서(이하 갈등의 마음)의 역할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sup>33)</sup> 먼저 갈등의 마음은 심리적 통제감을 제공함으로써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생기는 불확실성,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능을 한다. 갈등의 마음은 갈등의 의미(sense-making)를 제공한다. 갈등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는 갈등의 미래를 예측가능하게 하며 이는 개인에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와 같은 심리적 통제감을 부여한다. 고착화된 갈등속의 개인은 갈등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통제감을 바탕으로 갈등속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둘째, 갈등이 마음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적에 대처하는 내-집단의 행동(폭력과 파괴 포함)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집단 구성원이 적에 대하여 악행이나 의도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제도화할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는 집단

---

32) Maria Jarymowicz and Daniel Bar-Tal, "The Dominance of Fear over Hop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Collectiv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6, no. 3 (2006), pp. 367~392.

33)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pp. 1440~1443을 요약하였다.

구성원이 느낄 수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인간은 본래 타인에게 거리낌 없이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생명의 존엄성이야 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처 입히는 것은 도덕률을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갈등의 마음은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위의 원인을 적대적 집단이 행한 폭력과 외부 상황적 요인 탓으로 돌리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셋째, 갈등의 마음은 차별성과 우월감을 만들어낸다. 갈등의 마음은 상대 집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신을 갈등의 유일한 피해자로 묘사한다. 고착화된 갈등에 휘말린 집단들은 자신의 목표를 정당하다고 보고 스스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분쟁 발발과 지속의 모든 책임을 상대 집단에 돌린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상대측의 폭력, 잔혹행위, 잔인함, 인명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 부족, 악랄함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상대를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라 묘사하고, 갈등해결에 비협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상식선에서 한참 벗어난 비도덕적인 존재로 본다. 이러한 갈등의 마음은 폭력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수행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월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 갈등의 마음은 사회 구성원이 잠재적인 위해와 지속적인 폭력적 대립을 알려주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위협 신호에 기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갈등의 마음은 경제적인 예측성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이 긴장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바탕 중 하나가 된다.

다섯째, 갈등의 마음은 결속력, 동원, 행동에 동기를 불어넣는 기

능을 한다. 두려움, 증오, 또는 분노와 같은 집단의 감정은 집단의 자긍심과 합쳐져서 연대감, 결속력,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결속력과 통일성은 위협을 완화하는 핵심이 된다. 더 나아가 적을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노력과 자원을 쏟아내야 할 필요성을 상기하고 적이 과거에 행한 폭력을 되갚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만든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가 과거에 자행한 폭력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암시는 사회 구성원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결속력을 다지고 잠재적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폭력 행위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 라. 고착화된 갈등의 문화

지금까지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 그리고 집단의 마음의 작용을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그리고 정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고착화된 갈등의 마음은 폭력적 갈등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요구하는 생존을 위한 과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기도 한다. 이러한 고착화된 갈등의 마음과 경험이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상징으로 통합될 때 ‘갈등의 문화’가 시작한다.<sup>34)</sup> Bond는 문화를 “삶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한 그룹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신념 (사실 인 것), 가치 (중요한 것), 기대, 특히 짜여진 행동 순서 및 행동의 의미 (주어진 행동에 관여하여 내포되는 것)에 대한 공유된 체계... 특히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으

---

34) Daniel Bar-Ta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p. 75.

며 가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을 줄이고 문화 구성원 간의 의미 전달 및 행동 조정을 향상시키는 체계”로 정의하였다.<sup>35)</sup> Bond의 문화에 대한 논의는 분쟁의 문화, 갈등의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착화된 갈등 속에서의 상징들은 장기적이고 폭력적인 갈등의 맥락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36)</sup> 이러한 상징은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지배적인 요소가 된다. 갈등이 현재의 현실, 과거, 미래의 목표, 그리고 허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갈등의 문화는 갈등이 삶의 방식인 문화를 말한다. 갈등은 집단의 주된 동기를 부여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제시되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공적 사적 절차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갈등의 문화는 ‘나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변화시킨다. 나의 존재 이유, 집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sup>37)</sup> 개인의 차원에서 갈등은 정체성과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의 정의와 정체감의 수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집단의 차원에서 공동 운명체라는 공유된 감정, 독특함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공유된 신념 범위 내에서의 활동 조정, 집단의 안녕에 대한 염려, 집단을 대표하는 동원에 대한 준비태세 등과 같은 사회전반적 체계에 영향

---

35) Michael Harris Bond, “Culture and Aggression—from Context to Coerc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8, no. 1 (2004), p. 62.

36) Daniel Bar-Tal, Eran Halperin and Joseph de Rivera, “Collective Emotions in Conflict Situations: Societal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3, no. 2 (2007), pp. 441~460.

37)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pp. 939~940.

을 미친다.<sup>38)</sup>

고착화된 갈등의 문화는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먼저 집단적 기억과 사회적 신념, 그에 동반되는 감정이 사회 구성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사회 구성원은 이러한 어린 시절부터 서사를 사회화의 일부로 획득하고 저장한다. 둘째, 제도화는 갈등의 서사가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것이 되어 일상생활의 대화 주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중 매체의 사회 채널을 통해 대중 담론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지도자의 결정, 정책, 일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도 종종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의식, 기념, 추모 등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셋째, 갈등 문화는 문학 서적, TV, 영화, 극, 연극, 시각예술, 기념물 등과 같은 문화 생산물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사회의 문화적인 서사가 되어 사회적 관점을 전달하고 사회 구성원의 믿음, 태도, 감정을 정립한다. 이러한 채널을 통해 널리 전파되고 대중의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문화는 학교, 심지어 고등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나타나면서 사회화의 도구로 활용된다. 제도화의 요소는 교육용 교과서에 제시되는 믿음이 젊은 세대 모두에게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교육용 교과서는 인지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실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인식된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교육이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새로운 세대는 그러한 서적에 노출되고 교육받게 된다.<sup>39)</sup>

---

38) Ohad David and Daniel Bar-Tal, "A Sociopsychological Conception of Collective Identity: The Case of National Identity as an Examp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 4 (2009), pp. 361~369.

39) Daniel Bar-Ta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p. 76.



이러한 과정들은 고착화된 갈등 사회가 갈등을 지지하는 서사를 유지하고 그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서사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갈등을 유지하고 평화로의 전환을 막는 갈등문화의 첫 번째 기제는 애국심의 독점이다. 갈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의 지배층은 집단적 기억을 진정한 애국심을 반영하는 유일한 이념으로 위치시킨다. 이 경우 이 이념을 받아들인 사회 구성원만이 애국자로 간주되며, 같은 민족으로 동일한 국가에 있으나 이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구성원은 비애국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애국심의 독점은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구성원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은 민족과 국가뿐 아니라 이념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충성심을 나타내야 한다.

애국심이 독점될 때, 특히 권력을 가진 집단이 독점 할 때, 사회 구성원들은 비애국자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응할 것이다. 갈등과 적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집단 구성원은 이를 숨기기를 선호할 수 있는데 “비애국자”라는 꼬리표 자체가 사회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문화는 준수, 내면화 또는 식별 과정을 통해 개인의 관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up>40)</sup>

갈등의 문화의 두 번째 기제는 자기 검열이다.<sup>41)</sup> 자기 검열은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에 반하는 정보 및 서사가 사회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혹여 침투하더라도 거부당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대안적 정보를 무시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 자기 검열의 기제는 먼저 공식 및 비공식 사회 기관 (예: 부처 및 언론)의 선택적 정보 제공을 통해 나타난다. 이 기관들은 지배적인 갈등-지지적 서사를 유지하

---

40) *Ibid.*, pp. 79~80.

41) *Ibid.*, pp. 84~85.

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갈등에 도전하는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지지적 기관들은 검열을 통해 갈등-지지 서사에 도전하는 다양한 것 (예: 신문 기사, 문화 채널 및 공식 출판물)에서 정보 공개 자체를 금지시키기도 한다. 문화적 차원에서 자기 검열 기제는 내부의 정보의 검열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예: 학교 교과서, NGO 보고서, 대중 매체 뉴스, 학자 연구 등)에 배포되는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만일 갈등의 문화에 반하는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경우 정보, 그리고 정보의 출처(개인 또는 단체)를 신뢰할 수 없고 내집단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묘사한다. 보통은 그러한 정보를 유포하는 개인 및 조직을 비합법적, 비인간적으로 묘사한다.<sup>42)</sup>

갈등의 문화 속에서는 개인과 단체가 갈등의 서사에 도전하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재는 공식·비공식적 제재, 사회적·물리적·경제적 제재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제재는 갈등의 서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반대로 갈등의 서사를 지지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 역시 갈등의 문화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당국은 서사를 뒷받침하는 정보, 지식, 예술 및 기타 제품을 제공하는 정보통을 보상하고 장려한다. 예를 들어 대중 매체의 경우, 특정 기자에게 독점적 정보 또는 인터뷰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적 상품의 경우, 작가 또는 화가는 분쟁의 문화를 지지하는 창의적인 작품으로 상을 받을 수 있다. 목표는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혜택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sup>43)</sup>

42) Boaz Hameiri,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Self-Censorship as a Socio-Psychological Barrier to Peacemaking," in *Self-Censorship in Contexts of Conflict: Theory and Research*, eds. Keren Sharvit et al. (Cham, Switzerland: Springer, 2017), pp. 61~78.

43) Boaz Hameiri et al., "Support for Self-Censorship among Israelis as a Barrier to Resolving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vol. 38,

갈등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착화된 갈등의 집단적 기억, 갈등에 대한 사회적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갈등의 문화를 지속하는 사회적 검열 시스템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갈등의 갈등의 삼각형 모델을 원용한다면 갈등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관계 혹은 갈등 구조의 핵심에 있는 모순적 이해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추동하는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 4. 화해의 마음

고착화된 갈등이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로 전환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화해이다.<sup>44)</sup> 전통적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접근이 냉전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화해의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냉전기 폭력적 갈등의 행위자는 주로 국가(state)였다. 국가 간 갈등은 영토전쟁, 독립전쟁, 분리주의 운동, 내전, 개입주의 전쟁 등의 양태를 보였으며 학자와 정치가들의 관심은 양극체제와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었다. 양극체제가 무너진 후의 갈등은 인종, 정체성, 마약, 종교, 경제, 인구, 난민, 식량, 환경 문제 등 전통적 국가 중심의 갈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형태를 띠었다.<sup>45)</sup> 즉 탈냉전기에는 국가 간 갈등이 아닌 국가 내에

---

no. 5 (2017), pp. 798~799.

44) Yaacov Bar-Siman-Tov, "Israel-Egypt Peace: Stable Peace?," in *Stable Peace among Nations*, eds. Arie Kacowicz et al. (Bould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p. 237.

45) Daniel J Christie, Richard V Wagner and Deborah Du Nann Ed Winter, "Introduction to Peace Psychology," in *Peace, Conflict, Violence: Peace Psychology for the 21st Century*, eds. Daniel J Christie et a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001), pp. 11~12. 본 연구는 <<https://u.osu.edu/christie/>

서 종족 간 혹은 정체성이 다른 그룹 간 갈등의 빈도, 강도, 치명성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국가 내의 갈등, 비 국가 행위자 간 갈등은 외교적 합의나 전략적 협의만으로는 완전히 종결짓기 어렵다.

특히 냉전 이후 발생한 세 사건은 갈등해결 접근에 대한 기대를 더욱 위협하였다. 먼저 보스니아(1992-1995)나 소말리아 (1992-1993) 사례에서 관찰된 전쟁의 산업화, 그리고 전통적 갈등해결 접근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2000년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 마지막으로 9.11 테러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 직면한 갈등해결 접근의 해법은 무기력해 보였다.<sup>46)</sup>

탈냉전기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갈등해결 접근 연구자, 특히 화해 연구자들은 공식적인 평화 협정이 진정한 평화적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들은 과거의 적이 경제·정치 기제를 생성하고 상호 의존성과 친밀감을 키우기 위한 내·외부의 제도를 수립한다고 해서 지속적인 평화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Wilmer는 “구조적 요인이 갈등을 촉발하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적 요인 하나만으로는 장기화된 폭력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도 해소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갈등 해결 과정은 지도자나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갈등이 평화협정 또는 종전협정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거나, 앙골라의 사례에서처럼

---

about/peace-conflict-and-violence-peace-psychology-for-the-21st-century/>에 제공된 문헌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페이지 정보는 출판본과 다를 수 있다.

46) Oliver Ramsbotham,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p. 7.

47) Franke Wilm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 the Former Yugoslavia,” *Social Justice*, vol. 25, no. 4 (1998), p. 93.

붕괴로 귀결되거나, 이스라엘-이집트 관계처럼 소강상태(cold peace)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UN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된 키프로스의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남키프로스 주민의 75.8%가 반대하여 통일이 무산된 사례는 정치적 합의의 한계, 그리고 화해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sup>48)</sup>

화해 연구자들은 과거의 갈등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가 있어도 사회 전반에 걸친 화해 과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화해의 진전속도가 느리다면 평화 협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9)</sup> 특히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 간 갈등은 갈등 해결 이후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수였던 상대와 안정된 평화와 상호보완해주는 협력 상태에서 만족스럽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결국 국가 간 갈등이든 국가 내 갈등이든 과거 적대적 집단의 구성원들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움에 따라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화해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Nadler와 Saguy는 전통적 갈등해결 접근과 화해 접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두 연구자들은 갈등을 국가 또는 개인 행위자가 재화, 영토, 정체성 등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불일치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였다. 전통적 갈등해결 접근은 갈등의 대상이 되는 자원을 최적으로 나누는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며 갈등의 해결은 합리적 행위자들이 충돌하는 이익을 계산하는

---

48) 김연철, 『협상의 전략: 세계를 바꾼 협상의 힘』 (서울: 휴머니스트, 2006), pp. 526~530.

49) Daniel Bar-Tal, and Gemma H Bennink, "The Nature of Reconciliation as an Outcome and as a Process,"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s.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1~12.

방식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외교를 포함한 전통적 갈등 해결 방식은 모든 갈등의 주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의 분배 방식을 도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화해는 갈등 당사자의 심리적·정서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Nadler와 Saguy는 (1) 자신만이 갈등의 희생자라는 심리와 (2) 상대에 대한 불신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직 나(우리)만이 희생자라는 인식이 지속되면 피해를 입은 나(우리)의 과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공존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면 평화를 위해 상대방이 취하는 노력을 의심하게 되고, 상대의 행위와 발언을 오해, 오인하여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Nadler와 Saguy는 오늘날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정치·군사적 합의가 심리·정서적 문제, 즉 희생자 인식과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통적 갈등 해결 접근의 가정을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보았다.<sup>50)</sup>

화해의 필요성은 현실 정치인에 의해 더 이른 시기에 제기되기도 하였다.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을 이끈 이집트의 사다트 총리는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하여 이집트와-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심리적 장벽을 언급하였다.<sup>51)</sup>

“그러나 또다른 장벽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

50) Arie Nadler and Tamar Saguy, “Reconciliation between Nations: Overcoming Emotional Deterrents to Ending Conflicts between Groups,” in *The Psychology of Diplomacy*, eds. Harvey Langholtz and Chris E. Stout (Westport: Praeger Publishers, 2004), pp. 29~46.

51) “73 Statement to the Knesset by President Sadat-20 November 1977,”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77.11.20., <<http://www.israel.org/MFA/Foreign Policy/MFADocuments/Yearbook3/Pages/73%20Statement%20to%20the%20Knesset%20by%20President%20Sadat-%2020.aspx>> (검색일: 2019.5.14.).

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의심의 장벽, 배척의 장벽, 상대에게 기만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심리적 장벽, 상대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마치 환각을 보이듯이 착각하며, 모든 사건, 발언을 오인하고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하는 심리적 장벽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문제 중 70%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장벽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화해는 무엇인가?

## 가. 화해의 정의

화해는 일반적으로 적대적 관계의 회복, 근본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비폭력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정의되며 평화 구축(peace making)과 문화적 평화 구축(cultural peace building)의 핵심이다.<sup>52)</sup> 하지만 학자들은 화해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Long과 Brecke는 화해를 과거의 적대적 집단이 폭력적 갈등을 경험한 후 미래의 폭력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기제로서 상호 평화 협정을 맺는 것으로 정의한다.<sup>53)</sup> Rosoux는 화해를 과거의 적대적 집단들이 건설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폭력의 역사를 상호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sup>54)</sup>

Dwyer는 화해를 인식론적으로 파악하였다. Dwyer는 화해를

---

52) Oliver Ramsbotham, Tom Woodhouse, and Hugh Mial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p. 286.

53) William J. Long and Peter Brecke, *War and Reconciliation: Reason and Emotion in Conflict Resolution*, p. 1.

54) Valerie Rosoux, "Reconciliation as a Peace-Building Process: Scope and Limits," in *The Sag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eds. Jacob Bercovitch et al. (London: Sage, 2007), p. 543.

(tension)와 신념의 대립,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의 대립,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의 대립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Dwyer에게 화해는 개인 혹은 국가의 삶을 좌우하는 전반적 내러티브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고 과거의 아픔을 용납하는 대립의 해소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Dwyer는 화해를 개인과 국가의 내러티브의 개정(revision)에 필요한 전략으로 정의내리며 내러티브 개정은 진실과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understanding)와 명료함(intelligibility)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sup>55)</sup> 같은 맥락에서 Asmal은 화해를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의 조화를 위해 불편한 진실에 대면하는 것으로 보았다. 불편한 진실과의 대면을 통해 불가피하게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차이를 적어도 상호 동의하는 단일한 세계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6)</sup>

Kriesberg는 화해를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상태인 공존(coexistence)과 비교하며 화해를 파괴적인 갈등/관계를 변형(transform)하는 행위,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정의하였다.<sup>57)</sup>

Staub와 Bar-Tal은 화해를 서로에게 적대적인 혹은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그룹 구성원에 의한 상호 수용 및 그러한 수용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구조 및 심리적 프로세스”라고 정의했다.

55) Susan Dwyer, “Reconciliation for Realist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no. 1 (1999), pp. 85, 96.

56) Kader Asmal, Louise Asmal and Ronald Suresh Roberts, *Reconciliation through Truth: A Reckoning of Apartheid’s Criminal Governance* (Cape Town: David Philip, 1997), p. 46.

57) Louis Kriesberg, “Coexistence and the Reconciliation of Communal Conflicts,” in *The Handbook of Interethnic Coexistence*, eds. Eugene Weiner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Company, 1998), pp. 183~184; Louis Kriesberg, “Comparing Reconciliation Action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s.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82.



그리고 “진정한 수용이란 서로에 대한 신뢰 및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 및 이익에 대한 민감성 및 고려를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sup>58)</sup> Kelman은 화해를 갈등 후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세스, 특히 정체성 변화 프로세스로 정의하였다.<sup>59)</sup> Ross는 화해를 갈등에 연루된 집단 간 관계를 도구적으로나 (instrumentally) 정서적으로나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서 두 집단 모두 화합의 미래를 더욱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sup>60)</sup> Marrow는 화해를 과거 전통적 적대집단 간 우정의 회복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정의하였다. Marrow는 신뢰구축을 위해 상대의 요구에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Marrow는 신뢰 형성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였다.<sup>61)</sup>

Feldman은 화해를 제도를 통하여 과거 적대 관계였던 국가 간에 우호, 신뢰, 공감, 포용 등 감정의 발전을 통해 장기적인 평화를 구축해 가는 과정으로 종교적·정서적 차원과 실천적·물질적 측면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Feldman은 화해를 역사, 제도, 리더십과 국

---

58) Ervin Staub, and Daniel Bar-Tal, “Genocide, Mass Killing and Intractable Conflict: Roots, Evolution,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732~733.

59) Herbert C. Kelman,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eds. Arie Nadler et 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24~27.

60) Marc Howard Ross, “Ritual and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s.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00~202.

61) Duncan Morrow, “Seeking Peace Amid the Memories of War: Learning from the Peace Process in Northern Ireland,” in *After the Peace: Resistance and Reconciliation*, eds. Robert L. Rothstei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9), p. 132.

제관계의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Feldman은 화해 중인 집단은 완전한 조화나 갈등이 없는 공존과 같이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차이를 통합하는 건설적 다양성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2)</sup> 엘리자베스 콜은 화해를 “화해란 한 국가와 그국가의 기구들이-적어도 이론적으로는-더 안정되고 공정한 사회 질서로 나아가는 과도기와 그 시기의 고유한 필요를 가리키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up>63)</sup> 천자현 역시 화해의 주체를 국가로 보았다. 천자현은 화해를 “국가 간 적대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국제정치적 과정”으로 보았다.<sup>64)</sup>

전술한 화해에 대한 정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이 이상적이며 규범적이라는 측면에서 최대주의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화해를 최소주의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Maoz의 접근은 적대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 갈등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oz는 화해를 개인, 집단, 사회, 국가가 갈등의 상황에서 협력, 양보, 평화의 관계를 수용하게 만드는 인지적·정서적 과정의 복합체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Maoz는 화해를 개인과 집단이 갈등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전환되며 겪는 심리적 프로세스와 정치적, 구조적 과정을 수반하는 관계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Maoz는 “현 상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명백히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적대적 대상과 협력을 기초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심리적 의지”를 화해에 대한 최소주의적 정의라고 제안하였다.<sup>65)</sup>

62) Lily Gardner-Feldman,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Reconciliation’ in German Foreign Policy: Relations with France, Israel,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2 (1999), pp. 336~337.

63) 엘리자베스 콜 엮음, 김원중 옮김,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 아픈 과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p. 10.

64)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권 2호 (2013), p. 14.

## 나. 화해의 한계

화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화해의 개념은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sup>66)</sup> 모호하고 논쟁적인 개념이며,<sup>67)</sup> 정교하지 않는 분석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sup>68)</sup> Bloomfield는 화해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화해에 관한 합의된 이해(understanding)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굳어졌다고 꼬집고 있다.<sup>69)</sup> Galtung 역시 화해가 심리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철학적인 주제로서 인간 심연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구도 화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화해 개념의 모호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sup>70)</sup> 또한 화해가 평화구축과 평화조성에 필요조건인지, 실제로 평화조성과 평화구축 과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화해를 촉진하였는지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에 그 누구도 답변을 못한다고 보았다.<sup>71)</sup>

---

65) Ifat Maoz,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Reconciliation,"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s.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25~226.

66) William J. Long and Peter Brecke, *War and Reconciliation: Reason and Emotion in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MIT Press, 2003), p. 147.

67) Tuomas Forsberg,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Dealing with the Past," in *Burying the Past. Making Peace Doing Justice after Civil Conflicts*, eds. Nigel Biggar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p. 73.

68) Tamar Hermann, "Reconciliation: Reflection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Term,"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s.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40~41.

69) David Bloomfield, *On Good Terms: Clarifying Reconciliation* (Berlin: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ve Conflict Management, 2006), p. 4.

70) Johan Galtung, "After Violence,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in *Reconciliation, Justice Coexistence: Theory & Practice*, eds. Mohammed Abu-Nimer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p. 4.

화해에 대한 Susan Dwyer의 비판은 보다 직접적이다.

“화해란 무엇인가? 화해는 사과와 용서를 통한 목표 상태인가? 또는 화해는 사과와 용서가 포함된 과정인가? 아니면 화해는 사과와 용서와 완전히 별개인 무엇인가? 화해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화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상하게도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화해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sup>72)</sup>

또한 Dwyer는 화해가 전범에게도, 인권유린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도, 자기 자신을 역사와 왜곡된 사회체제의 억압과 지배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등 갈등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는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화해가 정의를 실현하는 전통적 사법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모면하거나 모른척하기 위한 면피용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73)</sup>

이렇게 화해의 의미가 모호한 이유 중 하나는 “화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화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 것을 화해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해 그 자체에 대한 경험은 없다. 또한 “화해”라는 단어가 과정과 결과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자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 화해한 집단 간 현실과 바라는 목표를 의미하는지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해의 범위 및

---

71) Arie Nadler,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291~292.

72) Susan Dwyer, “Reconciliation for Realists,” p. 82.

73) *Ibid.*, p. 82.

화해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이 문화마다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정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해 개념의 모호성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다차원성에서 비롯되었다. 화해라는 개념은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서 출발했다.<sup>74)</sup> 갈등은 갈등의 역사·사회적 배경, 갈등의 주체,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의 지속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갈등에 적용되는 보편적 해결원칙이 도출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갈등의 배경, 주체, 원인 등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목표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화해는 갈등의 공식적 종료를 넘어 갈등을 경험(한)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의 심리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개념적 정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은 심리적·정서적 성격을 가지는 화해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sup>75)</sup> Mouffe와 같은 정치 이론가들은 정치적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단지 적대적인 관계에서 논쟁적인 관계로, 싸움 대신 정치 시스템 내에서 제약 받을 수 있는 대립된 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등 후 평화구축 과정 초기단계에서 화해를 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고,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는 갈등 당사자 간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해결 범위도 넓어진다는 갈등 해결에 대한 “접촉 가설”에 대한 논쟁과도 관계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가 아닌 분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일

---

74) 갈등해결 연구와 화해 연구의 역사는 Oliver Ramsbotham,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pp. 38~67를 참고하면 된다.

75) 화해에 대한 국제정치학의 시각은 김학성, “중오와 화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1권 1호 (2011), pp. 7~31;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권 2호 (2013), pp. 7~28을 참고하면 된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76)</sup>

## 다. 화해에 대한 체계적 접근

Bar-Tal과 Bennink은 화해와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화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과 화해(reconciliation)를 비교하였다. 갈등 해결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 방법,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갈등해결의 수단은 협상, 합의, 조정, 중재를 포함하며, 갈등해결의 최종목표는 상호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안에 양 당사자의 서명을 담은 협정을 맺는 것이다. 반면 화해는 공식적인 갈등 해결 의제를 넘어서 갈등, 당사자 간 관계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측면에서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동기, 목표, 믿음, 태도, 감정으로 비교하였다.<sup>77)</sup>

화해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 생기는 모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해의 의미를 체계화하는 노력들 역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Galtung은 화해를 12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sup>78)</sup>

### 1. 면죄부 접근 (The exculpatory nature-structure-culture approach)

- 모든 사람(집단)이 피해자임을 강조

---

76) Oliver Ramsbotham,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pp. 286~287.

77) Daniel Bar-Tal, and Gemma H Bennink, "The Nature of Reconciliation as an Outcome and as a Process,"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s.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11.

78) Johan Galtung, "After Violence,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pp. 3~23.

2. 배상/보상 접근 (The Reparation/Restitution Approach)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히는 폭력을 중시하고 유무형의 배상과 보상을 제공
3. 사과/용서 접근 (The Apology/Forgiveness Approach)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
4. 종교/참회 접근 (The Theological/Penitence Approach)
  - 피해자, 자신(self), 신에 대한 죄책감을 강조, 가해자 중심 접근(기독교적 접근)
5. 재판/처벌 접근 (The Juridical/Punishment Approach)
  - 체포-자백-처벌-재활의 과정 강조
6. 연기/업보 접근 (The Codependent Origination/Karma Approach)
  - 모든 사람이 가해자(불교적 전통)임을 강조
7. 역사/진실추구 접근 (The Historical/Truth Commission Approach)
  - 용서하기 위해 사실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
8. 진실/공개 접근 (The Theatrical/Reliving Approach)
  -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
9. 공동의 슬픔/힐링 접근 (The Joint Sorrow/Healing Approach)
  -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 기념일, 기념공간을 강조
10. 공동재건접근 (The Joint Reconstruction Approach)
  - 갈등집단이 함께 재건하는 것을 강조
11. 공동문제해결접근 (The Joint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 갈등집단, 특히 정치적 엘리트에 의한 협상과 문제 해결
12. 호오포노포노 접근 (The Ho' O ponopono Approach)
  - 위에 말한 모든 요소들의 복합적 적용

Galtung은 화해의 목적, 과정, 결과 등 화해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구분했지만, 오히려 12개에 이르는 구분은 화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화해의 목표, 즉 갈등 중인 집단이 도달하려는 상태에 따라 화해를 구조화하려는 접근이 있다. Ross는 화해를 강한 버전(strong version)의 화해와 약한 버전의 화해(weak version)로 구분하였다. 강한 버전의 화해는 두 적대집단(적)간 관계의 완전한 변화, 변혁(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약한 버전의 화해는 두 적대집단(적)간 건설적인 관계가 증가하고 폭력이 종식될 정도의 충분한 변화를 의미한다.<sup>79)</sup> 같은 맥락에서 Croker는 국가내 화해에 있어 얇은 수준(thinner)의 화해, 중간수준의 화해, 두꺼운 수준(thicker)의 화해를 제안하였다. 얇은 수준의 화해는 과거의 적대 집단이 서로를 죽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을 준수하는 상태, 즉 공존의 상태를 의미한다. 중간수준의 화해는 과거의 적대 집단이 많은 쟁점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적대성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비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수준의 화해는 용서, 정의보다는 자비, 공통의 비전, 상호 치유,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의미한다.<sup>80)</sup> Ramsbotham, Miall 그리고 Tom Woodhouse는 화해의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라 화해를 구분하였다. 그들은 정치인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얇은(shallow) 화해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구성원이 관여하는 깊은(deep) 화해를 구분하였다.<sup>81)</sup> Ross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평화의 비전에 따라 화해의 과정과 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통합(integration)

79) Marc Howard Ross, "Ritual and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p. 200.

80) David A. Crocker, "Reckoning with Past Wrongs: A Normative Framework,"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1999), pp. 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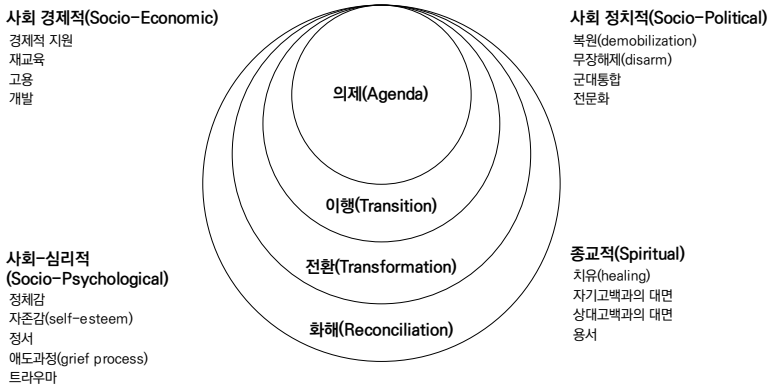
81) Oliver Ramsbotham,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p. 288.



을 원하는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처럼 영토나 정치 권력의 분리를 원하는지, 북아일랜드와 같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다원주의를 원하는지, 또는 민주주의 국가 형성을 원하는지에 따라 화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sup>82)</sup>

또한 화해를 체계화하는 노력으로 화해의 필요 조건에 따른 분류적 접근이 있다. 먼저 Lederach는 화해를 사회경제적 측면, 사회정치적 측면, 사회-심리적 측면, 그리고 종교적 측면으로 구분했으며 <그림 I-1>에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sup>83)</sup>

<그림 I-1> Lederach의 화해 모형



Hermann은 화해를 인지적(cognitive) 화해, 정서-종교적(emotional-spiritual) 화해, 그리고 절차적(procedural) 화해로 구분하였다. 화해의 인지적 측면은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적대적 집단, 그리고 적대적 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내집단의 본질에 대한 동기, 목표, 신념, 태도,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82) Marc Howard Ross, "Ritual and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p. 209.

83) John Paul Lederach, "Beyond Violence: Building Sustainable Peace," in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Company*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Company, 1998), p. 243.

화해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엘리트보다 일반 국민들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상향식 접근이며, 새로운 인지적 틀을 적대적 집단이 공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점진적인 접근이다. 화해의 정서-종교적 접근은 인지적 접근을 넘어 참회(repentance)와 용서(forgiveness)를 화해의 핵심 소로 간주하면서 종교적-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용서를 고백-참회-용서-화해로 이어지는 종교적 행위의 필수요소로서 화해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정서-종교적 화해는 일반화가능성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슬람과 유대교, 불교와 같이 비기독교 문화에서 용서는 화해의 필수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적대적 집단들 모두 희생자인 갈등 상황에서는 각각 상대가 참회를 하고 자신들이 용서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용서의 역할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절차적 화해는 화해를 이루는 수단에 초점을 둔다. 절차적 화해는 엘리트 간의 협상, 일반 국민과의 접촉, 진실과 화해 위원회 등 집단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는 공식/비공식 절차에 초점을 둔다.<sup>84)</sup>

Lederach는 진실(truth), 자비(mercy), 정의(justice), 평화(peace)를 화해의 수단 또는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진실은 과거에 대한 투명한 조사, 고통스러운 과거의 인정과 관련이 있으며, 자비는 진실의 수용, 연민, 용서, 수용과 관련이 있다. 정의는 과거의 교정, 보상과 배상, 사회적 재구조화와 관련이 있고 평화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up>85)</sup> Kriesberg는 화해를 위해 진실, 정의, 존중(regard), 안보(security)가 중요하

84) Tamar Hermann, "Reconciliation: Reflection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Term," pp. 44~45.

85) 존 폴 레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하여)』 (서울: 후마니타스, 2012), p. 56.

다고 보았다. Kriesberg는 진실을 적대적 집단 간간 과거 일어났던 일과 현재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공유되는 믿음이 발전하는 것, 정의를 부당하다는 인식의 감소, 존중은 적대국 사람의 인간성과 정체성의 인정, 안보는 물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인식으로 제시하였다.<sup>86)</sup>

Kriesberg가 제시한 화해의 요소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Lederach가 제시한 화해의 요소와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Kriesberg는 진실을 ‘믿음’으로 표현하였다. 믿음이라는 주관적 인식의 관점에서 화해의 요소를 바라본 Kriesberg이 견해는 Ross와 일치한다. Ross는 진실을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해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Ross에게 진실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적 기억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 정서(두려움)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개인과 집단의 두려움을 없애는 공통의 기억을 만드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주관성과 객관성의 긴장은 안보에도 적용된다. 적대적 집단이 평화협정이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보위협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주관적인 위협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화해를 위한 안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된다.

화해 요소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진술한 진실, 정의, 안보, 존중 등이 화해를 촉진하는 수단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진정 화해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sup>87)</sup> 관련하여 진실은 가해자의 화해 의도를 촉진하지만 피해자

---

86) Louis Kriesberg, "Comparing Reconciliation Action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pp. 83~85.

87) Oliver Ramsbotham,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pp. 294~295.

의 화해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험적 결과도 보고되었다.<sup>88)</sup> 화해 요소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쟁점, 전술한 화해의 요소들이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Lederach와 Kriesberg는 공통적으로 화해의 개별 요소만으로는 화해를 이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해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추구될 때 화해는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Lederach는 진실만을 추구할 때의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진실이 없다면 갈등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낸 채로 나약하고, 어찌면 쓸모없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sup>89)</sup>

Lederach는 특히 자비와 진실이, 평화와 정의가 함께 추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90)</sup> Kriesberg 역시 화해의 네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계적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오히려 화해 과정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네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sup>91)</sup> Kriesberg는 화해의 요소를 추구하는 순서에 주목하였다. 특히 국가 내 갈등과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추구할 화해의 순서가 다르다는 Kriesberg의 주장은 주목할만하다. 국가 내 갈등의 경우 상호 존중

---

88) James L Gibson, “Does Truth Lead to Reconciliation? Testing the Causal Assumption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2 (2004), pp. 201~217.

89) 존 폴 리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하여)』, p. 55.

90) 위의 책, 57.

91) Louis Kriesberg, “Comparing Reconciliation Action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p. 86.

-진실-정의-안보의 조합이 일반적이며 국가 간 갈등의 경우 안보가 다른 모든 요소에 우선하며 존중, 정의, 진실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sup>92)</sup>

화해를 체계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화해를 일련의 과정으로 가정하고 시간의 순서로 화해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Rouhana는 화해가 갈등타결(conflict settlement),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화해(reconciliation)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표 1-1).<sup>93)</sup> Kelman 역시 Rouhana의 구분을 지지하며 세 과정의 메커니즘의 차이를 강조하였다.<sup>94)</sup> 갈등타결은 준수(compliance)에 의해 작동되는데 준수란 상대방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갈등타결에서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상과 처벌에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미치는 물질적인 혹은 심리적인 자원) 대한 행위자의 통제권이다. 갈등해결은 동일시(Identification)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동일시는 바람직한 관계 및 그 관계에 입각한 자기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화해는 내재화(Internalization)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내재화는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 체계와 조화됨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Nadler 역시 Rouhana와 Keman의 구분에 동의하면서 각각의 과정이 목표하는 변화의 본질에 주목하였다. Nadler은 갈등타결을 구조적 화해(structural reconciliation), 갈등해결을 신뢰구축 화해

---

92) *Ibid.*, p. 108.

93) Nadim N. Rouhana, "Group Identity and Power Asymmetry in Reconciliation Processes: The Israeli-Palestinian Case,"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0, no. 1 (2004), p. 34.

94) Herbert C. Kelman,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pp. 19~27.

(trust-building reconciliation), 화해를 사회-정서적 화해(socio-emotional reconciliation)로 재개념화하였다. 먼저 구조적 화해는 정치, 법,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한다. 관계적 화해는 신뢰회복을 통해 상호 불신과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상대 집단과 반복적으로 긍정적, 친밀적, 동등한 협력적 접촉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적 화해는 당사자간 집단 정체성에서 갈등 관련 위협(conflict-related threat)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서 갈등 관련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집단 간 갈등은 완벽하게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1-1〉 Rouhana, Keman, Nadler의 갈등타결, 갈등해결, 화해의 차이

|              | 갈등타결               | 갈등해결                    | 화해                       |
|--------------|--------------------|-------------------------|--------------------------|
| 목표           | 공식적 합의             | 원칙에 입각한 타협              | 역사적 화해                   |
| 행위 주체        | 정부                 | 엘리트                     | 사회                       |
| 평화의 성격       | 관련 없음              | 지속가능한 평화                | 공극적 평화                   |
| 미래 관계 성격     | 합의 준수              | 건설적 관계                  | 좋은 관계                    |
| 상호 인정        | 관련 없음              | 중요                      | 핵심                       |
| 요구조건         | 힘의 균형              | 기본적 욕구                  | 정의                       |
| 진실규명         | 무시                 | 비본질적 과제                 | 핵심 과제                    |
| 역사적 책임       | 무시                 | 비본질적 과제                 | 핵심 과제                    |
| 정치·사회적 재구조화  | 무관                 | 상당한 변화                  | 중대한 변화                   |
| 메커니즘(Kelman) | 준수<br>(compliance) | 동일시<br>(Identification) | 내재화<br>(Internalization) |
| 메커니즘(Nadler) | 법률과 제도             | 접촉을 통한 신뢰회복             | 정체성의 변화                  |

Nadler는 정체성 관련 위협을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희생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대한 자기지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희생자 집단은 가해자 집단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가해자

집단은 자신들을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집단으로 자신을 정체화한다는 것이다. Nadler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와 용서의 사회적 교환을 통해 정체성의 변화가 화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였다.<sup>95)</sup>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갈등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갈등의 당사자 모두 자신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이 갈등이 희생자라는 정체성의 변화, 즉 자신이 갈등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정체성의 변화가 중요하다.

Nadler과 그의 동료들은 특히 신뢰구축 화해와 사회-정서적 화해에 주목하였다. 신뢰구축 화해와 사회-정서적 화해는 초점의 시기, 변화의 본질, 화해의 목표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뢰구축 화해는 현재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뢰구축 화해는 과거의 고통은 묻어두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협력을 강조한다. 반면 사회-정서적 화해는 과거에 초점을 둔다. 과거의 고통의 책임을 분명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가정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용서를 하는 것이 화해의 기반인 것이다. 변화의 본질에 있어 사회-정서적 화해는 사과와 용서의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적대적 관계가 즉각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반면 신뢰구축 화해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신뢰구축 과정이 반드시 서로에 대한 소위 “진정성 있는 심리적 전환(psychological transformation)”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익의 교환에서 시작하는 학습과정으로 보았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상호의 이익의 교환, 제로섬 인식의 극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신뢰구축 화해의 목표는 공

---

95) Arie Nadler,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pp. 293~301.

존인 반면 사회-정서적 화해의 목표는 통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adler과 그의 동료들은 신뢰구축 화해가 없이는 사회-정서적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구축 화해가 사회정서적 화해에 선행한다고 보았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과와 용서는 상대의 정치적 책략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96)</sup>

Rosoux는 화해의 과정을 구조적 접근, 사회-심리적 접근, 그리고 종교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조적 접근은 적대적 집단 간 안보 보장, 경제적 의존, 정치적 협력을 우선시한다. 갈등 중인 집단은 위협 지각(perception of threat)의 완화, 그리고 위협 지각의 심각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메커니즘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인적 교류, 정부간 공식 채널 유지, 정치·경제적 의존성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기구나 조직 구성, 군비통제를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지대의 확대 등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심리적 접근은 과거의 적대적 집단 간 관계회복(rapprochement) 과정에서 인지적·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화해에 있어 사회심리적 접근은 집단 구성원의 심리 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구조적 변화가 갈등의 공식적 종결 이후 빠르게 시도될 수 있지만, 관계 변화의 속도는 구조적 변화의 속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화해의 과정에서 과거의 적대적 집단은 상호의존성을 높여가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비전은 다른 경우가 많다. 사회 심리적 접근은 일반 대중의 태도, 신념, 동기, 정서와 같은 심리의 변

---

96) Arie Nadler and Tamar Saguy, "Reconciliation between Nations: Overcoming Emotional Deterrents to Ending Conflicts between Groups," pp. 32~33, 38~39.



화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접근은 집단적 치유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집단적 치유와 그 과정을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 “진정한” 조화로운 관계의 회복을 추구한다.

〈표 1-2〉 Rosoux의 화해 모델

| 구조적 접근                                  | 사회-심리적 접근                          | 종교적 접근                    |
|---|------------------------------------|---------------------------|
| 성패가 달려있는 당면한 이익과 쟁점의 해결                 | 집단 간 관계의 해결<br>(과거의 적, 또는 가해자-피해자) |                           |
| 공존(coexistence)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기제 | 집단 간 새로운 관계 형성<br>신념, 동기, 정서의 변화   | 조화로운 관계의 회복<br>집단적 힐링과 용서 |

천자현은 국가적 차원의 화해에 초점을 두고 절차적 화해, 물질적 화해, 관념적 화해의 과정을 제안하였다. 절차적 화해는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화해를 의미한다. 물질적 화해는 국가차원에서 배상과 보상 등 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념적 화해는 갈등의 과거사 문제 해결, 공통의 기억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과정으로 가장 발전된 상태의 화해를 의미한다.<sup>97)</sup>

화해의 순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장은 시간적 초점에 관한 Lederach의 주장이다. 화해를 목표로 생각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고, 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Lederach는 화해와 시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화해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화해의 다양한 수단들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ederach는 특히 정의와 관

97)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p. 14.

련된 과거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처리(과거), 현재의 공존(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미래) 사이에서 적어도 3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접근은 과거-현재-미래 접근이다. 화해에 대한 과거-현재-미래 접근은 현재의 공존을 위해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현재의 평화로운 공존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즉 과거에 대한 반성과 용서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동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은 현재-미래-과거의 접근이다. 이 접근은 미래의 번영을 위해 현재에 초점을 두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바라본다. 고착화된 갈등처럼 경쟁적 희생자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은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당면한 과제, 예를 들어 공존에 대한 필요성,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우 현재의 필요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 과거-현재-미래 접근이 진실과 정의(justice)에 기반한 접근이라면 현재-미래-과거 접근은 안보와 자비에 기반한 접근이다. 과거의 갈등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상호 관련성을 증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현재-미래-과거 접근의 동력은 갈등 중인 집단의 현재의 상황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현재-과거 접근은 물리적 폭력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평화와 안녕에 초점을 두는 접근

으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부분에서는 흔히 관찰되는 접근이다. 미래-현재-과거 접근은 서로가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향후 이러한 피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책임을 강조한다. 미래-현재-과거 접근의 동력은 미래 세대, 미래에 과거와 현재의 불행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sup>98)</sup>

## 5. 소결

70년 이상 적대적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기억, 서사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분단의 희생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70년 동안 상대와의 접촉은 철저히 통제되어 상대의 기억, 서사, 세계관이 무엇인지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교육에만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다.<sup>99)</sup>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속에서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폭침, 판문점 목침 지뢰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전후 세대에게 북한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혐오감을 안겨 주었다. 남과 북은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점에서 화해의 출발로 여겨지는 폭력적 갈등의 종식조차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고착화된 갈등 이론은 이러한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고착화된 갈등의 심리, 분단의 심리 전환을 위한 과제, 즉 화해의

---

98) John Paul Lederach, *The Journey toward Reconciliat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9), pp. 65~77.

99) 차승주,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 ‘화해’에 대한 시론적 고찰,” 『평화학 연구』, vol. 20, no. 3 (2019), p. 41.

과제는 갈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적 정서의 변화로 요약된다.<sup>100)</sup> 먼저 집단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인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갈등 발발과 지속의 기저가 되는 목표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갈등에 연루된 집단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갈등의 인식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에 최상위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신념이 변해야 화해를 실현할 수 있다-요는 이러한 신념을 무너뜨리거나 적어도 목표에 표현된 사회적 열망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목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신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신념은 갈등 해결 협정을 그 뼈대로 하고 과거 적이었던 상대방과의 평화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사회 목표를 제시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념을 통해 새로운 상징과 신화를 포함하여 새로운 목표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화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상대 집단의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갈등 시기에는 반대 집단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와 갈등의 발발, 지속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맞서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 집단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된다. 화해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라이벌 집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그 구성원을 정당화하고 개인화(personalize)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화는 상대 집단의 구성원에 수년 간 거부해온 인류애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을 수용 가능한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평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도록 한다. 개인화(personalization)는 라이벌 집단의 구성원을 신뢰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

100) Daniel Bar-Ta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p. 357~360.

필요와 목표를 지닌 개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신념은 긍정 및 부정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균형잡힌 편견과 여러 구성요소를 인정하는 집단을 구분하여 인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 집단의 구성원 역시 갈등 과정에서 고통 받았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갈등의 피해자로 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고착화된 갈등 심리의 전환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념의 변화도 필요로 한다.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집단은 스스로를 우월함과 자화자찬을 포함한 편파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시키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해 프로세스에서는 집단이 갈등 발발에 관여하였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포함한 폭력에의 기여, 평화로운 해결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신념에서는 특히 과거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집단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갈등에 휘말렸던 두 집단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적인 신념을 형성하도록 요구한다. 갈등 과정에서, 사회적인 신념은 대립과 반감을 지지한다.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신념은 협력과 우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동등한 관계와 서로의 필요, 목표, 일반적인 안녕에 대한 상호 감도를 강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념은 과거와도 관련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신념은 집단적인 기억을 수정하고 과거에 대한 관점을 라이벌이었던 집단의 관점과 맞춰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바탕으로 과거 관계를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화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화해의 과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화해에 접근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해의 정의와 과정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갈등의 일반성과 독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화해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례라고 할지라도 한반도 화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화해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는 국가 내 갈등(Intra-state conflict), 인종 갈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며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한 갈등에 대한 국가적 노력의 결과였다.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하나의 화해 사례인 북아일랜드 사례는 국가 내 갈등, 종교갈등, 물리적 폭력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경우 국가 간 갈등(Inter-state conflict)이며, 영토에 대한 갈등,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이다. 전술한 사례들의 화해 방식들이 남북의 화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술한 갈등들이 한반도의 갈등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할 때 가능하다. 남북갈등은 국가 간 갈등인가? 국가 내 갈등인가? 남북갈등은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남북갈등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구분되는가? 국제사회는 한반도 갈등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접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화해 개념의 모호함은 역설적으로 화해 개념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화해의 다양한 정의들, 화해의 조건, 화해의 순서, 화해의 주체 등 화해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반도에 적용가능한 화해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서는 남북의 갈등, 남남의 갈등,

북북의 갈등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고착화된 갈등 이론의 틀에서 남북갈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심리를 조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착화된 갈등 이론과 화해 이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화해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후속연구의 몫일 것이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반도 화해의 정의를 제시하며 본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화해를 신뢰, 우정, 진실, 세계관 등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상태와 과정을 목표로 제시하는 최대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는, 그래서 오히려 화해의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고착화된 갈등의 정도가 깊은 한반도의 경우 ‘북한과 협력을 기초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최소주의적 접근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화해를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일 것이다.





## II. 기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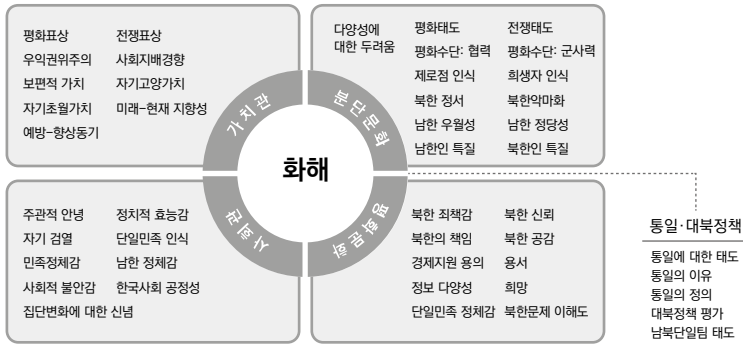
박주화 (통일연구원)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설문은 크게 다섯 개의 영역, 가치관, 사회관, 분단의 문화, 평화의 문화, 그리고 통일·대북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1). 본 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각각의 영역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구성개념의 평균을 기준으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한다. 개별 문항에 대한 설명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원점수는 별도의 자료집에 제시하였다.

〈그림 II-1〉 설문의 기본 구성



## 1. 가치관

### 가. 평화와 전쟁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일상적 의사소통을 통해 특정문화권이나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행동을 포괄하는 총체적 지식을 의미한다.<sup>101)</sup> 뒤르켐의 집합적 표상 개념에 출발한 사회

101) Serge Moscovici,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Social Representations*, eds. Robert M. Farr and Serge Moscovici (New York:

적 표상 이론은 모든 사회심리적 현상과 과정은 그것이 발생하는 역사적, 문화적, 거시적, 사회적 환경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표상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환경과 대상을 객관적,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 (1)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표현해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공유된 규범의 역할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 (2)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특정집단의 규범이나 가치 및 행위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 (3) 사회적 표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집단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 (4) 표상 공유 여부로 집단 구분에 기여하며
- (5) 사회적 표상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형성하는 기대와 예측에 영향, 개인의 행동을 안내한다.<sup>102)</sup>

즉 사람들은 사회적 표상에 의해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평화의 사회적 표상은 70년 분단의 환경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다시 환경, 사건 등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구성한다. 특히 사회적 표상은 사회집단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논쟁의 대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전쟁, 인권, 성적 지향성, 이념, 정치체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sup>103)</sup> 평화와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이 비교적 뚜렷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16~19.

102) 최훈석·용정순,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게임에 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2호 (2010), pp. 199~200.

103) 위의 글, p. 200.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평화와 전쟁의 사회적 표상을 단어 연상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단어 연상법은 사회적 표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쓰는 조사법으로 ‘평화’, ‘전쟁’과 같은 주제어를 보거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통해 사회적 표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 전쟁이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세 단어(1순위, 2순위, 3순위)를 조사하였다.

1순위 기준,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통일’(26.1%)이었으며, 이어서 ‘비둘기’(18.6%), ‘전쟁’(6.6%), ‘북한’(6.3%), ‘자유’(4.1%), ‘안정’(3.9%)의 순이었다<표 II-1>.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한 결과 역시 통일(13.%)과 비둘기(10.4%)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II-1>.

“전쟁”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북한’(16.1%)이었으며, 이어서 ‘6.25 전쟁’(10.4%), ‘사망/죽음’(9.2%), ‘공포/무서움’(5.1%), ‘핵무기/핵개발’(4.3%) 순으로 나타났다<표 II-3>.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도 북한을 떠올린 비율(7.9%)이 가장 높았으며 ‘사망/죽음’(7.3%), ‘6.25 전쟁’(5.6%), ‘핵무기/핵개발’(4.1%), ‘공포/무서움’(3.9%) 순으로 나타났다<표 II-4>.

<표 II-1> “평화”에 사회적 표상(1순위)

| 내용  | 비율(%) | 내용    | 비율(%) |
|-----|-------|-------|-------|
| 통일  | 26.1  | 안전    | 2.3   |
| 비둘기 | 18.6  | 남한 북한 | 2.1   |
| 전쟁  | 6.6   | 행복    | 2.1   |
| 북한  | 6.3   | 민주주의  | 1.3   |
| 자유  | 4.1   | 나라/세계 | 1.2   |
| 안정  | 3.9   | 핵무기   | 1.1   |

〈표 II-2〉 “평화”에 대한 사회적 표상(1+2+3순위)

| 내용      | 비율(%) | 내용    | 비율(%) |
|---------|-------|-------|-------|
| 남북통일/통일 | 13.2  | 안정    | 3     |
| 비둘기     | 10.4  | 남한 북한 | 2.1   |
| 전쟁      | 5.3   | 안전    | 1.8   |
| 북한      | 5.3   | 단합/화합 | 1.5   |
| 자유      | 4     | 사랑    | 1.4   |
| 행복      | 3.6   | 평화    | 1.2   |

〈표 II-3〉 “전쟁”에 대한 사회적 표상(1순위)

| 내용      | 비율(%) | 내용    | 비율(%) |
|---------|-------|-------|-------|
| 북한      | 16.1  | 불행/비극 | 3     |
| 6.25 전쟁 | 10.4  | 평화    | 2.1   |
| 사망/죽음   | 9.2   | 고통/아픔 | 1.8   |
| 공포/무서움  | 5.1   | 파괴    | 2.1   |
| 핵무기/핵개발 | 4.3   | 무기    | 1.8   |
| 총/총기    | 2.8   | 불안    | 1.6   |

〈표 II-4〉 “전쟁”에 대한 사회적 표상(1+2+3순위)

| 내용      | 비율(%) | 내용    | 비율(%) |
|---------|-------|-------|-------|
| 북한      | 7.9   | 고통/아픔 | 2.3   |
| 사망/죽음   | 7.3   | 무기    | 2.0   |
| 6.25 전쟁 | 5.6   | 불행/비극 | 2.0   |
| 핵무기/핵개발 | 4.1   | 총/총기  | 2.0   |
| 공포/무서움  | 3.9   | 미국    | 1.9   |
| 파괴      | 2.3   | 슬픔/눈물 | 1.8   |

## 나. 우익권위주의

우익권위주의 척도는 독일 제3제국, 나찌 정권의 잔혹함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제3제국의 만

행을 보면서 전쟁이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인간이 어디까지 극단적·공격적일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대량학살과 관련한 9개의 권위주의적 성격 특성으로 연결되었으며, 경험적 연구를 통해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 전통적 가치의 고수, 전통적 가치 위반자에 대한 공격성이 인간의 잔혹함과 관련있는 변수임을 밝혔다.<sup>104)</sup> 따라서 우익권위주의는 전쟁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깊으며, 보수적 태도와 이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 북한 관련 연구에서도 탐색 대상이 되었다.<sup>105)</sup> 본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에서 사용했던 15개 문항 중 8개 문항을 선택하여 7점 척도(1점: 전적으로 반대, 7점: 전적으로 찬성)로 측정하였다.<sup>106)</sup>

- 1)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많은 선동가들의 말을 무시해야 한다. 국가의 정당한 권위자들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
- 2)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 3)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 4)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과 사회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

104) Shelley McKeown and Daniel, J. Christie, "Social Psychology and Peace," in *The Palgrave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eds. Oliver Richmond et 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 222.

105)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pp. 187~215.

106)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06~207.

일으키는 집단과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5) 정부는 질 낮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 6)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
- 7)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 8)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이다.

우익권위주의의 평균은 4.78이었으며 8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1이었다(표 II-5).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우익권위주의가 높았으며(20대: 4.18, 30대: 4.51, 40대: 4.69, 50대: 5.00, 60대: 5.19) 60대 남성(4.96)이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4.18)이 가장 낮았다. 2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우익권위주의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 40대, 5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익권위주의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사람(기독교: 4.92, 불교: 4.97, 천주교: 4.84)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4.63)보다 우익권위주의가 높았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는 천주교가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98)가 우익권위주의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진보(4.65)가 가장 낮았으며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우익권위주의가 높았다(300만원 미만: 4.64, 300~500만원: 4.80, 500만원 이상: 4.83).



〈표 II-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우익권위주의

| 구분          |           | 사례수           | 평균(표준오차)          |
|-------------|-----------|---------------|-------------------|
| <b>전체</b>   |           | <b>(1000)</b> | <b>4.78(0.03)</b> |
| 성별          | 남성        | (496)         | 4.81(0.05)        |
|             | 여성        | (504)         | 4.75(0.04)        |
| 연령          | 20대       | (173)         | 4.26(0.07)        |
|             | 30대       | (165)         | 4.51(0.07)        |
|             | 40대       | (197)         | 4.69(0.07)        |
|             | 50대       | (201)         | 5.00(0.06)        |
|             | 60세+      | (264)         | 5.19(0.06)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4.32(0.10)        |
|             | 20대 여성    | (82)          | 4.18(0.09)        |
|             | 30대 남성    | (84)          | 4.41(0.10)        |
|             | 30대 여성    | (81)          | 4.61(0.10)        |
|             | 40대 남성    | (100)         | 4.67(0.10)        |
|             | 40대 여성    | (97)          | 4.72(0.10)        |
|             | 50대 남성    | (103)         | 4.95(0.08)        |
|             | 50대 여성    | (98)          | 5.06(0.09)        |
|             | 60세+ 남성   | (118)         | 5.47(0.08)        |
|             | 60세+ 여성   | (146)         | 4.96(0.08)        |
| 종교          | 기독교       | (217)         | 4.92(0.07)        |
|             | 불교        | (174)         | 4.97(0.07)        |
|             | 천주교       | (116)         | 4.84(0.10)        |
|             | 종교없음      | (492)         | 4.63(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4.98(0.06)        |
|             | 중도        | (437)         | 4.76(0.04)        |
|             | 진보        | (319)         | 4.65(0.06)        |
| 지역          | 서울        | (193)         | 4.70(0.07)        |
|             | 인천/경기     | (306)         | 4.72(0.06)        |
|             | 대전/충청/세종  | (105)         | 4.86(0.09)        |
|             | 광주/전라     | (98)          | 4.97(0.10)        |
|             | 대구/경북     | (102)         | 4.70(0.10)        |
|             | 부산/울산/경남  | (155)         | 4.86(0.07)        |
|             | 강원/제주     | (41)          | 4.85(0.19)        |
| 월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4.64(0.06)        |
|             | 300~500만원 | (345)         | 4.80(0.05)        |
|             | 500만원 이상  | (442)         | 4.83(0.05)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4.75(0.04)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4.84(0.07)        |
|             | 정기적 만남    | (30)          | 4.90(0.20)        |

## 다. 사회지배경향성

사회지배 경향성은 우열신화, 즉 사회집단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지배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또는 개인들이 원래 평등하지 않다고 믿고 우월한 집단이나 개인이 열등한 집단과 개인보다 상위의 서열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반면 사회지배 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집단들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서열 차이가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07)</sup> 우익권위주의가 전쟁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세계관이라면 사회지배경향은 평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세계관이다. 사회지배경향성이 낮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sup>108)</sup> 1년차 연구에서는 Arnold K. Ho 등이 사회지배경향을 지배성향(dominance) 8개 문항과 반평등주의(egalitarianism) 8개 문항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새롭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sup>109)</sup> 본 연구에서는 1년차 연구에 사용한 16개 문항 중 지배성향 4개 문항과 반평등주의 4개 문항을 선별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배성향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78, 반평등주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82였다.

### 〈지배경향〉

#### 1) 열등한 개인, 집단과 계층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주어진 위치

107)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pp. 741~763.

108) Boris Bizumic et al.,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p. 675.

109) Arnold K. Ho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 (2015), p. 1028.

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 2) 우월한 계층 또는 집단이 상위에 있고 열등한 계층과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위계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계층은 상위에, 다른 계층은 하위에 있어야 한다.
- 4) 세상에는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

〈반평등주의〉

- 5)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개인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6) 우리는 모든 사람과 계층에게 동일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7)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8) 사람 간, 계층 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지배경향, 반평등주의, 사회지배경향의 평균은 <표 II-6>에 제시하였다. 지배경향의 평균은 3.33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지배경향이 강했다. 20대(3.46)가 지배경향이 가장 강했으며 40대(3.25)와 50대(3.20)가 가장 낮았다. 20대 남성(3.65)이 지배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여성(3.14)과 50대 남성(3.12)이 가장 낮았다. 보수(3.53)와 중도(3.42)에 비해 진보(3.05)가 지배경향이 낮았으며 천주교(3.31)와 무교(3.29)가 기독교(3.38)와 불교(3.38)에 비해 지배경향이 낮았다.

〈표 II-6〉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지배성향, 반평등주의 및 사회지배성향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지배성향<br>평균(표준오차) | 반평등주의<br>평균(표준오차) | 사회지배성향<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33(0.04)       | 2.40(0.03)        | 2.87(0.03)         |
| 성별          | 남성        | (496)      | 3.43(0.06)       | 2.41(0.05)        | 2.92(0.04)         |
|             | 여성        | (504)      | 3.23(0.05)       | 2.39(0.04)        | 2.81(0.04)         |
| 연령          | 20대       | (173)      | 3.46(0.10)       | 2.85(0.08)        | 3.15(0.07)         |
|             | 30대       | (165)      | 3.36(0.10)       | 2.49(0.08)        | 2.93(0.08)         |
|             | 40대       | (197)      | 3.25(0.09)       | 2.28(0.07)        | 2.76(0.07)         |
|             | 50대       | (201)      | 3.20(0.08)       | 2.23(0.07)        | 2.71(0.06)         |
|             | 60세+      | (264)      | 3.39(0.08)       | 2.27(0.06)        | 2.83(0.05)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65(0.13)       | 2.98(0.11)        | 3.31(0.09)         |
|             | 20대 여성    | (82)       | 3.23(0.14)       | 2.72(0.11)        | 2.98(0.10)         |
|             | 30대 남성    | (84)       | 3.48(0.15)       | 2.46(0.11)        | 2.97(0.11)         |
|             | 30대 여성    | (81)       | 3.24(0.14)       | 2.52(0.11)        | 2.88(0.11)         |
|             | 40대 남성    | (100)      | 3.35(0.13)       | 2.28(0.10)        | 2.82(0.10)         |
|             | 40대 여성    | (97)       | 3.14(0.11)       | 2.28(0.10)        | 2.71(0.09)         |
|             | 50대 남성    | (103)      | 3.12(0.12)       | 2.25(0.11)        | 2.69(0.10)         |
|             | 50대 여성    | (98)       | 3.28(0.11)       | 2.21(0.09)        | 2.74(0.09)         |
|             | 60세+ 남성   | (118)      | 3.56(0.12)       | 2.21(0.09)        | 2.89(0.09)         |
|             | 60세+ 여성   | (146)      | 3.25(0.10)       | 2.32(0.07)        | 2.78(0.07)         |
| 종교          | 기독교       | (217)      | 3.38(0.09)       | 2.33(0.06)        | 2.85(0.06)         |
|             | 불교        | (174)      | 3.38(0.09)       | 2.35(0.08)        | 2.86(0.07)         |
|             | 천주교       | (116)      | 3.31(0.11)       | 2.38(0.09)        | 2.85(0.08)         |
|             | 종교없음      | (492)      | 3.29(0.06)       | 2.45(0.05)        | 2.87(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53(0.08)       | 2.49(0.06)        | 3.01(0.06)         |
|             | 중도        | (437)      | 3.42(0.06)       | 2.55(0.05)        | 2.98(0.04)         |
|             | 진보        | (319)      | 3.05(0.07)       | 2.13(0.05)        | 2.59(0.05)         |
| 지역          | 서울        | (193)      | 3.42(0.09)       | 2.50(0.07)        | 2.96(0.07)         |
|             | 인천/경기     | (306)      | 3.21(0.07)       | 2.34(0.06)        | 2.77(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40(0.13)       | 2.40(0.10)        | 2.90(0.10)         |
|             | 광주/전라     | (98)       | 3.34(0.14)       | 2.24(0.10)        | 2.79(0.09)         |
|             | 대구/경북     | (102)      | 3.35(0.12)       | 2.57(0.10)        | 2.96(0.08)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40(0.09)       | 2.36(0.08)        | 2.88(0.07)         |
| 강원/제주       | (41)      | 3.30(0.17) | 2.49(0.18)       | 2.90(0.16)        |                    |
| 월 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33(0.08)       | 2.56(0.07)        | 2.94(0.06)         |
|             | 300~500만원 | (345)      | 3.40(0.06)       | 2.33(0.05)        | 2.87(0.05)         |
|             | 500만원 이상  | (442)      | 3.28(0.06)       | 2.38(0.05)        | 2.83(0.05)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31(0.05)       | 2.41(0.04)        | 2.86(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29(0.08)       | 2.31(0.06)        | 2.80(0.06)         |
|             | 정기적 만남    | (30)       | 4.11(0.25)       | 2.82(0.22)        | 3.46(0.20)         |

반평등주의는 역채점하여 계산하였다.<sup>110)</sup> 반평등주의 평균은 2.40이었다. 남성(2.41)이 여성(2.39)에 비해 집단 간 우열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20대(2.85)의 반평등주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40대 이상(40대: 2.23, 50대: 2.28, 60대 이상: 2.27)은 반평등주의의 강도가 유사하였다. 20대 남성(2.98)의 반평등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남성(2.21)의 반평등주의가 가장 낮았다. 무교(2.45)의 반평등주의가 종교를 가진 집단(기독교: 2.33, 불교: 2.35, 천주교: 2.38)의 반평등주의보다 높았다. 이념성향에 따른 반평등주의에서도 차이가 관찰되었다. 진보(2.13)의 반평등주의가 가장 낮은 가운데 보수(2.49), 중도(2.55)의 순으로 반평등주의가 높았다.

지배경향과 반평등주의를 합친 사회지배경향성의 평균은 2.87이었다. 남성(2.92)의 사회지배성향이 여성(2.81)의 사회지배성향보다 높았다. 20대(3.15)의 사회지배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50대(2.71)의 사회지배경향이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남성(3.31)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 여성(2.71)이 가장 낮았다. 종교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진보(2.59)가 보수(3.01)와 중도(2.98)에 비해 사회지배경향이 낮았다. 보수와 중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지배 경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300만원 미만: 2.94, 300~500만원: 2.87, 500만원 이상: 2.83).

## 라. 보편적 가치

가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결정하는, 그

---

110) 설문에 사용된 문항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평등주의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반평등주의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도록 역채점하였다.

리고 타인의 사고와 행위를 평가하는 원칙의 역할을 수행한다.<sup>111)</sup>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타인과 다르다면 행동 역시 달라지게 된다. 개인적 수준에서 가치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같은 문화권이나 같은 집단의 구성원은 중요한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수준에서 본다면 가치는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치는 정치적 이념, 정치적 활동, 사회적 정의 등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인정받고 있다.<sup>112)</sup>

그렇다면 한국인이 중시하는 가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Schwartz의 10개 보편적 가치와 북한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 보편주의 가치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와 가장 관련이 높았다. 보편주의 가치 지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 사람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 및 통일 준비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권력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교류협력에 부정적이었다.<sup>113)</sup>

본 연구에서는 Schwartz의 기본가치 단축판 척도를 사용하여 10개 가치가 인생의 지침, 삶의 원칙으로서 중요성을 9점 척도(-1: 나의 지침과 원칙에 반대,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3점: 중요함, 7점: 전적으로 중요함) 상에서 측정하였다.<sup>114)</sup>

111)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p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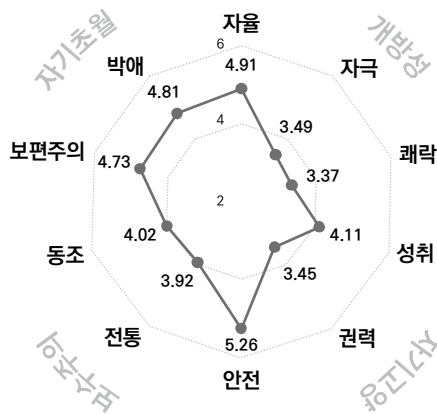
112) 최정원·이영호,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3권 3호 (2014), p. 554.

113)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p. 43.

114) Lindeman, Marjaana, and Markku Verkasalo, “Measuring values with the short Schwartz’s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5, no. 2 (2005), p. 172.

- 1) 권력(사회적 힘, 권위, 경제적 부)
- 2) 성취(성공, 유능, 야심, 사람과 사건(일)에 대한 영향력)
- 3) 쾌락(욕구의 만족, 즐거운 삶을 추구, 방종)
- 4) 자극(대범함, 다양한 삶, 도전하는 사람, 흥분되는 삶)
- 5) 자율(창의성, 자유, 호기심, 독립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결정)
- 6) 보편주의(편견이 없는, 자연과 예술의 존중, 사회적 정의, 평화로운 세상, 평등, 지혜, 자연과의 조화, 환경보호)
- 7) 박애(도움이 되는, 정직함, 용서, 충실함, 책임감)
- 8) 전통(전통에 대한 존중, 겸손함, 헌신, 겸양, 자신의 지위에 만족(안분지족))
- 9) 동조(복종, 부모와 연장자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공손함과 정중함)
- 10) 안전(국가안보, 가정의 안전, 사회적 질서, 단정함, 호의에 대한 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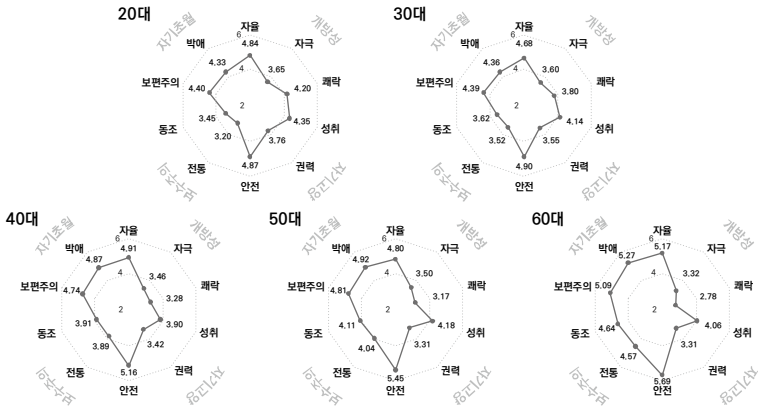
〈그림 II-2〉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의 평균



10개 기본 가치 중 ‘안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1.4%였으며 평균역시 5.26으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평균: 3.45), ‘쾌락’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8%(평균: 3.51)로 10개 기본 가치 중 가장 낮았다(그림 II-2). <그림 II-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개방성(자율, 자극, 쾌락), 자기고양(성취, 권력), 보수주의(안전, 전통, 동조)보다 자기초월(보편주의, 박애)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림 II-3>은 연령별 보편적 가치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먼저 권력, 성취, 자극, 자율에서는 연령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수주의적 가치인 동조, 전통, 안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직함, 용서, 충실함 그리고 책임감의 가치인 ‘박애’의 가치 역시 20대와 30대가 40대 이상보다 삶의 기준으로 중요함이 덜하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정의, 평화로운 세상, 평등을 중시하는 보편주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 역시 20대와 30대가 가장 낮았다. 이는 평창동계 올림픽 여자 단일팀 논란 등에서 제기되는 20대 30대가 공정과 정의를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치는 쾌락(욕구의 만족, 즐거운 삶을 추구, 방종)이었다.



〈그림 II-3〉 연령 따른 보편적 가치의 평균



이념 성향에 따른 보편적 가치의 평균은 〈그림 II-4〉에 제시하였다. 권력, 성취, 쾌락, 자극, 전통의 가치에서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상대적으로 중도는 자음, 진보는 박애와 보편주의, 보수는 동조와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림 II-4〉 이념성향에 따른 보편적 가치의 평균



보편적 가치 10개에 대한 측정과 더불어 Schwartz가 제시한 4개 기본 가치 구조(자기초월, 자기고양, 보수주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 중 박애와 보편성을 중시하는 자기초월 가치, 성취와 권력을 중시하

는 자기고양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을 각각 4개 구성하였다. 자기초월 가치와 자기고양 가치는 개정된 가치모사 설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sup>115)</sup> 각각의 문항이 자기와 비슷한지 여부를 6점 척도(1점: 전적으로 같지 않다, 6점: 전적으로 같다) 상에서 응답하였다. 자기초월 가치 척도의 신뢰도는 .73, 자기고양 가치 척도의 신뢰도는 .70이었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자기초월 가치 및 자기고양 가치의 평균은 <표 II-7>에 제시하였다.

#### <자기초월 가치>

- 1)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2)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 3)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4)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 <자기고양 가치>

- 1) 즐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2)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 3)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는 중요하다.
- 4) 부유해 지는 것이 그녀(그)에게는 중요하다.

---

115) Shalom H. Schwartz et al.,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3, no. 4 (2012), pp. 687~688.

자기 초월가치의 평균은 4.39였으며 60세 이상(4.52)에서 자기초월가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20대(4.22)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초월가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20대 남성: 4.18, 20대 여성: 4.26, 30대 남성: 4.23, 30대 여성: 4.32, 40대 남성: 4.44, 40대 여성: 4.45), 50대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초월가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50대 남성: 4.44, 50대 여성: 4.40, 60대 이상 남성: 4.59, 60대 이상 여성: 4.46). 자기초월 가치가 가장 높은 집단은 60대 이상 남성이었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4.31)가 자기초월가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낮고, 보수(4.40)와 진보(4.49)의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초월가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300만원 미만: 4.29, 300~500만원: 4.40, 500만원 이상: 4.44). 성별,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기고양 가치의 평균은 3.90이었으며, 여성(3.84)이 남성(3.97)보다 자기고양 가치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4.01)에서 자기고양 가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은 반면, 60세 이상(3.82)에서 가장 낮았다. 2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고양 가치가 높은 반면(20대 남성: 4.07, 20대 여성: 3.93, 60대 이상 남성: 4.06, 60대 이상 여성: 3.62) 30대의 경우 여성(4.04)이 남성(3.94)보다 자기고양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기 고양가치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 가장 낮은 집단은 60대 여성이었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3.99)와 무교 집단(3.92)의 자기고양 가치 평균이 기독교(3.84)와 천주교(3.83)의 자기고양 가치 평균보다 높았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고양 가치가 높았다(300만원 미만: 3.81, 300~500만원: 3.89, 500만원 이상: 3.96).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7〉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자기초월 가치 및 자기고양 가치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자기초월<br>평균(표준오차) | 자기고양<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4.39(0.02)       | 3.90(0.03)       |
| 성별       | 남성       | (496)      | 4.39(0.04)       | 3.97(0.03)       |
|          | 여성       | (504)      | 4.39(0.03)       | 3.84(0.04)       |
| 연령       | 20대      | (173)      | 4.22(0.06)       | 4.01(0.06)       |
|          | 30대      | (165)      | 4.27(0.06)       | 3.99(0.06)       |
|          | 40대      | (197)      | 4.45(0.05)       | 3.83(0.06)       |
|          | 50대      | (201)      | 4.42(0.06)       | 3.93(0.06)       |
|          | 60세+     | (264)      | 4.52(0.04)       | 3.82(0.05)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4.18(0.09)       | 4.07(0.08)       |
|          | 20대 여성   | (82)       | 4.26(0.08)       | 3.93(0.09)       |
|          | 30대 남성   | (84)       | 4.23(0.09)       | 3.94(0.07)       |
|          | 30대 여성   | (81)       | 4.32(0.01)       | 4.04(0.10)       |
|          | 40대 남성   | (100)      | 4.44(0.08)       | 3.83(0.08)       |
|          | 40대 여성   | (97)       | 4.45(0.07)       | 3.84(0.08)       |
|          | 50대 남성   | (103)      | 4.44(0.08)       | 3.93(0.07)       |
|          | 50대 여성   | (98)       | 4.40(0.07)       | 3.92(0.09)       |
| 종교       | 60세+ 남성  | (118)      | 4.59(0.06)       | 4.06(0.07)       |
|          | 60세+ 여성  | (146)      | 4.46(0.06)       | 3.62(0.07)       |
|          | 기독교      | (217)      | 4.43(0.05)       | 3.84(0.06)       |
|          | 불교       | (174)      | 4.45(0.06)       | 3.99(0.06)       |
| 정치<br>성향 | 천주교      | (116)      | 4.42(0.07)       | 3.83(0.07)       |
|          | 종교없음     | (492)      | 4.34(0.03)       | 3.92(0.04)       |
|          | 보수       | (244)      | 4.40(0.05)       | 3.93(0.05)       |
|          | 중도       | (437)      | 4.31(0.04)       | 3.90(0.04)       |
| 지역       | 진보       | (319)      | 4.49(0.04)       | 3.90(0.05)       |
|          | 서울       | (193)      | 4.30(0.05)       | 3.91(0.06)       |
|          | 인천/경기    | (306)      | 4.39(0.04)       | 3.86(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4.55(0.08)       | 4.01(0.08)       |
|          | 광주/전라    | (98)       | 4.45(0.08)       | 3.84(0.09)       |
|          | 대구/경북    | (102)      | 4.29(0.08)       | 3.99(0.09)       |
|          | 부산/울산/경남 | (155)      | 4.38(0.07)       | 3.86(0.07)       |
| 강원/제주    | (41)     | 4.59(0.10) | 4.07(0.11)       |                  |

|             | 구분        | 사례수   | 자기초월       | 자기고양       |
|-------------|-----------|-------|------------|------------|
|             |           |       | 평균(표준오차)   | 평균(표준오차)   |
| 월 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4.29(0.06) | 3.81(0.06) |
|             | 300~500만원 | (345) | 4.40(0.04) | 3.89(0.04) |
|             | 500만원 이상  | (442) | 4.44(0.04) | 3.96(0.04)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4.37(0.03) | 3.88(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4.47(0.05) | 3.95(0.05) |
|             | 정기적 만남    | (30)  | 4.31(0.19) | 3.98(0.19) |

## 마. 조절초점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은 개인의 동기와 접근/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Higgins가 제시한 구성개념으로서,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sup>116)</sup> 향상초점은 ‘성장’이 동기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유형으로, 개인이 원하는 최종 상태가 자신이 희망하는 이상(ideal)으로 표현되는 반면, 예방초점은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으로 이때의 최종 상태는 자신의 당위(ought), 의무와 책임으로 표현된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최종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에 ‘접근’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상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는 즐거움을 느끼는 한편,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울감을 느낀다.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최종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의 부정적인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손실이나 실패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목표 달성에 성공했을 때에는 안도감을, 실패했을 때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경험한다. 개인의 조절초점은 위험 감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향상초점인 사람들은 손실보다 이득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도전을 즐기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예방초점인 사람들은 손실에 민감

116) Tory E. Higgins,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vol. 52, no. 12 (1997), pp. 1280~1300.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고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이나 의 사결정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7)</sup>

이러한 성향 차이는 정치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향 상초점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더 높고 진보적 경향성을 갖는 반면, 예방초점인 사람들은 낯선 대상에 대해 더 경계심리가 높고 안전을 추구하는 보수적 경향성을 갖는다. 또한 향상초점이 강한 참가자들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의 정책을 지지한 반면, 예방초점이 강한 참가자들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sup>118)</sup> 이영화와 전승우의 연구에서는 광고 메시지를 향상 또는 예 방초점으로 조작하였을 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향 상초점의 메시지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 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방초점의 메시지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 참가 자의 조절초점에 따른 메시지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sup>119)</sup>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설문(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 중 향상초점을 측정하는 4개 문항과 예방초점을 측정하는 4개 문항 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5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5점: 전적으로 동의함).<sup>120)</sup>

---

117) Tory E. Higgins,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pp. 1~46.

118) Gale M. Lucas and Daniel C. Molden, "Motivating Political Preferences: Concerns with Promotion and Prevention as Predictors of Public Policy Attitudes," *Motivation and Emotion*, vol. 35, no. 2 (2011), pp. 151~164.

119) 이영화·전승우, "유권자의 정치관여가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치광고 메시지 프레 이밍 간의 조절적합성(Regulatory Fit) 효과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 22권 6호 (2011), pp. 107~126.

120) Tory E. Higgins et al.,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1, no. 1 (2001), p. 8.

〈향상초점〉

- 1)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한 후 고무되어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적이 있다.
- 2) 나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을 잘 해내는 편이다.
- 3)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나는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편이다.
- 4)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흥미를 끌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자주 발견했다.

〈조절초점〉

- 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 6)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화내실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다.
- 7)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통제에 착실하게 따랐다.
- 8)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

향상초점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72, 예방초점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84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평균은 〈표 II-8〉에 제시하였다.

향상초점의 평균은 3.65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상초점이 높았다(20대: 3.43, 30대: 3.61, 40대: 3.63, 50대: 3.69, 60대 이상: 3.82).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향상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20대 남성: 3.48, 20대 여성: 3.39, 30대 남성: 3.64, 30대 여성: 3.58, 40대 남성: 3.64, 40대 여성: 3.63, 60대 이상 남성: 3.82, 60대 이상 여성: 3.81), 5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50대 이상 남성: 3.65, 50대 이상 여성: 3.73).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3.77)에서 향

상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무교에(3.58)서 가장 낮았으며, 보수(3.77)가 향상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낮고, 중도(3.58)가 가장 낮았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향상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300만원 미만: 3.46, 300~500만원: 3.64, 500만원 이상: 3.76).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예방초점의 평균은 3.52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76)에서 예방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20대(3.35)에서 가장 낮았다. 30대와 4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예방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3.51, 30대 여성: 3.42, 40대 남성: 3.49, 40대 여성: 3.47), 50대와 60세 이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예방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50대 남성: 3.34, 50대 여성: 3.55, 60대 이상 남성: 3.67, 60대 이상 여성: 3.84). 2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예방초점에 대한 평균은 다르지 않았다(3.35). 보수(3.63)가 예방초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중도(3.47)와 진보(3.52)의 평균은 다르지 않았다. 성별, 종교 및 지역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바. 현재 지향성과 미래 지향성

시간 조망(time perspective)은 개인이 특정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시간적 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1)</sup> 시간 조망은 상황적으로도 유발이 가능하지만(예를 들어, 과거의 한 시점에 대해 생각하게 하거나 미래의 시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차 변수로서 취급할 때에는 특정한

---

121) Philip G. Zimbardo and John N. Boyd,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6 (1999), pp. 1271~1288.



시간 조망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및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미래 지향성은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인지),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선호하고(태도),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 더 강한 동기가 유발되는(동기)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 감수 행동을 덜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미래 지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에 더 열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sup>122)</sup> 이와 일관된 맥락에서, 현재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미래 지향성인 사람들에 비해 위험 운전과 같은 위험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3)</sup> 이 연구에서는 시간 조망과 성별의 관계도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현재 지향성이 높은 반면, 여성들은 미래 지향성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 시간 조망이 다르며 청소년들에 비해 나이가 더 많은 참가자들은 미래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미래에 얻게 될 큰 보상보다는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더 선호하는 반응을 보였다.<sup>124)</sup>

---

122) Louise Horstmannshof and Craig Zimitat, "Future Time Orientation Predicts Academic Engagement among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7, no. 3 (2007), pp. 703~718.

123) Philip G. Zimbardo, Kelli A. Keough and John N. Boyd, "Present Time Perspective as a Predictor of Risky Driving,"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s*, vol. 23, no. 6 (1997), pp. 1007~1023.

124) Laurence Steinberg et al., "Age Differences in Future Orientation and Delay Discounting," *Child Development*, vol. 80, no. 1 (2009), pp. 28~44.

〈표 II-8〉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향상초점 및 예방초점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향상초점<br>평균(표준오차) | 예방초점<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65(0.02)       | 3.52(0.02)       |
| 성별          | 남성        | (496)      | 3.65(0.03)       | 3.48(0.03)       |
|             | 여성        | (504)      | 3.65(0.03)       | 3.56(0.03)       |
| 연령          | 20대       | (173)      | 3.43(0.05)       | 3.35(0.06)       |
|             | 30대       | (165)      | 3.61(0.04)       | 3.47(0.06)       |
|             | 40대       | (197)      | 3.63(0.04)       | 3.48(0.05)       |
|             | 50대       | (201)      | 3.69(0.04)       | 3.45(0.05)       |
|             | 60세+      | (264)      | 3.82(0.04)       | 3.76(0.05)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48(0.07)       | 3.35(0.08)       |
|             | 20대 여성    | (82)       | 3.39(0.07)       | 3.35(0.09)       |
|             | 30대 남성    | (84)       | 3.64(0.06)       | 3.51(0.08)       |
|             | 30대 여성    | (81)       | 3.58(0.06)       | 3.42(0.10)       |
|             | 40대 남성    | (100)      | 3.64(0.06)       | 3.49(0.07)       |
|             | 40대 여성    | (97)       | 3.63(0.05)       | 3.47(0.08)       |
|             | 50대 남성    | (103)      | 3.65(0.06)       | 3.34(0.08)       |
|             | 50대 여성    | (98)       | 3.73(0.05)       | 3.55(0.07)       |
|             | 60세+ 여성   | (146)      | 3.81(0.05)       | 3.84(0.06)       |
| 종교          | 기독교       | (217)      | 3.77(0.04)       | 3.57(0.05)       |
|             | 불교        | (174)      | 3.67(0.05)       | 3.58(0.06)       |
|             | 천주교       | (116)      | 3.70(0.05)       | 3.67(0.06)       |
|             | 종교없음      | (492)      | 3.58(0.03)       | 3.45(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77(0.04)       | 3.63(0.05)       |
|             | 중도        | (437)      | 3.58(0.03)       | 3.47(0.03)       |
|             | 진보        | (319)      | 3.67(0.03)       | 3.52(0.05)       |
| 지역          | 서울        | (193)      | 3.70(0.04)       | 3.55(0.05)       |
|             | 인천/경기     | (306)      | 3.63(0.04)       | 3.53(0.04)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67(0.06)       | 3.52(0.08)       |
|             | 광주/전라     | (98)       | 3.61(0.05)       | 3.56(0.08)       |
|             | 대구/경북     | (102)      | 3.62(0.06)       | 3.43(0.08)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63(0.05)       | 3.50(0.06)       |
| 강원/제주       | (41)      | 3.80(0.08) | 3.58(0.12)       |                  |
| 월 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46(0.04)       | 3.37(0.06)       |
|             | 300~500만원 | (345)      | 3.64(0.03)       | 3.52(0.04)       |
|             | 500만원 이상  | (442)      | 3.76(0.03)       | 3.60(0.04)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61(0.02)       | 3.52(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76(0.04)       | 3.53(0.05)       |
|             | 정기적 만남    | (30)       | 3.76(0.12)       | 3.44(0.15)       |

미래 지향성과 정치적 태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없으나, 미래 지향성이 조절초점을 매개로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sup>125)</sup> 현재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예방 초점이 강한 반면, 미래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향상초점을 더 강하게 갖고, 그 결과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운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거와 함께 조절초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면, 미래 지향성과 정치적 태도 역시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미래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향상초점이 더 높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성 척도 14(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14) 중 현재지향성을 측정하는 4개 문항, 미래 지향성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을 선택, 7점 척도(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7점: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 〈현재 지향성〉

- 1) 나는 미래의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 2) 나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문제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
- 3) 미래의 결과들은 나중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125) Jeff Joireman et al., "Promotion Orientation Explains Why Future-Oriented People Exercise and Eat Healthy: Evidence from the Two-Factor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14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8, no. 10 (2012), pp. 1272~1287.

- 4) 미래의 문제들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미래 지향성〉

- 5) 나는 보통 달성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 행동에 착수한다.
- 6) 나는 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이나 웰빙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다.
- 7) 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몇 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8)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 결정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한다.

미래지향성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67, 현재지향성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84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미래지향성과 현재지향성의 평균은 〈표 II-9〉에 제시하였다. 현재 지향성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70이었다. 남성(3.76)이 여성(3.63)보다 현재 지향성이 높았으며 20대(3.86)가 최고, 60대 이상(3.58)이 최저였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 지향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20대 남성: 3.93, 20대 여성: 3.79, 30대 남성: 3.85, 30대 여성: 3.48, 40대 남성: 3.74, 40대 여성: 3.58, 60대 이상 남성: 3.60, 60대 이상 여성: 3.56), 5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50대 남성: 3.76, 50대 여성: 3.77). 불교(3.82)에서 현재 지향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기독교(3.57)에서 가장 낮았

〈표 II-9〉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현재지향성 및 미래지향성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현재지향성<br>평균(표준오차) | 미래지향성<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70(0.04)        | 4.80(0.03)        |
| 성별          | 남성        | (496)      | 3.76(0.05)        | 4.83(0.04)        |
|             | 여성        | (504)      | 3.63(0.05)        | 4.76(0.03)        |
| 연령          | 20대       | (173)      | 3.86(0.09)        | 4.60(0.07)        |
|             | 30대       | (165)      | 3.67(0.09)        | 4.84(0.06)        |
|             | 40대       | (197)      | 3.66(0.07)        | 4.74(0.05)        |
|             | 50대       | (201)      | 3.77(0.07)        | 4.84(0.06)        |
|             | 60세+      | (264)      | 3.58(0.07)        | 4.90(0.05)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93(0.13)        | 4.67(0.11)        |
|             | 20대 여성    | (82)       | 3.79(0.12)        | 4.52(0.09)        |
|             | 30대 남성    | (84)       | 3.85(0.13)        | 4.83(0.08)        |
|             | 30대 여성    | (81)       | 3.48(0.12)        | 4.85(0.09)        |
|             | 40대 남성    | (100)      | 3.74(0.11)        | 4.82(0.08)        |
|             | 40대 여성    | (97)       | 3.58(0.10)        | 4.66(0.06)        |
|             | 50대 남성    | (103)      | 3.76(0.11)        | 4.82(0.08)        |
|             | 50대 여성    | (98)       | 3.77(0.10)        | 4.86(0.08)        |
|             | 60세+ 남성   | (118)      | 3.60(0.10)        | 4.99(0.07)        |
| 60세+ 여성     | (146)     | 3.56(0.10) | 4.83(0.07)        |                   |
| 종교          | 기독교       | (217)      | 3.57(0.08)        | 4.90(0.05)        |
|             | 불교        | (174)      | 3.82(0.09)        | 4.87(0.07)        |
|             | 천주교       | (116)      | 3.70(0.10)        | 4.87(0.07)        |
|             | 종교없음      | (492)      | 3.71(0.05)        | 4.70(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70(0.07)        | 4.86(0.05)        |
|             | 중도        | (437)      | 3.70(0.05)        | 4.74(0.04)        |
|             | 진보        | (319)      | 3.69(0.06)        | 4.82(0.04)        |
| 지역          | 서울        | (193)      | 3.75(0.08)        | 4.83(0.06)        |
|             | 인천/경기     | (306)      | 3.54(0.06)        | 4.78(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69(0.11)        | 4.79(0.08)        |
|             | 광주/전라     | (98)       | 3.89(0.11)        | 4.91(0.08)        |
|             | 대구/경북     | (102)      | 3.71(0.10)        | 4.59(0.09)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74(0.09)        | 4.80(0.07)        |
| 월 가구<br>소득  | 강원/제주     | (41)       | 3.91(0.16)        | 4.99(0.10)        |
|             | 300만원 미만  | (213)      | 3.71(0.08)        | 4.62(0.06)        |
|             | 300~500만원 | (345)      | 3.71(0.06)        | 4.79(0.04)        |
| 탈북민<br>교류정도 | 500만원 이상  | (442)      | 3.68(0.05)        | 4.88(0.04)        |
|             | 만난 적 없음   | (718)      | 3.66(0.04)        | 4.74(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72(0.07)        | 4.91(0.05)        |
|             | 정기적 만남    | (30)       | 4.35(0.22)        | 5.04(0.18)        |

다. 천주교(3.70)와 무교(3.71)는 차이가 없었다. 정치성향,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미래 지향성의 평균은 4.80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90)에서 미래 지향성에 대한 평균이 가장 높고, 20대(4.60)에서 가장 낮았다. 20대, 40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미래 지향성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20대 남성: 4.67, 20대 여성: 4.52, 40대 남성: 4.82, 40대 여성: 4.66, 60대 이상 남성: 4.99, 60대 이상 여성: 4.83), 30대, 5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30대 남성: 4.83, 30대 여성: 4.85, 50대 남성: 4.82, 50대 여성: 4.86).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90)에서 미래 지향성이 가장 높고, 무교(4.70)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소득이 높을 수록 미래 지향성이 강했다(300만원 미만: 4.62, 300~500만원: 4.79, 500만원 이상: 4.88). 성별과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사.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문화적 지향성으로 정의된다. 개인주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집단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둔 세계관으로 개인주의적 개인의 행복, 개인의 목표, 개인의 독특성, 개인의 통제력을 집단의 행복, 집단의 목표, 집단의 독특성, 집단의 통제력보다 우선한다. 반면 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은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각각 상호 의존적인 의무가 있다고 가정한다. 집단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집단의 행복보다 목표를 우선하며, 특히 개인의 가치관보다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sup>126)</sup>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북한, 민족 등 공

동체, 즉 집단 수준의 담론이 우세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의 명분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일민족 담론은 집단주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단일민족 통일담론이 유효한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논거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주의 세계관과의 충돌에 근거하고 있다. 과연 개인주의 세계관이 우세한 국민과 집단주의 세계관이 우세한 국민이 한반도 문제의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인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치지향성(value orientation)과 자기개념(self-concept)을 측정하였다.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익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 가치지향성은 개인목표 대 집단목표 우선성과 경쟁 대 협동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3점 척도: 1점: 다소 동의, 3점: 매우 동의)으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은 <그림 II-5>에 제시하였다.

#### <가치 지향성>

##### 1)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충하면

집단주의: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개인주의: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2) 집단 성공의 원동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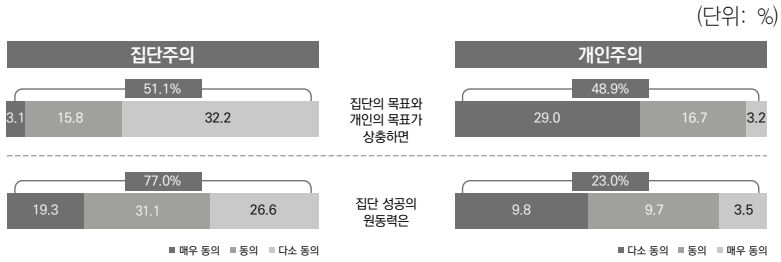
집단주의: 구성원 간 협동이다.

개인주의: 구성원 간 경쟁이다.

---

126) Daphna Oyserman, Heather M. Coon and Markus Kimmelmeier,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8, no. 1 (2002), pp. 3~5.

〈그림 II-5〉 가치지향성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자기개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중시하는지, 주변 맥락에 관계없이 자신을 일관되게 나타내는데 대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 자기개념은 아래 두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두 문항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은 〈그림 II-6〉에 제시하였다.

1) 나에게는 주위사람들과

집단주의: 공유하는 특질이 중요하다.

개인주의: 구별되는 나만의 특질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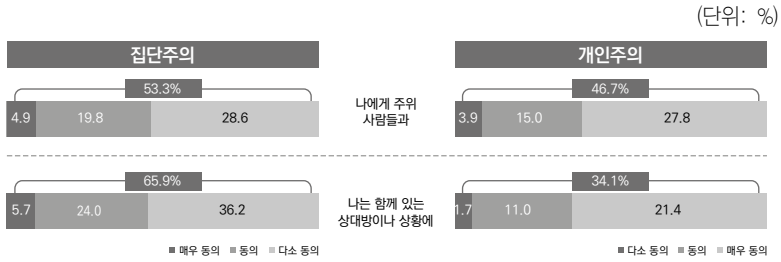
2) 나는 함께 있는 상대방이나 상황에

집단주의: 따라 종종 다르게 행동한다.

개인주의: 상관없이 일관되게 행동한다.



〈그림 II-6〉 가치지향성 문항에서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성향의 비율



가치지향성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평균과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표 II-10>에 제시하였다. 음수는 집단주의 성향, 양수는 개인주의 성향을 의미한다. 집단주의 성향의 범위는 -3에서 0으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개인주의 성향의 범위는 0에서 3이다. 역시 절대값이 커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지향성의 평균은 -0.54로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 차이는 뚜렷했다. 전 연령대에서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성이 높았지만 40대 이상(40대: -0.69, 50대: -0.68, 60대 이상: -0.70)에 비해 20~30대(20대: -0.25, 30대: -0.25)의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성은 확실히 낮았다. 20대 남성(-0.21)의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성이 가장 낮지만 50대 남성(-0.80)의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성이 가장 높았다. 성별, 종교, 소득수준,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개념의 평균은 -0.33으로 자기개념에서도 집단주의적 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0.39)에 비해 남성(-0.27)이 자기의 상호의존적 개념이 강했다. 특히 60대 남성(-0.48) 및 여성(-0.49) 그리고 20대 여성(-0.45), 30대 남성(-0.42)의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이 20대 남성(0.00)과 40대 남성(-0.11)의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보다 강했다.

〈표 II-10〉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가치지향성 및 자기개념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가치지향성<br>평균(표준오차) | 자기개념<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0.54(0.04)       | -0.33(0.04)      |
| 성별          | 남성        | (496)  | -0.52(0.06)       | -0.27(0.05)      |
|             | 여성        | (504)  | -0.56(0.06)       | -0.39(0.05)      |
| 연령          | 20대       | (173)  | -0.25(0.09)       | -0.21(0.09)      |
|             | 30대       | (165)  | -0.25(0.11)       | -0.39(0.10)      |
|             | 40대       | (197)  | -0.69(0.09)       | -0.21(0.09)      |
|             | 50대       | (201)  | -0.68(0.10)       | -0.30(0.08)      |
|             | 60세+      | (264)  | -0.70(0.09)       | -0.49(0.07)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0.21(0.13)       | 0.00(0.12)       |
|             | 20대 여성    | (82)   | -0.30(0.14)       | -0.45(0.14)      |
|             | 30대 남성    | (84)   | -0.08(0.15)       | -0.42(0.13)      |
|             | 30대 여성    | (81)   | -0.44(0.16)       | -0.36(0.14)      |
|             | 40대 남성    | (100)  | -0.69(0.13)       | -0.11(0.13)      |
|             | 40대 여성    | (97)   | -0.68(0.13)       | -0.32(0.12)      |
|             | 50대 남성    | (103)  | -0.80(0.13)       | -0.29(0.12)      |
|             | 50대 여성    | (98)   | -0.55(0.14)       | -0.31(0.11)      |
| 종교          | 60세+ 남성   | (118)  | -0.68(0.13)       | -0.48(0.10)      |
|             | 60세+ 여성   | (146)  | -0.71(0.12)       | -0.49(0.10)      |
|             | 기독교       | (217)  | -0.59(0.09)       | -0.30(0.08)      |
|             | 불교        | (174)  | -0.68(0.11)       | -0.33(0.10)      |
| 정치<br>성향    | 천주교       | (116)  | -0.55(0.12)       | -0.38(0.11)      |
|             | 종교없음      | (492)  | -0.46(0.06)       | -0.33(0.05)      |
|             | 보수        | (244)  | -0.56(0.09)       | -0.28(0.08)      |
| 지역          | 중도        | (437)  | -0.47(0.06)       | -0.36(0.05)      |
|             | 진보        | (319)  | -0.62(0.08)       | -0.33(0.07)      |
|             | 서울        | (193)  | -0.44(0.10)       | -0.26(0.09)      |
|             | 인천/경기     | (306)  | -0.54(0.08)       | -0.35(0.07)      |
|             | 대전/충청/세종  | (105)  | -0.44(0.14)       | -0.51(0.11)      |
|             | 광주/전라     | (98)   | -0.65(0.14)       | -0.42(0.12)      |
| 월 가구<br>소득  | 대구/경북     | (102)  | -0.59(0.12)       | -0.12(0.11)      |
|             | 부산/울산/경남  | (155)  | -0.59(0.12)       | -0.32(0.09)      |
|             | 강원/제주     | (41)   | -0.70(0.20)       | -0.43(0.20)      |
| 탈북민<br>교류정도 | 300만원 미만  | (213)  | -0.50(0.09)       | -0.38(0.07)      |
|             | 300~500만원 | (345)  | -0.46(0.08)       | -0.32(0.06)      |
|             | 500만원 이상  | (442)  | -0.62(0.06)       | -0.31(0.06)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0.53(0.05)       | -0.35(0.04)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0.63(0.09)       | -0.33(0.08)      |
|             | 정기적 만남    | (30)   | -0.10(0.26)       | 0.05(0.24)       |

## 2. 사회적 신념과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 가. 주관적 안녕

주관적 안녕(well-being)의 개념은 그리스의 쾌락주의(hedonism)에서 기원하지만 현대적 개념의 주관적 안녕은 성취에 대한 감정, 삶의 목적, 의미 등을 포함한다.<sup>127)</sup>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의 수준은 분단 상황, 즉 고착화된 갈등 상황 하에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간접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7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음, 7점: 전적으로 만족함).<sup>128)</sup>

- 1) 현재 당신의 삶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 2) 현재 당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3) 당신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4)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 5)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6)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현재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 7)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27) 박주언·심수진·이희길,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엮음, 『2012년 상반기 연구결과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2), p. 147.

128) 한덕웅·표승연,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적 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7권 3호 (2002), p. 412.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94이었다(7점 척도).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11>에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의 평균은 4.28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4.33)에서 주관적 안녕 수준이 가장 높았고 20대(4.20)에서 가장 낮았다. 20대, 3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았지만 (20대 남성: 4.30, 20대 여성: 4.09, 30대 남성: 4.41, 30대 여성: 4.24), 50대의 경우 여성(4.51)이 남성(4.02)보다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았다. 4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40대 남성: 4.26, 40대 여성: 4.37, 60대 이상 남성: 4.33, 60대 이상 여성: 4.26). 불교(4.43)에서 주관적 안녕의 평균이 가장 높고, 무교(4.15)에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40)가 주관적 안녕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도(4.21)와 진보(4.27)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았다 (300만원 미만: 3.90, 300~500만원: 4.19, 500만원 이상: 4.54).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11〉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주관적 안녕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4.28(0.04) |
| 성별          | 남성        | (496)      | 4.26(0.05) |
|             | 여성        | (504)      | 4.30(0.06) |
| 연령          | 20대       | (173)      | 4.20(0.09) |
|             | 30대       | (165)      | 4.33(0.09) |
|             | 40대       | (197)      | 4.31(0.09) |
|             | 50대       | (201)      | 4.26(0.09) |
|             | 60세+      | (264)      | 4.29(0.08)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4.30(0.13) |
|             | 20대 여성    | (82)       | 4.09(0.13) |
|             | 30대 남성    | (84)       | 4.41(0.13) |
|             | 30대 여성    | (81)       | 4.24(0.14) |
|             | 40대 남성    | (100)      | 4.26(0.11) |
|             | 40대 여성    | (97)       | 4.37(0.13) |
|             | 50대 남성    | (103)      | 4.02(0.12) |
|             | 50대 여성    | (98)       | 4.51(0.12) |
|             | 60세+ 남성   | (118)      | 4.33(0.13) |
| 60세+ 여성     | (146)     | 4.26(0.10) |            |
| 종교          | 기독교       | (217)      | 4.40(0.09) |
|             | 불교        | (174)      | 4.43(0.09) |
|             | 천주교       | (116)      | 4.37(0.11) |
|             | 종교없음      | (492)      | 4.15(0.06)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4.40(0.08) |
|             | 중도        | (437)      | 4.21(0.06) |
|             | 진보        | (319)      | 4.27(0.07) |
| 지역          | 서울        | (193)      | 4.42(0.08) |
|             | 인천/경기     | (306)      | 4.20(0.07) |
|             | 대전/충청/세종  | (105)      | 4.35(0.13) |
|             | 광주/전라     | (98)       | 4.44(0.12) |
|             | 대구/경북     | (102)      | 4.20(0.12) |
|             | 부산/울산/경남  | (155)      | 4.12(0.10) |
| 강원/제주       | (41)      | 4.47(0.21) |            |
| 월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90(0.09) |
|             | 300~500만원 | (345)      | 4.19(0.06) |
|             | 500만원 이상  | (442)      | 4.54(0.06)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4.25(0.05)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4.32(0.08) |
|             | 정기적 만남    | (30)       | 4.75(0.17) |

## 나.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은 “유권자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정치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sup>129)</sup> 이 개념은 정치적 행위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의 외적 행동이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적 자신감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한다. 자기 효능감이 행동에 대한 자발적이며 강력한 원동력인 것처럼 정치 효능감 역시 자발적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자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개념이다.<sup>130)</sup> 본 연구에서는 내적효능감에 대한 2개 문항, 외적효능감에 대한 2개 문항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측정하였다.(5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5점: 전적으로 동의함)<sup>131)</sup> 정치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63이었다.

- 1) 나 같은 일반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정부는 나 같은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 3)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 4) 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 보다 정치나 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

129) Angus Campbell, Gerald Gurin and Warren Edward Miller,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1954), p. 187.

130) 강수영, “정치적 자기효능감 척도(Pses) 제작 및 타당화 연구,” 『한국언론학회』, 제57권 3호 (2013), pp. 297~305.

131) 장승진·송진미, “허위합의(False Consensus) 효과와 쟁점투표,” 『한국정당학회』, 제16권 3호 (2017), pp. 93~94.

〈표 II-12〉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정치적 효능감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13(0.02) |
| 성별          | 남성        | (496)      | 3.20(0.03) |
|             | 여성        | (504)      | 3.07(0.03) |
| 연령          | 20대       | (173)      | 3.12(0.05) |
|             | 30대       | (165)      | 3.03(0.06) |
|             | 40대       | (197)      | 3.17(0.05) |
|             | 50대       | (201)      | 3.23(0.04) |
|             | 60세+      | (264)      | 3.11(0.04)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19(0.07) |
|             | 20대 여성    | (82)       | 3.05(0.07) |
|             | 30대 남성    | (84)       | 3.18(0.07) |
|             | 30대 여성    | (81)       | 2.88(0.08) |
|             | 40대 남성    | (100)      | 3.26(0.07) |
|             | 40대 여성    | (97)       | 3.08(0.07) |
|             | 50대 남성    | (103)      | 3.21(0.07) |
|             | 50대 여성    | (98)       | 3.24(0.06) |
|             | 60세+ 남성   | (118)      | 3.18(0.06) |
| 60세+ 여성     | (146)     | 3.06(0.05) |            |
| 종교          | 기독교       | (217)      | 3.14(0.05) |
|             | 불교        | (174)      | 3.16(0.06) |
|             | 천주교       | (116)      | 3.16(0.06) |
|             | 종교없음      | (492)      | 3.12(0.03)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12(0.04) |
|             | 중도        | (437)      | 3.05(0.03) |
|             | 진보        | (319)      | 3.27(0.04) |
| 지역          | 서울        | (193)      | 3.19(0.05) |
|             | 인천/경기     | (306)      | 3.13(0.04)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08(0.08) |
|             | 광주/전라     | (98)       | 3.24(0.07) |
|             | 대구/경북     | (102)      | 3.20(0.07) |
|             | 부산/울산/경남  | (155)      | 2.99(0.05) |
|             | 강원/제주     | (41)       | 3.17(0.10) |
| 월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2.94(0.05) |
|             | 300~500만원 | (345)      | 3.08(0.04) |
|             | 500만원 이상  | (442)      | 3.27(0.03)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09(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21(0.04) |
|             | 정기적 만남    | (30)       | 3.53(0.12) |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12>에 제시하였다. 정치적 효능감 평균은 3.13로 중앙치를 상회했다. 남성(3.20)이 여성(3.07)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50대(3.23)에서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30대(3.03)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20대 남성: 3.19, 20대 여성: 3.05, 30대 남성: 3.18, 30대 여성: 2.88, 40대 남성: 3.26, 40대 여성: 3.08, 60대 이상 남성: 3.18, 60대 이상 여성: 3.06), 5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50대 남성: 3.21, 50대 여성: 3.24). 정치적 효능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대 남성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30대 여성이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27)가 중도(3.05)와 보수(3.12)에 비해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보수와 중도의 정치적 효능감은 차이가 없었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다(300만원 미만: 2.94, 300~500만원: 3.08, 500만원 이상: 3.27).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다. 한국사회 불공정성

한국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 4개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문항은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2개 문항,<sup>132)</sup>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132)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pp. 809, 904, <[http://kgss.skku.edu/wp-content/uploads/2019/05/%EB%B6%80%EB%A1%9D1\\_03-18-%ED%95%9C%EA%B5%AD%EC%A2%85%ED%95%A9%EC%82%AC%ED%9A%8C%EC%A1%B0%EC%82%AC-%EB%B3%80%EC%88%98%EB%AA%85-%EC%84%A4%EB%AC%B8%EC%A7%80-05142019.pdf](http://kgss.skku.edu/wp-content/uploads/2019/05/%EB%B6%80%EB%A1%9D1_03-18-%ED%95%9C%EA%B5%AD%EC%A2%85%ED%95%A9%EC%82%AC%ED%9A%8C%EC%A1%B0%EC%82%AC-%EB%B3%80%EC%88%98%EB%AA%85-%EC%84%A4%EB%AC%B8%EC%A7%80-05142019.pdf)> (검색일: 2019.3.5.).



- 1) 나의 노력에 비해 내가 처한 현실은 공정하지 않다.
- 2) 한국은 재화와 기회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 3) 한국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성별, 지역, 연령,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 4)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4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66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13>에 제시하였다. 한국사회 공정성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50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3.58)가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20대(3.40)가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여성(3.46)이 남성(3.34)보다 한국사회의 불공정성 인식이 높았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30대 남성: 3.50, 30대 여성: 3.43, 40대 남성: 3.57, 40대 여성: 3.58, 50대 남성: 3.47, 50대 여성: 3.54, 60대 이상 남성: 3.55, 60대 이상 여성: 3.52). 40대 남성과 여성의 한국사회 불공정성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64)가 느끼는 한국사회의 불공정성이 가장 높았고 보수(3.36)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3.61)이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서울 지역(3.44)이 가장 낮았다.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58)이 느끼는 한국사회의 불공정이 다른 소득 구간 집단(300만원 미만: 3.48, 500만원 이상: 3.45)에 비해 높았다. 성별,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13〉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50(0.02) |
| 성별          | 남성        | (496)      | 3.49(0.03) |
|             | 여성        | (504)      | 3.51(0.03) |
| 연령          | 20대       | (173)      | 3.40(0.05) |
|             | 30대       | (165)      | 3.47(0.06) |
|             | 40대       | (197)      | 3.58(0.04) |
|             | 50대       | (201)      | 3.50(0.05) |
|             | 60세+      | (264)      | 3.53(0.04)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34(0.08) |
|             | 20대 여성    | (82)       | 3.46(0.07) |
|             | 30대 남성    | (84)       | 3.50(0.07) |
|             | 30대 여성    | (81)       | 3.43(0.09) |
|             | 40대 남성    | (100)      | 3.57(0.06) |
|             | 40대 여성    | (97)       | 3.58(0.06) |
|             | 50대 남성    | (103)      | 3.47(0.06) |
|             | 50대 여성    | (98)       | 3.54(0.06) |
|             | 60세+ 남성   | (118)      | 3.55(0.06) |
|             | 60세+ 여성   | (146)      | 3.52(0.05) |
| 종교          | 기독교       | (217)      | 3.49(0.05) |
|             | 불교        | (174)      | 3.53(0.05) |
|             | 천주교       | (116)      | 3.45(0.06) |
|             | 종교없음      | (492)      | 3.51(0.03)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36(0.04) |
|             | 중도        | (437)      | 3.48(0.03) |
|             | 진보        | (319)      | 3.64(0.04) |
| 지역          | 서울        | (193)      | 3.44(0.05) |
|             | 인천/경기     | (306)      | 3.50(0.04)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47(0.07) |
|             | 광주/전라     | (98)       | 3.54(0.06) |
|             | 대구/경북     | (102)      | 3.61(0.06)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51(0.05) |
| 강원/제주       | (41)      | 3.47(0.10) |            |
| 월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48(0.05) |
|             | 300~500만원 | (345)      | 3.58(0.03) |
|             | 500만원 이상  | (442)      | 3.45(0.03)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51(0.02)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51(0.04) |
|             | 정기적 만남    | (30)       | 3.24(0.14) |

## 라. 집단/갈등의 본질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

갈등 해결에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분쟁의 다른 그룹에 대한 각 집단의 강한 부정적 태도이다. 갈등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 태도를 바꾸려는 직접적인 시도는 방어적인 반응을 통한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적대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간접적인 방식의 대표적인 시도가 집단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sup>133)</sup>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이는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 특히 사람의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인의 본질이 고정적인지, 아니면 변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믿음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본질이 고정적이라고 믿는 이들은 잘못을 환경의 영향이 아닌 타고난 성정, 즉 고정된 자질의 탓으로 돌리기 쉬우며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보복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사람들의 본질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잘못된 행동이 환경의 영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덜 권하고, 협상을 권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의 본질에 대한 믿음처럼 집단의 본질 역시 가변적인지 아니면 고정적인지에 대한 믿음 역시 집단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의 본질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화를 위한 협상과 적대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및 갈등의 본질이 가변적인지 고정적인지 7개 문항을 6점 척도(1: 완전히 가변적, 6: 완전히 고정적)를 통해 살펴보았다.<sup>134)</sup>

---

133) Eran Halperin et al., “Promoting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by Changing Beliefs About Group Malleability,” pp. 1767~1769; Smadar Cohen-Chen et al., “Hope in the Middle East: Malleability Beliefs, Hope, and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for Peace,” pp. 67~75.

- 1) 집단 또는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안 되지만,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미국 속담은 맞는 것 같다.
- 2) 집단이나 조직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 3) 폭력적 집단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 4) 모든 집단이나 조직, 국가는 바꿀 수 없는 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 5) 설사 분쟁과 갈등에 관련된 모든 쟁점과 환경이 다루어지더라도, 분쟁(갈등)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 6) 분쟁(갈등)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갈등)의 고유한 측면은 변할 수 없다.
- 7) 분쟁(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쟁(갈등)의 핵심과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7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4였으며 집단의 본질에 관한 4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1, 갈등의 본질에 관한 3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5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14>에 제시하였다.

우리 국민은 집단의 본질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집단의 본질에 대한 4개 문항의 평균은 4.05, 갈등의 본질에 대한 3개 문항의 평균은 3.95, 두 유형을 합친 평균은 4.01이었다. 주요

---

134) Eran Halperin et al., "Promoting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by Changing Beliefs About Group Malleability," pp. 1767~1769,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suppl/2011/08/25/science.1202925.DC1>>에서 확인 가능; Smadar Cohen-Chen et al., "Hope in the Middle East: Malleability Beliefs, Hope, and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for Peace," p. 69.

〈표 II-1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갈등 본질 가변성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집단본질<br>평균(표준오차) | 갈등본질<br>평균(표준오차) | 집단갈등본질<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4.05(0.03)       | 3.95(0.03)       | 4.01(0.02)         |
| 성별          | 남성        | (496)  | 4.03(0.04)       | 3.96(0.04)       | 4.00(0.03)         |
|             | 여성        | (504)  | 4.06(0.03)       | 3.94(0.04)       | 4.01(0.03)         |
| 연령          | 20대       | (173)  | 4.07(0.06)       | 3.94(0.06)       | 4.01(0.06)         |
|             | 30대       | (165)  | 4.13(0.06)       | 3.96(0.07)       | 4.06(0.06)         |
|             | 40대       | (197)  | 4.13(0.06)       | 4.03(0.06)       | 4.09(0.05)         |
|             | 50대       | (201)  | 3.99(0.06)       | 3.88(0.07)       | 3.94(0.05)         |
|             | 60세+      | (264)  | 3.96(0.05)       | 3.94(0.05)       | 3.95(0.04)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4.07(0.09)       | 3.98(0.09)       | 4.03(0.09)         |
|             | 20대 여성    | (82)   | 4.06(0.08)       | 3.89(0.08)       | 3.99(0.07)         |
|             | 30대 남성    | (84)   | 4.13(0.09)       | 3.97(0.10)       | 4.06(0.08)         |
|             | 30대 여성    | (81)   | 4.13(0.09)       | 3.96(0.10)       | 4.06(0.09)         |
|             | 40대 남성    | (100)  | 4.14(0.08)       | 4.03(0.09)       | 4.09(0.07)         |
|             | 40대 여성    | (97)   | 4.12(0.08)       | 4.04(0.08)       | 4.09(0.07)         |
|             | 50대 남성    | (103)  | 3.94(0.08)       | 3.89(0.09)       | 3.92(0.07)         |
|             | 50대 여성    | (98)   | 4.04(0.08)       | 3.87(0.09)       | 3.97(0.08)         |
| 종교          | 60세+ 남성   | (118)  | 3.91(0.08)       | 3.94(0.09)       | 3.92(0.07)         |
|             | 60세+ 여성   | (146)  | 4.00(0.06)       | 3.94(0.07)       | 3.97(0.06)         |
|             | 기독교       | (217)  | 4.00(0.06)       | 3.99(0.06)       | 3.99(0.05)         |
|             | 불교        | (174)  | 4.07(0.06)       | 3.96(0.07)       | 4.02(0.06)         |
| 정치<br>성향    | 천주교       | (116)  | 4.03(0.07)       | 3.97(0.08)       | 4.00(0.07)         |
|             | 종교없음      | (492)  | 4.06(0.03)       | 3.92(0.04)       | 4.00(0.03)         |
|             | 보수        | (244)  | 4.08(0.05)       | 4.00(0.06)       | 4.04(0.05)         |
| 지역          | 중도        | (437)  | 3.97(0.04)       | 3.90(0.04)       | 3.94(0.03)         |
|             | 진보        | (319)  | 4.12(0.05)       | 3.98(0.05)       | 4.06(0.04)         |
|             | 서울        | (193)  | 4.00(0.06)       | 3.89(0.06)       | 3.95(0.05)         |
|             | 인천/경기     | (306)  | 4.08(0.04)       | 4.02(0.05)       | 4.05(0.04)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97(0.08)       | 3.94(0.08)       | 3.96(0.07)         |
|             | 광주/전라     | (98)   | 4.08(0.08)       | 3.97(0.10)       | 4.04(0.08)         |
| 월 가구<br>소득  | 대구/경북     | (102)  | 4.22(0.08)       | 4.05(0.09)       | 4.14(0.08)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99(0.06)       | 3.86(0.07)       | 3.93(0.06)         |
|             | 강원/제주     | (41)   | 3.93(0.12)       | 3.79(0.14)       | 3.87(0.11)         |
| 탈북민<br>교류정도 | 300만원 미만  | (213)  | 3.90(0.06)       | 3.92(0.06)       | 3.91(0.05)         |
|             | 300~500만원 | (345)  | 4.08(0.04)       | 3.98(0.04)       | 4.04(0.04)         |
|             | 500만원 이상  | (442)  | 4.09(0.04)       | 3.94(0.04)       | 4.03(0.04)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4.05(0.03)       | 3.95(0.03)       | 4.01(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4.05(0.05)       | 3.97(0.06)       | 4.01(0.05)         |
|             | 정기적 만남    | (30)   | 3.89(0.18)       | 3.88(0.18)       | 3.89(0.17)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집단의 본질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마.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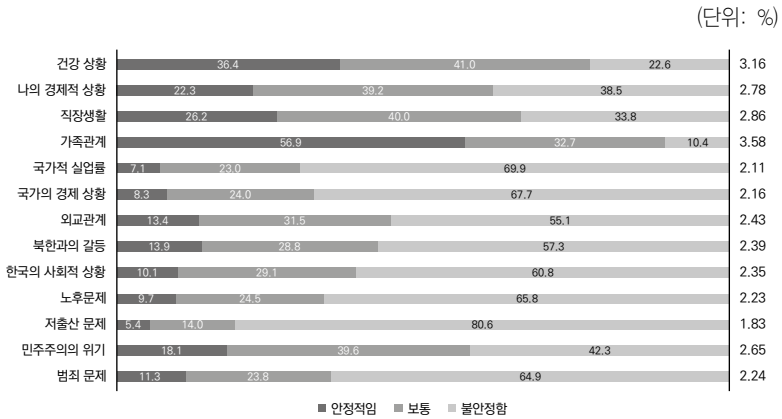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안보(security)를 최우선시하는 문화이다.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시작은 생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에서 시작되고 갈등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기 보호와 집단의 안전에 대한 동기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집단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대적 집단의 행위에 대해 집단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 상대에 대한 복수를 상기시키며 이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결국 실존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한 안보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지게 되고 안보는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로 체화된다.

하지만 안보는 단순히 군사·정치·경제적 위협이나 불안감을 넘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이다. Maslow는 안보를 확실성, 보호, 생존을 추구하는 유기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안보가 인간의 동기라면 안보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안보’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 상황, 나의 경제적 상황, 직장 생활, 가족관계, 노후문제, 국가적 실업률, 국가의 경제 상황, 외교관계, 북한과의 갈등, 한국의 사회적 상황, 저출산 문제, 민주주의의 위기, 범죄 문제 등 13개 범주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5점 척도(1: 불안정, 5: 안정)를 사용해 측정하였다.<sup>135)</sup> 문항별 안정/불안정 비

율과 평균은 <그림 II-7>에 제시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장 높은 불안감을 표현하였다(1.83). 그 뒤를 국가적 실업률(2.11), 경제상황(2.16), 범죄문제(2.24), 한국의 사회적 상황(2.35), 노후문제(2.23)가 이었다. 북한과의 갈등은 평균 기준으로 7번째(2.39).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영역은 가족 관계(3.58)와 건강 상황(3.16)이었다.

<그림 II-7> 이슈별 안정/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평균



## 바. 민족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 남한정체성 외에 남북이 하나의 민족 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민족정체성은 한국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당위적 개념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동하는 문항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조사하였다. 남한 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1년차 연구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9점 척

135) Dan Jacobson and Daniel Bar-Tal, "Structure of Security Beliefs among Israeli Students," *Political Psychology*, vol. 16, no. 3 (1995), p. 570.

도),<sup>136)</sup> 남북이 하나의 민족인지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하였다(5점 척도),<sup>137)</sup>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통계적 착시를 방지하기 위해 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의 평균은 <표 II-15>, 단일민족 정체성의 평균은 <표 II-16>에 각각 제시하였다.

<민족/남한 정체성>

- 1) 전반적으로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남한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 2) 귀하는 한민족/남한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3) 귀하는 귀하가 한민족 구성원/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4) 스스로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념>

- 1) 남한과 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다.
- 2) 남한과 북한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 비슷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3) 남한과 북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정체성의 평균은 5.67이었다. 남성(5.77)이 여성(5.57)보다 민족정체성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족정체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20대: 5.05, 30대: 5.37, 40대: 5.60, 50대: 5.97, 60대 이상: 6.08). 20대 남성(4.98)의 민족정체성이 가장 낮았고 60

136)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pp. 293~294.

137) 양계민,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2009), pp. 387~422.



〈표 II-1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민족정체감, 남한정체감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민족정체감<br>평균(표준오차) | 남한정체감<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5.67(0.05)        | 6.17(0.05)        |
| 성별          | 남성        | (496)      | 5.77(0.07)        | 6.19(0.07)        |
|             | 여성        | (504)      | 5.57(0.06)        | 6.15(0.07)        |
| 연령          | 20대       | (173)      | 5.05(0.11)        | 5.63(0.11)        |
|             | 30대       | (165)      | 5.37(0.11)        | 5.73(0.11)        |
|             | 40대       | (197)      | 5.60(0.10)        | 6.09(0.10)        |
|             | 50대       | (201)      | 5.97(0.11)        | 6.39(0.11)        |
|             | 60세+      | (264)      | 6.08(0.09)        | 6.68(0.09)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4.98(0.17)        | 5.59(0.16)        |
|             | 20대 여성    | (82)       | 5.12(0.13)        | 5.68(0.14)        |
|             | 30대 남성    | (84)       | 5.53(0.16)        | 5.85(0.14)        |
|             | 30대 여성    | (81)       | 5.21(0.15)        | 5.60(0.16)        |
|             | 40대 남성    | (100)      | 5.72(0.14)        | 6.05(0.15)        |
|             | 40대 여성    | (97)       | 5.47(0.14)        | 6.14(0.14)        |
|             | 50대 남성    | (103)      | 6.00(0.17)        | 6.33(0.16)        |
|             | 50대 여성    | (98)       | 5.94(0.14)        | 6.46(0.16)        |
|             | 60세+ 남성   | (118)      | 6.38(0.14)        | 6.89(0.14)        |
| 60세+ 여성     | (146)     | 5.84(0.11) | 6.51(0.13)        |                   |
| 종교          | 기독교       | (217)      | 5.83(0.10)        | 6.38(0.10)        |
|             | 불교        | (174)      | 5.99(0.11)        | 6.44(0.12)        |
|             | 천주교       | (116)      | 5.73(0.14)        | 6.33(0.15)        |
|             | 종교없음      | (492)      | 5.46(0.07)        | 5.94(0.07)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5.65(0.11)        | 6.24(0.11)        |
|             | 중도        | (437)      | 5.60(0.06)        | 6.12(0.07)        |
|             | 진보        | (319)      | 5.78(0.09)        | 6.18(0.09)        |
| 지역          | 서울        | (193)      | 5.42(0.11)        | 5.95(0.12)        |
|             | 인천/경기     | (306)      | 5.67(0.09)        | 6.14(0.09)        |
|             | 대전/충청/세종  | (105)      | 5.67(0.15)        | 6.27(0.15)        |
|             | 광주/전라     | (98)       | 6.06(0.14)        | 6.50(0.15)        |
|             | 대구/경북     | (102)      | 5.68(0.16)        | 6.09(0.16)        |
|             | 부산/울산/경남  | (155)      | 5.71(0.12)        | 6.20(0.12)        |
| 월 가구<br>소득  | 강원/제주     | (41)       | 5.73(0.23)        | 6.44(0.22)        |
|             | 300만원 미만  | (213)      | 5.36(0.10)        | 5.88(0.11)        |
|             | 300~500만원 | (345)      | 5.70(0.08)        | 6.19(0.08)        |
| 탈북민<br>교류정도 | 500만원 이상  | (442)      | 5.79(0.07)        | 6.29(0.07)        |
|             | 만난 적 없음   | (718)      | 5.57(0.05)        | 6.07(0.06)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5.92(0.10)        | 6.45(0.10)        |
|             | 정기적 만남    | (30)       | 5.88(0.34)        | 6.01(0.36)        |

대 이상 남성(6.38)의 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40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민족정체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5.53, 30대 여성: 5.21, 40대 남성: 5.72, 40대 여성: 5.42, 60대 이상 남성: 6.38, 60대 이상 여성: 5.84), 20대의 경우 여성(5.12)이 남성(4.98)보다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5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50대 남성: 6.00, 50대 여성: 5.94). 종교별로 보면 불교(5.99)에서 민족정체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무교(5.46)에서 가장 낮았다. 300만원 이하 소득군(5.36)의 민족정체성이 다른 두 소득군(300~500만원: 5.70, 500만원 이상: 5.79)에 비해 민족정체성이 낮았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남한정체성의 평균은 6.17로 민족정체성보다 높았다. 민족정체성과 유사하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정체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40대를 기준으로 20~30대와 50~60세대의 남한정체성의 차이가 두드러졌다(20대: 5.63, 30대: 5.73, 40대: 6.09, 50대: 6.39, 60대 이상: 6.68). 기독교(6.38)와 불교(6.44)에서 남한정체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고, 무교(3.97)에서 가장 낮았다. 성별과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믿음의 평균은 3.33이었다. 남성(3.39)이 여성(3.27)보다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증가하였다(20대: 3.12, 30대: 3.16, 40대: 3.39, 50대: 3.50, 60대 이상: 3.40).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40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한민족이라는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3.36, 30대 여성: 2.96, 40대 남성:

〈표 II-16〉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단일민족 믿음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33(0.03) |
| 성별          | 남성        | (496)      | 3.39(0.04) |
|             | 여성        | (504)      | 3.27(0.04) |
| 연령          | 20대       | (173)      | 3.12(0.07) |
|             | 30대       | (165)      | 3.16(0.07) |
|             | 40대       | (197)      | 3.39(0.06) |
|             | 50대       | (201)      | 3.50(0.07) |
|             | 60세+      | (264)      | 3.40(0.06)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04(0.10) |
|             | 20대 여성    | (82)       | 3.20(0.09) |
|             | 30대 남성    | (84)       | 3.36(0.1)  |
|             | 30대 여성    | (81)       | 2.96(0.11) |
|             | 40대 남성    | (100)      | 3.50(0.08) |
|             | 40대 여성    | (97)       | 3.26(0.08) |
|             | 50대 남성    | (103)      | 3.52(0.10) |
|             | 50대 여성    | (98)       | 3.48(0.08) |
|             | 60세+ 남성   | (118)      | 3.48(0.09) |
| 60세+ 여성     | (146)     | 3.34(0.07) |            |
| 종교          | 기독교       | (217)      | 3.30(0.06) |
|             | 불교        | (174)      | 3.40(0.07) |
|             | 천주교       | (116)      | 3.45(0.08) |
|             | 종교없음      | (492)      | 3.29(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15(0.06) |
|             | 중도        | (437)      | 3.25(0.04) |
|             | 진보        | (319)      | 3.57(0.05) |
| 지역          | 서울        | (193)      | 3.25(0.07) |
|             | 인천/경기     | (306)      | 3.34(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37(0.10) |
|             | 광주/전라     | (98)       | 3.51(0.09) |
|             | 대구/경북     | (102)      | 3.32(0.09)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29(0.07) |
|             | 강원/제주     | (41)       | 3.28(0.12) |
| 월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24(0.06) |
|             | 300~500만원 | (345)      | 3.32(0.05) |
|             | 500만원 이상  | (442)      | 3.38(0.04)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30(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40(0.06) |
|             | 정기적 만남    | (30)       | 3.43(0.15) |

3.50, 40대 여성: 3.26, 60대 이상 남성: 3.48, 60대 이상 여성: 3.34), 20대의 경우 여성(3.20)이 남성(3.0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보(3.57)가 한민족이라는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보수(3.15)와 중도(3.25)의 평균차이는 없었다. 월가구소득,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사. 자기 검열

또한 고질화된 갈등의 문화는 자기 검열(self-censorship) 기제를 통해 평화 문화로의 전환을 어렵게 한다.<sup>138)</sup> 자기 검열은 갈등의 문화, 즉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에 반하는 정보 및 서사가 사회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혹여 침투하더라도 거부당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대안적 정보를 무시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 자기 검열의 기제는 먼저 공식 및 비공식 사회 기관(예: 부처 및 언론)의 선택적 정보 제공을 통해 나타난다. 이 기관들은 지배적인 갈등-지지적 서사를 유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갈등에 도전하는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지지적 기관들은 검열을 통해 갈등-지지 서사에 도전하는 다양한 것(예: 신문 기사, 문화 채널 및 공식 출판물)에서 정보 공개 자체를 금지시키기도 한다. 문화적 차원에서 자기 검열 기제는 내부의 정보의 검열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예: 학교 교과서, NGO 보고서, 대중 매체 뉴스, 학자 연구 등)에 배포되는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만일 갈등의 문화에 반하는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는 경우 정보, 그리고 정보의 출처(개인 또는 단체)를 신뢰할 수 없고 내집단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묘사한다. 보통

---

138) Daniel Bar-Ta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eds, Mauro Galluccio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pp. 73~92.

은 그러한 정보를 유포하는 개인 및 조직을 비합법적, 비인간적으로 묘사한다.

갈등의 문화 속에서는 개인과 단체가 갈등의 서사에 도전하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재는 공식·비공식적 제재, 사회적·물리적·경제적 제재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제재는 갈등의 서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반대로 갈등의 서사를 지지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 역시 갈등의 문화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당국은 서사를 뒷받침하는 정보, 지식, 예술 및 기타 제품을 제공하는 정보통을 보상하고 장려한다. 예를 들어 대중 매체의 경우, 특정 기자에게 독점적 정보 또는 인터뷰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적 상품의 경우, 작가 또는 화가는 분쟁의 문화를 지지하는 창의적인 작품으로 상을 받을 수 있다. 목표는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혜택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검열은 자기검열 척도(self-censorship orientation scale) 중 4개 문항을 선택 번역하여 측정하였다.<sup>139)</sup>

- 1) 우리 집단, 또는 조직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그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 2) 우리 집단의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적들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 3)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집단과 조직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 4) 팩트에 부합하고 신뢰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

139) Keren Sharvit et al., "Self-Censorship Orientation: Scale Development, Correlates and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vol. 6, no. 2 (2018), p. 341.

〈표 II-17〉 인구통계학적 자기검열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51(0.03) |
| 성별          | 남성        | (496)  | 3.40(0.05) |
|             | 여성        | (504)  | 3.62(0.04) |
| 연령          | 20대       | (173)  | 3.41(0.07) |
|             | 30대       | (165)  | 3.36(0.08) |
|             | 40대       | (197)  | 3.46(0.07) |
|             | 50대       | (201)  | 3.53(0.08) |
|             | 60세+      | (264)  | 3.70(0.07)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41(0.11) |
|             | 20대 여성    | (82)   | 3.41(0.10) |
|             | 30대 남성    | (84)   | 3.35(0.13) |
|             | 30대 여성    | (81)   | 3.38(0.11) |
|             | 40대 남성    | (100)  | 3.38(0.11) |
|             | 40대 여성    | (97)   | 3.55(0.09) |
|             | 50대 남성    | (103)  | 3.31(0.11) |
|             | 50대 여성    | (98)   | 3.76(0.10) |
|             | 60세+ 여성   | (146)  | 3.84(0.09) |
| 종교          | 기독교       | (217)  | 3.56(0.08) |
|             | 불교        | (174)  | 3.67(0.08) |
|             | 천주교       | (116)  | 3.55(0.10) |
|             | 종교없음      | (492)  | 5.25(0.00)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42(0.05) |
|             | 중도        | (437)  | 3.46(0.07) |
|             | 진보        | (319)  | 3.52(0.05) |
| 지역          | 서울        | (193)  | 3.54(0.06) |
|             | 인천/경기     | (306)  | 3.44(0.08)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43(0.06) |
|             | 광주/전라     | (98)   | 3.55(0.10) |
|             | 대구/경북     | (102)  | 3.69(0.11)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48(0.10) |
|             | 강원/제주     | (41)   | 3.63(0.09) |
| 월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62(0.16) |
|             | 300~500만원 | (345)  | 3.50(0.07) |
|             | 500만원 이상  | (442)  | 3.45(0.05)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56(0.05)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52(0.04) |
|             | 정기적 만남    | (30)   | 3.50(0.07) |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은 .81이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17>에 제시하였다.

자기 검열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51로 중앙치 이상이었다. 여성(3.62)이 남성(3.40)보다 자기 검열의 수준이 높았으며 60세 이상(3.70)에서 자기 검열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30대(3.36)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 50대,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 검열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40대 남성: 3.38, 40대 여성: 3.55, 50대 남성: 3.31, 50대 여성: 3.76, 60대 이상 남성: 3.53, 60대 이상 여성: 3.84), 20대와 3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20대 남성: 3.41, 20대 여성: 3.41, 30대 남성: 3.35, 30대 여성: 3.38). 종교, 정치성향, 월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3. 분단의 마음

#### 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전쟁에 대한 태도와 평화에 대한 태도는 1년차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 중 4개 문항(9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9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으로 측정하였다.<sup>140)</sup> 전쟁에 대한 태도는 요인분석 결과 4개 문항 중 3개 문항만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 1) 한반도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
- 2)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유용한 측면도 있다.

---

140)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p. 101.

3) 남북 간의 전쟁은 남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나머지 문항은 방어전쟁에 대한 문항이었다.

4)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외에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3개 문항을 전쟁에 대한 태도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은 .93이었다. 평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 1)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실현이 되어야 한다.
- 2) 모든 남북 간 갈등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3)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4) 남북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었으며,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은 .84였다. 전쟁에 대한 태도, 예 방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에 대한 태도는 <표 II-18>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중앙치 5점에 못 미치는 3.45였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우세하였다. 남성(3.98)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여성(2.93)의 전쟁에 대한 태도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3.82)에서 전쟁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40대(3.07)에서 가장 낮았다. 전쟁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집단은 20대 남성(4.56),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40대 여성(2.68)이었다. 진보(2.77)가 전쟁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았고, 중도(3.53), 보수(4.20)순이었다. 소득수준,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18〉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전쟁, 방어전쟁, 평화에 대한 태도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전쟁태도(3문항)<br>평균(표준오차) | 방어전쟁<br>평균(표준오차) | 평화태도<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45(0.07)            | 6.06(0.08)       | 6.45(0.05)       |
| 성별          | 남성        | (496)      | 3.98(0.11)            | 6.00(0.12)       | 6.50(0.08)       |
|             | 여성        | (504)      | 2.93(0.09)            | 6.12(0.12)       | 6.40(0.07)       |
| 연령          | 20대       | (173)      | 3.82(0.16)            | 5.82(0.18)       | 5.84(0.13)       |
|             | 30대       | (165)      | 3.57(0.17)            | 6.14(0.19)       | 6.01(0.13)       |
|             | 40대       | (197)      | 3.07(0.15)            | 6.31(0.19)       | 6.73(0.11)       |
|             | 50대       | (201)      | 3.61(0.17)            | 6.07(0.19)       | 6.70(0.12)       |
|             | 60세+      | (264)      | 3.30(0.15)            | 5.98(0.18)       | 6.71(0.10)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4.56(0.20)            | 5.89(0.22)       | 5.65(0.18)       |
|             | 20대 여성    | (82)       | 3.00(0.22)            | 5.73(0.29)       | 6.05(0.16)       |
|             | 30대 남성    | (84)       | 3.95(0.23)            | 6.07(0.27)       | 6.28(0.17)       |
|             | 30대 여성    | (81)       | 3.18(0.23)            | 6.21(0.27)       | 5.73(0.20)       |
|             | 40대 남성    | (100)      | 3.44(0.23)            | 6.36(0.25)       | 6.84(0.15)       |
|             | 40대 여성    | (97)       | 2.68(0.19)            | 6.26(0.29)       | 6.61(0.15)       |
|             | 50대 남성    | (103)      | 3.99(0.25)            | 5.98(0.27)       | 6.74(0.19)       |
|             | 50대 여성    | (98)       | 3.22(0.21)            | 6.16(0.26)       | 6.67(0.15)       |
| 종교          | 60세+ 남성   | (118)      | 4.02(0.23)            | 5.73(0.26)       | 6.80(0.15)       |
|             | 60세+ 여성   | (146)      | 2.72(0.18)            | 6.18(0.24)       | 6.64(0.13)       |
|             | 기독교       | (217)      | 3.42(0.15)            | 6.07(0.18)       | 6.48(0.11)       |
|             | 불교        | (174)      | 3.50(0.17)            | 5.97(0.20)       | 6.41(0.13)       |
| 정치<br>성향    | 천주교       | (116)      | 3.50(0.21)            | 6.33(0.24)       | 6.46(0.14)       |
|             | 종교없음      | (492)      | 3.43(0.10)            | 6.03(0.12)       | 6.43(0.08)       |
|             | 보수        | (244)      | 4.20(0.16)            | 5.96(0.17)       | 6.06(0.12)       |
| 지역          | 중도        | (437)      | 3.53(0.10)            | 5.95(0.12)       | 6.24(0.07)       |
|             | 진보        | (319)      | 2.77(0.12)            | 6.29(0.16)       | 7.02(0.09)       |
| 월 가구<br>소득  | 서울        | (193)      | 3.58(0.17)            | 5.98(0.19)       | 6.24(0.12)       |
|             | 인천/경기     | (306)      | 3.21(0.13)            | 6.18(0.15)       | 6.55(0.10)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30(0.22)            | 6.16(0.26)       | 6.59(0.15)       |
|             | 광주/전라     | (98)       | 3.45(0.23)            | 5.79(0.28)       | 6.91(0.15)       |
|             | 대구/경북     | (102)      | 3.91(0.24)            | 6.20(0.24)       | 6.45(0.17)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69(0.18)            | 6.13(0.21)       | 6.09(0.14)       |
| 탈북민<br>교류정도 | 강원/제주     | (41)       | 3.03(0.33)            | 5.37(0.44)       | 6.52(0.25)       |
|             | 300만원 미만  | (213)      | 3.69(0.15)            | 5.73(0.18)       | 6.16(0.11)       |
|             | 300~500만원 | (345)      | 3.41(0.12)            | 6.17(0.14)       | 6.37(0.09)       |
| 탈북민<br>교류정도 | 500만원 이상  | (442)      | 3.37(0.11)            | 6.13(0.13)       | 6.64(0.08)       |
|             | 만난 적 없음   | (718)      | 3.34(0.08)            | 6.03(0.10)       | 6.43(0.06)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63(0.15)            | 6.12(0.17)       | 6.52(0.11)       |
| 정기적 만남      | (30)      | 4.76(0.43) | 6.20(0.41)            | 6.23(0.35)       |                  |

반면 방어전쟁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6.06이었으며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비해 방어를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태도와 전쟁의 유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방어를 위한 예방 전쟁 등 다양한 유형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평화에 대한 태도는 6.45였다. 20대(5.84)와 30대(6.01)의 평화에 대한 태도에 비해 40대 이상(40대: 6.73, 50대: 6.70, 60세 이상: 6.71)의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다. 평화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20대 남성(5.65)이었고 가장 긍정적인 집단은 40대 남성(6.84)이었다. 보수(6.06)와 중도(6.24)에 비해 진보(7.02)가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300만원 미만: 6.16, 300~500만원: 6.37, 500만원 이상: 6.64). 성별과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나.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

평화를 실현하는 두 가지 방식, 군사력을 통한 평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문항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와 같이 1년차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 중 4개 문항(9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9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으로 측정하였다.<sup>141)</sup>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문항 간

---

141)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pp. 104~105.

내적 신뢰도는 .85였다.

- 1) 강력한 군사력만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
- 2)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3)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4)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협력을 통한 평화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9였다.

-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 간 비군사적 수단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3)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 4) 남북 간 평화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표 II-19〉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군사력을 통한 평화, 협력을 통한 평화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군사력평화<br>평균(표준오차) | 협력평화<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5.24(0.06)        | 6.28(0.05)       |
| 성별          | 남성        | (496)      | 5.59(0.09)        | 6.26(0.08)       |
|             | 여성        | (504)      | 4.90(0.08)        | 6.30(0.07)       |
| 연령          | 20대       | (173)      | 5.02(0.13)        | 5.98(0.13)       |
|             | 30대       | (165)      | 4.86(0.14)        | 6.14(0.12)       |
|             | 40대       | (197)      | 4.60(0.13)        | 6.58(0.10)       |
|             | 50대       | (201)      | 5.68(0.14)        | 6.46(0.12)       |
|             | 60세+      | (264)      | 5.77(0.13)        | 6.20(0.10)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5.54(0.18)        | 5.69(0.18)       |
|             | 20대 여성    | (82)       | 4.45(0.17)        | 6.31(0.18)       |
|             | 30대 남성    | (84)       | 5.18(0.19)        | 6.28(0.17)       |
|             | 30대 여성    | (81)       | 4.53(0.20)        | 6.01(0.17)       |
|             | 40대 남성    | (100)      | 4.71(0.19)        | 6.71(0.15)       |
|             | 40대 여성    | (97)       | 4.49(0.17)        | 6.45(0.14)       |
|             | 50대 남성    | (103)      | 6.03(0.20)        | 6.41(0.19)       |
|             | 50대 여성    | (98)       | 5.30(0.19)        | 6.51(0.14)       |
|             | 60세+ 남성   | (118)      | 6.27(0.19)        | 6.16(0.16)       |
| 60세+ 여성     | (146)     | 5.36(0.16) | 6.22(0.13)        |                  |
| 종교          | 기독교       | (217)      | 5.14(0.14)        | 6.33(0.11)       |
|             | 불교        | (174)      | 5.61(0.14)        | 6.36(0.12)       |
|             | 천주교       | (116)      | 5.39(0.18)        | 6.24(0.16)       |
|             | 종교없음      | (492)      | 5.11(0.09)        | 6.23(0.07)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6.09(0.12)        | 5.74(0.11)       |
|             | 중도        | (437)      | 5.23(0.09)        | 6.05(0.07)       |
|             | 진보        | (319)      | 4.60(0.11)        | 7.01(0.08)       |
| 지역          | 서울        | (193)      | 5.24(0.14)        | 6.20(0.12)       |
|             | 인천/경기     | (306)      | 5.05(0.11)        | 6.36(0.09)       |
|             | 대전/충청/세종  | (105)      | 5.32(0.18)        | 6.39(0.16)       |
|             | 광주/전라     | (98)       | 4.99(0.21)        | 6.73(0.15)       |
|             | 대구/경북     | (102)      | 5.63(0.18)        | 5.97(0.16)       |
|             | 부산/울산/경남  | (155)      | 5.53(0.16)        | 6.04(0.13)       |
| 월 가구<br>소득  | 강원/제주     | (41)       | 5.03(0.31)        | 6.35(0.26)       |
|             | 300만원 미만  | (213)      | 5.23(0.13)        | 6.02(0.11)       |
|             | 300~500만원 | (345)      | 5.28(0.10)        | 6.23(0.09)       |
| 탈북민<br>교류정도 | 500만원 이상  | (442)      | 5.21(0.10)        | 6.44(0.08)       |
|             | 만난 적 없음   | (718)      | 5.12(0.07)        | 6.24(0.06)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5.54(0.13)        | 6.38(0.11)       |
|             | 정기적 만남    | (30)       | 5.63(0.37)        | 6.39(0.29)       |

평화를 실현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19>에 제시하였다. 먼저 군사력을 통한 평화의 평균은 5.24였다. 우리 국민은 전쟁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비해 군사력을 통한 평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4.90)에 비해 남성(5.59)이 군사력에 의한 평화에 긍정적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50대: 5.68, 60세 이상: 5.77)이 20대(5.02), 30대(4.86), 그리고 40대(4.60)에 비해 군사력에 의한 평화를 선호하였다. 20대 여성(4.45), 40대 여성(4.49), 30대 여성(4.53), 40대 남성(4.71)의 군사력에 의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았으며, 50대 남성(6.03), 60대 남성(6.27)이 가장 높았다. 진보(4.60)에 비해 중도(5.23), 중도에 비해 보수(6.09)가 군사력의 의한 평화를 선호하였으며 종교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협력에 의한 평화의 평균은 6.28이었다. 20대(5.98)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40대(6.58)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평화실현 수단(협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6.28, 30대 여성: 6.01, 40대 남성: 6.71, 40대 여성: 6.45), 20대와 50대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화실현 수단(협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20대 남성: 5.69, 20대 여성: 6.31, 50대 남성: 6.41, 50대 여성: 6.51), 60세 이상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60세 이상 남성: 6.16, 60세 이상 여성: 6.22). 20대 남성이 최저, 40대 남성이 최고였다.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평화실현을 위한 두 방식에 대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보수(5.74)에 비해 중도(6.05), 중도에 비해 진보(7.01)가 협력에 의한 평화에 긍정적이었으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협력에 의한 평화를 선호하

였다(300만원 미만: 6.02, 300~500만원: 6.23, 500만원 이상: 6.44).  
성별,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다.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특징

1년차 연구에서 고착화된 갈등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소개하였다.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첫째 내집단(한국)의 목표가 정당하다는 신념, 둘째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 안보에 대한 강조, 셋째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우월적 의식, 넷째 경쟁적 희생자 인식, 다섯째 외집단의 악마화, 여섯째 단결 일치를 강조, 일곱째 애국심의 강조, 마지막으로 평화에 대한 추상적 인식이다. 고착화된 갈등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심리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내집단의 긍정적 이미지, 상대의 대한 불법화, 희생자 인식, 내집단 목표의 정당성, 애국심, 평화에 대한 태도, 안보에 대한 태도, 단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Ethos Of Conflict scale: EOC 척도).<sup>142)</sup> 본 연구에서는 EOC 척도를 바탕으로 7가지 특성을 측정하였다: 제로섬 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 한국의 우월성, 악마화, 단결, 한국의 정당성, 분단의 중심성.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인식**은 4개 문항(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으로 측정하였으며,<sup>143)</sup>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9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20>에 제시하였다.

---

142) Daniel Bar-Tal et al., "Ethos of Conflict: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8, no. 1 (2012), p. 48.

143) Joanna Różycka-Tran,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6, no. 4 (2015), p. 529.

- 1)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 2)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 3)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그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 4) 남북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

제로섬 인식의 평균은 3.47이었다. 남북관계를 제로섬을 보는 인식은 40대(3.26)가 가장 낮았으며 20대(3.71)와 50대(3.33)가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3.28, 30대 여성: 3.54, 40대 남성: 3.15, 40대 여성: 3.37), 2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20대 남성: 3.87, 20대 여성: 3.54). 제로섬 인식이 가장 낮은 집단은 40대 남성,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이었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3.73)에서 제로섬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진보(3.03)보다 중도(3.56), 중도보다 보수(3.93)에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으며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경쟁적 희생자 인식**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4문항(6점 척도)을 사용하였다.<sup>144)</sup> 문항 간 신뢰도는 .84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

144)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p. 488; Noa Schori-Eyal,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ree Layers of Collective Victimhood: Effects of Multileveled Victimhood on Intergroup Conflicts in the Israeli-Arab Contex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2 (2014),

평균은 <표 II-20>에 제시하였다.

- 1)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
- 2)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3) 지난 70년의 분단기간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
- 4) 지난 70년의 분단을 돌아보면 북한은 가해자, 남한은 피해자의 역사였다.

<표 II-20>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제로섬 인식, 경쟁적 희생자 인식, 남한 우월성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제로섬 인식<br>평균(표준오차) | 희생자인식<br>평균(표준오차) | 우월성<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47(0.04)         | 3.40(0.03)        | 3.69(0.03)      |
| 성별 | 남성     | (496)  | 3.44(0.05)         | 3.41(0.05)        | 3.68(0.05)      |
|    | 여성     | (504)  | 3.51(0.05)         | 3.40(0.04)        | 3.71(0.05)      |
| 연령 | 20대    | (173)  | 3.71(0.07)         | 3.56(0.08)        | 3.81(0.07)      |
|    | 30대    | (165)  | 3.41(0.08)         | 3.28(0.08)        | 3.67(0.08)      |
|    | 40대    | (197)  | 3.26(0.08)         | 3.27(0.07)        | 3.48(0.08)      |
|    | 50대    | (201)  | 3.33(0.08)         | 3.26(0.07)        | 3.61(0.08)      |
|    | 60세+   | (264)  | 3.62(0.08)         | 3.58(0.07)        | 3.86(0.07)      |
| 성  | 20대 남성 | (91)   | 3.87(0.10)         | 3.85(0.12)        | 3.90(0.11)      |
|    | 20대 여성 | (82)   | 3.54(0.10)         | 3.23(0.10)        | 3.70(0.11)      |
| 연령 | 30대 남성 | (84)   | 3.28(0.12)         | 3.31(0.10)        | 3.71(0.10)      |
|    | 30대 여성 | (81)   | 3.54(0.11)         | 3.26(0.11)        | 3.64(0.12)      |

p. 783; Nurit Shnabel,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9, no. 5 (2013), p. 869.



|             | 구분        | 사례수   | 제로섬 인식<br>평균(표준오차) | 희생자인식<br>평균(표준오차) | 우월성<br>평균(표준오차) |
|-------------|-----------|-------|--------------------|-------------------|-----------------|
|             | 40대 남성    | (100) | 3.15(0.12)         | 3.18(0.11)        | 3.40(0.10)      |
|             | 40대 여성    | (97)  | 3.37(0.10)         | 3.37(0.09)        | 3.56(0.11)      |
|             | 50대 남성    | (103) | 3.30(0.12)         | 3.21(0.11)        | 3.50(0.11)      |
|             | 50대 여성    | (98)  | 3.37(0.09)         | 3.32(0.1)         | 3.73(0.11)      |
|             | 60세+ 남성   | (118) | 3.57(0.12)         | 3.52(0.10)        | 3.88(0.11)      |
|             | 60세+ 여성   | (146) | 3.66(0.10)         | 3.64(0.09)        | 3.85(0.09)      |
| 종교          | 기독교       | (217) | 3.46(0.07)         | 3.36(0.07)        | 3.74(0.07)      |
|             | 불교        | (174) | 3.73(0.08)         | 3.66(0.07)        | 3.89(0.08)      |
|             | 천주교       | (116) | 3.40(0.10)         | 3.36(0.10)        | 3.65(0.10)      |
|             | 종교없음      | (492) | 3.40(0.05)         | 3.34(0.05)        | 3.62(0.05)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90(0.07)         | 3.62(0.07)        | 3.87(0.07)      |
|             | 중도        | (437) | 3.56(0.05)         | 3.47(0.05)        | 3.65(0.05)      |
|             | 진보        | (319) | 3.03(0.06)         | 3.14(0.06)        | 3.62(0.06)      |
| 지역          | 서울        | (193) | 3.44(0.08)         | 3.33(0.07)        | 3.69(0.08)      |
|             | 인천/경기     | (306) | 3.38(0.06)         | 3.38(0.06)        | 3.66(0.06)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49(0.12)         | 3.35(0.11)        | 3.68(0.11)      |
|             | 광주/전라     | (98)  | 3.29(0.11)         | 3.47(0.12)        | 3.66(0.10)      |
|             | 대구/경북     | (102) | 3.68(0.12)         | 3.46(0.10)        | 3.75(0.10)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69(0.08)         | 3.49(0.07)        | 3.65(0.08)      |
|             | 강원/제주     | (41)  | 3.34(0.18)         | 3.44(0.20)        | 4.12(0.17)      |
| 월 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57(0.08)         | 3.46(0.08)        | 3.68(0.07)      |
|             | 300~500만원 | (345) | 3.55(0.05)         | 3.49(0.05)        | 3.69(0.06)      |
|             | 500만원 이상  | (442) | 3.37(0.06)         | 3.31(0.05)        | 3.70(0.05)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46(0.04)         | 3.37(0.04)        | 3.66(0.04)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49(0.07)         | 3.45(0.07)        | 3.78(0.07)      |
|             | 정기적 만남    | (30)  | 3.71(0.22)         | 3.76(0.22)        | 3.80(0.22)      |

한국인의 경쟁적 희생자 의식의 평균은 3.40이었다. 연령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었다. 40대 남성(3.13), 50대 남성(3.21), 20대 여성(3.23)의 경쟁적 희생자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0대 남성(3.85)의 경쟁적 희생자 인식은 높았다. 20대의 성별차이가 뚜렷하였다. 불교(3.66)가 경쟁적 피해자 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고, 무교(3.34)가 가장 낮았으며 정치성향별로는 보수(3.62)와 중도(3.47)가 상대적으로 진보(3.14)에 비해 경쟁적 인식이 높았다. 소득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월감**은 EOC 척도(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신뢰도는 .75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비해 우수한 특징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 2) 남한은 북한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묻는 2개 문항의 평균은 3.69이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20>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86)에서 한국의 우월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40대(3.48)에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3.87)가 중도(3.65)와 진보(3.62)에 비해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성별, 소득, 종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북한에 대한 악마화**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sup>145)</sup> 연구진이 추가한 한 문항을 합친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

---

145) Shira Kudish, Smadar Cohen-Chen and Eran Halperin, "Increasing Support for Concession-Making in Intractable Conflicts: The Role of Conflict Uniquenes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21, no. 2 (2015), p. 251.

〈표 II-21〉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악마화, 단결, 남한 정당성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악마화<br>평균(표준오차) | 단결<br>평균(표준오차) | 남한정당성<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74(0.04)      | 3.94(0.03)     | 3.53(0.04)        |
| 성별          | 남성        | (496)  | 3.80(0.06)      | 3.97(0.05)     | 3.66(0.06)        |
|             | 여성        | (504)  | 3.68(0.05)      | 3.90(0.05)     | 3.41(0.05)        |
| 연령          | 20대       | (173)  | 3.65(0.09)      | 3.59(0.08)     | 3.45(0.10)        |
|             | 30대       | (165)  | 3.48(0.09)      | 3.59(0.08)     | 3.35(0.09)        |
|             | 40대       | (197)  | 3.32(0.08)      | 3.69(0.07)     | 3.29(0.08)        |
|             | 50대       | (201)  | 3.84(0.09)      | 4.19(0.07)     | 3.56(0.09)        |
|             | 60세+      | (264)  | 4.19(0.08)      | 4.37(0.07)     | 3.87(0.08)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4.04(0.12)      | 3.78(0.12)     | 3.88(0.13)        |
|             | 20대 여성    | (82)   | 3.23(0.12)      | 3.39(0.09)     | 2.96(0.12)        |
|             | 30대 남성    | (84)   | 3.50(0.13)      | 3.62(0.10)     | 3.44(0.14)        |
|             | 30대 여성    | (81)   | 3.45(0.13)      | 3.56(0.11)     | 3.27(0.12)        |
|             | 40대 남성    | (100)  | 3.21(0.12)      | 3.56(0.10)     | 3.26(0.11)        |
|             | 40대 여성    | (97)   | 3.44(0.11)      | 3.82(0.10)     | 3.32(0.10)        |
|             | 50대 남성    | (103)  | 3.77(0.14)      | 4.14(0.11)     | 3.54(0.14)        |
|             | 50대 여성    | (98)   | 3.92(0.12)      | 4.24(0.10)     | 3.58(0.11)        |
| 종교          | 60세+ 남성   | (118)  | 4.34(0.13)      | 4.58(0.10)     | 4.11(0.12)        |
|             | 60세+ 여성   | (146)  | 4.07(0.10)      | 4.20(0.09)     | 3.67(0.10)        |
|             | 기독교       | (217)  | 3.81(0.09)      | 4.06(0.07)     | 3.62(0.09)        |
|             | 불교        | (174)  | 4.11(0.09)      | 4.19(0.08)     | 3.80(0.09)        |
| 정치<br>성향    | 천주교       | (116)  | 3.72(0.11)      | 3.93(0.10)     | 3.57(0.10)        |
|             | 종교없음      | (492)  | 3.58(0.06)      | 3.80(0.05)     | 3.39(0.06)        |
|             | 보수        | (244)  | 4.43(0.08)      | 4.39(0.07)     | 4.03(0.08)        |
| 지역          | 중도        | (437)  | 3.73(0.05)      | 3.88(0.05)     | 3.55(0.05)        |
|             | 진보        | (319)  | 3.23(0.07)      | 3.66(0.06)     | 3.13(0.07)        |
|             | 서울        | (193)  | 3.71(0.09)      | 3.83(0.08)     | 3.51(0.09)        |
|             | 인천/경기     | (306)  | 3.64(0.08)      | 3.90(0.06)     | 3.47(0.07)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73(0.14)      | 3.95(0.11)     | 3.52(0.13)        |
|             | 광주/전라     | (98)   | 3.51(0.11)      | 3.95(0.11)     | 3.39(0.11)        |
| 월 가구<br>소득  | 대구/경북     | (102)  | 4.04(0.12)      | 4.08(0.09)     | 3.64(0.12)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95(0.09)      | 4.06(0.09)     | 3.69(0.10)        |
|             | 강원/제주     | (41)   | 3.65(0.21)      | 3.80(0.18)     | 3.61(0.17)        |
| 탈북민<br>교류정도 | 300만원 미만  | (213)  | 3.84(0.08)      | 3.93(0.07)     | 3.54(0.08)        |
|             | 300~500만원 | (345)  | 3.75(0.07)      | 3.90(0.05)     | 3.51(0.06)        |
|             | 500만원 이상  | (442)  | 3.68(0.06)      | 3.97(0.06)     | 3.54(0.06)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71(0.05)      | 3.89(0.04)     | 3.50(0.04)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81(0.08)      | 4.05(0.07)     | 3.62(0.08)        |
|             | 정기적 만남    | (30)   | 3.76(0.23)      | 4.04(0.22)     | 3.50(0.24)        |

는 .92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21>에 제시하였다.

- 1) 북한은 악의 축이다.
- 2)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다.
- 3) 북한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 4) 북한은 절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악마화의 평균은 3.74이며 50세 이상(50대: 3.84, 60대 이상: 4.19)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40대(3.32)에서 가장 낮았다. 40대 남성, 20대 여성의 북한 악마화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60세 이상의 남성이 가장 높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화)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20대 남성: 4.04, 20대 여성: 3.23, 60대 이상 남성: 4.34, 60대 이상 여성: 4.07), 40대와 50대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40대 남성: 3.21, 40대 여성: 3.44, 50대 남성: 3.77, 50대 여성: 3.92). 3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30대 남성: 3.50, 30대 여성: 3.45). 종교별로 보면 불교(4.11)와 기독교(3.81)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무교(3.58)에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4.43)-중도(3.73)-진보(3.23) 순으로 북한에 대한 악마화가 강했다. 성별과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단결(unity)은 EOC 척도를 참고로 하여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6이었다(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

은 <표 II-21>에 제시하였다.

- 1)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기 보다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 2) 북한이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들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 3) 다양성은 좋은 것이지만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은 해악이 더 크다.

단결을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은 3.94였다 20대(3.59), 30대(3.59), 40대(3.69)에 비해 50대(4.19), 60대 이상(4.37)이 단결의 평균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20대 여성(3.39)의 단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았으며 60대 남성(4.58)이 가장 높았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4.19)에서 단결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무교(3.80)에서 가장 낮았다. 진보(3.66)에 비해 중도(3.88)가, 중도에 비해 보수(4.39)가 단결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성별과 소득수준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내집단의 정당성은 EOC 척도를 바탕으로 2개 문항(6점 척도 1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는 .81이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21>에 제시하였다.

- 1) 남한은 북한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점령한 불법집단이기 때문이다.
- 2) 국제사회는 남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정당성에 대한 평균은 3.53이었다. 남성(3.66)이 여성(3.41)보다 내집단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강했으며 20대(3.45), 30대(3.35), 40대(3.29)에 비해 50대(3.56), 60대 이상(3.87)이 한국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상대적으로 20대 여성(2.96)의 단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았으며 60대 남성(4.11)이 가장 높았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3.80)에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진보(3.13)에 비해 중도(3.55)가, 중도에 비해 보수(4.03)가 한국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소득수준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분단의 중심성은 분단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으로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sup>146)</sup>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5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평균은 <표 II-22>에 제시하였다.

- 1)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2)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3) 나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 4) 분단의 역사와 과정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아니다.

분단의 중심성을 묻는 문항은 역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단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의 중심성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30이었다. 20대(3.55)와 30대(3.54)가 분단이

---

146) Johanna Ray Vollhardt, “Victim Consciousness and Its Effects on Intergroup Relations—a Double-Edged Swor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09, p. 191.

〈표 II-22〉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분단중심성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30(0.03) |
| 성별          | 남성        | (496)      | 3.27(0.05) |
|             | 여성        | (504)      | 3.33(0.04) |
| 연령          | 20대       | (173)      | 3.55(0.08) |
|             | 30대       | (165)      | 3.54(0.08) |
|             | 40대       | (197)      | 3.23(0.07) |
|             | 50대       | (201)      | 3.26(0.07) |
|             | 60세+      | (264)      | 3.07(0.06)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65(0.11) |
|             | 20대 여성    | (82)       | 3.44(0.10) |
|             | 30대 남성    | (84)       | 3.53(0.12) |
|             | 30대 여성    | (81)       | 3.56(0.10) |
|             | 40대 남성    | (100)      | 3.13(0.09) |
|             | 40대 여성    | (97)       | 3.33(0.09) |
|             | 50대 남성    | (103)      | 3.20(0.09) |
|             | 50대 여성    | (98)       | 3.32(0.10) |
|             | 60세+ 남성   | (118)      | 2.99(0.10) |
| 60세+ 여성     | (146)     | 3.13(0.07) |            |
| 종교          | 기독교       | (217)      | 3.23(0.07) |
|             | 불교        | (174)      | 3.29(0.08) |
|             | 천주교       | (116)      | 3.13(0.08) |
|             | 종교없음      | (492)      | 3.37(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37(0.07) |
|             | 중도        | (437)      | 3.36(0.04) |
|             | 진보        | (319)      | 3.16(0.06) |
| 지역          | 서울        | (193)      | 3.30(0.07) |
|             | 인천/경기     | (306)      | 3.31(0.06)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22(0.10) |
|             | 광주/전라     | (98)       | 3.27(0.09) |
|             | 대구/경북     | (102)      | 3.34(0.10)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34(0.08) |
|             | 강원/제주     | (41)       | 3.28(0.16) |
| 월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35(0.07) |
|             | 300~500만원 | (345)      | 3.30(0.05) |
|             | 500만원 이상  | (442)      | 3.27(0.05)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31(0.04)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25(0.06) |
|             | 정기적 만남    | (30)       | 3.38(0.23) |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60대 이상(3.07)과 40대(3.23)가 가장 높았다. 진보(3.16)가 중도(3.36)와 보수(3.37)에 비해 분단의 중심성이 더 강했다. 성별, 종교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라.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정서(Emotion)는 20개 문항, 6점 척도(1점: 전혀 경험하지(느끼지) 않음, 6점: 전적으로 경험함(느낌))로 측정하였다.<sup>147)</sup> 각 정서별 평균은 <그림 II-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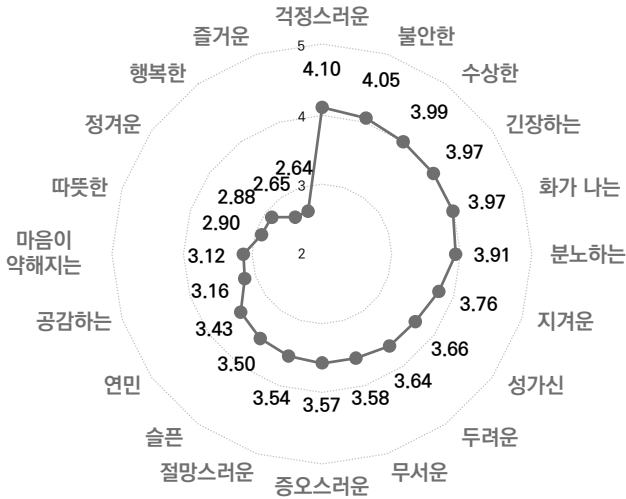
- |           |              |
|-----------|--------------|
| 1) 두려운    | 11) 성가신      |
| 2) 무서운    | 12) 지켜운      |
| 3) 긴장하는   | 13) 즐거운      |
| 4) 분노하는   | 14) 정겨운      |
| 5) 화가 나는  | 15) 행복한      |
| 6) 증오스러운  | 16) 마음이 약해지는 |
| 7) 불안한    | 17) 공감하는     |
| 8) 수상한    | 18) 연민       |
| 9) 걱정스러운  | 19) 슬픈       |
| 10) 절망스러운 | 20) 따뜻함      |

---

147) Tania Tam et al., "The Impact of Intergroup Emotions on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10, no. 1 (2007), p. 124.



〈그림 11-8〉 북한에 대한 정서의 평균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정서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수상한’, ‘긴장하는’, ‘화가 나는’, ‘분노하는’, ‘지겨운’ 이 그 뒤를 따랐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우세한 가운데 따뜻한, 정겨운, 즐거운 등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부정적 정서의 강도는 더 강했다. 다시 말해 20대와 30대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가장 약하고 60대 이상이 느끼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가장 강했다. 예를 들어 20대(3.23)와 30대(3.39), 40대(3.38)가 느끼는 북한에 대한 ‘걱정스러운’ 정서는 다르지 않았고 60대 이상(3.88)보다 약했다. ‘무서운’, ‘긴장하는’, ‘분노하는’, ‘화가 나는’, ‘증오스러운’, ‘불안한’, ‘수상한’, ‘절망스러운’, ‘성가신’, ‘지겨운’ 정서에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큰 틀에서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 마. 한국인과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 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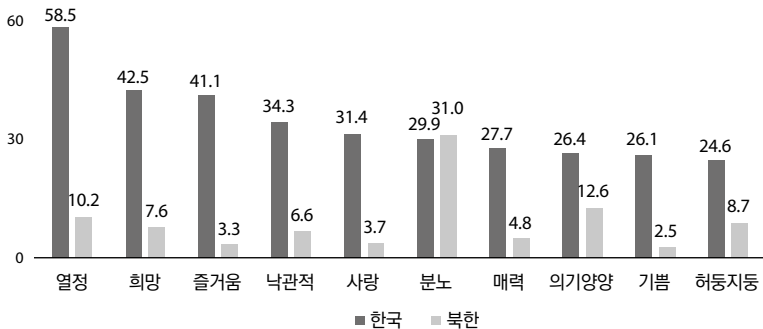
한국인과 북한주민에 특징을 28개 보기들 중 원하는 만큼 선택하였다.<sup>148)</sup>

- |        |            |          |         |
|--------|------------|----------|---------|
| 1) 놀라움 | 8) 낙관적     | 15) 고통   | 22) 창피함 |
| 2) 침착함 | 9) 사랑      | 16) 두려움  | 23) 수치  |
| 3) 매력  | 10) 열정     | 17) 화남   | 24) 죄책감 |
| 4) 기쁨  | 11) 의기양양   | 18) 분노   | 25) 역겨움 |
| 5) 돌봄  | 12) 향수에 젖은 | 19) 허둥지둥 | 26) 우울함 |
| 6) 신남  | 13) 감탄     | 20) 섬뜩함  | 27) 암담함 |
| 7) 즐거움 | 14) 희망     | 21) 괴로움  | 28) 환멸  |

〈그림 II-9〉에 한국인의 특징 중 가장 많이 선택된 10개 특성을, 〈그림 II-10〉은 북한 주민의 특징 중 가장 많이 선택된 10개 특성을 선택된 비율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II-9〉 한국인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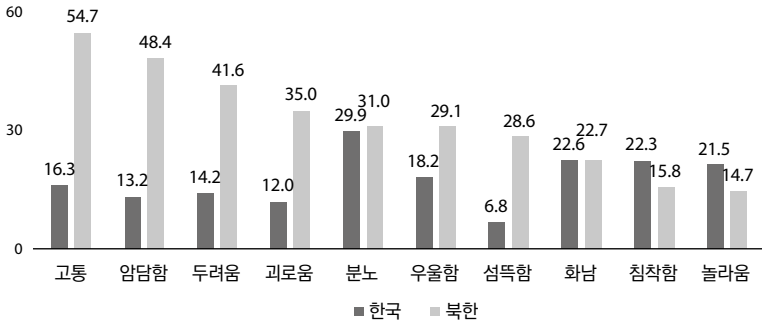
(단위: %)



148) *Ibid.*, pp. 124~125.

〈그림 II-10〉 북한주민에 대한 상위 10개 고정관념과 선택된 비율

(단위: %)



〈그림 II-9〉, 〈그림 II-10〉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긍정적이었으며 북한 주민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북한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은 부정적이었으며 한국인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노는 한국인과 북한 주민 모두의 특성으로 제시된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 4. 화해의 마음

### 가. 한반도 문제의 희망, 북한에 대한 신뢰와 공감

남북관계 및 비핵화 협상에 대한 희망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 문항을 구성하였다.<sup>149)</sup> 문항 간 내적신뢰도는 .91이었다.

149) Smadar Cohen-Chen et al., "Hope in the Middle East: Malleability Beliefs, Hope, and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for Peace," p. 69; Smadar Cohen-Chen, Richard J. Crisp and Eran Halperin, "Perceptions of a Changing World Induce Hope and Promote Peace in Intractable Confli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1, no. 4 (2015), p. 500.

- 1) 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희망적이다.
- 2) 나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에 대해 희망적이다.
- 3) 나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해 희망적이다.

한반도 문제의 희망을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은 3.41이었고 40대 (3.70)가 인식하는 한반도 문제의 희망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 (3.55), 30대(3.51), 40대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반면 60대(3.11)가 느끼는 희망이 가장 낮았다. 40대 남성(3.85), 50대 남성(3.31), 20대 여성(3.73)의 희망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남성 (2.97)의 희망이 가장 낮았다. 보수(2.88)-중도(3.35)-진보(3.91)의 순으로 한반도 문제의 희망이 높았다. 월소득 300만원 이하 집단 (3.18)의 희망이 300만원 초과 집단(300~500만원: 3.43, 500만원 이상: 3.51)의 희망보다 낮았다. 성별과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착화된 갈등 사회에서 신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2개 문항,<sup>150)</sup>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1개 문항, 모두 3개 문항을 6점 척도에서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1이었다.

- 1) 지금까지 남북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 2) 만일 북한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다면 남북한의 갈등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 3) 북한은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로운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

150) Tania Tam et al., "Intergroup Trust in Northern Irel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no. 1 (2009), pp. 47~48.

〈표 II-23〉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희망과 신뢰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희망<br>평균(표준오차) | 신뢰<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41(0.04)     | 2.84(0.04)     |
| 성별          | 남성        | (496)  | 3.43(0.05)     | 2.86(0.05)     |
|             | 여성        | (504)  | 3.40(0.05)     | 2.81(0.05)     |
| 연령          | 20대       | (173)  | 3.55(0.08)     | 2.96(0.08)     |
|             | 30대       | (165)  | 3.51(0.09)     | 3.06(0.09)     |
|             | 40대       | (197)  | 3.70(0.07)     | 3.03(0.07)     |
|             | 50대       | (201)  | 3.34(0.09)     | 2.78(0.08)     |
|             | 60세+      | (264)  | 3.11(0.07)     | 2.52(0.07)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39(0.12)     | 2.85(0.13)     |
|             | 20대 여성    | (82)   | 3.73(0.09)     | 3.07(0.11)     |
|             | 30대 남성    | (84)   | 3.75(0.11)     | 3.10(0.12)     |
|             | 30대 여성    | (81)   | 3.26(0.12)     | 3.02(0.13)     |
|             | 40대 남성    | (100)  | 3.85(0.09)     | 3.19(0.10)     |
|             | 40대 여성    | (97)   | 3.55(0.09)     | 2.86(0.10)     |
|             | 50대 남성    | (103)  | 3.31(0.13)     | 2.74(0.12)     |
|             | 50대 여성    | (98)   | 3.36(0.11)     | 2.83(0.12)     |
|             | 60세+ 여성   | (146)  | 3.22(0.10)     | 2.52(0.09)     |
| 종교          | 기독교       | (217)  | 3.47(0.08)     | 2.71(0.08)     |
|             | 불교        | (174)  | 3.19(0.09)     | 2.72(0.09)     |
|             | 천주교       | (116)  | 3.46(0.11)     | 2.96(0.11)     |
|             | 종교없음      | (492)  | 3.46(0.05)     | 2.91(0.05)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2.88(0.08)     | 2.31(0.07)     |
|             | 중도        | (437)  | 3.35(0.05)     | 2.90(0.05)     |
|             | 진보        | (319)  | 3.91(0.06)     | 3.15(0.06)     |
| 지역          | 서울        | (193)  | 3.40(0.08)     | 2.90(0.08)     |
|             | 인천/경기     | (306)  | 3.49(0.06)     | 2.84(0.06)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39(0.12)     | 2.75(0.12)     |
|             | 광주/전라     | (98)   | 3.79(0.10)     | 3.03(0.11)     |
|             | 대구/경북     | (102)  | 3.21(0.12)     | 2.87(0.12)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21(0.09)     | 2.73(0.10)     |
| 월 가구 소득     | 강원/제주     | (41)   | 3.38(0.20)     | 2.63(0.18)     |
|             | 300만원 미만  | (213)  | 3.18(0.08)     | 2.79(0.08)     |
|             | 300~500만원 | (345)  | 3.43(0.06)     | 2.91(0.06)     |
| 탈북민<br>교류정도 | 500만원 이상  | (442)  | 3.51(0.05)     | 2.81(0.06)     |
|             | 만난 적 없음   | (718)  | 3.38(0.04)     | 2.81(0.04)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48(0.07)     | 2.86(0.08)     |
|             | 정기적 만남    | (30)   | 3.77(0.19)     | 3.39(0.23)     |

북한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2.84이며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평균은 <표 II-23>에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2.96), 30대(3.06), 40대(3.03)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60세 이상(2.52) 보다 높았다. 40대 남성(3.85)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60대 여성(2.52)이 낮았다.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진보(3.15)가 북한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반면 보수(2.31)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중도(2.90)는 진보보다 높고 보수보다 낮았다.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공감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6점 척도).<sup>151)</sup> 요인분석 결과 문항 2와 문항 3만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두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76이었다. 4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 2와 문항 3의 평균(북한과의 공감), 문항 1, 문항 4의 평균을 제시하였다(<표 II-24>).

- 1)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 3)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외부세계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 4) 어떤 이유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

---

151)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p. 487~488; Masi Noor et al., "On Positive Psychological Outcomes: What Helps Groups with a History of Conflict to Forgive and Reconcile with Each 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4, no. 6 (2008), p. 823.

〈표 II-24〉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북한과의 공감, 체제보장에 대한 공감, 핵실험 정당화에 대한 평균

| 구분          |           | 사례수    | 공감<br>평균(표준오차) | 체제보장<br>평균(표준오차) | 핵실험 정당화<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22(0.04)     | 4.05(0.04)       | 4.56(0.04)          |
| 성별          | 남성        | (496)  | 3.26(0.06)     | 4.15(0.06)       | 4.56(0.06)          |
|             | 여성        | (504)  | 3.19(0.05)     | 3.95(0.06)       | 4.56(0.05)          |
| 연령          | 20대       | (173)  | 3.16(0.09)     | 3.86(0.10)       | 4.41(0.10)          |
|             | 30대       | (165)  | 3.28(0.09)     | 3.99(0.10)       | 4.55(0.09)          |
|             | 40대       | (197)  | 3.52(0.08)     | 4.03(0.08)       | 4.29(0.09)          |
|             | 50대       | (201)  | 3.24(0.09)     | 4.17(0.09)       | 4.61(0.08)          |
|             | 60세+      | (264)  | 3.00(0.08)     | 4.13(0.09)       | 4.83(0.08)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15(0.14)     | 3.99(0.14)       | 4.60(0.14)          |
|             | 20대 여성    | (82)   | 3.16(0.13)     | 3.71(0.14)       | 4.20(0.13)          |
|             | 30대 남성    | (84)   | 3.40(0.14)     | 4.11(0.14)       | 4.71(0.13)          |
|             | 30대 여성    | (81)   | 3.17(0.12)     | 3.88(0.14)       | 4.37(0.13)          |
|             | 40대 남성    | (100)  | 3.69(0.10)     | 4.20(0.11)       | 4.17(0.12)          |
|             | 40대 여성    | (97)   | 3.35(0.12)     | 3.85(0.12)       | 4.42(0.12)          |
|             | 50대 남성    | (103)  | 3.29(0.12)     | 4.23(0.13)       | 4.50(0.12)          |
|             | 50대 여성    | (98)   | 3.18(0.13)     | 4.10(0.13)       | 4.72(0.12)          |
|             | 60세+ 여성   | (146)  | 3.10(0.11)     | 4.09(0.12)       | 4.85(0.10)          |
| 종교          | 기독교       | (217)  | 3.16(0.09)     | 4.05(0.09)       | 4.66(0.08)          |
|             | 불교        | (174)  | 3.22(0.10)     | 4.03(0.11)       | 4.71(0.09)          |
|             | 천주교       | (116)  | 3.10(0.11)     | 3.94(0.12)       | 4.51(0.12)          |
|             | 종교없음      | (492)  | 3.28(0.05)     | 4.08(0.06)       | 4.48(0.06)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2.91(0.08)     | 4.09(0.10)       | 4.88(0.08)          |
|             | 중도        | (437)  | 3.21(0.06)     | 3.93(0.06)       | 4.50(0.06)          |
|             | 진보        | (319)  | 3.49(0.07)     | 4.17(0.07)       | 4.39(0.07)          |
| 지역          | 서울        | (193)  | 3.18(0.09)     | 3.87(0.10)       | 4.56(0.09)          |
|             | 인천/경기     | (306)  | 3.25(0.07)     | 4.07(0.07)       | 4.51(0.07)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33(0.13)     | 4.20(0.13)       | 4.63(0.12)          |
|             | 광주/전라     | (98)   | 3.45(0.12)     | 4.14(0.13)       | 4.43(0.13)          |
|             | 대구/경북     | (102)  | 3.23(0.12)     | 4.26(0.13)       | 4.64(0.12)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02(0.10)     | 3.95(0.11)       | 4.67(0.09)          |
| 월 가구<br>소득  | 강원/제주     | (41)   | 3.17(0.22)     | 3.90(0.24)       | 4.46(0.24)          |
|             | 300만원 미만  | (213)  | 3.12(0.08)     | 3.87(0.10)       | 4.43(0.09)          |
|             | 300~500만원 | (345)  | 3.32(0.06)     | 4.08(0.07)       | 4.54(0.06)          |
|             | 500만원 이상  | (442)  | 3.20(0.06)     | 4.10(0.06)       | 4.64(0.06)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23(0.05)     | 4.04(0.05)       | 4.52(0.05)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16(0.08)     | 4.08(0.08)       | 4.67(0.08)          |
|             | 정기적 만남    | (30)   | 3.73(0.19)     | 3.93(0.26)       | 4.57(0.24)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공감도의 평균은 3.22였다. 40대(3.52)의 공감도가 가장 높았고, 60대(3.00)의 공감도가 가장 낮은 가운데 40대 남성(3.69)의 공감도가 가장 높았고, 60대 남성(2.88)의 공감도가 가장 낮았다. 보수(2.91)에 비해 중도(3.21), 중도에 비해 진보(3.49)가 북한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성별, 종교,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에 체제 보호를 위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공감하는 정도의 평균은 중앙치인 3.5를 상회하는 4.05였다.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최후의 선택이며 외부의 체제 위협에 기인한다는 공감도보다 높았다. 남성(4.15)이 여성(3.95)에 비해 체제 보호를 위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연령, 종교, 이념,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 목표가 체제보장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정도의 평균은 4.56이었다. 20대(4.41)와 40대(4.29)는 50대(4.61)와 60대 이상(4.83)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했다. 진보(4.39)와 중도(4.50) 역시 보수(4.88)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했다. 종교와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 나. 공통의 희생자 인식, 동일민족 정체감,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방성

공통의 희생자 인식(inclusive victimhoodness)은 경쟁적 희생자



인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자라고 경쟁적으로 인식하는 경쟁적 희생자 인식과는 달리 공통의 희생자 인식은 내집단과 외집단 모두 가해자이며 희생자라는 인식을 지칭한다. 공통의 희생자 인식은 폭력이 한세대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고착화된 갈등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공통의 희생자 인식은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sup>152)</sup>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64였다(표 II-25).

- 1) 남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과 북한이 받은 분단의 고통은 비슷하다.
- 2) 분단으로 인해 북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은 남한이 겪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과 유사성이 높다.
- 3) 남한과 북한은 모두 분단의 피해자이다.

공통의 희생자 인식을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은 3.75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3.16)에서 공통 피해자 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3.00)에서 가장 낮았다. 30대와 4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공통 피해자 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3.40, 30대 여성: 3.17, 40대 남성: 3.69, 40대 여성: 3.35), 20대의 경우 여성(3.16)이 남성(3.15)보다 공통 피해자 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종교별로 보면 무교(3.81)에서 공통 피해자 의식이 가장 높고, 불교(3.63)에서 가장 낮았으며 보수(3.54)–중도(3.72)–진보(3.94)의 순으로 공통의 희생자 인식이 높았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공통 피해자 의식이 높았다(300만원 미만: 3.55, 300~500만원:

152) Noa Schori-Eyal,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ree Layers of Collective Victimhood: Effects of Multileveled Victimhood on Intergroup Conflicts in the Israeli-Arab Context," p. 783.

3.78, 500만원 이상: 3.82).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감은 4개 문항(9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내적 신뢰도는 .91이었다.

- 1) 전반적으로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 2) 귀하는 북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 3) 귀하는 귀하가 북한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 4) 스스로 북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4.71이었다 <표 II-25>. 남성(4.98)이 여성(4.44)보다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5.03)에서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이 가장 높고, 20대(4.24)에서 가장 낮았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4.92, 30대 여성: 3.99, 40대 남성: 5.30, 40대 여성: 4.45, 50대 남성: 5.18, 50대 여성: 4.89, 60대 이상 남성: 5.19, 60대 이상 여성: 4.45),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20대 남성: 4.20, 20대 여성: 4.29).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85)에서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에 가장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무교(4.62)에서 가장 낮았다. 진보(5.03)가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이 가장 높고 중도(4.70), 보수(4.29) 순이었다. 월 가구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들(4.80)이 북한과의 동일민족 정체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4개 문항(6점 척도)으로 측정하였으며,<sup>153)</sup> 문항 간 신뢰도는 .82였다.

〈표 II-25〉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공통의 희생자 인식, 동일민족 정체성,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에 대한 평균

| 구분       |         | 사례수    | 공통희생자인식<br>평균(표준오차) | 동일민족정체성<br>평균(표준오차) | 새로운 정보<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22(0.04)          | 4.71(0.05)          | 3.57(0.03)         |
| 성별       | 남성      | (496)  | 3.26(0.06)          | 4.98(0.08)          | 3.65(0.04)         |
|          | 여성      | (504)  | 3.19(0.05)          | 4.44(0.07)          | 3.49(0.04)         |
| 연령       | 20대     | (173)  | 3.16(0.09)          | 4.24(0.13)          | 3.59(0.07)         |
|          | 30대     | (165)  | 3.28(0.09)          | 4.46(0.14)          | 3.61(0.08)         |
|          | 40대     | (197)  | 3.52(0.08)          | 4.88(0.11)          | 3.70(0.06)         |
|          | 50대     | (201)  | 3.24(0.09)          | 5.03(0.12)          | 3.55(0.06)         |
|          | 60세+    | (264)  | 3.00(0.08)          | 4.78(0.11)          | 3.43(0.06)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15(0.14)          | 4.20(0.19)          | 3.56(0.11)         |
|          | 20대 여성  | (82)   | 3.16(0.13)          | 4.29(0.16)          | 3.63(0.07)         |
|          | 30대 남성  | (84)   | 3.40(0.14)          | 4.92(0.19)          | 3.75(0.10)         |
|          | 30대 여성  | (81)   | 3.17(0.12)          | 3.99(0.19)          | 3.46(0.11)         |
|          | 40대 남성  | (100)  | 3.69(0.10)          | 5.30(0.14)          | 3.80(0.08)         |
|          | 40대 여성  | (97)   | 3.35(0.12)          | 4.45(0.16)          | 3.60(0.09)         |
|          | 50대 남성  | (103)  | 3.29(0.12)          | 5.18(0.18)          | 3.60(0.09)         |
|          | 50대 여성  | (98)   | 3.18(0.13)          | 4.89(0.16)          | 3.50(0.09)         |
|          | 60세+ 여성 | (146)  | 3.10(0.11)          | 4.45(0.14)          | 3.34(0.07)         |
| 종교       | 기독교     | (217)  | 3.76(0.06)          | 4.85(0.11)          | 3.56(0.06)         |
|          | 불교      | (174)  | 3.63(0.07)          | 4.78(0.12)          | 3.59(0.07)         |
|          | 천주교     | (116)  | 3.66(0.08)          | 4.67(0.16)          | 3.49(0.08)         |
|          | 종교없음    | (492)  | 3.81(0.04)          | 4.62(0.08)          | 3.58(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54(0.06)          | 4.29(0.12)          | 3.31(0.06)         |
|          | 중도      | (437)  | 3.72(0.04)          | 4.70(0.08)          | 3.50(0.04)         |
|          | 진보      | (319)  | 3.94(0.05)          | 5.03(0.10)          | 3.85(0.05)         |

153) Boaz Hameiri et al., "Paradoxical Thinking as a Conflict-Resolution Intervention: Comparison to Alternative Interventions and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4, no. 1 (2018), p. 130.

| 구분          |           | 사례수   | 공통희생자인식<br>평균(표준오차) | 동일민족정체성<br>평균(표준오차) | 새로운 정보<br>평균(표준오차) |
|-------------|-----------|-------|---------------------|---------------------|--------------------|
| 지역          | 서울        | (193) | 3.81(0.06)          | 4.66(0.13)          | 3.56(0.06)         |
|             | 인천/경기     | (306) | 3.75(0.05)          | 4.65(0.10)          | 3.58(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65(0.10)          | 4.50(0.19)          | 3.58(0.09)         |
|             | 광주/전라     | (98)  | 3.85(0.09)          | 5.18(0.17)          | 3.65(0.09)         |
|             | 대구/경북     | (102) | 3.63(0.10)          | 4.72(0.17)          | 3.50(0.10)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75(0.07)          | 4.61(0.12)          | 3.50(0.07)         |
|             | 강원/제주     | (41)  | 3.74(0.13)          | 5.03(0.26)          | 3.64(0.14)         |
| 월 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3.55(0.06)          | 4.44(0.11)          | 3.38(0.06)         |
|             | 300~500만원 | (345) | 3.78(0.05)          | 4.80(0.09)          | 3.61(0.05)         |
|             | 500만원 이상  | (442) | 3.82(0.04)          | 4.76(0.08)          | 3.62(0.04)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3.76(0.03)          | 4.58(0.06)          | 3.51(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66(0.06)          | 4.94(0.11)          | 3.66(0.06)         |
|             | 정기적 만남    | (30)  | 4.18(0.18)          | 5.73(0.27)          | 4.07(0.17)         |

- 1)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 2) 남북 간 갈등에 대해 남한의 견해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럽국가의 관점을 담은 정보를 받아볼 용의가 있다.
- 3)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
- 4) 나는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읽어볼 용의가 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의 평균은 3.57이며 남성(3.65)이 여성(3.49)보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표 II-25>. 연령별로 보면 40대(3.70)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3.43)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3.75, 30대 여성: 3.46, 40대 남성: 3.80, 40대 여성: 3.60, 50대 남성: 3.60, 50대 여성: 3.50, 60대 이상 남성: 3.55, 60대 이상 여성: 3.34), 20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20대 남성: 3.56, 20대 여성: 3.63). 불교(3.59)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강했으며, 천주교(3.49)에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3.85)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가장 강했으며 중도(3.50), 보수(3.31) 순이었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노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300만원 미만: 3.38, 300~500만원: 3.61, 500만원 이상: 3.62).

#### 다.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 북한의 책임, 용서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은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sup>154)</sup>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67이었다.

- 1) 나는 우리사회가 허위 간첩 사건과 같이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나는 우리사회가 북한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4) 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죄책감이 든다.

154) Bertjan Doosje et al.,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no. 4, (1998), pp. 875~876.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58이었다 <표 II-26>. 연령별로 보면 30대(3.68)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20대(3.48) 및 60세 이상(3.48)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30대 남성: 3.79, 30대 여성: 3.57, 40대 남성: 3.90, 40대 여성: 3.58),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3.53)이 남성(3.42)보다 북한에 대한 죄책감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진보(3.92)가 중도(3.53)에 비해, 중도가 보수(3.24)에 비해 북한 문제 대한 죄책감이 높았다.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3.48)이 월소득 300~500만원(3.61), 월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3.60)에 비해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이 낮았다. 성별, 종교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의 책임은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sup>155)</sup>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2이었다.

- 1) 지금까지 남북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 2) 만일 북한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다면 남북한의 갈등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 3) 북한은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로운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책임을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은 3.97이며 남성(4.03)이 여

---

155)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 487.

성(3.92)보다 북한의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표 II-26>.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4.21)에서 북한의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40대(3.68)에서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50대,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의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반면(20대 남성: 4.38, 20대 여성: 3.74, 50대 남성: 4.04, 50대 여성: 3.94, 60대 이상 남성: 4.32, 60대 이상 여성: 4.12), 30대와 40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의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30대 남성: 3.75, 30대 여성: 3.85, 40대 남성: 3.59, 40대 여성: 3.78). 종교별로 보면 불교(4.17)에서 북한의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무교(3.87)에서 가장 낮았으며, 보수(4.29)가 북한의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진보(3.75)가 가장 낮았다. 중도(3.96)는 보수와 중도의 중간 수준이었다. 월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의 용서는 4개 문항(6점 척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sup>156)</sup>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68이었다.

- 1) 남과 북이 과거사를 종결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는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2)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

156) Scott L. Moeschberger et al.,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A Model for Peace in the Midst of the "Trouble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2 (2005), p. 205; Miles Hewstone et al., "Intergroup Contact, Forgiveness, and Experience of "the Troubl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2, no. 1 (2006), pp. 103~104; Masi Noor,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p. 487.

〈표 II-26〉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북한 문제에 대한 죄책감, 한반도 문제의 북한 책임, 용서 의도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죄책감<br>평균(표준오차) | 북한 책임<br>평균(표준오차) | 용서<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58(0.03)      | 3.97(0.03)        | 3.88(0.03)     |
| 성별          | 남성        | (496)  | 3.63(0.04)      | 4.03(0.05)        | 3.89(0.04)     |
|             | 여성        | (504)  | 3.54(0.04)      | 3.92(0.05)        | 3.86(0.04)     |
| 연령          | 20대       | (173)  | 3.48(0.06)      | 4.08(0.08)        | 3.90(0.06)     |
|             | 30대       | (165)  | 3.68(0.07)      | 3.80(0.08)        | 3.86(0.07)     |
|             | 40대       | (197)  | 3.74(0.06)      | 3.68(0.07)        | 3.98(0.05)     |
|             | 50대       | (201)  | 3.57(0.07)      | 3.99(0.07)        | 3.82(0.06)     |
|             | 60세+      | (264)  | 3.48(0.06)      | 4.21(0.07)        | 3.83(0.05)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48(0.10)      | 4.38(0.11)        | 3.95(0.10)     |
|             | 20대 여성    | (82)   | 3.48(0.08)      | 3.74(0.11)        | 3.85(0.08)     |
|             | 30대 남성    | (84)   | 3.79(0.08)      | 3.75(0.12)        | 3.96(0.09)     |
|             | 30대 여성    | (81)   | 3.57(0.10)      | 3.85(0.11)        | 3.76(0.10)     |
|             | 40대 남성    | (100)  | 3.90(0.08)      | 3.59(0.10)        | 4.00(0.07)     |
|             | 40대 여성    | (97)   | 3.58(0.08)      | 3.78(0.10)        | 3.97(0.07)     |
|             | 50대 남성    | (103)  | 3.61(0.11)      | 4.04(0.11)        | 3.78(0.08)     |
|             | 50대 여성    | (98)   | 3.53(0.08)      | 3.94(0.09)        | 3.86(0.08)     |
| 종교          | 60세+ 남성   | (118)  | 3.42(0.09)      | 4.32(0.10)        | 3.81(0.08)     |
|             | 60세+ 여성   | (146)  | 3.53(0.07)      | 4.12(0.09)        | 3.85(0.07)     |
|             | 기독교       | (217)  | 3.57(0.06)      | 4.08(0.07)        | 3.93(0.06)     |
|             | 불교        | (174)  | 3.60(0.07)      | 4.17(0.07)        | 3.89(0.06)     |
| 정치<br>성향    | 천주교       | (116)  | 3.49(0.08)      | 3.94(0.09)        | 3.85(0.07)     |
|             | 종교없음      | (492)  | 3.60(0.04)      | 3.87(0.05)        | 3.85(0.04)     |
|             | 보수        | (244)  | 3.24(0.06)      | 4.29(0.07)        | 3.65(0.06)     |
|             | 중도        | (437)  | 3.53(0.04)      | 3.96(0.05)        | 3.81(0.04)     |
| 지역          | 진보        | (319)  | 3.92(0.05)      | 3.75(0.06)        | 4.14(0.04)     |
|             | 서울        | (193)  | 3.53(0.07)      | 3.94(0.08)        | 3.89(0.06)     |
|             | 인천/경기     | (306)  | 3.57(0.05)      | 4.00(0.06)        | 3.87(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53(0.09)      | 3.82(0.12)        | 3.82(0.07)     |
|             | 광주/전라     | (98)   | 3.89(0.08)      | 3.88(0.10)        | 4.06(0.08)     |
|             | 대구/경북     | (102)  | 3.62(0.09)      | 4.09(0.10)        | 3.86(0.08)     |
| 월 가구<br>소득  | 부산/울산/경남  | (155)  | 3.49(0.06)      | 4.07(0.08)        | 3.79(0.06)     |
|             | 강원/제주     | (41)   | 3.54(0.15)      | 3.85(0.21)        | 3.91(0.13)     |
|             | 300만원 미만  | (213)  | 3.48(0.06)      | 4.03(0.08)        | 3.77(0.05)     |
| 탈북민<br>교류정도 | 300~500만원 | (345)  | 3.61(0.04)      | 3.94(0.06)        | 3.86(0.04)     |
|             | 500만원 이상  | (442)  | 3.60(0.04)      | 3.97(0.05)        | 3.94(0.04)     |
|             | 만난 적 없음   | (718)  | 3.57(0.03)      | 3.92(0.04)        | 3.84(0.03)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57(0.06)      | 4.11(0.07)        | 3.94(0.06)     |
|             | 정기적 만남    | (30)   | 3.96(0.20)      | 4.08(0.20)        | 4.11(0.12)     |



- 3)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 4)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의 용서를 묻는 4개 문항의 평균은 3.88이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3.98)에서 한반도 문제의 용서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50대(3.82)에서 가장 낮았다(표 II-26). 연령에 따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한반도 문제의 용서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은 반면(20대 남성: 3.95, 20대 여성: 3.85, 30대 남성: 3.96, 30대 여성: 3.76), 40대, 50대, 60세 이상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40대 남성: 4.00, 40대 여성: 3.97, 50대 남성: 3.78, 50대 여성: 3.86, 60대 이상 남성: 3.81, 60대 이상 여성: 3.85).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4.14)에서 한반도 문제의 용서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보수(3.65)에서 가장 낮았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한반도 문제의 용서에 대한 평균점이 높았다(300만원 미만: 3.77, 300~500만원: 3.86, 500만원 이상: 3.94). 성별, 종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 5. 통일, 대북정책, 그리고 올림픽

### 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11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일’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일 국가 형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11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두 요인이 구분되었으며 제 1요인을 통일 지향성(6개 문항), 제 2요인을 평화적 공존 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통일 지향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2)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 3)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 4)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 5)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남한에게 이익이 된다.
- 6)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91이었다. 평화적 공존 지향성은 아래 3개 문항이다.

- 1) 나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 2)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남한과 북한이 굳이 단일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다.
- 3) 한국국민과 북한주민들이 두 개의 국가 상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81이었다. 두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은 다음의 두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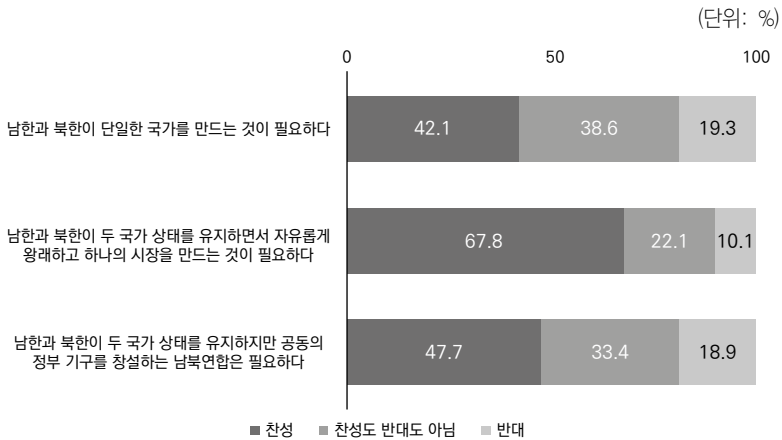
- 1)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2) 남한과 북한이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공동의 정부 기구를 창설하는 남북연합은 필요하다.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상태, 남북 연합, 남북 단일 국가 형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그림 II-11>에 제시하였다. 남북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의 42.1%가 공감하였다. 남북연합에 대해서는 47.7%가 찬성해 국민의 과반 이상이 남북의 정치적 통합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면 남북의 자유 왕래와 하나의 시장에 대해서는 67.7%가 찬성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그림 II-11> 단일국가 형성, 남북연합, 인적왕래 및 자유시장 형성에 대한 공감도



통일을 ‘단일 국가 형성’이라고 적시했을 때 통일에 대해 42.1%만이 공감한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60% 이상이 공감하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본 조사 결과를 국민의 절

반 이상이 남북의 정치적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의미하는 인적 왕래와 경제적 통합에 대해 67.8%가 공감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통일, 또는 남북 연합보다는 남북의 평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일국가 지향성의 평균은 3.17이었다<표 II-27>. 남성(3.32)이 여성(3.00)보다 단일국가 지향성이 높았다. 20대(2.89)의 단일국가 지향성이 가장 낮았으며 40대(3.32)와 50대(3.34)의 단일국가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20대 여성(2.83)과 30대 여성(2.83)의 단일국가 지향성과 50대 남성(3.49)과 40대 남성(3.58)의 단일국가 지향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보수(3.06)와 중도(3.09)에 비해 진보(3.35)가 단일국가 지향성이 높았으며 300만원 이하 소득자(3.01)에 비해 500만원 이상 소득자(3.24)의 단일국가 지향성이 높았다.

평화적 공존 지향성의 평균은 3.49로 단일국가 지향성에 비해 높았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적어도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는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의 단일국가 보다는 현재의 평화가 더 절실하다는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II-27〉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단일국가 지향성과 평화적 공존 지향성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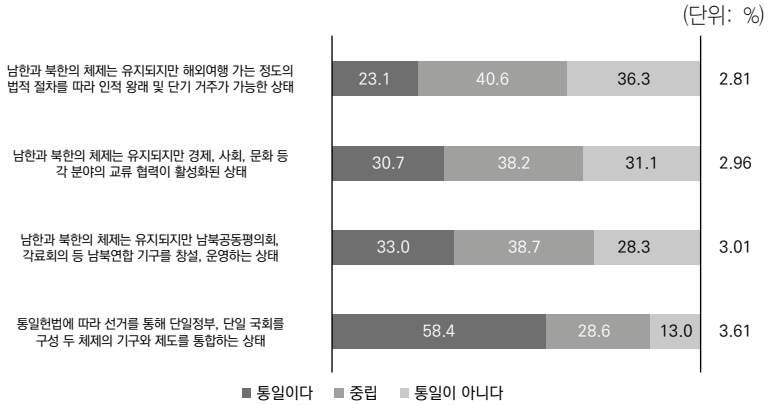
| 구분          |           | 사례수    | 단일국가 지향성<br>평균(표준오차) | 평화적 공존 지향성<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17(0.03)           | 3.49(0.03)             |
| 성별          | 남성        | (496)  | 3.33(0.04)           | 3.44(0.04)             |
|             | 여성        | (504)  | 3.01(0.04)           | 3.54(0.04)             |
| 연령          | 20대       | (173)  | 2.89(0.07)           | 3.54(0.07)             |
|             | 30대       | (165)  | 3.03(0.07)           | 3.52(0.07)             |
|             | 40대       | (197)  | 3.32(0.06)           | 3.46(0.06)             |
|             | 50대       | (201)  | 3.34(0.07)           | 3.41(0.07)             |
|             | 60세+      | (264)  | 3.18(0.05)           | 3.52(0.05)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2.96(0.11)           | 3.57(0.10)             |
|             | 20대 여성    | (82)   | 2.83(0.08)           | 3.50(0.09)             |
|             | 30대 남성    | (84)   | 3.22(0.08)           | 3.39(0.10)             |
|             | 30대 여성    | (81)   | 2.83(0.10)           | 3.66(0.10)             |
|             | 40대 남성    | (100)  | 3.58(0.08)           | 3.32(0.09)             |
|             | 40대 여성    | (97)   | 3.06(0.08)           | 3.59(0.08)             |
|             | 50대 남성    | (103)  | 3.49(0.10)           | 3.36(0.10)             |
|             | 50대 여성    | (98)   | 3.19(0.08)           | 3.46(0.08)             |
|             | 60세+ 여성   | (146)  | 3.05(0.07)           | 3.50(0.07)             |
| 종교          | 기독교       | (217)  | 3.28(0.06)           | 3.48(0.06)             |
|             | 불교        | (174)  | 3.21(0.07)           | 3.39(0.07)             |
|             | 천주교       | (116)  | 3.18(0.08)           | 3.53(0.08)             |
|             | 종교없음      | (492)  | 3.10(0.04)           | 3.52(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06(0.06)           | 3.55(0.06)             |
|             | 중도        | (437)  | 3.09(0.04)           | 3.46(0.04)             |
|             | 진보        | (319)  | 3.35(0.05)           | 3.48(0.05)             |
| 지역          | 서울        | (193)  | 3.11(0.06)           | 3.51(0.06)             |
|             | 인천/경기     | (306)  | 3.18(0.05)           | 3.53(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10(0.09)           | 3.54(0.09)             |
|             | 광주/전라     | (98)   | 3.32(0.09)           | 3.41(0.09)             |
|             | 대구/경북     | (102)  | 3.18(0.09)           | 3.53(0.08)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13(0.07)           | 3.41(0.07)             |
| 월 가구<br>소득  | 강원/제주     | (41)   | 3.29(0.14)           | 3.32(0.17)             |
|             | 300만원 미만  | (213)  | 3.01(0.06)           | 3.49(0.06)             |
|             | 300~500만원 | (345)  | 3.17(0.04)           | 3.49(0.05)             |
| 탈북민<br>교류정도 | 500만원 이상  | (442)  | 3.24(0.04)           | 3.49(0.04)             |
|             | 만난 적 없음   | (718)  | 3.10(0.03)           | 3.51(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32(0.06)           | 3.44(0.06)             |
|             | 정기적 만남    | (30)   | 3.53(0.17)           | 3.42(0.15)             |

다음으로 통일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의 네가지 상태가 통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혀 통일이 아니다, 5점: 확실히 통일이다)로 응답하였다.

- 1)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인적 왕래 및 단기 거주가 가능한 상태
-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상태
- 3)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남북공동평의회, 각료회의 등 남북연합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상태
- 4)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

각 문항별 ‘긍정’ 비율과 평균을 <그림 III-12>에 제시하였다.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국회를 구성하여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 즉 정치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8.4%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인적 왕래 및 단기 거주가 가능한 상태’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3.1%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12〉 단일국가 형성, 남북연합, 인적왕래 및 자유시장 형성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남북이 단일국가로 통합된 상태를 통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남북연합 상태와 화해·협력 상태를 통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오히려 58.4%의 긍정비율이 부족해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남북연합 상태, 교류협력 상태 인적 왕래가 자유로운 상태에 대해 통일이 대해 명시적으로 ‘통일로 볼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인적 왕래가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는 36.3%,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된 태에 대해서는 31.1%, 남북연합 상태에 대해서는 28.3%가 ‘통일로 볼 수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의견 표명을 유보, 즉 ‘중립’의 응답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도 특징적이다. 통일은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였다. 보호된 가치란 다른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와 트레이드오프를 해서는 안되는 규범적, 도덕화, 때로는 신성화된 가치를 의미한다.<sup>157)</sup> 즉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보호된 가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157) Jonathan Baron and Mark Spranca, “Protected Values,”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70, no. 1 (1997), p. 1.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보호된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과 관련된 질문, 특히 가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질문에서 ‘중립’ 응답을 단순히 50:50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면밀한 후속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국민의 60% 정도만이 정치적 단일국가를 통일로 인식하는 점, 그리고 남북연합과 화해·협력 단계가 통일인지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이 많은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의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나. 대북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8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을 관여정책, 두 번째 요인을 압박정책으로 명명하였다. 관여정책에 대한 두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71이었다.

- 1)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2) 한국 정부는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는 대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UN에 요청하여야 한다.

압박정책에 대한 6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75였다.

- 3)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 5)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표 II-28〉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관여정책 지지도와 압박정책 지지도의 평균

| 구분          |           | 사례수    | 관여정책<br>평균(표준오차) | 압박정책<br>평균(표준오차) |
|-------------|-----------|--------|------------------|------------------|
| 전체          |           | (1000) | 3.72(0.04)       | 3.91(0.03)       |
| 성별          | 남성        | (496)  | 3.69(0.05)       | 3.92(0.04)       |
|             | 여성        | (504)  | 3.75(0.04)       | 3.89(0.03)       |
| 연령          | 20대       | (173)  | 3.57(0.08)       | 3.94(0.06)       |
|             | 30대       | (165)  | 3.78(0.08)       | 3.90(0.06)       |
|             | 40대       | (197)  | 3.93(0.07)       | 3.79(0.05)       |
|             | 50대       | (201)  | 3.78(0.09)       | 3.89(0.06)       |
|             | 60세+      | (264)  | 3.57(0.07)       | 3.99(0.05)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3.42(0.13)       | 4.13(0.08)       |
|             | 20대 여성    | (82)   | 3.74(0.08)       | 3.73(0.07)       |
|             | 30대 남성    | (84)   | 3.89(0.11)       | 3.91(0.07)       |
|             | 30대 여성    | (81)   | 3.67(0.11)       | 3.89(0.09)       |
|             | 40대 남성    | (100)  | 4.02(0.10)       | 3.71(0.08)       |
|             | 40대 여성    | (97)   | 3.85(0.09)       | 3.88(0.07)       |
|             | 50대 남성    | (103)  | 3.63(0.14)       | 3.86(0.10)       |
|             | 50대 여성    | (98)   | 3.93(0.11)       | 3.93(0.07)       |
|             | 60세+ 여성   | (146)  | 3.63(0.09)       | 3.97(0.06)       |
| 종교          | 기독교       | (217)  | 3.76(0.07)       | 3.99(0.06)       |
|             | 불교        | (174)  | 3.66(0.09)       | 3.97(0.06)       |
|             | 천주교       | (116)  | 3.70(0.10)       | 3.93(0.07)       |
|             | 종교없음      | (492)  | 3.72(0.05)       | 3.84(0.04)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3.24(0.08)       | 4.16(0.06)       |
|             | 중도        | (437)  | 3.67(0.05)       | 3.94(0.03)       |
|             | 진보        | (319)  | 4.16(0.06)       | 3.68(0.04)       |
| 지역          | 서울        | (193)  | 3.67(0.08)       | 3.85(0.06)       |
|             | 인천/경기     | (306)  | 3.78(0.06)       | 3.88(0.05)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77(0.11)       | 3.92(0.08)       |
|             | 광주/전라     | (98)   | 3.97(0.11)       | 3.87(0.08)       |
|             | 대구/경북     | (102)  | 3.49(0.11)       | 3.94(0.08)       |
|             | 부산/울산/경남  | (155)  | 3.60(0.09)       | 4.04(0.06)       |
| 월 가구<br>소득  | 강원/제주     | (41)   | 3.74(0.18)       | 3.87(0.13)       |
|             | 300만원 미만  | (213)  | 3.63(0.07)       | 3.84(0.05)       |
|             | 300~500만원 | (345)  | 3.75(0.06)       | 3.90(0.04)       |
| 탈북민<br>교류정도 | 500만원 이상  | (442)  | 3.74(0.05)       | 3.95(0.04)       |
|             | 만난 적 없음   | (718)  | 3.67(0.04)       | 3.89(0.03)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84(0.07)       | 3.96(0.05)       |
|             | 정기적 만남    | (30)   | 3.92(0.21)       | 4.01(0.16)       |

- 6)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 7) 남북관계를 민족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8)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1:1 대칭이 되어야지만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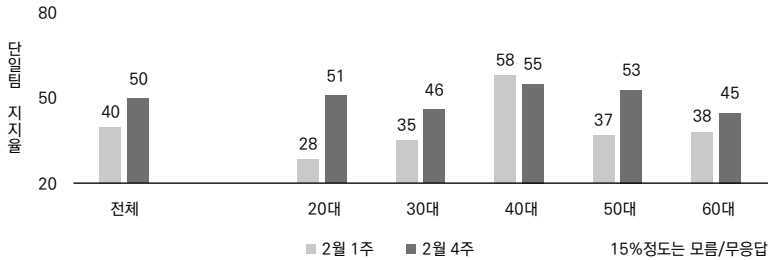
관여정책의 평균은 3.72였다. 상대적으로 20대(3.57)와 60대(3.57)에 비해 40대(3.93)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보수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진보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성별, 종교,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압박정책에 대한 평균은 3.91로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보다 다소 높았다. 진보에 비해 중도가, 중도에 비해 보수가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성별, 연령, 종교,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올림픽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동시에 20대와 30대가 보여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20대와 3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뜨거웠던 단일팀에 대한 논란은 동계 올림픽이 끝난 후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올림픽 직후 20대와 30대가 느끼는 단일팀에 대한 태도가 기성세대와 비슷해졌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림 II-13〉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여론 변화<sup>158)</sup>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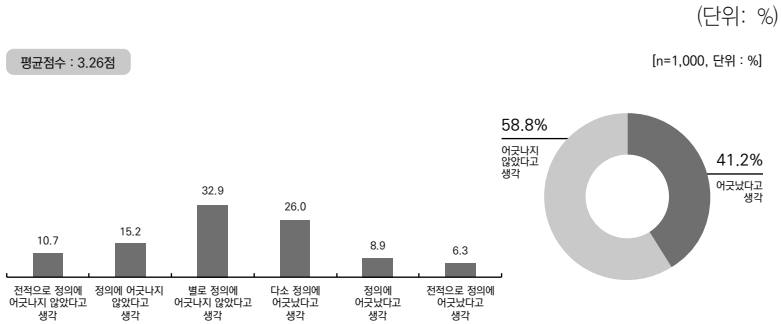
20대와 30대가 왜 단일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20대와 30대가 단일팀에 부정적이었던 2월 첫 주의 기억만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정책은 또한 한 번 합리적 논리와 객관적 증거에 따르지 않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과잉 정치화의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넘는 시점에서 단일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올림픽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평창올림픽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위배했는지 현재의 시점과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2018년 2월의

158)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30일~2월 1일(2월 1주차) 전국 성인 1005명(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 2월 20일~2월 22일(2월 4주차) 전국 성인 1002명(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2월 1주차 자료: <[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1910/FILE\\_201802020950301530.pdf.html](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1910/FILE_201802020950301530.pdf.html)>, p. 15, 2월 4주차 자료: <[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1910/FILE\\_201802230947005090.pdf.html](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1910/FILE_201802230947005090.pdf.html)>, p. 10 (검색일: 2019.3.3.).

시점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위배했는지에 대해 6점 척도(1점: 전적으로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 6점: 전적으로 어긋났다고 생각)상에서 응답하였다.

〈그림 II-14〉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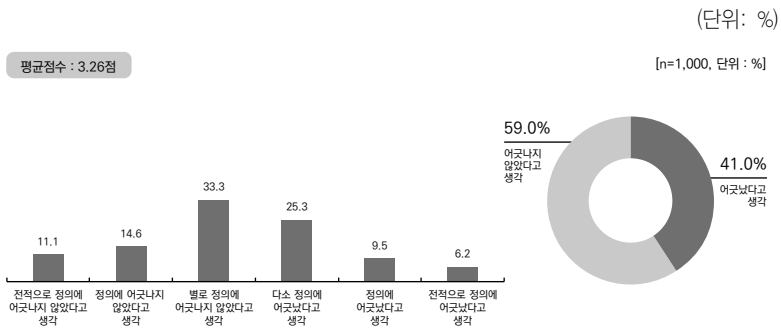


국민들의 41.2%가 당시 단일팀이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48.0%)이 여성(34.5%)보다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49.1%, 30대는 44.2, 40대는 35.5%, 50대는 41.8%, 60대 이상은 37.9%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했다. 20대 남성의 62.6%, 20대 여성은 34.1%가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었다고 응답하여 같은 20대라도 남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20대 여성은 40대 여성(32.0%), 30대 여성(33.3%)와 함께 2018년 2월 당시 올림픽이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다. 30대 역시 남성은 절반 이상(54.8%), 여성은 절반 이하(33.3%)가 2018년 2월 당시 올림픽이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었다고 응답했다.

현시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위배했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 59%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 가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49.0%)이 여성(33.1%)보다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단일팀이 정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 미만이었다(20대: 47.4%, 30대: 43.0%, 40대: 39.1%, 50대: 38.8%, 60대: 38.6%). 20대와 30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20대 남성의 60.4%, 30대 남성의 54.8%가 지금도 단일팀이 정의의 어긋난다고 응답하여 20대 여성의 32.9%, 30대 여성의 30.9%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 II-15〉 현 시점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에 어긋났다고 응답한 비율



현시점에서 단일팀에 대한 생각은 단일팀에 대한 기억과 유사하였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올림픽 직후 단일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올림픽 전 또는 과정에서 불거진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변화했을 가능성이 크며 변화된 인식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조사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 1) 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할 지 예상하지 못했다.
- 2) 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접하기 전까지 남북단일팀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 3) 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

또한 미래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같은 일이 있다면 이를 반대할지, 그리고 단일팀이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지 물어보았다.

- 4) 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단일팀 구성을 반대할 것이다.
- 5) 남북올림픽 단일팀은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

그 결과는 <그림 II-16>에 제시하였다.

<표 II-29>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정의에 위배된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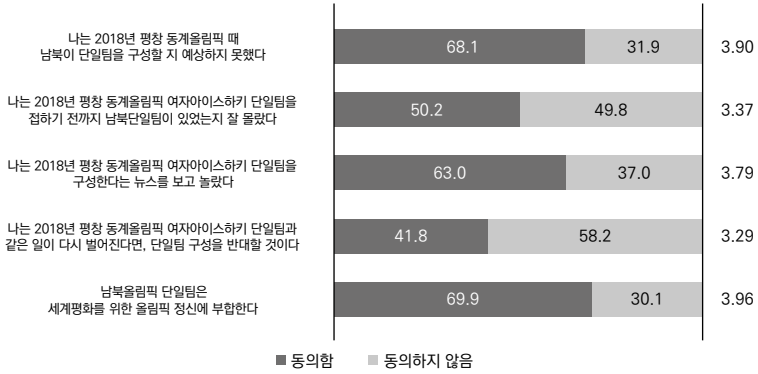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 사례수    | 과거 인식<br>정의위반 동의 비율 | 현재 인식<br>정의위반 동의 비율 |
|----|------|--------|---------------------|---------------------|
| 전체 |      | (1000) | 41.2                | 41.0                |
| 성별 | 남성   | (496)  | 48.0                | 49.0                |
|    | 여성   | (504)  | 34.5                | 33.1                |
| 연령 | 20대  | (173)  | 49.1                | 47.4                |
|    | 30대  | (165)  | 44.2                | 43.0                |
|    | 40대  | (197)  | 35.5                | 39.1                |
|    | 50대  | (201)  | 41.8                | 38.8                |
|    | 60세+ | (264)  | 37.9                | 38.6                |

| 구분          |           | 사례수   | 과거 인식<br>정의위반 동의 비율 | 현재 인식<br>정의위반 동의 비율 |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62.6                | 60.4                |
|             | 20대 여성    | (82)  | 34.1                | 32.9                |
|             | 30대 남성    | (84)  | 54.8                | 54.8                |
|             | 30대 여성    | (81)  | 33.3                | 30.9                |
|             | 40대 남성    | (100) | 39.0                | 44.0                |
|             | 40대 여성    | (97)  | 32.0                | 34.0                |
|             | 50대 남성    | (103) | 44.7                | 45.6                |
|             | 50대 여성    | (98)  | 38.8                | 31.6                |
|             | 60세+ 남성   | (118) | 42.4                | 43.2                |
|             | 60세+ 여성   | (146) | 34.2                | 34.9                |
| 종교          | 기독교       | (217) | 44.7                | 42.4                |
|             | 불교        | (174) | 39.1                | 39.7                |
|             | 천주교       | (116) | 42.2                | 42.2                |
|             | 종교없음      | (492) | 40.2                | 40.7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52.0                | 52.0                |
|             | 중도        | (437) | 42.3                | 42.3                |
|             | 진보        | (319) | 31.3                | 30.7                |
| 지역          | 서울        | (193) | 46.1                | 43.0                |
|             | 인천/경기     | (306) | 38.9                | 39.9                |
|             | 대전/충청/세종  | (105) | 32.4                | 35.2                |
|             | 광주/전라     | (98)  | 33.7                | 30.6                |
|             | 대구/경북     | (102) | 50.0                | 52.0                |
|             | 부산/울산/경남  | (155) | 43.2                | 43.2                |
|             | 강원/제주     | (41)  | 46.3                | 43.9                |
| 월 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13) | 40.8                | 38.0                |
|             | 300~500만원 | (345) | 39.1                | 40.6                |
|             | 500만원 이상  | (442) | 43.0                | 42.8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41.1                | 40.0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9.3                | 41.3                |
|             | 정기적 만남    | (30)  | 60.0                | 63.3                |

〈그림 II-16〉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문항에 응답

(단위: %)



먼저 단일팀 구성을 예상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8.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단일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정도가 ‘몰랐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63.0%가 단일팀 구성에 ‘놀랐다’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단일팀에 대해 반대를 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41.8%였다. 남성의 반대 비율이 여성의 반대 비율보다 높았으며 20대의 반대 비율이 최고, 60대의 반대 비율이 최저였다. 20대 남성은 62.6%, 20대 여성은 37.8%가 반대하겠다고 밝혀 뚜렷한 성차가 관찰되었다. 20대에서 5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단일팀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6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남성: 35.6%, 여성: 33.6%). 보수의 49.6%, 중도의 43.2%, 진보의 33.9%가 반대 의견 밝혀 이념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응답자의 69.9%가 남북올림픽 단일팀이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혀 올림픽 단일팀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했다. 여성(72.0%)이 남성(67.7%)이 단일팀이 평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긍정적이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표 II-30〉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올림픽 단일팀에 반대하는 비율 및 단일팀이 평화에 기여한다고 비율

| 구분          |           | 사례수    | 단일팀 반대<br>(동의 비율) | 단일팀 평화기여<br>(동의 비율) |
|-------------|-----------|--------|-------------------|---------------------|
| 전체          |           | (1000) | 41.8              | 69.9                |
| 성별          | 남성        | (496)  | 47.0              | 67.7                |
|             | 여성        | (504)  | 36.7              | 72.0                |
| 연령          | 20대       | (173)  | 50.9              | 67.6                |
|             | 30대       | (165)  | 47.9              | 69.1                |
|             | 40대       | (197)  | 40.1              | 72.1                |
|             | 50대       | (201)  | 40.3              | 67.2                |
|             | 60세+      | (264)  | 34.5              | 72.3                |
| 성<br>연령     | 20대 남성    | (91)   | 62.6              | 60.4                |
|             | 20대 여성    | (82)   | 37.8              | 75.6                |
|             | 30대 남성    | (84)   | 52.4              | 71.4                |
|             | 30대 여성    | (81)   | 43.2              | 66.7                |
|             | 40대 남성    | (100)  | 43.0              | 72.0                |
|             | 40대 여성    | (97)   | 37.1              | 72.2                |
|             | 50대 남성    | (103)  | 45.6              | 68.0                |
|             | 50대 여성    | (98)   | 34.7              | 66.3                |
|             | 60세+ 여성   | (146)  | 33.6              | 76.7                |
| 종교          | 기독교       | (217)  | 38.7              | 69.6                |
|             | 불교        | (174)  | 46.0              | 70.7                |
|             | 천주교       | (116)  | 45.7              | 71.6                |
|             | 종교없음      | (492)  | 40.9              | 69.3                |
| 정치<br>성향    | 보수        | (244)  | 49.6              | 55.7                |
|             | 중도        | (437)  | 43.2              | 67.7                |
|             | 진보        | (319)  | 33.9              | 83.7                |
| 지역          | 서울        | (193)  | 38.3              | 71.0                |
|             | 인천/경기     | (306)  | 41.5              | 72.9                |
|             | 대전/충청/세종  | (105)  | 43.8              | 61.9                |
|             | 광주/전라     | (98)   | 39.8              | 69.4                |
|             | 대구/경북     | (102)  | 45.1              | 71.6                |
|             | 부산/울산/경남  | (155)  | 46.5              | 66.5                |
| 월 가구<br>소득  | 강원/제주     | (41)   | 34.1              | 73.2                |
|             | 300만원 미만  | (213)  | 42.3              | 63.4                |
|             | 300~500만원 | (345)  | 42.0              | 69.9                |
|             | 500만원 이상  | (442)  | 41.4              | 73.1                |
| 탈북민<br>교류정도 | 만난 적 없음   | (718)  | 41.8              | 68.7                |
|             | 만난 경험 있음  | (252)  | 39.7              | 72.6                |
|             | 정기적 만남    | (30)   | 60.0              | 76.7                |

연령별 성차는 관찰되었다. 20대의 경우 남성의 60% 여성의 75.6%가 단일팀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였다. 특히 20대 여성은 60대 여성(76.7%)과 더불어 올림픽 단일팀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점에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보수:55.7%, 중도: 67.7%, 진보: 83.7%)가 확인되었다.

### Ⅲ. 심층분석



권영미 (성균관대학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이민규 (경상대학교)



# 1. 가치관이 화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권영미 (성균관대학교)

## 가. 연구배경

개인이 특정한 대상에 갖는 태도는 미래에 이 대상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59)</sup>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이후 남북 문제와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 (2)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 - 군사력 또는 협력 - 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쟁과 평화라는 대상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은 익숙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전쟁이나 평화가 아닌, 남북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나 평화를 떠올리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대내외적으로 평화와 공존의 지향점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 양측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

---

159) Icek Ajzen and Martin Fishbein,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84, no. 5 (1977), pp. 888~918.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신뢰 수준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찾고 받아들이려는 노력, 그리고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대에 대한 신뢰는 상호 갈등 상황, 특히 경쟁과 협동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160)</sup>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 자신이 협력을 했을 때 상대방에서도 협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선택하게 되지만, 상대를 믿지 못하면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도 쉽게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처럼 갈등이 고착화된 경우 특히 상대를 신뢰할 수 없고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방식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만일을 위해 군사력이나 무력을 동원할 준비를 하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따라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sup>161)</sup> 예를 들어,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나 의견, 또는 상호 갈등 관계를 변화시킬 만한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반면,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현재의 갈등 관계의 개선 및 상호 화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문제 및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면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

160) Daniel Balliet and Paul A. M. Van Lange, "Trust, Conflict, and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9, no. 5 (2013), pp. 1090~1112.

161) Craig D. Parks, Robert F. Henager, and Shawn D. Scamahorn, "Trust and Reactions to Messages of Intent in Social Dilemma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0, no. 1 (1996), pp. 134~151.

낙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취하려고 하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 전쟁에 대한 태도, 남북 간 평화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남북 간 화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 관련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려는 노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간 화해 및 평화실현과 관련된 변수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성향, 조절초점(향상초점,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주관적 안녕,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전술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 북한에 대한 신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로서의 가치관 및 세계관은 다양한 장면에서 개인의 지각, 정서, 의도,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을 반영하는 변수들 중에서도 본 장에서는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을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기준에 초점을 두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조절초점과 미래지향성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남북통일이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잠재적인 부작용을 모두 고려할 때, 조절초점 중에서도 향상초점이 강한 사람들은 남북통일 또는 남북 간 화해로 인해 얻게 될 이득에 초점을 맞

추는 반면,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은 그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나 손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미래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현재 남북 간 화해의 필요성을 지각하더라도 미래에 찾아올 문제들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나, 현재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남북한 간 화해와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주관적 안녕은 그야말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반영하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더 낙관적인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경향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은 남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수는 아니지만, 사회지배성향이나 우익권위주의와 관련될 것으로 예측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 나. 기초분석

### (1) 남북 간 화해관련 변수

#### (가) 전쟁에 대한 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정의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유용한 측면도 있다”, “남북 간의 전쟁은 남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 외



에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역문항)”의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진술문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9점 척도(1=전적으로 반대한다, 5=찬성도 반대도 아님, 9=전적으로 찬성한다)를 이용하여 표시했다. 4번 문항의 응답은 역채점하였다. 네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변량의 65.97% 설명)이 추출되었으며, 네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Cronbach's  $\alpha = .75$ ). 점수가 높을수록 한반도 전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의 응답 결과는 <표 III-1>에 제시하였다. 평균 3.57점으로 척도 중간점인 5점보다 1점 이상 낮아, 전체적으로 남북한 간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적 태도(1~4점), 중립적 태도(5점), 긍정적 태도(6~9점)로 범주화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57.2%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전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10.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III-2>와 <표 III-3>에 나타나있다. 전체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쟁에 대해 더 부정적인 패턴이 있었다.

<표 III-1>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부정적 태도 | 중립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
| 전쟁에 대한 태도 |     | 3.57 | 1.88 | 57.2   | 32.0   | 10.8   |

〈표 Ⅲ-2〉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4.21 | 1.64 | 3.32 | 1.72 | 3.78 | 1.74 |
| 40~50대 | 3.75 | 2.00 | 3.16 | 1.63 | 3.46 | 1.85 |
| 60대 이상 | 4.08 | 2.12 | 3.00 | 1.89 | 3.48 | 2.06 |
| 전체     | 3.99 | 1.92 | 3.17 | 1.74 | 3.57 | 1.88 |

〈표 Ⅲ-3〉 전쟁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 20~30대 | 41.1 | 44.0 | 14.9 | 60.7 | 33.1 | 6.1 |
| 40~50대 | 52.7 | 31.5 | 15.8 | 67.7 | 30.3 | 2.1 |
| 60대 이상 | 48.3 | 31.4 | 20.3 | 71.9 | 19.9 | 8.2 |

### (나) 평화에 대한 태도

남북한 간 평화에 대한 태도는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실현이 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갈등은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9점 척도(1=전적으로 반대한다, 5=찬성도 반대도 아님, 9=전적으로 찬성한다)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변량의 66.39% 설명)이 추출되었으며, 네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2$ ).

평화에 대한 태도는 〈표 Ⅲ-4〉와 같다. 응답자들의 평균은 6.45로 척도 중간점인 5점보다 유의하게 높아,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 평화를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적 태도(1~4점), 중립적 태도(5점), 긍정적 태도(6~9점)로 범주화하였을 때, 부정적 태도는 7.9%에 불과했고 긍정적인 태도가 62.1%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비교해보면, 평균 태도에서 남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표 III-5>, <표 III-6>). 즉, 20~30대 응답자들은 40~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 비해 남북한 간 평화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응 범주별 응답율을 비교했을 때에도, 20~30대 응답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40~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 비해 평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였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덜 보였다. 20~30대 응답자들의 경우 전쟁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 집단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4>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부정적 태도 | 중립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
| 평화에 대한 태도 |     | 6.45 | 1.68 | 7.9    | 30.0   | 62.1   |

<표 III-5>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5.95 | 1.71 | 5.89 | 1.64 | 5.92 | 1.67 |
| 40~50대 | 6.79 | 1.72 | 6.64 | 1.51 | 6.71 | 1.62 |
| 60대 이상 | 6.80 | 1.58 | 6.64 | 1.62 | 6.71 | 1.60 |
| 전체     | 6.50 | 1.73 | 6.40 | 1.62 | 6.45 | 1.68 |

〈표 III-6〉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 20~30대 | 12.0 | 36.6 | 51.4 | 12.9 | 37.4 | 49.7 |
| 40~50대 | 4.9  | 27.6 | 67.5 | 4.1  | 27.7 | 68.2 |
| 60대 이상 | 4.2  | 27.1 | 68.6 | 9.6  | 22.6 | 67.8 |

#### (다)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군사력

남북한 간 평화실현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만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의 네 문항을 9점 척도(1=전적으로 반대한다, 5=찬성도 반대도 아님, 9=전적으로 찬성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변량의 68.47% 설명)이 추출되었으며, 네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5).

〈표 III-7〉에는 군사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평균은 척도 중간점인 5점보다 약간 높은 5.24점으로, 군사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다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적 태도(1~4점), 중립적 태도(5점), 긍정적 태도(6~9점)로 범주화하였을 때, 부정적인 태도도 26.5%로 적지 않았지만, 중립적 태도가 37.1%, 긍정적 태도가 36.4%로 남북한 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군사력과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Ⅲ-8>과 <표 Ⅲ-9>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서,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군사력을 수단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특히 20~30대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으며,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태도의 응답률(16.9%)보다 긍정적 태도의 응답률(63.6%)이 세 배 이상으로 훨씬 더 강하게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 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부정적 태도 | 중립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
| 군사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 |     | 5.24 | 1.95 | 26.5   | 37.1   | 36.4   |

<표 Ⅲ-8>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5.37 | 1.77 | 4.50 | 1.69 | 4.95 | 1.78 |
| 40~50대 | 5.38 | 2.04 | 4.90 | 1.79 | 5.14 | 1.93 |
| 60대 이상 | 6.27 | 2.10 | 5.36 | 1.96 | 5.77 | 2.07 |
| 전체     | 5.59 | 2.00 | 4.90 | 1.84 | 5.24 | 1.95 |

〈표 III-9〉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 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 20~30대 | 18.9 | 46.9 | 34.3 | 36.2 | 44.8 | 19.0 |
| 40~50대 | 26.6 | 31.5 | 41.9 | 31.3 | 41.0 | 27.7 |
| 60대 이상 | 16.9 | 19.5 | 63.6 | 26.0 | 33.6 | 40.4 |

(라)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

남북한 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협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남북 간 비군사적 수단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남북 간 평화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의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1=전적으로 반대한다, 5=찬성도 반대도 아님, 9=전적으로 찬성한다). 네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변량의 74.40% 설명)이 추출되었으며, 네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9).

〈표 III-10〉에 제시된 것처럼,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평균 6.28점으로, 척도 중간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 관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적 태도(1~4점), 중립적 태도(5점), 긍정적 태도(6~9점)로 범주화하였을 때, 부정적인 태도는 7.6%에 불과한 반면 58.5%의 응답자들이 긍정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남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40~50대의 응답자들은 20~3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에 비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 범주별 반응백분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40~50대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협력을 수단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덜 보였고, 긍정적인 태도를 더 보였다.

〈표 III-10〉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 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부정적 태도 | 중립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
|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 |     | 6.28 | 1.63 | 7.6    | 33.9   | 58.5   |

〈표 III-11〉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5.97 | 1.65 | 6.16 | 1.58 | 6.06 | 1.62 |
| 40~50대 | 6.55 | 1.76 | 6.48 | 1.38 | 6.52 | 1.58 |
| 60대 이상 | 6.16 | 1.75 | 6.22 | 1.58 | 6.20 | 1.66 |
| 전체     | 6.26 | 1.74 | 6.30 | 1.51 | 6.28 | 1.63 |

〈표 III-12〉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 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부정적 | 중립적  | 긍정적  |
| 20~30대 | 9.7  | 43.4 | 46.9 | 8.6 | 36.2 | 55.2 |
| 40~50대 | 5.4  | 31.5 | 63.1 | 4.1 | 27.7 | 68.2 |
| 60대 이상 | 11.0 | 33.9 | 55.1 | 8.9 | 31.5 | 59.6 |

네 가지의 준거 변수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보면, 남북 간 전쟁에 대한 태도와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평화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만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0대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40~50대 참가자들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협력을 수단으로 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마)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에 유감을 표시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다.”의 세 문항을 6점 척도(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6=전적으로 동의)로 측정하였다. 세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8$ ).

참가자들은 평균 2.84점으로 북한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신뢰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표 III-13). 응답자들의 응답을 낮음(1~2점), 보통(3~4점), 높음(5~6점)으로 범주화한 결과,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1.5%에 불과했고, 낮은 신뢰를 보고한 사람은 46%였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나이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III-14〉, 〈표 III-15〉). 20~30대와 40~50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더 낮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범주별 반응율에서도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신뢰를 보고하였으며, 높은 신뢰를 보인 사람은 다른 연령대 집단보다 더 적었다.

〈표 Ⅲ-13〉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부정적 태도 | 중립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
| 북한에 대한 신뢰 |     | 2.84 | 1.15 | 46.0   | 42.5   | 11.5   |

〈표 Ⅲ-14〉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2.97 | 1.15 | 3.05 | 1.08 | 3.00 | 1.11 |
| 40~50대 | 2.96 | 1.15 | 2.84 | 1.09 | 2.90 | 1.12 |
| 60대 이상 | 2.53 | 1.23 | 2.52 | 1.13 | 2.52 | 1.17 |
| 전체     | 2.86 | 1.18 | 2.81 | 1.12 | 2.84 | 1.15 |

〈표 Ⅲ-15〉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낮음   | 보통   | 높음   | 낮음   | 보통   | 높음   |
| 20~30대 | 41.7 | 44.0 | 14.3 | 34.4 | 55.2 | 10.4 |
| 40~50대 | 40.4 | 45.3 | 14.3 | 44.6 | 43.6 | 11.8 |
| 60대 이상 | 65.3 | 24.6 | 10.2 | 58.2 | 35.6 | 6.2  |

### (바) 정보를 수용하려는 노력

응답자들이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 갖고 있는 개방적인 태도와 정보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남북 간 갈등에 대해 남한의 견해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럽국가의 관점을 담은 정보를 받아볼 용의가 있다.”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 “나는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읽어볼 용의가 있다.”의 네 문항을 이용하였고, 6점 척도(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6=전적으로 동의)로 측정하였다. 네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2$ ).

〈표 Ⅲ-16〉에 제시된 것처럼,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수용할 의도가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57점). 응답자들의 응답을 낮음(1~2점), 보통(3~4점), 높음(5~6점)으로 범주화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수용 노력이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자가 58.1%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성별과 연령대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한 결과,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약하게 나타났다(〈표 Ⅲ-17〉, 〈표 Ⅲ-18〉). 즉,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북한 관련 정보 수용 노력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은 정보 수용 노력을 더 낮게 보고했다. 북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은 시사 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관심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두 가지의 설명을 분리하기 어렵고, 두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 Ⅲ-16〉 정보 수용 노력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부정적 태도 | 중립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
| 정보 수용 노력 |     | 3.57 | .90  | 18.4   | 58.1   | 23.5   |

〈표 Ⅲ-17〉 정보 수용 노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3.65 | .98  | 3.54 | .86  | 3.60 | .92  |
| 40~50대 | 3.70 | .89  | 3.55 | .87  | 3.63 | .88  |
| 60대 이상 | 3.55 | .89  | 3.34 | .90  | 3.43 | .90  |
| 전체     | 3.65 | .92  | 3.49 | .88  | 3.57 | .90  |

〈표 Ⅲ-18〉 정보 수용 노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낮음   | 보통   | 높음   | 낮음   | 보통   | 높음   |
| 20~30대 | 16.6 | 51.4 | 32.0 | 17.2 | 61.3 | 21.5 |
| 40~50대 | 14.8 | 59.1 | 26.1 | 16.4 | 63.1 | 20.5 |
| 60대 이상 | 22.0 | 54.2 | 23.7 | 26.7 | 57.5 | 15.8 |

#### (사)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남북 문제에 대해 응답자들이 얼마나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희망적이다.” “나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에 대해 희망적이다.” “나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해 희망적이다.”의 세 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은 6점 척도(=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6=전적으로 동의)로 응답하였고,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계산하였다(Cronbach's  $\alpha = .91$ ).

〈표 Ⅲ-19〉에 제시하였듯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아주 희망적이지도,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41점). 응답자들의 응답을 낮음(1~2점), 보통(3~4점), 높음(5~6점)으로 범주화했을 때

에도 희망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50.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 응답을 비교했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20~30대와 40~50대 응답자들에 비해 60대 응답자들은 남북 관계에 대한 희망을 더 적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서는 성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60대 응답자들 중에서도 남성 응답자들은 여성들에 비해 더 낮은 희망을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 범주별 반응백분율(〈표 III-20〉, 〈표 III-21〉)을 비교했을 때, 여성들은 희망을 높다고 보고한 반응율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20.9, 22.1, 20.5)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남성들 중에서 희망을 높게 보고한 응답자는 20~30대에서 28.6%, 40~50대에서 30.5%, 60대 이상에서 14.4%으로 나타나 60대 남성들 중에서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9〉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부정적 태도 | 중립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
|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     | 3.41 | 1.13 | 26.2   | 50.2   | 23.6   |

〈표 III-20〉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3.56 | 1.09 | 3.49 | 1.02 | 3.53 | 1.05 |
| 40~50대 | 3.58 | 1.19 | 3.46 | 1.04 | 3.52 | 1.12 |
| 60대 이상 | 2.97 | 1.26 | 3.22 | 1.15 | 3.11 | 1.21 |
| 전체     | 3.43 | 1.20 | 3.40 | 1.07 | 3.41 | 1.13 |

〈표 III-21〉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낮음   | 보통   | 높음   | 낮음   | 보통   | 높음   |
| 20~30대 | 20.0 | 51.4 | 28.6 | 17.8 | 61.3 | 20.9 |
| 40~50대 | 21.7 | 47.8 | 30.5 | 26.7 | 51.3 | 22.1 |
| 60대 이상 | 44.1 | 41.5 | 14.4 | 34.2 | 45.2 | 20.5 |

정리하자면, 북한에 대한 신뢰 수준이나, 북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수용하려는 노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은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60대 이상의 응답자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0대 이상의 남한 국민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북한이나 남북관계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설득 과정을 통해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남북 화해의 예측 변수

### (가) 우익권위주의

응답자들의 우익권위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많은 선동가들의 말을 무시해야 한다. 국가의 정당한 권위자들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낙태, 포르노그래피, 결혼에 대한 신성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급진주의자,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최근의 범죄, 성(性)적 부도덕과 사회무질서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과 인물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질 낮고 역겨우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포함한 언론이나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가 아니라 강력한 법과 질서이다.”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지도자이다.”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1=전적으로 반대, 4=보통이다, 7=전적으로 찬성)를 이용하였다. 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변량의 42.82%)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8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81$ ).

〈표 III-22〉에 우익권위주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평균 점수는 척도 중간점인 4점보다 약간 높은 4.78점으로,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우익권위주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응답을 낮음(1~3점), 보통(4점), 높음(5~7점)으로 범주화한 결과, 보통의 범주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은 26.5%인 반면, 높은 수준의 범주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은 64.5%로 더 높았다. 응답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편포도 -.27)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6점 정도) 응답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와 연령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III-23〉, 〈표 III-24〉). 즉,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에게서,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우익권위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40~50대와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들의 경우 40~50대보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우익권위주의를 보였다. 반응 범주별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의 남성들 중 높은 수준의 우익권위주의를 가진

응답자들은 89.8%로, 같은 연령대 여성들의 74.7%보다 더 많았다.

〈표 III-22〉 우익권위주의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낮음  | 보통   | 높음   |
|--------|-----|------|------|-----|------|------|
| 우익권위주의 |     | 4.78 | .99  | 9.0 | 26.5 | 64.5 |

〈표 III-23〉 우익권위주의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4.36 | .96  | 4.39 | .92  | 4.38 | .94  |
| 40~50대 | 4.81 | .94  | 4.89 | .94  | 4.85 | .94  |
| 60대 이상 | 5.47 | .86  | 4.96 | .93  | 5.19 | .93  |
| 전체     | 4.81 | 1.01 | 4.75 | .96  | 4.78 | .99  |

〈표 III-24〉 우익권위주의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낮음   | 보통   | 높음   | 낮음   | 보통   | 높음   |
| 20~30대 | 14.3 | 40.6 | 45.1 | 14.1 | 36.8 | 49.1 |
| 40~50대 | 7.9  | 25.1 | 67.0 | 7.7  | 23.1 | 68.1 |
| 60대 이상 | 1.7  | 8.5  | 89.8 | 6.2  | 19.2 | 74.7 |

#### (나) 사회지배성향

사회지배성향은 8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포함된 문항은 “열등한 개인, 집단과 계층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우월한 계층 또는 집단이 상위에 있고 열등한 계층과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적인 사

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위계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계층은 상위에, 다른 계층은 하위에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개인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역문항)”, “우리는 모든 사람과 계층에게 동일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문항)”,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문항)”, “사람 간, 계층 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역문항)”이다. 여덟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정방향 문항들과 역문항들의 두 개의 요인(변량의 64.26%)이 추출되었으나,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80$ )가 높았기 때문에 8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III-25〉 사회지배성향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낮음   | 보통   | 높음  |
|--------|-----|------|------|------|------|-----|
| 사회지배성향 |     | 2.87 | .93  | 69.4 | 28.1 | 2.5 |

〈표 III-26〉 사회지배성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3.15 | .96  | 2.93 | .91  | 3.04 | .94  |
| 40~50대 | 2.75 | .98  | 2.73 | .86  | 2.74 | .92  |
| 60대 이상 | 2.89 | .98  | 2.78 | .81  | 2.83 | .89  |
| 전체     | 2.92 | .99  | 2.81 | .87  | 2.87 | .93  |



〈표 III-27〉 사회지배성향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낮음   | 보통   | 높음  | 낮음   | 보통   | 높음  |
| 20~30대 | 54.9 | 41.7 | 3.4 | 65.6 | 33.1 | 1.2 |
| 40~50대 | 70.4 | 26.1 | 3.4 | 76.9 | 22.1 | 1.0 |
| 60대 이상 | 71.2 | 24.6 | 4.2 | 78.1 | 19.9 | 2.1 |

〈표 III-25〉에 제시하였듯이, 응답의 평균 점수는 척도 중간점인 4점보다 1점 이상 낮은 2.87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지배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낮음(1~3점), 보통(4점), 높음(5~7점)으로 범주화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음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69.4%로 매우 많았고, 높음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겨우 2.5%에 불과했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응답을 비교해보면,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점수가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별 비교 결과, 20~30대 응답자들이 40~5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들에 비해 더 강한 사회지배성향을 보였다. 각 하위 집단 중에서는 20~30대 남성들이 보고한 사회지배성향이 가장 높았다. 응답 범주별 결과 따르면 ‘높음’ 범주에 속한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었고 성별 또는 연령대별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으나, 20~30대 응답자들 중 사회지배성향이 ‘낮음’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남녀 각각 59.9%, 65.6%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보다 그 수가 더 적었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에서의 응답을 비교해보면, 우익권위주의는 60대 이상의 집단, 특히 60대 남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지배성향은 20~30대, 특히 이 연령대의 남성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익권위주의는 한 사회 체제 내의 권위

및 전통에 대한 수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종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와 관련이 되는 반면, 사회지배성향은 한 사회 내의 집단들 간 위계 관계를 수용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즉 60대 남성들은 한국사회의 권위와 전통을 지지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20~30대 남성들은 한국사회 내의 집단들 간에 우열과 위계가 존재(해야)한다고 보는 신념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강했다. 20~30대 남성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겪으면서,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인 사람들 간의 격차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이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연애 및 결혼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사회적 조건이 부과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은 종종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관련될 수 있는 변수들로 연구에 포함되지만, 두 개념이 항상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본 조사에서도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r=.058$ ,  $p=.066$ )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두 변수 간 상관관을 살펴본 결과, 20~30대 응답자들에게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 간에 정적인 상관( $r=.228$ ,  $p<.001$ )이 나타났지만, 40~50대 응답자( $r=.075$ )와 60대 이상의 응답자( $r=-.041$ )에게서는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30대 응답자들은 사회 체제 내의 권위와 규칙,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사회 집단들 간에 불평등한 위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신념 역시 강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 (다) 조절초점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해 향상초점을 나타내는 4문항(“나는 어떤 일을 성취한 후 고무되어 그 일을 더 열심히 한 적이 있다”, “나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을 잘 해내는 편이다”,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나는 계획대로 잘 진행하는 편이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흥미를 끌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취미나 활동들을 자주 발견했다.”)와 예방초점을 나타내는 4문항(“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화내실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통제에 착실하게 따랐다”,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5=전적으로 동의함)로 응답하였다.

Higgins 등의 원칙도에서는 향상초점 문항의 점수에서 예방초점 점수를 뺀 점수를 사용하여, 이 값이 높을수록 향상초점이 강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두 요인(변량의 61.87% 설명)이 추출되었고, 8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44$ )가 낮았기 때문에 두 하위요인을 합치는 대신 향상초점의 4문항(Cronbach's  $\alpha=.72$ )과 예방초점의 4문항(Cronbach's  $\alpha=.84$ )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여 두 개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실제로 두 변수가 서로 역방향의 상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방향으로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56, p<.001$ ). 즉, 향상초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예방초점도 높게 나타났다. 향상초점은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고, 예방초점은 개인이 따라야 하는 의무나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동기와 관련이 되어있다

는 점<sup>162)</sup>을 고려하면,<sup>163)</sup> 두 지표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동기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목표와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sup>164)</sup>

〈표 III-28〉에는 향상초점에서의 결과가 나타나있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3.65점의 다소 높은 수준의 향상초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척도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응답을 낮음과 높음으로 구분했을 때 91.6%의 응답자들이 높음 범주에 해당하였다. 성별과 연령대 별로 비교한 결과(〈표 III-29〉, 〈표 III-30〉),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향상초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응답 범주별 비교에서도 20~30대 참가자들에 비해 40~50대와 60대 이상의 참가자들 중 더 많은 참가자들이 높은 수준의 향상초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향상초점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낮음  | 높음   |
|----------|------|------|-----|------|
| 향상초점     | 3.65 | .60  | 8.4 | 91.6 |

162) Troy E. Higgins,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vol. 52, no. 12 (1997), pp. 1280~1300.

163) Tory E. Higgins et al.,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pp. 3~23.

164) 강혜자·한덕웅, "자기차이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3호 (2005), pp. 349~374.

〈표 III-29〉 향상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3.55 | .62  | 3.48 | .59  | 3.52 | .61  |
| 40~50대 | 3.64 | .62  | 3.68 | .52  | 3.66 | .57  |
| 60대 이상 | 3.82 | .60  | 3.81 | .57  | 3.82 | .58  |
| 전체     | 3.65 | .62  | 3.65 | .57  | 3.65 | .60  |

〈표 III-30〉 향상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
|        | 낮음   | 높음   | 낮음   | 높음   |
| 20~30대 | 10.3 | 89.7 | 14.7 | 85.3 |
| 40~50대 | 9.9  | 90.1 | 5.1  | 94.9 |
| 60대 이상 | 8.7  | 91.3 | 8.1  | 91.9 |

한편 예방초점의 평균 점수도 3.52로 척도 중간점인 3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 3점을 기준으로 응답을 분류한 결과 높음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2.5%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표 III-32〉, 〈표 III-33〉), 20~30대와 40~50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예방초점을 보고했다. 응답 범주 간 비교에서도,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대 집단들에 비해 강한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

〈표 III-31〉 예방초점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낮음   | 높음   |
|------|-----|------|------|------|------|
| 예방초점 |     | 3.52 | .77  | 17.5 | 82.5 |

〈표 Ⅲ-32〉 예방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3.43 | .73  | 3.39 | .85  | 3.41 | .79  |
| 40~50대 | 3.42 | .77  | 3.51 | .71  | 3.46 | .74  |
| 60대 이상 | 3.67 | .78  | 3.83 | .70  | 3.76 | .74  |
| 전체     | 3.48 | .77  | 3.56 | .78  | 3.52 | .77  |

〈표 Ⅲ-33〉 예방초점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
|        | 낮음   | 높음   | 낮음   | 높음   |
| 20~30대 | 21.7 | 78.3 | 23.3 | 76.7 |
| 40~50대 | 19.7 | 80.3 | 15.9 | 84.1 |
| 60대 이상 | 14.4 | 85.6 | 7.5  | 92.5 |

### (라) 미래지향성

응답자들의 미래(또는 현재) 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지향성을 나타내는 4문항(“나는 미래의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면한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 “나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문제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 “미래의 결과들은 나중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문제들은 나중에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한다”)과 미래지향성을 나타내는 4문항(“나는 보통 달성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 행동에 착수한다”, “나는 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이나 웰

빙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다”, “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몇 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이 결정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한다.”)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4=보통이다, 7=전적으로 동의함)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의 두 요인(59.91%)이 추출되었으나, 8문항들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 .70)가 충분히 높았다. 따라서 현재지향성 문항들을 역변환한 후 전체 문항들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미래지향적임을 나타낸다.

〈표 III-34〉에 제시된 것처럼, 응답자들은 척도 중간점보다 약간 높은 (평균 4.55점) 수준의 미래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점을 기준으로 고-저 수준을 범주화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1%가 높은 미래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비교 결과,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강했다(〈표 III-35〉, 〈표 III-36〉). 연령에 따른 이러한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I-34〉 미래지향성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낮음   | 높음   |
|-------|-----|------|------|------|------|
| 미래지향성 |     | 4.55 | .71  | 15.9 | 84.1 |

〈표 III-35〉 미래지향성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4.43 | .82  | 4.53 | .71  | 4.48 | .77  |
| 40~50대 | 4.53 | .68  | 4.54 | .57  | 4.54 | .63  |
| 60대 이상 | 4.70 | .70  | 4.63 | .75  | 4.66 | .73  |
| 전체     | 4.54 | .74  | 4.56 | .67  | 4.55 | .71  |

〈표 III-36〉 미래지향성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
|        | 낮음   | 높음   | 낮음   | 높음   |
| 20~30대 | 28.0 | 72.0 | 16.6 | 83.4 |
| 40~50대 | 14.8 | 85.2 | 10.3 | 89.7 |
| 60대 이상 | 10.2 | 89.8 | 14.4 | 85.6 |

정리하자면,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에서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더 강하게 동기화될 수 있는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지만, 측정 문항을 살펴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미래지향성 역시 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당장의 희생이나 비용을 감수하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현재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 성장 모델 안에서 미래의 성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에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30대 응답자들보다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이 이 변수들에서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 (마) 주관적 안녕

응답자들이 느끼는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당신의 삶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현재 당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현재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신이 바라는 이상과 비교하면 자신의 객관적 생활조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1점(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음)부터 7점(전적으로 만족함) 사이의 점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7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78.23%)이 추출되었으며, 7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5).

〈표 III-37〉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4.28점의 중간에서 약간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낮음(1~3점), 보통(4점), 높음(5~7점)으로 범주화한 결과,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24.4%)이나 보통 수준으로 응답한 사람들(29.7%)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45.9%)이 더 많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성차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두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패턴이 나타났다(〈표 III-38〉, 〈표 III-39〉). 여성들은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40~50대에서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았던 반면, 남성들은 40~50대 집단에서 주관적 안녕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 범주 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참가자의 비율이 남성들은 40~50대에서 가장 낮은 반면, 여성들은 동일한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표 III-37〉 주관적 안녕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낮음   | 보통   |
|--------|-----|------|------|------|------|
| 주관적 안녕 |     | 4.28 | 1.23 | 24.4 | 29.7 |

〈표 III-38〉 주관적 안녕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4.35 | 1.20 | 4.17 | 1.24 | 4.26 | 1.22 |
| 40~50대 | 4.14 | 1.13 | 4.44 | 1.26 | 4.29 | 1.20 |
| 60대 이상 | 4.33 | 1.38 | 4.26 | 1.21 | 4.29 | 1.28 |
| 전체     | 4.26 | 1.22 | 4.30 | 1.24 | 4.28 | 1.23 |

〈표 III-39〉 주관적 안녕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
|        | 낮음   | 보통   | 높음   | 낮음   |
| 20~30대 | 18.3 | 33.7 | 48.0 | 28.2 |
| 40~50대 | 25.1 | 34.5 | 40.4 | 24.1 |
| 60대 이상 | 25.4 | 27.1 | 47.5 | 26.0 |

### (바)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의 노력에 비해 내가 처한 현실은 공정하지 않다”, “한국은 재화와 기회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드는 공정성 혁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성별, 지역, 연령, 사회적 배경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 처지가 더 나아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5점 척도(1=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5=

전적으로 동의함)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모든 문항의 응답을 역변환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Cronbach's  $\alpha = .66$ ). 즉, 이 변수에서의 높은 점수는 한국사회를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III-40〉에 제시되었듯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응답을 낮음(1~2점), 보통(3점), 높음(4~5점)으로 범주화한 결과, 한국사회를 매우 공정하다고 지각한 응답자는 9%에 머물렀고, 낮거나(42%) 보통(49%)이라고 지각한 응답율은 비슷했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사회를 덜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뚜렷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III-41〉, 〈표 III-42〉).

〈표 III-40〉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응백분율(%)

(N = 1000)

| 변수          | 통계치 | 평균   | 표준편차 | 낮음   | 보통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 2.50 | .66  | 42.0 | 49.0 |

〈표 III-41〉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00)

| 구분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20~30대 | 2.58 | .69  | 2.56 | .70  | 2.57 | .69  |
| 40~50대 | 2.48 | .63  | 2.44 | .63  | 2.46 | .63  |
| 60대 이상 | 2.45 | .68  | 2.48 | .64  | 2.47 | .66  |
| 전체     | 2.51 | .67  | 2.49 | .66  | 2.50 | .66  |

〈표 III-42〉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에서의 성별 및 연령대별 반응백분율(%)

(N = 1000)

| 구분     | 남성   |      |      | 여성   |      |     |
|--------|------|------|------|------|------|-----|
|        | 낮음   | 보통   | 높음   | 낮음   | 보통   | 높음  |
| 20~30대 | 35.4 | 52.6 | 12.0 | 38.0 | 52.1 | 9.8 |
| 40~50대 | 44.3 | 47.8 | 7.9  | 47.8 | 44.6 | 7.7 |
| 60대 이상 | 46.6 | 44.1 | 9.3  | 39.7 | 52.7 | 7.5 |

#### 다. 심층분석

전쟁에 대한 태도,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또는 협력, 북한에 대한 신뢰,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각각에 대하여,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 조절초점와 미래지향성,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 공정성의 예측변수들이 해당 준거변수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예측변수가 여러 개일 때 각각의 예측변수들이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상대적인 설명력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 중에서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연구자가 의도한 순서대로 예측변수 또는 예측변수들의 집단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이다. 본 장에서 다루는 예측변수들을 이론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통제변수),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반영하는 변수, 목표 추구 과정에서의 개인 선호를 나타내는 변수, 현재 자신의 삶 또는 한국사회에 대한 지각을 반영하는 변수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된 변수들의 집단을 단계별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개별 예측변수들의 설명력뿐 아니라 이론적인 구성 개념으로서의 예측변수들 집단 간의 설명력도 함께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의 1단계에는 성별, 연령과 더불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정치적 태도를 포함하였다. 정치적 태도는 “귀하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 이슈에 있어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자신이 경제적 이슈에 있어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7점 척도(1=매우 보수, 4=중도, 7=매우 진보)를 이용하였다. 세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Cronbach's  $\alpha$  =.922),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남성들(M=4.04)보다 여성들(M=4.19)이 적은 차이로 더 진보적인 태도를 보고하였으며, 20~30대(M=4.26)보다는 40~50대(M=4.18), 그리고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M=3.83) 스스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반영하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을 포함하였고, 3단계에서는 목표 추구 과정에서의 개인 선호를 나타내는 조절초점(향상초점, 예방초점)과 미래지향성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현재 자신의 삶 또는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지각을 반영하는 변수들로서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을 추가하였다.

### (1) 가치관이 전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령, 정치적 태도를 먼저 투입한 결과, <표 III-4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세 변수 모두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노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응답자들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을 추가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가 강할수록, 그리고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남북 간 전쟁을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미래지향성은 부정적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한반도 전쟁에 반대하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을 추가하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모든 예측 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30%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예측변수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는 사회지배성향이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정치적 태도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잘 예측하였다. 그 외에도 우익권위주의, 미래지향성, 주관적 안녕은 전쟁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으나,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은 전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III-43〉 전쟁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N = 1000)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1           | 성별     | -.74*** | -.20*** | .12***  | .12*** |
|             | 연령     | -.12**  | -.09**  |         |        |
|             | 정치적 태도 | -.47*** | -.27*** |         |        |
| 2           | 성별     | -.67*** | -.18*** | .16***  | .28*** |
|             | 연령     | -.08*   | -.06*   |         |        |
|             | 정치적 태도 | -.30*** | -.17*** |         |        |
|             | 우익권위주의 | .19**   | .10**   |         |        |
| 3           | 사회지배성향 | .79***  | .39***  | .01**   | .29*** |
|             | 성별     | -.65*** | -.17*** |         |        |
|             | 연령     | -.07    | -.05    |         |        |
|             | 정치적 태도 | -.30*** | -.17*** |         |        |
|             | 우익권위주의 | .21***  | .11***  |         |        |
|             | 사회지배성향 | .74***  | .37***  |         |        |
|             | 항상초점   | .02     | .01     |         |        |
|             | 예방초점   | -.11    | -.04    |         |        |
| 4           | 미래지향성  | -.26**  | -.10**  | .01**   | .30*** |
|             | 성별     | -.65*** | -.17*** |         |        |
|             | 연령     | -.07    | -.06    |         |        |
|             | 정치적 태도 | -.32*** | -.18*** |         |        |
|             | 우익권위주의 | .19**   | .10**   |         |        |
|             | 사회지배성향 | .79***  | .39***  |         |        |
|             | 항상초점   | .09     | .03     |         |        |
|             | 예방초점   | -.11    | -.05    |         |        |
|             | 미래지향성  | -.26**  | -.10**  |         |        |
|             | 주관적 안녕 | -.11*   | -.07*   |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16   | -.06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2) 가치관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남북 간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령, 정치적 태도를 먼저 투입하였다. <표 III-44>에 제시되었듯이 세 변수 모두 평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평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가 진보적일수록 평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응답자들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을 투입하였고, 두 변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우익권위주의가 강할수록 남북 간 평화를 지지하였지만,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평화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으며, 향상초점만이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을 추가하였고, 그 결과 두 변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화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다. 참가자의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평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나타난 반면,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평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측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30%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예측변수들 중에서도 사회지배성향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졌으며, 연령, 정치적 태도, 주관적 안녕 역시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들이었다. 그 외에 성별, 우익권위주의,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역시 평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향상초점, 예방초점, 미래지향성은 평화에 대한 태도를 잘 예측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치관이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군사력을 수단으로 남북한 간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령, 정치적 태도를 먼저 투입한 결과, <표 III-4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세 변수 모두 예측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군사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을 모형에 추가하였고, 두 변수 모두 예측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가 강할수록, 그리고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남북한 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표 III-44> 평화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N = 1000)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1  | 성별     | -.21*   | -.06*   | .13***  | .13*** |
|    | 연령     | .29***  | .25***  |         |        |
|    | 정치적 태도 | .48***  | .31***  |         |        |
| 2  | 성별     | -.24*   | -.07*   | .13***  | .26*** |
|    | 연령     | .17***  | .15***  |         |        |
|    | 정치적 태도 | .36***  | .23***  |         |        |
|    | 우익권위주의 | .24***  | .14***  |         |        |
|    | 사회지배성향 | -.65*** | -.36*** |         |        |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3           | 성별      | -.24**  | -.07**  | .01**   | .27*** |
|             | 연령      | .15***  | .13***  |         |        |
|             | 정치적 태도  | .36***  | .23***  |         |        |
|             | 우익권위주의  | .20***  | .12***  |         |        |
|             | 사회지배성향  | -.62*** | -.34*** |         |        |
|             | 향상초점    | .22*    | .08*    |         |        |
|             | 예방초점    | .12     | .06     |         |        |
|             | 미래지향성   | .05     | .02     |         |        |
| 4           | 성별      | -.26**  | -.08**  | .03***  | .30*** |
|             | 연령      | .16***  | .14***  |         |        |
|             | 정치적 태도  | .34***  | .22***  |         |        |
|             | 우익권위주의  | .15**   | .09**   |         |        |
|             | 사회지배성향  | -.62*** | -.34*** |         |        |
|             | 향상초점    | .05     | .02     |         |        |
|             | 예방초점    | .07     | .03     |         |        |
|             | 미래지향성   | .10     | .04     |         |        |
|             | 주관적 안녕  | .26***  | .19***  |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29*** | -.11*** |         |         |        |

\* $p < .05$ , \*\* $p < .01$ , \*\*\*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향상초점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예방초점과 미래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향상초점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을 추가하였고, 그 결과 두 변수 모두 군사력을 이용한 평화실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사회를 공정하다고 지각할수록 군사력

을 동원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2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예측변수들 중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는 사회지배성향이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정치적 태도도 강한 예측력을 보였다. 그 외에도 연령, 우익권위주의, 향상초점, 주관적 안녕,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으나, 예방초점과 미래지향성은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의 종다회귀 분석결과

(N = 1000)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1     | 성별     | -.64*** | -.17*** | .14***  | .14*** |
|       | 연령     | .20***  | .14***  |         |        |
|       | 정치적 태도 | -.49*** | -.27*** |         |        |
| 2     | 성별     | -.58*** | -.15*** | .09***  | .23*** |
|       | 연령     | .15***  | .11***  |         |        |
|       | 정치적 태도 | -.37*** | -.21*** |         |        |
|       | 우익권위주의 | .40***  | .20***  |         |        |
| 3     | 사회지배성향 | .47***  | .23***  | .01*    | .24*** |
|       | 성별     | -.57*** | -.15*** |         |        |
|       | 연령     | .14**   | .10**   |         |        |
|       | 정치적 태도 | -.37*** | -.20*** |         |        |
|       | 우익권위주의 | .38***  | .19***  |         |        |
|       | 사회지배성향 | .48***  | .23***  |         |        |
|       | 향상초점   | .20**   | .09**   |         |        |
|       | 예방초점   | .03     | .01     |         |        |
| 미래지향성 | -.11   | -.04    |         |         |        |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4  | 성별          | -.57*** | -.15*** | .01**   | .25*** |
|    | 연령          | .13**   | .10**   |         |        |
|    | 정치적 태도      | -.39*** | -.21*** |         |        |
|    | 우익권위주의      | .35***  | .18***  |         |        |
|    | 사회지배성향      | .54***  | .26***  |         |        |
|    | 향상초점        | .36**   | .11**   |         |        |
|    | 예방초점        | .02     | .01     |         |        |
|    | 미래지향성       | -.10    | -.04    |         |        |
|    | 주관적 안녕      | -.10**  | -.07**  |         |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22**  | -.07**  |         |        |

\* $p < .05$ , \*\* $p < .01$ , \*\*\* $p < .001$

#### (4) 가치관이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먼저 투입하였다(표 III-46). 그 결과,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을 모형에 추가하였고, 두 변수는 반대 방향으로 예측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남북한 간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지지하였지만,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변수를 모형에 추가한 결과, 향상초점만이 협력을 통한 남북한 간 평화실현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초점과 미래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을 추

가하였고, 두 변수는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사회가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III-46〉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N = 1000)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1     | 성별     | -.05    | -.01    | .12***  | .12*** |
|       | 연령     | .12***  | .11***  |         |        |
|       | 정치적 태도 | .53***  | .35***  |         |        |
| 2     | 성별     | -.08    | -.02    | .10***  | .22*** |
|       | 연령     | .04     | .03     |         |        |
|       | 정치적 태도 | .42***  | .28***  |         |        |
|       | 우익권위주의 | .11**   | .07**   |         |        |
| 3     | 사회지배성향 | -.56*** | -.32*** | .02***  | .24*** |
|       | 성별     | -.08    | -.02    |         |        |
|       | 연령     | .01     | .01     |         |        |
|       | 정치적 태도 | .43***  | .29***  |         |        |
|       | 우익권위주의 | .07     | .04     |         |        |
|       | 사회지배성향 | -.52*** | -.30*** |         |        |
|       | 향상초점   | .36***  | .13***  |         |        |
|       | 예방초점   | .07     | .03     |         |        |
| 미래지향성 | .06    | .03     |         |         |        |
| 4     | 성별     | -.10    | -.03    | .04***  | .28*** |
|       | 연령     | .03     | .02     |         |        |
|       | 정치적 태도 | .41***  | .27***  |         |        |
|       | 우익권위주의 | .03     | .02     |         |        |
|       | 사회지배성향 | -.54*** | -.31*** |         |        |
|       | 향상초점   | .17     | .06     |         |        |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 예방초점        | .01     | .01    |         |        |
|    | 미래지향성       | .11     | .05    |         |        |
|    | 주관적 안녕      | .30***  | .22*** |         |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23**  | -.09** |         |        |

\* $p < .05$ , \*\* $p < .01$ , \*\*\* $p < .001$

모든 예측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28%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예측변수는 사회지배성향과 정치적 태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 변수였다. 예방초점과 미래지향성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가치관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대한 신뢰를 예측하는 모형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투입한 결과, 응답자들의 연령과 정치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7).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응답자들의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두 변수 모두 북한에 대한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II-47〉 북한에 대한 신뢰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N = 1000)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1           | 성별      | -0.08    | -0.04    | .11***  | .11*** |
|             | 연령      | -0.09*** | -0.11*** |         |        |
|             | 정치적 태도  | 0.31***  | 0.29***  |         |        |
| 2           | 성별      | -0.08    | -0.03    | .00     | .11*** |
|             | 연령      | -0.07**  | -0.09**  |         |        |
|             | 정치적 태도  | 0.32***  | 0.30***  |         |        |
|             | 우익권위주의  | -0.03    | -0.02    |         |        |
| 3           | 사회지배성향  | 0.05     | 0.04     | .02***  | .13*** |
|             | 성별      | -0.07    | -0.03    |         |        |
|             | 연령      | -0.07**  | -0.09**  |         |        |
|             | 정치적 태도  | 0.31***  | 0.29***  |         |        |
|             | 우익권위주의  | -0.02    | -0.02    |         |        |
|             | 사회지배성향  | 0.01     | 0.01     |         |        |
|             | 항상초점    | 0.05     | 0.02     |         |        |
| 예방초점        | -0.03   | -0.02    |          |         |        |
| 4           | 미래지향성   | -0.23*** | -0.14*** | .02***  | .15*** |
|             | 성별      | -0.08    | -0.04    |         |        |
|             | 연령      | -0.06*   | -0.08*   |         |        |
|             | 정치적 태도  | 0.30***  | 0.28***  |         |        |
|             | 우익권위주의  | -0.04    | -0.04    |         |        |
|             | 사회지배성향  | 0.00     | 0.00     |         |        |
|             | 항상초점    | -0.05    | -0.02    |         |        |
|             | 예방초점    | -0.06    | -0.04    |         |        |
|             | 미래지향성   | -0.20*** | -0.13*** |         |        |
| 주관적 안녕      | 0.14*** | 0.16***  |          |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0.16** | -0.09**  |          |         |        |

\* $p < .05$ , \*\* $p < .01$ , \*\*\*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추가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변수들 중에서는 미래지향성 변수만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예측하였다. 즉, 미래지향성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을 추가한 결과, 두 변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나, 한국사회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모든 예측 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1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예측변수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였으며, 그 다음이 주관적 안녕과 미래지향성이었다. 그 외에 응답자의 연령과 한국사회에 대한 공정성 지각도 영향을 미쳤으나, 성별과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성향,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가치관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 수용 노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 노력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가장 먼저 투입한 결과 성별과 정치적 태도의 효과가 유의하였다(표 III-48). 즉,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일수록 북한 관련 정보 수용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 변수를 추가한 결과, 두 변수는 정보 수용 노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익권위주의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지배성향이 낮을수록 북한 관련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더 강하게 보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변수를 모형에 추가한 결과, 향상초점만이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향상초점이 강할수록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더 강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북한 관련 정보에 더 개방적이 되는 반면, 한국사회를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 관련 정보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감소했다.

모든 예측 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13%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예측변수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는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였으며, 그 외에도 사회지배성향, 향상초점, 주관적 안녕,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등이 북한 관련 정보의 수용 노력을 예측하였다. 반면 미래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정보 수용 노력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N = 1000)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1  | 성별     | -0.19**  | -0.11**  | .08***  | .08*** |
|    | 연령     | -0.01    | -0.02    |         |        |
|    | 정치적 태도 | 0.22***  | 0.27***  |         |        |
| 2  | 성별     | -0.19*** | -0.11*** | .02***  | .10*** |
|    | 연령     | -0.04*   | -0.07*   |         |        |
|    | 정치적 태도 | 0.20***  | 0.24***  |         |        |
|    | 우익권위주의 | 0.07*    | 0.08*    |         |        |
|    | 사회지배성향 | -0.13*** | -0.13*** |         |        |
| 3  | 성별     | -0.19**  | -0.10**  | .02**   | .12*** |
|    | 연령     | -0.05*   | -0.08*   |         |        |
|    | 정치적 태도 | 0.20***  | 0.24***  |         |        |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 우익권위주의  | 0.06*    | 0.07*    |         |        |
|             | 사회지배성향  | -0.12*** | -0.12*** |         |        |
|             | 향상초점    | 0.22***  | 0.14***  |         |        |
|             | 예방초점    | -0.06    | -0.05    |         |        |
|             | 미래지향성   | -0.03    | -0.02    |         |        |
| 4           | 성별      | -0.19*** | -0.11*** | .02***  | .13*** |
|             | 연령      | -0.05*   | -0.07*   |         |        |
|             | 정치적 태도  | 0.19***  | 0.23***  |         |        |
|             | 우익권위주의  | 0.04     | 0.05     |         |        |
|             | 사회지배성향  | -0.12*** | -0.12*** |         |        |
|             | 향상초점    | 0.16**   | 0.10**   |         |        |
|             | 예방초점    | -0.08**  | -0.07**  |         |        |
|             | 미래지향성   | -0.01    | -0.01    |         |        |
|             | 주관적 안녕  | 0.09***  | 0.13***  |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0.12** | -0.08**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7) 가치관에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미치는 영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모형에 가장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투입하였다(표 III-49). 그 결과,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 변수를 추가하였고, 그 결과 사회지배성향만이 준거변수를 예측하였다. 즉, 응답자의 사회지배성향이 높을수록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변수를 모

형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향상초점과 미래지향성은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측하였으나, 예방초점의 효과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향상초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남북 문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반면, 미래지향적인 응답자들은 더 비관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을 추가하였고, 주관적 안녕 변수만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미래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49〉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종다회귀 분석결과

(N = 1000)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1  | 성별     | -0.07    | -0.03    | .16***  | .16*** |
|    | 연령     | -0.07**  | -0.09**  |         |        |
|    | 정치적 태도 | 0.40***  | 0.38***  |         |        |
| 2  | 성별     | -0.08    | -0.03    | .01*    | .16*** |
|    | 연령     | -0.08**  | -0.10**  |         |        |
|    | 정치적 태도 | 0.38***  | 0.36***  |         |        |
|    | 우익권위주의 | 0.02     | 0.02     |         |        |
|    | 사회지배성향 | -0.10**  | -0.08**  |         |        |
| 3  | 성별     | -0.07    | -0.03    | .03***  | .19*** |
|    | 연령     | -0.10*** | -0.12*** |         |        |
|    | 정치적 태도 | 0.38***  | 0.36***  |         |        |
|    | 우익권위주의 | 0.00     | 0.00     |         |        |
|    | 사회지배성향 | -0.11**  | -0.09**  |         |        |
|    | 향상초점   | 0.32***  | 0.17***  |         |        |
|    | 예방초점   | -0.01    | 0.00     |         |        |
|    | 미래지향성  | -0.16**  | -0.10**  |         |        |

| 단계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단계별 설명량 | 전체 설명량 |
|----|-------------|----------|----------|---------|--------|
| 4  | 성별          | -0.09    | -0.04    | .04***  | .23*** |
|    | 연령          | -0.09*** | -0.11*** |         |        |
|    | 정치적 태도      | 0.37***  | 0.35***  |         |        |
|    | 우익권위주의      | -0.02    | -0.02    |         |        |
|    | 사회지배성향      | -0.13**  | -0.11**  |         |        |
|    | 향상초점        | 0.20**   | 0.10**   |         |        |
|    | 예방초점        | -0.04    | -0.03    |         |        |
|    | 미래지향성       | -0.13**  | -0.08**  |         |        |
|    | 주관적 안녕      | 0.20***  | 0.22***  |         |        |
|    |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 | -0.10    | -0.06    |         |        |

\* $p < .05$ , \*\* $p < .01$ , \*\*\* $p < .001$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모형은 준거변수의 23%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예측변수들 중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와 주관적 안녕 수준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으며, 그 외에 연령, 사회지배성향, 향상초점, 미래지향성이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성별과 우익권위주의, 예방초점, 한국사회의 공정성 지각은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라. 소결

심층분석에서 다룬 일곱 개의 준거변수 각각에 대하여 예측변수들의 예측 방향 및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표 III-50>을 구성하였다. 예측변수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남성 1, 여성 2), 연령, 정치적 태도(높을수록 진보적)를 포함하였고, 사회구조 신념을 반영하는 변수로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 목표 추구에서의 선호를 반영하는 향상초점, 예방초점, 미래지향성,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의 삶 및 한국사회에 대한 지각을 반영하는 주관적 안녕과 한국사

회의 공정성 지각 변수를 포함하였다. <표 III-50>에서, 해당 준거 변수를 정적 방향으로 예측한 예측변수들은 (+)로, 부정 방향으로 예측한 예측변수들은 (-)로 표시하였으며, 특히 설명력이 높았던 변수는 진하게 표시하였다.

<표 III-50> 준거변수 별 예측변수들의 예측 방향 및 예측력 비교

| 준거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 사회구조 신념           | 목표 추구 선호         | 현재 삶/사회에 대한 지각    |
|------------------|-------------------|-------------------|------------------|-------------------|
| 전쟁에 대한 태도        | <b>성별 (-)</b>     | 우익권위주의 (+)        | 향상초점             | 주관적 안녕 (-)        |
|                  | 연령 (-)            | <b>사회지배성향 (+)</b> | 예방초점             | 한국사회 공정성          |
|                  | <b>정치적 태도 (-)</b> |                   | 미래지향성 (+)        |                   |
| 평화에 대한 태도        | 성별 (-)            | 우익권위주의 (+)        | 향상초점             | <b>주관적 안녕 (+)</b> |
|                  | 연령 (+)            | <b>사회지배성향 (-)</b> | 예방초점             | 한국사회 공정성 (-)      |
|                  | <b>정치적 태도 (+)</b> |                   | 미래지향성            |                   |
|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 성별 (-)            | <b>우익권위주의 (+)</b> | 향상초점 (+)         | 주관적 안녕 (-)        |
|                  | 연령 (+)            | <b>사회지배성향 (+)</b> | 예방초점             | 한국사회 공정성 (-)      |
|                  | <b>정치적 태도 (-)</b> |                   | 미래지향성            |                   |
|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 성별                | 우익권위주의 (+)        | 향상초점 (+)         | <b>주관적 안녕 (+)</b> |
|                  | 연령 (+)            | <b>사회지배성향 (-)</b> | 예방초점             | 한국사회 공정성 (-)      |
|                  | <b>정치적 태도 (+)</b> |                   | 미래지향성            |                   |
| 북한에 대한 신뢰        | 성별                | 우익권위주의            | 향상초점             | <b>주관적 안녕 (+)</b> |
|                  | 연령 (-)            | 사회지배성향            | 예방초점             | 한국사회 공정성 (-)      |
|                  | <b>정치적 태도 (+)</b> |                   | <b>미래지향성 (-)</b> |                   |
| 정보 수용 노력         | 성별 (-)            | 우익권위주의 (+)        | 향상초점 (+)         | <b>주관적 안녕 (+)</b> |
|                  | 연령                | <b>사회지배성향 (-)</b> | 예방초점             | 한국사회 공정성 (-)      |
|                  | 정치적 태도 (+)        |                   | 미래지향성            |                   |
|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 성별                | 우익권위주의            | 향상초점 (+)         | <b>주관적 안녕 (+)</b> |
|                  | 연령 (-)            | 사회지배성향 (-)        | 예방초점             | 한국사회 공정성          |
|                  | 정치적 태도 (+)        |                   | 미래지향성 (-)        |                   |

주: (+)표시는 준거변수를 정적 방향으로 예측; (-)표시는 준거변수를 부정 방향으로 예측

전쟁에 대한 태도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낮을수록 전쟁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평화에 대한 태도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정치적 태도가 더 진보적일수록, 사회지배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평화를 지지하는 경향과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는 다른 준거변인들과는 달리 사회지배성향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미래지향성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현재지향성이 강할수록,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북한 관련 정보 수용 노력과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도 다소 유사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가 더 진보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사회지배성향이 더 낮을수록, 향상초점이 더 강하고 주관적 안녕 수준이 더 높을수록, 북한과 관련된 정보에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일부 준거변수들 간 유사한 양상의 결과를 보이는 것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표 III-51>에는 준거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쟁에 대한 태도와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는 상관계수 .681로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그 외의 변수들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평화에 대한 태도,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 관련 정보 수용 노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각각 정적 상관

관계에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신뢰와 정보 수용 노력,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표 Ⅲ-51〉 준거변수들 간 상관계수

|                     | 1       | 2       | 3       | 4      | 5      | 6      |
|---------------------|---------|---------|---------|--------|--------|--------|
| 1. 전쟁에 대한 태도        |         |         |         |        |        |        |
| 2. 평화에 대한 태도        | -.409** |         |         |        |        |        |
| 3.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 .472**  | -.176** |         |        |        |        |
| 4.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 -.445** | .681**  | -.330** |        |        |        |
| 5. 북한에 대한 신뢰        | -.059   | .237**  | -.308** | .303** |        |        |
| 6. 정보 수용 노력         | -.137** | .373**  | -.199** | .422** | .489** |        |
| 7.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 -.239** | .427**  | -.387** | .525** | .600** | .600** |

예측변수들로 초점을 돌려보면,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와 사회지배성향, 주관적 안녕은 가장 일관된 방식으로 준거변수들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사회지배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낮을수록 응답자들은 전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는 평화실현 방식을 지지하는 태도를 더 강하게 보였다. 반면에, 응답자들이 더 진보적인 정치적 태도를 가질수록, 사회지배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안녕이 높을수록 평화를 지지하고,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방식에 찬성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북한 관련 정보에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익권위주의와 향상초점, 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의 효과는 준거변수의 예측에 있어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래지향성은 북한에 대한 신뢰와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방초점은 준거변수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본 장에서는 남한 국민들이 남북한 간 전쟁과 평화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군사력 또는 남북한 상호 간 협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 노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및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위의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변수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신념(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성향), 목표 추구 과정에서의 지향성 및 선호(조절초점, 미래지향성),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지각(주관적 안녕), 한국사회에 대한 지각(한국사회 공정성 지각)을 포함하여 개인의 가치관 및 세계관이 남북 문제에 관한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남북한 간 평화를 지지하고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립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전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념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전쟁의 목적이나 목표를 어떻게 정의하고 강조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신뢰 수준은 척도 중간점보다 낮았으며, 척도의 가장 낮은 값인 1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1.4%로 매우 높았다. 이는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반목과 화해의 분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결과 남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호 갈등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는 상대 역시 경쟁이나 배신이 아닌 협력을 선택할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동



안 남북한 간에는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다가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무력 도발이나 충돌로 인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경향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북한의 협력적인 반응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상대의 제안이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양측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이 생기지 않게 된다. 실제로 본 조사 결과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 관련 정보의 수용 노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중간~강한 수준의 상관관을 보였다. 다만, 북한에 대한 신뢰에 비해 북한 관련 정보의 수용 노력이나 남북 문제에 대한 희망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남북 정책이나 국민담론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들 중에서는 60대 이상 남성들이 이 세 가지 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본 장에서 분석에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 성별과 연령은 남북 화해 및 평화 달성과 관련된 태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긴 하였지만 일관된 양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들이 가진 정치적 태도는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더 진보적인 정치적 태도를 가진 응답자일수록 한반도 전쟁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방식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방식을 더 강하게 지지하였다. 또한 이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북한 관련 정보를 수용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더 많이 보였고,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태도의 보수성 또는 진보성이, 실제로 지지하는 정당과는 별개로, 여전히 남북 문

제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 느낌, 태도,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성향의 두 예측변수들 간 상관은 매우 약했으며, 우익권위주의에서는 비일관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난 반면 사회지배성향은 준거변수들을 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배성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전쟁과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는 평화실현에 찬성한 동시에, 평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북한 관련 정보를 수용하려는 노력이나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낮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의 전통과 질서, 통제를 지지하는 신념을 반영하는 우익권위주의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고 정치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도 간주되지만, 적어도 본장에서 다른 준거변수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 내의 집단들 간의 불평등한 위계관계를 인정하는 사회지배성향은 본 준거변수들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남북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조절초점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감수해야 할 손해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를 나타내는 개인 특성 변수이다. 본장에서 다른 분석의 결과,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준거변수들을 일관적인 방향으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개인의 목표 성취 장면에서 가지고 있는 선호도나 가치관이 남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태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다만, 본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가 목표 추구 과정에서 이득 대 손해의 선호를 측정했다기보다는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이상과 의무 중 어느 쪽을

추구해왔는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다루는 준거변수와는 관련성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다.<sup>165)</sup>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득 대 손해의 선호를 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에서는 일관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응답자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은 준거변수들을 일관된 방향으로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안녕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전쟁과 군사력 사용에 대해 반대하고, 평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찬성했으며, 북한에 대한 신뢰와 북한 관련 정보의 수용 노력,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모두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위협할만한 외부 사건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들이야말로 남북 문제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의 가구 월평균 소득과 주관적 안녕간의 상관은 유의하기는 하지만 .16으로 매우 약한 수준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나 객관적인 생활 조건을 높이지 않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지각을 높일 수 있다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장에서 다룬 연구 문제 및 분석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치적 태도를 이해하고 남북한 간 화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

---

165) Amy Summerville and Neal J. Roese, "Self-report measur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regulatory focus: A cautionary not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2, no. 1 (2008), pp. 247~254.

도록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보고한 정치적 태도는 척도 중간점인 4점에 가까운 4.11점이었고, 전체 응답자들 중 30.8%가 4점(중립적 태도)을 선택하였다. 3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보고한 응답자들을 포함하면 70%가 넘는다. 이 결과는 현재 남한 국민들의 상당수가 보수 또는 진보의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적 태도가 아닌,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태도를 갖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눈에 띄는 정치적 활동에 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눈에 띄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남북 화해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조사 결과 정치적 태도에 비해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대는 강력한 예측 효과가 없었으나, 여전히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남북 문제에 대한 태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20~30대 응답자들은 한국 전쟁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적기 때문에 남북한 간 전쟁이나 평화에 있어서 심각성이나 절실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다. 또한, 60대 이상의 남성 응답자들은 다른 성별 및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북한을 더 믿지 못했고, 북한 관련 정보를 받아들일 의도가 낮았으며, 남북 문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위 집단들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 통일이나 화해의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해 어떤 틀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설득의 효과

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남북 문제 관련 정보를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정보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 전달 및 설득의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 노력은 북한에 대한 신뢰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간의 갈등 관계가 고질화된 분쟁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매우 낮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본 조사의 결과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긍정적인 정보를 접하더라도 쉽게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기회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신뢰를 복구해야 미래에 남북 문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믿음을 품고 남북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들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변수들을 더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현재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한 상호 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응답자들의 가치관 및 세계관을 반영하는 변수들 중에서도 본 장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 중 하나로 검증된 것은 개인의 사회지배 성향이였다. 사회지배성향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남북 문제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의 통일 연구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사회지배성향은 우익권위주의 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남북한 간 평화와 화해에 대한 태도 및 관련 변수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 연구에서도 중요한 개인차 변수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남북 문제와 관련하여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 고려하고, 국민들의 사회지배성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배성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남북 화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할 뿐 아니라, 북한이 탈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 한국사회에서 ‘약자’로 인식되는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나 외부 환경에 대한 지각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 수준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의 환경이나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는 별개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고는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사회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언뜻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남북한 간 평화와 화해에 관련된 태도와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경제 회복 및 고용 시장 안정화, 남북한 간 호의적 관계의 구축과 같은 구조적인 노력 이외에도,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 조직, 사회 전반에 걸쳐 행복의 기준과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 2.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화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 가. 연구배경

본 장에서는 응답자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심리변수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수단 에 대한 인식(남북협력, 군사력), 경쟁적 희생자의식, 그리고 집단 간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남북 간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갈등해소와 화해를 위해 필요한 주요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남한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반영하는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반영하는 한민족정체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chwartz의 보편가치이론에서 가치는 개인의 목표상태를 반영하는 동기적 지향성으로 인간의 사고와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특히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남북한 갈등상황에서 사람들의 사고와 판단, 사회적 행동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고양가치는 개인이 삶에서 자신의 성취와 세력 획득을 주요 목표로 삼고 그러한 목표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동기화한다. 반면에, 자기초월가치는 타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그러한 목표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동기화한다. 이 두 가치는 Schwartz의 보편가치체계에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표상된다.

Schwartz의 보편가치이론은 개인수준과 문화수준 모두에서 광범

위한 지지증거를 축적했으며, 특히 개인수준에서 자기고양가치는 개인의 성공과 이익의 최대화, 자율성 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핵심가치이다. 역시 개인수준에 자기초월가치는 공동목표의 성취와 공동체의 번영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의 핵심가치에 해당한다.<sup>166)</sup> 개인주의 가치지향성은 집단의 목표 성취나 번영보다는 개인의 성취와 번영을 중시하고 협동보다 경쟁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집단의 성취와 번영을 중시하고 경쟁보다는 협동과 조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sup>167)</sup> 이 관점에서 보면 상반된 특징을 지니는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지어 볼 때 서로 대비되는 특징을 지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남북 간에 장기간 이어져온 대립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몰입,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가치있다고 보는 신념과 태도는 자기초월가치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나 호의적 태도는 남북 간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신장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몰입을 수반한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이 수반됨을 인지하는 것이다.<sup>168)</sup> 이 관점에서 보면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는 자기고양가

---

166) Shalom H. Schwartz,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eds. Uichol Ed Kim, Harry C. Triandis, Çiğdem Ed Kâğıtçıbaşı, Sang-Chin Ed Choi and Gene Ed Yoon (Thousand Oaks: Sage, 1994), pp. 85~119.

167) Harry C. Triandis and Michele J. Gelfand,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eds. Paul A. Van Lange, et al. (Thousand Oaks, C.A.: SAGE, 2012), pp. 498~520.

168)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치와는 상관없이 없거나, 통일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그 가운데 상당부분을 장기간 남한국민이 감당해야 함을 고려할 때 부적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에 대한 인식, 분단기간 동안 내집단(남한)이 외집단(북한)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각하는 경쟁적 피해의식, 그리고 집단 간 용서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자기초월가치는 경쟁적 희생자의식과는 부적 상관, 집단 간 용서와는 정적 상관, 그리고 평화실현의 수단으로서의 협력에 대한 인식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자기고양가치는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준거변수들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정체성 역시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고질화된 집단 간 갈등 및 화해를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층소구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하위수준에 해당하는 국가정체성은 내외집단 편향과 집단 간 갈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sup>169)</sup> 즉, 남북 갈등 상황에서 하위범주인 내집단(남한)에 대한 동일시는 갈등관계에 있는 외집단(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선택과 판단, 행동 등에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선호하는 편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 이는 국가(남한)정체성이 강할수록 갈등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음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923~956.

169) Anca M. Miron, Nyla R. Branscombe and Monica Biernat, "Motivated Shifting of Justice Standards,"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6, no. 6 (2010), pp. 768~779.

을 시사한다. 이 추론에 근거하면 국가정체성은 내집단이 외집단에 입힌 피해보다 외집단이 내집단에 입힌 피해를 과장해서 지각하고 내집단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지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은 집단 간 용서와는 부적 상관을, 경쟁적 희생자의식과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평화실현의 수단으로서의 남북협력에 관한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한민족정체성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집단 간 구분 없이 남북을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상위공동범주 표상을 수반한다. 이처럼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를 내집단-외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두 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상위공동범주로 동일시할 때는 집단 간 갈등해소와 화해와 관련하여 긍정적 태도가 조형된다.<sup>170)</sup> 따라서, 한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공동범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남북통일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상대방 집단을 외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과 공동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인식하면 긍정적 집단 간 태도와 행동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한민족정체성은 경쟁적 희생자의식과는 부적 상관, 집단 간 용서와는 정적 상관, 그리고 평화실현 수단으로서의 남북 간 협력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170) John F. Dovidio,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 1 (2009), pp. 3~20.

## 나. 기초분석

### (1) 남북 간 화해관련 변수

#### (가)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남북통일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남한과 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남한과 북한이 단일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남북한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등 총 4개 문항(1점=‘전적으로 반대’, 3점=‘찬성도 반대도 아님’, 5점=‘전적으로 찬성’)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4개 문항평균을 이용하였으며(Cronbach’s  $\alpha=.89$ ), 간결성을 위해 척도에서 1~2점은 ‘반대’, 3점은 ‘중립’, 4~5점은 ‘찬성’으로 분류하여 <표 III-5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I-52>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N = 1,000)

| 남성               |      |      |      |           | 여성               |      |      |      |           |
|------------------|------|------|------|-----------|------------------|------|------|------|-----------|
| 구분               | 반대   | 중립   | 찬성   | 평균(SD)    | 구분               | 반대   | 중립   | 찬성   | 평균(SD)    |
| 전체<br>(496명)     | 26.6 | 14.3 | 59.1 | 3.34(.97) | 전체<br>(496명)     | 37.3 | 16.9 | 45.8 | 3.03(.88) |
| 20~30대<br>(175명) | 34.9 | 14.9 | 50.2 | 3.06(.94) | 20~30대<br>(175명) | 48.5 | 46.0 | 35.5 | 2.81(.88) |
| 40~50대<br>(203명) | 19.2 | 14.8 | 66.0 | 3.55(.96) | 40~50대<br>(203명) | 30.8 | 17.4 | 51.8 | 3.16(.84) |
| 60세+<br>(118명)   | 27.1 | 12.7 | 60.3 | 3.39(.97) | 60세+<br>(118명)   | 33.6 | 17.1 | 49.3 | 3.11(.88) |

남북통일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태도는 평균 3.18점(표준편차 .93)으로 척도의 중간값에 가까웠으며, 점수의 범위는 4점이었고 정

구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23). 조사 참여자들의 전체 응답평균을 통일에 대한 ‘반대’, ‘중립’, ‘찬성’으로 단순화시켜 범주화하였을 때, 부정적 태도는 32%, 중립은 15.6%, 그리고 호의적 태도는 52.4%로 나타나서 찬성 응답이 다소 우세하지만 부정적 태도 역시 전체의 30%에 달했다. 이 결과로부터,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응답자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다소 호의적인 방향의 태도를 보이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 지배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흥미로운 차이도 관찰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들의 경우 절반을 넘는 59.1%는 찬성, 그리고 26.6%는 반대 태도를 보여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 찬성 응답은 45.8%로 절반을 넘지 못했고, 반대는 37.3%였다. 이러한 남녀 응답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들의 경우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률은 낮고 반대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20~30대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률은 가장 낮았고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남녀 공히 20~30대에서 중장년/고령층에 비해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반대’ 방향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 (나) 남북 간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본 절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과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으로 나누어 응답자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남북 간 비군사적 수단과 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부 및 주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과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남북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남북 간 평화는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증진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등 총 4개 문항(1점=‘전적으로 반대’, 5점=‘찬성도 반대도 아님’, 9점=‘전적으로 찬성’)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4개 문항평균을 이용하였으며(Cronbach’s  $\alpha=.89$ ), 척도에서 1~4점은 ‘반대’, 5점은 ‘중립’, 6~9점은 ‘찬성’으로 분류하여 <표 III-53>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태도는 평균 6.28 점(표준편차 1.63)으로 찬성 방향이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8점이었고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35). 조사 참여자들의 전체 응답평균을 ‘반대’, ‘중립’, ‘찬성’으로 범주화하였을 때, 반대는 14.6%, 중립은 10.3%, 그리고 찬성은 75.1%로 나타나서 찬성 응답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III-53>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

(N = 1,000)

| 남성               |      |      |      |                | 여성               |      |      |      |                |
|------------------|------|------|------|----------------|------------------|------|------|------|----------------|
| 구분               | 반대   | 중립   | 찬성   | 평균(SD)         | 구분               | 반대   | 중립   | 찬성   | 평균(SD)         |
| 전체<br>(496명)     | 15.1 | 10.9 | 74.0 | 6.26<br>(1.74) | 전체<br>(496명)     | 14.1 | 9.7  | 76.2 | 6.30<br>(1.51) |
| 20~30대<br>(175명) | 15.4 | 15.4 | 69.1 | 5.97<br>(1.65) | 20~30대<br>(175명) | 16.0 | 11.0 | 73.0 | 6.16<br>(1.58) |
| 40~50대<br>(203명) | 12.3 | 9.4  | 78.3 | 6.55<br>(1.76) | 40~50대<br>(203명) | 9.7  | 10.8 | 79.5 | 6.48<br>(1.38) |
| 60세+<br>(118명)   | 19.5 | 6.8  | 73.7 | 6.26<br>(1.74) | 60세+<br>(118명)   | 17.8 | 6.8  | 75.3 | 6.22<br>(1.58) |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찬성하는 태도는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서, 남녀 모두 다수의 응답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II-53). 이러한 추세는 응답자 연령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남녀모두 전 연령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단, 앞 절의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남녀 공히 20~30대의 찬성률이 중장년/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다) 군사력을 남북 간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위협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공공할 수 있다” 등 총 4개 문항(1점=‘전적으로 반대’, 5점=‘찬성도 반대도 아님’, 9점=‘전적으로 찬성’)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4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였으며(Cronbach’s  $\alpha=.89$ ), 척도에서 1~4점은 ‘반대’, 5점은 ‘중립’, 6~9점은 ‘찬성’으로 분류하여 <표 III-54>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태도는 평균 5.24점(표준편차 1.95), 점수의 범위는 8점이었고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13). 따라서 앞에 제시한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찬반태도가 분명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중립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조사 참여자들의 전체 응답평균을 ‘반대’, ‘중립’, ‘찬성’으로 범주화하였을 때, 반대는 37.9%, 중립은 10.4%, 그리고 찬성은 51.7%로 나타나서 찬성응답이 다소 우세하기는 하지

만 반대 역시 40%에 육박함을 알 수 있다.

〈표 III-54〉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태도

(N = 1,000)

| 남성               |      |      |      |                | 여성               |      |      |      |                |
|------------------|------|------|------|----------------|------------------|------|------|------|----------------|
| 구분               | 반대   | 중립   | 찬성   | 평균(SD)         | 구분               | 반대   | 중립   | 찬성   | 평균(SD)         |
| 전체<br>(496명)     | 30.2 | 9.5  | 60.3 | 5.59<br>(1.99) | 전체<br>(496명)     | 45.4 | 11.3 | 43.3 | 4.90<br>(1.84) |
| 20~30대<br>(175명) | 28.6 | 13.7 | 57.7 | 3.06(.94)      | 20~30대<br>(175명) | 55.2 | 12.3 | 32.5 | 2.81(.88)      |
| 40~50대<br>(203명) | 34.5 | 8.4  | 57.1 | 3.55(.96)      | 40~50대<br>(203명) | 43.6 | 11.3 | 45.1 | 3.16(.84)      |
| 60세+<br>(118명)   | 25.4 | 5.1  | 69.5 | 3.39(.97)      | 60세+<br>(118명)   | 37   | 10.3 | 52.7 | 3.11(.88)      |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찬성하는 태도에서는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군사력을 평화실현 수단으로 인식하는 여성은 43.3%에 그친 반면 남성들은 다수인 60%가 군사력을 수단으로 인식했다. 연령에 따라서도 비교적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20~30대나 중장년층에 비해서 고령층에서 군사력에 대한 수단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지만 그 추세는 남성들에 비해서 약했고, 특히 절반을 넘는 20~30대 여성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군사력이 한반도 평화실현의 수단이라고 응답했음을 고려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간 협력과 남한의 강력한 군사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다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북협력과 군사력 둘 다에서 찬성 방향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37.8%이었다. 이는 상당수 응답자들이 평화실현 수단으로서의 남북협력과 군사력을 서로 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남북협력은 찬성이지만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는 평화실현에 반대는 32.5%, 군사력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찬성이지만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반대는 10.2%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 평화실현 수단으로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신념이 군사력에 대한 신념보다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라) 경쟁적 희생자의식

분단의 역사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쟁적 희생자의식은 “지난 70년의 분단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렸다”, “지난 70년의 분단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 70년의 분단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 “지난 70년의 분단을 돌아보면 북한은 가해자, 남한은 피해자의 역사였다” 등 총 4개 문항(1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6점=‘전적으로 동의함’)으로 척도의 중간점 없이 동의-부동의 방향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4개 문항평균을 이용하였다(Cronbach’s  $\alpha=.83$ ).

경쟁적 희생자의식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N=1,000)은 3.40(표준편차 1.06), 점수의 범위는 5점이었고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16). 경쟁적 피해자 의식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추세는 <표 III-55>에 제시하였다. 표에는 동의-부동의 방향을 표시하고 해석의 간결성을 위해서 경쟁적 피해자 의식 4개 문항평균을 양분하여 1~3점은 부동의, 3점 초과는 동의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I-55〉 경쟁적 희생자 의식

(N = 1,000)

| 남성               |      |      |            | 여성               |      |      |            |
|------------------|------|------|------------|------------------|------|------|------------|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SD)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SD)     |
| 전체<br>(496명)     | 40.1 | 59.9 | 3.41(1.11) | 전체<br>(504명)     | 42.3 | 57.7 | 3.40(1.00) |
| 20~30대<br>(175명) | 34.9 | 65.1 | 3.59(1.11) | 20~30대<br>(163명) | 49.7 | 50.3 | 3.25(.95)  |
| 40~50대<br>(203명) | 46.3 | 53.7 | 3.19(1.09) | 40~50대<br>(195명) | 45.1 | 54.9 | 3.34(.96)  |
| 60세+<br>(118명)   | 37.3 | 62.7 | 3.52(1.10) | 60세+<br>(146명)   | 30.1 | 69.9 | 3.64(1.08) |

조사 참여자들의 전체 응답평균을 ‘부동의’와 ‘동의’로 범주화하였을 때, 부동의는 49.6%, 동의는 50.4%로 나타나서 분단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는 응답으로 반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동의 응답이 다소 많았다. 즉, 남성의 경우 분단 70년의 기간 동안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보다 피해를 더 크게 입었다는 응답은 6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동의와 부동의가 각각 58%와 42%로 나타나서 동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들의 경우 고령층과 20~30대에서 동의 응답이 우세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고령층에서 동의가 부동의보다 우세했다. 60세이상 고령층에서 남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 역시 6.25전쟁과 심리거리가 가까운 것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마) 집단 간 용서

남북 관계에서 집단 간 용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남북한 간 정치적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남과 북이 과거사를 종결하는 바를 배우지 않는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등 총 4개 문항(1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 6점=‘전적으로 동의함’) 척도의 중간점 없이 동의-부동의 방향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은 4개 문항평균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alpha=.69$ ).

북한에 대한 용서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N=1,000)은 3.88(표준편차 .82), 점수의 범위는 5점이었고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42). 따라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전체 평균으로 보아 ‘그렇다’의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용서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추세는 <표 III-56>에 제시하였다. 표에는 동의-부동의 방향을 표시하고 해석의 간결성을 위해서 집단 간 용서 4개 문항평균을 양분하여 1~3점은 부동의, 3점 초과는 동의로 분류하였다.

<표 III-56> 집단 간 용서

(N= 1,000)

| 남성               |      |      |           | 여성               |      |      |           |
|------------------|------|------|-----------|------------------|------|------|-----------|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SD)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SD)    |
| 전체<br>(496명)     | 13.9 | 86.1 | 3.89(.84) | 전체<br>(485명)     | 14.5 | 85.5 | 3.86(.80) |
| 20~30대<br>(175명) | 13.1 | 86.9 | 3.95(.86) | 20~30대<br>(223명) | 16.0 | 84.0 | 3.80(.82) |
| 40~50대<br>(203명) | 12.8 | 87.2 | 3.89(.79) | 40~50대<br>(157명) | 12.3 | 87.7 | 3.91(.74) |
| 60세+<br>(118명)   | 16.9 | 83.1 | 3.81(.87) | 60세+<br>(105명)   | 15.8 | 84.2 | 3.85(.85) |

조사 참여자들의 전체 응답평균을 ‘부동의’와 ‘동의’로 범주화하였을 때, 북한에 대한 용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이 추세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 (2) 남북 화해의 예측 변수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에 대한 태도, 경쟁적 피해자 인식, 그리고 용서를 각각 예측하는 예측변수로서 보편가치(자기고양가치, 자기초월가치)와 사회정체성(한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 (가) 보편가치: 자기고양가치 vs. 자기초월가치

보편가치이론에서 규정하는 가치단면들 가운데 집단 간 인식과 행동에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상위수준 가치차원인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를 가치묘사질문지(portrait value questionnaire) 형식으로 측정하였다.<sup>171)</sup> 자기고양가치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유능성을 발휘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취’ 단면과, 사회적 지위나 명예, 타인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의 획득을 중요시하는 ‘세력’ 차원으로 구성된다. 본 조사에서 자기고양가치는 이 두 가지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문항 4개로 측정하였다: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그녀)에게 중요하다”, “즐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그(그녀)에게 중요하다”,

---

171) Shalom H. Schwartz et al.,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2, no. 5 (2001), pp. 519~542; Shalom H. Schwartz et al.,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3, no. 4 (2012), pp. 663~688.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 중요하다”, “부유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초월가치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들의 복지를 유지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중요시 하는 ‘박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신장시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보편주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본 조사에서 자기초월가치는 이 두 가지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문항 4개로 측정하였다: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그(그녀)에게 중요하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그녀)에게 중요하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그(그녀)에게 중요하다”,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그(그녀)에게 중요하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진술된 그(그녀)가 자신과 얼마나 같다고 느끼는지를 중간점 없이 1점=‘전적으로 같지 않다’, 2점=‘같지 않다’, 3점=‘조금 같다’, 4점=‘어느 정도 같다’, 5점=‘같다’, 6점=‘전적으로 같다’ 사이에 표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을 의미한다. 자기고양가치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0, 자기초월가치 문항들의 신뢰도는(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분석은 두 가지 가치 각각 4개 문항평균을 이용하였다.

〈표 Ⅲ-57〉 자기고양가치

(N=1,000)

| 남성               |      |      |           | 여성               |      |      |           |
|------------------|------|------|-----------|------------------|------|------|-----------|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        |
| 전체<br>(496명)     | 7.3  | 92.7 | 3.97(.76) | 전체<br>(496명)     | 14.9 | 85.1 | 3.84(.88) |
| 20~30대<br>(175명) | 5.1  | 94.9 | 4.01(.71) | 20~30대<br>(175명) | 9.8  | 90.2 | 3.99(.87) |
| 40~50대<br>(203명) | 10.8 | 89.2 | 3.88(.79) | 40~50대<br>(203명) | 13.3 | 86.7 | 3.88(.85) |
| 60세+<br>(118명)   | 4.2  | 95.8 | 4.06(.77) | 60세+<br>(118명)   | 22.6 | 77.4 | 3.62(.90) |

자기고양가치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은 3.90(표준편차 .83), 점수의 범위는 4.25점이었고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27). 그리고 자기초월가치의 전체 평균은 4.39(표준편차 .77), 점수의 범위는 5점이었고 이 역시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34).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는 ‘그렇다’의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자기고양가치보다 자기초월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에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추세는 〈표 Ⅲ-57〉과 〈표 Ⅲ-58〉에 제시하였다. 표에는 가치진술문의 해당인물이 자신과 같다(동의) 또는 다르다(부동의)의 방향을 표시하고 해석의 간결성을 위해서 두 가지 가치 각각 4개 문항평균을 양분하여 1~2점은 자신과 같지 않다(부동의), 3점이상은 자신과 같다(동의)로 분류하였다.

개인의 성취와 세력의 획득을 중시하는 자기고양가치는 남녀 공히 다수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추세는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들에게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는 성취와 세력획득 추

구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반영한다.<sup>172)</sup>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자기고양가치를 중요시하는 특징이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고양가치를 중요시하는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이다. 박애주의와 보편주의를 반영하는 자기초월가치에서는 남녀 공히 절대 다수가 이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전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III-58〉 자기초월가치

(N=1,000)

| 남성               |     |      |           | 여성               |     |      |           |
|------------------|-----|------|-----------|------------------|-----|------|-----------|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        | 구분               | 부동의 | 동의   | 평균        |
| 전체<br>(496명)     | 2.4 | 97.6 | 4.39(.79) | 전체<br>(496명)     | 2.6 | 97.4 | 4.39(.75) |
| 20~30대<br>(175명) | 2.9 | 97.1 | 4.20(.80) | 20~30대<br>(175명) | 4.9 | 95.1 | 4.29(.81) |
| 40~50대<br>(203명) | 3.4 | 96.6 | 4.44(.81) | 40~50대<br>(203명) | 2.1 | 97.9 | 4.42(.70) |
| 60세+<br>(118명)   | 0   | 100  | 4.59(.67) | 60세+<br>(118명)   | .7  | 99.3 | 4.46(.72) |

#### (나) 사회정체성: 국가정체성 vs. 한민족정체성

한국인의 사회정체성은 국가정체성(남한국민)과 민족정체성(한민족)이 층소되어 있는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를 지닌다.<sup>173)</sup> 본 조사에서 국가정체성은 “전반적으로 귀하는 남한 국민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남한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172) Shalom H. Schwartz and Tammy Rubel,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9, no. 6 (2005), pp. 1010~1028.

173) Jiin Jung,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vol. 37, no. 3 (2016), pp. 341~350.

“귀하는 귀하가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 집니까?”, “귀하는 스스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등 4개 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전혀, 5=보통, 9=전적으로), 이 4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91$ ).

국가정체성에서 전체 응답자 평균은 6.17(표준편차 1.54), 점수의 범위는 8점이었고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24).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응답자들이 남한 국민으로 자신을 일정 정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1~4점), ‘보통’(5점), ‘긍정’(6~9점)으로 범주화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추세를 <표 III-59>에 제시하였다.

<표 III-59>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다수가 자신을 남한국민으로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남녀 공히 나타나났다. 따라서 응답자 다수가 남한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5%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부정의 방향으로 답했고, 여기에 보통 응답을 합하면 자신을 남한국민으로 동일시하는 정도가 약하거나 동일시하지 않는 응답도 30%에 근접한다.

<표 III-59> 국가정체성

(N=1,000)

| 남성               |      |      |      |                | 여성               |      |      |      |                |
|------------------|------|------|------|----------------|------------------|------|------|------|----------------|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SD)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SD)         |
| 전체<br>(496명)     | 15.7 | 12.1 | 72.2 | 6.19<br>(1.58) | 전체<br>(496명)     | 21.9 | 14.4 | 63.7 | 6.14<br>(1.50) |
| 20~30대<br>(175명) | 20.0 | 16.0 | 64.0 | 5.72<br>(1.44) | 20~30대<br>(175명) | 20.2 | 16.0 | 63.8 | 2.81<br>(.88)  |
| 40~50대<br>(203명) | 16.7 | 10.8 | 72.4 | 6.19<br>(1.59) | 40~50대<br>(203명) | 11.3 | 10.3 | 78.5 | 3.16<br>(.84)  |
| 60세+<br>(118명)   | 7.6  | 8.5  | 83.9 | 6.89<br>(1.50) | 60세+<br>(118명)   | 8.9  | 9.6  | 81.5 | 3.11<br>(.88)  |

자신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민족정체성에서는 전체 응답자 평균은 5.67(표준편차 1.62), 점수의 범위는 8점이었고 정규분포에 근접하였다(편포도 -.17). 따라서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앞의 국가정체성과는 달리 응답자들이 한민족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는 보통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반응을 ‘부정’(1~4점), ‘보통’(5점), ‘긍정’(6~9점)으로 범주화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추세를 <표 III-60>에 제시하였다.

<표 III-60> 한민족정체성

(N=1,000)

| 남성               |      |      |      |                | 여성               |      |      |      |                |
|------------------|------|------|------|----------------|------------------|------|------|------|----------------|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SD)         | 구분               |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SD)         |
| 전체<br>(496명)     | 22.0 | 13.9 | 64.1 | 5.77<br>(1.63) | 전체<br>(496명)     | 11.5 | 23.6 | 58.9 | 5.57<br>(1.37) |
| 20~30대<br>(175명) | 30.3 | 15.4 | 54.3 | 5.24<br>(1.56) | 20~30대<br>(175명) | 33.7 | 18.4 | 47.9 | 5.16<br>(1.26) |
| 40~50대<br>(203명) | 18.2 | 14.8 | 67.0 | 5.86<br>(1.59) | 40~50대<br>(203명) | 20.0 | 13.8 | 66.2 | 5.71<br>(1.39) |
| 60세+<br>(118명)   | 16.1 | 10.2 | 73.7 | 6.38<br>(1.55) | 60세+<br>(118명)   | 21.9 | 14.4 | 63.7 | 5.84<br>(1.37) |

<표 III-60>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다수가 자신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동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추세는 여성들에게서 다소 약했다. 그러나 앞의 국가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15%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부정의 방향으로 답했고, 여기에 보통 응답을 합하면 자신을 한민족으로 동일시하는 정도가 약하거나 동일시하지 않는 응답도 30%를 상회한다. 또한 한민족정체성에도 남녀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민족정체성에서 긍정의 비율이 낮으며,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긍정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다. 심층분석

이 절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변수인 자기고양가치, 자기초월가치, 국가정체성, 및 한민족정체성과 준거변수인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평화실현의 수단: 협력과 군사력, 경쟁적 희생자의식, 및 집단 간 용서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한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고양가치, 자기초월가치, 국가정체성, 및 한민족정체성을 예측변수로,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평화실현의 수단에 대한 태도, 경쟁적 희생자의식, 및 집단 간 용서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든 분석에서 응답자 연령과 성별은 1단계에 투입하여 통제하고, 네 개 예측변수는 2단계에 투입하였다.

### (1) 보편가치와 사회정체성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고 2단계에 네 개 예측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의 20%를 설명하였다. 개별 예측변수들의 경우 <표 III-61>에서 보는 대로 자기고양가치와 국가정체성은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 자기초월가치와 한민족정체성은 통일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즉, 자기초월가치가 강할수록 그리고 남북을 하나의 상위공동범주로 지각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자기고양가치가 강할수록 그리고 남한에 대한 국가정체성이 강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보편가치로서 자기고양가치와 자

기초월가치, 그리고 한국인의 이중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정체성 모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 회귀계수로 보아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한민족정체성이었다.

〈표 III-61〉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000)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전체 설명량 |
|--------|---------|---------|--------|
| 자기고양가치 | -.11*** | -.10*** | .20*** |
| 자기초월가치 | .23***  | .19***  |        |
| 국가정체성  | -.07*   | -.11*   |        |
| 한민족정체성 | .25***  | .40***  |        |

\* $p < .05$ , \*\*\* $p < .001$

## (2) 보편가치와 사회정체성이 평화실현의 수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고 2단계에 네 개 예측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서 협력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전체변량의 18%를 설명하였다. 개별 예측변수들의 경우 〈표 III-62〉에서 보는 대로 자기고양가치가 강할수록 협력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반면에, 자기초월가치가 강할수록 그리고 한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협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한국민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국가정체성은 협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앞의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평화실현의 수단으로서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한민족정체성이었다.

〈표 III-62〉 평화실현 수단-협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000)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전체 설명량 |
|--------|---------|---------|--------|
| 자기고양가치 | -.27*** | -.14*** | .18*** |
| 자기초월가치 | .54***  | .25***  |        |
| 국가정체성  | -.05    | .04     |        |
| 한민족정체성 | .30***  | .28***  |        |

\* $p < .05$ , \*\*\* $p < .001$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모형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전체변량의 15%를 설명하였다. 개별 예측변수들의 경우 〈표 III-63〉에서 보는 대로 자기고양가치가 강할수록 그리고 국가정체성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한반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반면에, 자기초월가치가 강할수록 그리고 한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군사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 제시한 협력의 수단인식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협력과 군사력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정체성은 협력의 수단인식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예측하는 반면, 그리고 군사력의 수단인식에서는 한민족정체성만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평화실현의 수단으로서의 협력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군사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기고양가치로 나타났다.

〈표 III-63〉 평화실현 수단-군사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000)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전체 설명량 |
|--------|---------|---------|--------|
| 자기고양가치 | .66***  | .28***  | .15*** |
| 자기초월가치 | -.28*** | -.11*** |        |
| 국가정체성  | .22***  | .18***  |        |
| 한민족정체성 | -.19*** | -.14*** |        |

\* $p < .05$ , \*\*\* $p < .001$

### (3) 보편가치와 사회정체성이 경쟁적 희생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난 70년의 분단기간 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경쟁적 희생자의식을 예측하는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전체변량의 4%를 설명하였다. 개별 예측변수들의 경우 〈표 III-64〉에서 보는 대로 자기고양가치가 강할수록 경쟁적 희생자의식도 강한 반면, 자기초월가치는 경쟁적 희생자의식을 부적적으로 예측했다. 흥미롭게도 경쟁적 희생자의식은 응답자들의 국가정체성이나 한민족정체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남북통일에 대한 전반적 태도나 평화실현의 수단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경쟁적 희생자의식은 개인의 가치신념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나 한민족에 동일시하는 정도와는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적 희생자의식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이익과 손해 관계에 관한 개인의 신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효용평가(utilitarian concerns)에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앞의 군사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경쟁적 희생자의식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기고양가치로 나타났다.

〈표 III-64〉 경쟁적 희생자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000)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전체 설명량 |
|--------|---------|--------|--------|
| 자기고양가치 | .29***  | .22*** | .04*   |
| 자기초월가치 | -.11*   | -.08*  |        |
| 국가정체성  | -.01    | -.02   |        |
| 한민족정체성 | .02     | .03    |        |

\* $p < .05$ , \*\*\* $p < .001$

#### (4) 보편가치와 사회정체성 집단 간 용서에 미치는 영향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 간 용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예측하는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전체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개별 예측변수들의 경우 〈표 III-65〉에서 보는 대로 자기고양가치가 강할수록 남북 간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약한 반면, 자기초월가치가 강할수록 그리고 한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집단 간 용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정체성은 집단 간 용서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지 못했다. 앞의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집단 간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한민족정체성이었다.

〈표 III-65〉 집단 간 용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 = 1,000)

| 예측변수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전체 설명량 |
|--------|---------|--------|--------|
| 자기고양가치 | -.06+   | -.06+  | .11*** |
| 자기초월가치 | .22***  | .21*** |        |
| 국가정체성  | -.00    | -.00   |        |
| 한민족정체성 | .13***  | .24*** |        |

+ $p < .10$ , \*\*\* $p < .001$

심층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개인의 성취와 세력의 획득을 지향할수록(자기고양가치) 그리고 남한국민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국가정체성)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군사력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고양가치가 강할수록 남북협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은 낮았고, 남한이 북한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남북 간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공동체의 목표달성과 번영을 지향할수록(자기초월가치) 그리고 한민족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한민족정체성) 남북통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초월가치가 강할수록 경쟁적 희생자의식이 낮았고, 군사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간 용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 라. 소결

본 조사에서는 전국 남녀 성인의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심리변수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인식(남북협력, 군사력), 경쟁적 희생자의식, 그리고 집단 간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남북 간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갈등해소와 화해를 위해 필요한 주요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남한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반영하는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반영하는 한

민족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개인의 보편가치체계 내에서 집단 간 갈등해소 및 화해의 추구하고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각각 개인의 성취와 세력의 획득을 중요시하는 정도와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회정체성은 하위범주인 국가정체성과 상위범주인 한민족정체성이 위계적으로 층소된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보편가치와 한국인의 이중 사회정체성을 동시에 측정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신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초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는 찬성, 중립, 반대 의견이 비교적 고르게 관찰되어 현재로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지배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 젊은 층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비율이 낮았고, 20~30대 여성들에서는 반대비율이 찬성비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는 응답자 다수가 찬성 태도를 보인 반면, 군사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의견이 반분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평화실현의 수단 인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응답자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신념과 인식은 비교적 강하게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에는 특정 방향으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실현 수단으로서의 남북협력과 군사력 둘 다에서 찬성 방향으로 답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3분의 1을 상회해서 상당수 응답자들이 평화실현 수단으로서의 남북협력과 군사력을 서로

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북협력은 찬성이지만 군사력을 수단으로 하는 평화실현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이 군사력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찬성이지만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반대하는 응답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한반도 평화실현 수단으로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신념이 군사력에 대한 신념보다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을 찬성하는 태도에서는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나타났다. 남성들은 다수가 군사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그리고 남녀 공히 20~30대나 중장년층에 비해서 고령층에서 군사력에 대한 수단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차이는 공격성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차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 연령층이 6.25전쟁에 대한 심리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경쟁적 희생자의식에서는 의견이 반분되는 추세가 있는 반면, 남북 간 용서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령층에서 경쟁적 희생자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 역시 6.25전쟁에 대한 심리거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정체성 수준도 높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국가정체성 수준이 낮았고, 남녀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국가정체성 수준도 낮은 추세가 있었다. 한민족정체성은 남녀 모두 국가정체성에 비해서는 약했고, 남녀 모두 20~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수준이 낮았다. 특히 20~30대 여성층에서 한민족정체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회



귀분석에서 한민족정체성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함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비율이 젊은 여성층에게서 가장 낮게 나온 배경 중 하나로 추론할 수 있다. 즉, 20~30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지각하는 민족정체성이 강하지 않으며, 따라서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한 심층분석 결과, 개인의 성취와 세력의 획득을 지향할수록(자기고양가치) 그리고 남한국민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국가정체성)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군사력을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고양가치가 강할수록 남북협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은 낮았고, 남한이 북한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남북 간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공동체의 목표달성과 번영을 지향할수록(자기초월가치) 그리고 한민족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한민족정체성) 남북통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초월가치가 강할수록 경쟁적 희생자의식이 낮았고, 군사력을 평화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간 용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히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자기고양가치는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큰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취와 목표실현,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풍토와

가정 및 학교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들 특히 젊은 층에서 남과 북의 공동번영에 대한 가치신념과 심리적 몰입을 증진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이 숭상하는 보편가치에서의 변화 없이는 남북화해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그에 따라서 남북통일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거나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정체성 및 한민족정체성과 관련된 결과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의 다수는 한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정체성은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심리상태와 부적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남북 간 긴장과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다 나은 대안은 국민들이 한민족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한민족의 공동운명성을 이해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이 가져올 미래의 성장과 번영에 관한 지식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고, 학교교육과 사회화 과정에서 일대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가치관과 사회정체성, 그리고 통일관련 인식과 신념의 특징을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추론해보면, 20~30대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들이 자기고양가치를 강하게 신봉하

고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북화해와 통일에 수반되는 현실적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은 취업난, 주거비용, 육아와 자녀교육 문제 등과 맞물려 남북통일의 의미나 효용가치를 더욱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개인의 행복, 율로, 소확행을 위시하여 일상에서 자기고양가치를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문화변동이 일어나는 추세이고, 이러한 추세는 통일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이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을 조형하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종의 통일가치신념 정립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3. 분단의 마음이 화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이민규 (경상대학교)

#### 가. 연구배경

어떤 대상 혹은 행동에 지니는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정도를 말하고,<sup>174)</sup> 대상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인 요소로서 고정관념과 정서적인 요소로서 편견으로 구분한다.<sup>175)</sup>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174) 한덕웅·이민규,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2호 (2001), p. 143.

175) 김금미,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3호 (2011), pp. 3~4.

인 지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에 근거하여 빠르게 정보처리를 하도록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sup>176)</sup> 즉, 고정관념은 우리가 의식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자동 과정을 일으켜 생각 속에 가용적으로 됨으로써 판단 및 기억에 영향을 주게 된다.<sup>177)</sup> 여러 연구에서 고정관념이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sup>178)</sup> 이러한 고정관념은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sup>179)</sup> 다음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요소인 편견은 전체로서 집단에 대한 느낌에 기초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80)</sup>

- 
- 176) 김혜숙,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1호 (1999), pp. 9~17.
- 177) Anthony G. Greenwald, Debbie E. McGhee and Jordan L. K. Schwartz,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no. 6 (1998), pp. 1464~1480; Robert S. Wyer and Thomas K. Srull, “Category Accessibility: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Social Stimulus Information,” in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eds. Edward Tory Higgins, Peter C. Herman and Mark P. Zanna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1981), pp. 161~197.
- 178) 전우영·이훈구,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범위빈도 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0권 2호 (1996), pp. 69~79; Daniel M. Fajardo, “Author Race, Essay Quality, and Reverse Discrimin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5, no. 3 (1985), pp. 255~268; Andrew H. Sagar and Janet W. Schofield,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vol. 39, no. 4 (1980), pp. 590~598.
- 179) Henri Tajfel,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vol. 223, no. 5 (1970), pp. 96~103.
- 180) Susan T. Fiske et al.,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6 (2002), pp. 878~902.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정관념이 대상의 행동에 대한 해석 및 판단에 편파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sup>181)</sup>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고정관념이 대상의 행동에 대한 해석(즉, 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대상에 대한 인상판단까지 영향을 미친다.<sup>182)</sup> 이는 곧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이 부딪치는 심리적, 사회적 차별, 따돌림 및 편파된 지각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고정관념이 정서를 지니는가는 북한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해 느끼는 정서, 태도(북한은 악의축), 남북분단에 대한 관심(분단중심성),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단결되고 일치된 태도(단일, 일치),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북한에 대한 화해와 관련된 변인, 다시 말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군사력과 협력, 북한의 비핵화에 평화에 대한 주장에 대한 신뢰(북한에 대한 신뢰), 남북갈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화해에 관한 변인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후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해 느끼는 정서, 태도(북한은 악의축), 남북분단에 대한 관심(분단중심성),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단결되고 일치된 태도(단일, 일치),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들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서 변인의 경우, 요인분석하여 정서들을 몇

181) Galen V. Bodenhausen and Robert S. Wyer, "Effects of Stereotypes i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8, no. 2 (1985), pp. 267~282; Jennifer Crocker, Darlene B. Hannah and Renee Weber, "Person Memory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1983), pp. 55~66.

182) 김혜숙,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7권 1호 (1993), pp. 53~70.

개의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고정관념을 선택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기초분석

### (1) 준거변수: 화해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의 책임,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연령대(20~30대 vs. 40~50대 vs. 60대 이상)와 성별(남 vs. 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평화에 대한 태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화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6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0$ ,  $p=.902$ ). 이어서 평화에 대한 태도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F=26.37$ ,  $p<.001$ ),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42$ ,  $p=.233$ ).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대의 사후분석 결과, 40~59세와 60대 이상이 20~39세보다 남북한 간 평화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6〉 연령과 성별에 따른 평화에 대한 태도 차이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post hoc Scheffe<br>( $p < .05$ ) |
|--------|------------------|-----|------|-------|------|---------------|-----------------------------------|
|        | SS               | df  | MS   | F     | p    | partial $r^2$ |                                   |
| 연령대(A) | 141.21           | 2   | 7.60 | 26.37 | .000 | .05           | 2=3)1 <sup>183)</sup>             |
| 성별(B)  | 3.81             | 1   | 3.81 | 1.42  | .233 | .00           |                                   |
| A × B  | .55              | 2   | .28  | .10   | .902 | .00           |                                   |
| 오차     | 2660.95          | 994 | 2.68 |       |      |               |                                   |
| 전체     | 2805.62          | 999 |      |       |      |               |                                   |

### (나)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67〉과 같다. 분석 결과, 연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61, p=.543$ ).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F=7.59, p<.001$ ),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32, p=.574$ ).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대의 사후 분석 결과, 40~59세가 20~39세와 60대 이상의 연령대보다 남북한 간 문제에 있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을 더 협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3) 1: 20~30대, 2: 40~50대, 3: 60대 이상

〈표 III-67〉 연령과 성별에 따른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 차이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post hoc Scheffe<br>( $p < .05$ ) |
|--------|------------------------|-----|-------|------|------|---------------|-----------------------------------|
|        | SS                     | df  | MS    | F    | p    | partial $r^2$ |                                   |
| 연령대(A) | 39.72                  | 2   | 19.86 | 7.59 | .001 | .02           | 2)1=3                             |
| 성별(B)  | .83                    | 1   | .83   | .32  | .574 | .00           |                                   |
| A × B  | 3.20                   | 2   | 1.60  | .61  | .543 | .00           |                                   |
| 오차     | 2599.87                | 994 | 2.62  |      |      |               |                                   |
| 전체     | 2643.94                | 999 |       |      |      |               |                                   |

(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68〉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41, p=.246$ ). 이어서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는 연령대( $F=17.16, p < .001$ ) 및 성별( $F=38.73,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에 긍정적이었다. 연령대의 사후분석 결과, 20대에서 50대까지는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대에서 50대까지의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는 60대 이상보다 낮았다.

〈표 III-68〉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태도 차이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post hoc Scheffe<br>( $p < .05$ ) |
|--------|------------------------|-----|--------|-------|------|---------------|-----------------------------------|
|        | SS                     | df  | MS     | F     | p    | partial $r^2$ |                                   |
| 연령대(A) | 122.28                 | 2   | 61.14  | 17.16 | .001 | .03           | 2=1<3                             |
| 성별(B)  | 138.05                 | 1   | 138.05 | 38.73 | .001 | .04           |                                   |
| A × B  | 10.03                  | 2   | 5.01   | 1.41  | .246 | .00           |                                   |
| 오차     | 3548.53                | 994 | 3.56   |       |      |               |                                   |
| 전체     | 3790.17                | 999 |        |       |      |               |                                   |



### (라) 북한에 대한 신뢰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북한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6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F=.72, p=.487$ ). 북한에 대한 신뢰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F=14.43, p<.001$ ),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F=.07, p=.790$ ).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대의 사후분석 결과, 20~39세와 40~59세가 60대 이상보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북한에 대한 신뢰 차이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post hoc Scheffe<br>( $p<.05$ ) |
|--------|------------------|-----|-------|-------|------|------------------|---------------------------------|
|        | SS               | df  | MS    | F     | p    | partial $\eta^2$ |                                 |
| 연령대(A) | 37.07            | 2   | 18.53 | 14.43 | .000 | .03              | 1=2>3                           |
| 성별(B)  | .09              | 1   | .09   | .07   | .790 | .00              |                                 |
| A × B  | 1.85             | 2   | .92   | .72   | .487 | .00              |                                 |
| 오차     | 1277.01          | 994 | 1.29  |       |      |                  |                                 |
| 전체     | 1316.42          | 999 |       |       |      |                  |                                 |

### (마) 북한의 책임에 대한 판단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북한의 책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7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F=2.44, p=0.88$ ). 북한의 책임은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0.64, p<.001$ ). 또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F=4.46, p<.05$ ), 남성이 여성보다 남북 문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대의 사후분석 결과, 60대 이상이 20~39세와 40~59세보다 남북한의 갈등에서 북한의 책임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북한의 책임에 대한 판단 차이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의 책임 |     |       |       |      |               | post hoc Scheffe<br>( $p < .05$ ) |
|--------|---------------|-----|-------|-------|------|---------------|-----------------------------------|
|        | SS            | df  | MS    | F     | p    | partial $r^2$ |                                   |
| 연령대(A) | 23.64         | 2   | 11.82 | 10.64 | .000 | .02           | 3)1=2                             |
| 성별(B)  | 4.96          | 1   | 4.96  | 4.46  | .035 | .00           |                                   |
| A × B  | 5.42          | 2   | 2.71  | 2.44  | .088 | .01           |                                   |
| 오차     | 1104.32       | 994 | 1.11  |       |      |               |                                   |
| 전체     | 1136.24       | 999 |       |       |      |               |                                   |

#### (바) 북한에 대한 공감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7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F=2.59$ ,  $p=.076$ ),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56$ ,  $p=.001$ ).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대의 사후분석 결과, 40~59세가 60대 이상보다 핵·미사일·북한에 대해 더욱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59세가 60대 이상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차이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post hoc Scheffe<br>( $p < .05$ ) |
|--------|---------------------------|-----|------|------|------|---------------|-----------------------------------|
|        | SS                        | df  | MS   | F    | p    | partial $r^2$ |                                   |
| 연령대(A) | 11.99                     | 2   | 5.99 | 7.56 | .001 | .01           | 3 < 2                             |
| 성별(B)  | .80                       | 1   | .80  | 1.01 | .316 | .00           |                                   |
| A × B  | 4.10                      | 2   | 2.05 | 2.59 | .076 | .01           |                                   |
| 오차     | 787.89                    | 994 | .79  |      |      |               |                                   |
| 전체     | 805.44                    | 999 |      |      |      |               |                                   |

## (2) 예측변수

### (가) 북한에 대한 정서차원 확인

북한에 대해 느끼는 20가지 정서 중에 일련의 차원을 찾아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2〉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Bartlett 검사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KMO값이 .921로 본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PCA와 Varimax 직교회전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1보다 큰 고유값(eigenvalue)을 가진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 68.43%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4문항은 다른 요인들에 공통으로 부하되는 양이 커서 요인구분이 되지 않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 요인에 0.5이상 부하되고, 다른 요인에 0.4이상 부하되지 않는 경우에 한 요인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탈락시키는 기준을 따랐다.

〈표 III-7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번호                        | 문항    | 요인부하량 |       |       | M    | SD   |
|---------------------------|-------|-------|-------|-------|------|------|
|                           |       | 배타심   | 우호감   | 동정심   |      |      |
| 04.                       | 분노하는  | .84   | -.08  | -.12  | 3.91 | 1.21 |
| 05.                       | 화가 나는 | .83   | -.11  | -.11  | 3.97 | 1.24 |
| 06.                       | 증오스러운 | .81   | -.03  | -.28  | 3.57 | 1.32 |
| 01.                       | 두려운   | .80   | .04   | .11   | 3.64 | 1.10 |
| 02.                       | 무서운   | .79   | .05   | .15   | 3.58 | 1.16 |
| 07.                       | 불안한   | .78   | -.18  | .17   | 4.05 | 1.15 |
| 08.                       | 수상한   | .78   | -.25  | -.05  | 3.99 | 1.21 |
| 03.                       | 긴장하는  | .76   | -.06  | .25   | 3.97 | 1.11 |
| 10.                       | 절망스러운 | .75   | .04   | .02   | 3.54 | 1.19 |
| 11.                       | 성가신   | .71   | -.09  | -.23  | 3.66 | 1.27 |
| 09.                       | 걱정스러운 | .66   | -.17  | .34   | 4.10 | 1.19 |
| 13.                       | 즐거운   | -.07  | .91   | .11   | 2.64 | 1.28 |
| 15.                       | 행복한   | -.10  | .91   | .13   | 2.65 | 1.27 |
| 14.                       | 정겨운   | -.08  | .84   | .30   | 2.88 | 1.27 |
| 19.                       | 슬픈    | .09   | .21   | .81   | 3.50 | 1.21 |
| 18.                       | 연민    | -.08  | .38   | .78   | 3.43 | 1.20 |
| 고유치                       |       | 6.62  | 2.71  | 1.78  |      |      |
| 설명변량(%)                   |       | 41.38 | 16.98 | 11.14 |      |      |
| 누적변량(%)                   |       | 41.38 | 58.36 | 69.50 |      |      |
| Cronbach's $\alpha = .85$ |       |       |       |       |      |      |

자세히 살펴보면, 20번 문항(따뜻함)의 경우 요인 3에 속하지만 다른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더 높게 나타나 문항에서 제거되었다.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연민, 슬픔을 제거했을 때, 개념적으로 상이한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 안에 혼재하여 나타나 연민과 슬픔을 제거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12번 문항(지겨운)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17번 문항(공감하는), 16번 문항(마음이 약해지는)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문항에서 최종적으로 제거되었다. 이후 최종 선정된 16개 문항을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Bartlett검사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KMO값이 .900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 수준은 1요인이 .93, 2요인이 .91, 3요인이 .78로 산출되었고, 전체 내적 합치도는 .8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요인 내의 문항들이 비교적 동질적임을 의미한다.

요인 1의 ‘분노하는, 화가 나는, 증오스러운, 두려운, 무서운, 불안한, 수상한, 긴장하는, 절망스러운, 성가신’은 북한에 대해 배척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로 요인 1을 ‘배타심’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즐거움, 행복한, 정겨운’은 북한에 대해 호의를 느껴가깝게 지내고 싶은 정서로 ‘우호감’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3의 ‘슬픈, 연민’은 타인에게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명명하였다.

#### (나) 북한에 대한 세 가지 정서차원이 화해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대한 정서차원이 화해관련 변인인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의 책임,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화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북한에 대한 정서인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타심( $\beta = -.13$ ,  $p < .001$ )과 동정심( $\beta = .30$ ,  $p < .001$ )은 평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우호감( $\beta = -.06$ ,  $p = .100$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부정적인 평화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지만,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긍정적인 평화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73〉 북한에 대한 정서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R^2$    | $\Delta F$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          |            |
|           |     | B                | se  |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24             | .06 | -.13    | -4.28 | .000 | .09 | 33.06*** |            |
|           | 우호감 | -.08             | .05 | -.06    | -1.65 | .100 |     |          |            |
|           | 동정심 | .46              | .05 | .30     | 8.68  | .000 |     |          |            |

\* $p < .05$ , \*\* $p < .01$ , \*\*\* $p < .001$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북한에 대한 정서인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이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적대감, 우호감, 동정심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을 준거변인으로 선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타심( $\beta = .40$ ,  $p < .001$ ), 동정심( $\beta = -.11$ ,  $p < .001$ )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우호감( $\beta = .00$ ,  $p = .999$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하지만,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II-74〉 북한에 대한 정서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에<br>대한 정서 | 배타심 | .84                   | .06 | .40     | 13.70 | .000 | .18   | 70.750***  |
|              | 우호감 | -9.61                 | .06 | .00     | -.00  | .999 |       |            |
|              | 동정심 | -.20                  | .06 | -.11    | -3.51 | .000 |       |            |

\* $p < .05$ , \*\* $p < .01$ , \*\*\* $p < .001$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북한에 대한 정서인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타심( $\beta = -.22$ ,  $p < .001$ )과 동정심( $\beta = .35$ ,  $p < .001$ )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우호감( $\beta = -.05$ ,  $p = .138$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75〉 북한에 대한 정서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에<br>대한 정서 | 배타심 | -.38                   | .05 | -.22    | -7.30 | .000 | .15   | 59.48***   |
|              | 우호감 | -.07                   | .05 | -.05    | -1.49 | .138 |       |            |
|              | 동정심 | .52                    | .05 | .35     | 10.57 | .000 |       |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에 대한 정서인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타심( $\beta = -.27, p < .001$ ), 우호감( $\beta = .27, p < .001$ ), 동정심( $\beta = .22, p < .001$ )은 모두 북한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북한을 덜 신뢰롭게 생각하지만, 북한에 대해 우호감을 많이 느끼거나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북한을 더 신뢰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76> 북한에 대한 정서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에<br>대한 정서 | 배타심 | -.33             | .03 | -.27    | -9.68 | .000 | .28   | 126.74***  |
|              | 우호감 | .27              | .03 | .27     | 8.77  | .000 |       |            |
|              | 동정심 | .23              | .03 | .22     | 7.32  | .000 |       |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의 책임.** 북한에 대한 정서인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이 북한의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의 책임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타심( $\beta = .50, p < .001$ ), 우호감( $\beta = -.14, p < .001$ ), 동정심( $\beta = -.07, p < .05$ )은 모두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남북 간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지



만, 북한에 대해 우호감과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남북 간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77〉 북한에 대한 정서가 북한의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북한의 책임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에<br>대한 정서 | 배타심 | .58           | .03 | .50     | 18.61 | .000 | .31   | 148.15***  |
|              | 우호감 | -.13          | .03 | -.14    | -4.57 | .000 |       |            |
|              | 동정심 | -.06          | .03 | -.07    | -2.22 | .027 |       |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공감.** 북한에 대한 정서인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이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배타심( $\beta = -.26$ ,  $p < .001$ ), 우호감( $\beta = .18$ ,  $p < .001$ ), 동정심( $\beta = .17$ ,  $p < .001$ )은 모두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해 우호감과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78〉 북한에 대한 정서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에<br>대한 정서 | 배타심 | -.25                      | .03 | -.26    | -8.96 | .000 | .18   | 70.48***   |
|              | 우호감 | .14                       | .03 | .18     | 5.40  | .000 |       |            |
|              | 동정심 | .14                       | .03 | .17     | 5.22  | .000 |       |            |

\* $p < .05$ , \*\* $p < .01$ , \*\*\* $p < .001$

(다) 북한에 대한 악마화가 화해변인에 미치는 영향

**평화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7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는 평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3$ ,  $p < .001$ ).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평화에 대해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79〉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br>(악마화) |  | -.43             | .04 | -.33    | -11.02 | .000 | .11   | 121.51*** |

\* $p < .05$ , \*\* $p < .01$ , \*\*\* $p < .001$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

한 태도(악마화)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61, p < .001$ ).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표 III-80>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br>(악마화) | .925                  | .038 | .61     | 24.037 | .000 | .366  | 577.794*** |

\* $p < .05$  \*\* $p < .01$  \*\*\* $p < .001$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는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43, p < .001$ ).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1〉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br>(악마화) | -.55                   | .04 | -.43    | -14.99 | .000 | .18   | 224.73***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는 북한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50$ ,  $p < .001$ ). 즉,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북한을 더 신뢰롭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2〉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br>(악마화) | -.45             | .02 | -.50    | -18.44 | .000 | .25   | 340.20***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의 책임.**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북한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의 책임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는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beta=.68$ ,  $p<.001$ ).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남북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3〉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의 책임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br>(악마화) | .57           | .02 | .68     | 29.55 | .000 | .47   | 873.11***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공감.**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는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35$ ,  $p<.001$ ).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4〉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br>(악마화) | -.25                      | .02 | -.35    | -11.76 | .000 | .12   | 138.24*** |

\* $p < .05$ , \*\* $p < .01$ , \*\*\* $p < .001$

(라) 북한 문제에 대한 단결 일치가 화해 변인에 미치는 영향

**평화에 대한 태도.** 단결·일치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결·일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결·일치는 평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5$ ,  $p = .146$ ).

<표 III-85> 단결·일치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단결·일치 | -.07             | .05 | -.05    | -1.46 | .146 | .00   | 2.12 |

\* $p < .05$ , \*\* $p < .01$ , \*\*\* $p < .001$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단결·일치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결·일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결·일치는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47$ ,  $p < .001$ ). 이 결과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표 III-86〉 단결·일치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단결, 일치 | .860                  | .051 | .47     | 17.004 | .000 | .224  | 289.152*** |

\* $p < .05$ , \*\* $p < .01$ , \*\*\* $p < .001$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단결·일치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결·일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결·일치는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8$ ,  $p < .001$ ). 이 결과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7〉 단결·일치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단결·일치 | -.27                   | .05 | -.18    | -5.72 | .000 | .03   | 32.72***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신뢰.** 단결·일치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결·일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결·일치는 북한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9$ ,  $p < .001$ ). 이 결과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북한을 덜

신뢰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8〉 단결·일치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단결·일치 | -.31             | .03 | -.29    | -9.42 | .000 | .08   | 88.78***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의 책임.** 단결·일치가 북한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결·일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의 책임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8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결·일치는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48$ ,  $p < .001$ ). 이 결과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남북 간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9〉 단결·일치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단결·일치가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의 책임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단결·일치 | .48           | .03 | .48     | 17.30 | .000 | .23   | 299.25***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공감.** 단결·일치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단결·일치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9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결·일치는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9, p < .001$ ). 이 결과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90〉 단결·일치가 핵, 미사일, 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단결·일치 | -.16                      | .03 | -.19    | -6.15 | .000 | .04   | 37.79*** |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분단중심성이 화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평화에 대한 태도.** 분단중심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단중심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9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단중심성은 평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4, p < .001$ ). 이 결과는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평화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91〉 분단중심성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분단중심성 | -.58             | .05 | -.34    | -11.46 | .000 | .11   | 131.44*** |

\* $p < .05$ , \*\* $p < .01$ , \*\*\* $p < .001$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분단중심성이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단중심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9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단중심성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9, p < .001$ ). 이 결과는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표 III-92> 분단중심성이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분단중심성 | .381                  | .062 | .19     | 6.196 | .000 | .037  | 38.389*** |

\* $p < .05$ , \*\* $p < .01$ , \*\*\* $p < .001$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분단중심성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단중심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9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단중심성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4, p < .001$ ). 이 결과는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93〉 분단중심성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분단중심성 | -.40                   | .05 | -.24    | -7.84 | .000 | .06   | 61.52***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신뢰.** 분단중심성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단중심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9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단중심성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3$ ,  $p = .413$ ).

〈표 III-94〉 분단중심성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분단중심성 | -.03             | .04 | -.03    | -.82 | .413 | .00   | .67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의 책임.** 분단중심성이 북한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단중심성이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의 책임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9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단중심성이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2$ ,  $p < .001$ ). 이 결과는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남북 간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95〉 분단중심성이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북한의 책임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분단중심성 | .23           | .03 | .22     | 6.96 | .000 | .05   | 48.48***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공감.** 분단중심성이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단중심성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III-9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분단중심성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1$ ,  $p=.779$ ).

〈표 III-96〉 분단중심성이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F   |
|       | B                         | se  |         |     |      |       |     |
| 분단중심성 | .01                       | .03 | .01     | .28 | .779 | .00   | .08 |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화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북한사람에 대하여 대표적인 고정관념을 다중반응분석을 통해서 5개 속성을 선택한 후 이들 5개 고정 관념이 화해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응답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97〉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다중응답 빈도분석 결과

|                  | 번호 | 문항     | 반응   |       |
|------------------|----|--------|------|-------|
|                  |    |        | N    | 퍼센트   |
| 북한사람에<br>대한 고정관념 | 1  | 놀라움    | 147  | 3.2%  |
|                  | 2  | 침착함    | 158  | 3.4%  |
|                  | 3  | 매력     | 48   | 1.0%  |
|                  | 4  | 기쁨     | 25   | .5%   |
|                  | 5  | 돌봄     | 61   | 1.3%  |
|                  | 6  | 신남     | 26   | .6%   |
|                  | 7  | 즐거움    | 33   | .7%   |
|                  | 8  | 난관적    | 66   | 1.4%  |
|                  | 9  | 사랑     | 37   | .8%   |
|                  | 10 | 열정     | 102  | 2.2%  |
|                  | 11 | 의기양양   | 126  | 2.7%  |
|                  | 12 | 향수에 젖은 | 134  | 2.9%  |
|                  | 13 | 감탄     | 45   | 1.0%  |
|                  | 14 | 희망     | 76   | 1.6%  |
|                  | 15 | 고통     | 547  | 11.8% |
|                  | 16 | 두려움    | 416  | 9.0%  |
|                  | 17 | 화남     | 227  | 4.9%  |
|                  | 18 | 분노     | 310  | 6.7%  |
|                  | 19 | 허둥지둥   | 87   | 1.9%  |
|                  | 20 | 섬뜩함    | 286  | 6.2%  |
|                  | 21 | 괴로움    | 350  | 7.6%  |
|                  | 22 | 창피함    | 101  | 2.2%  |
|                  | 23 | 수치     | 107  | 2.3%  |
|                  | 24 | 죄책감    | 90   | 1.9%  |
|                  | 25 | 역겨움    | 109  | 2.4%  |
|                  | 26 | 우울함    | 291  | 6.3%  |
|                  | 27 | 암담함    | 484  | 10.4% |
|                  | 28 | 환멸     | 143  | 3.1%  |
|                  | 전체 |        | 4632 | 100%  |

다중응답 빈도분석 결과,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는 고통(N=547, 11.8%), 암담함(N=484, 10.4%), 두려움(N=416, 9.0%), 괴로움(N=350, 7.6%), 분노(N=310, 6.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8가지 속성 가운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속성이다. 즉, 국민들은 북한사람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개에 속하는 속성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 (사) 북한에 대한 대표 고정관념이 화해 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

**평화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28개의 속성들 중 북한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속성을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98>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람의 속성 중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beta=.11$ ,  $p<.01$ ), 선정된 나머지 특징인 암담함( $\beta=-.04$ ,  $p=.187$ ), 두려움( $\beta=.00$ ,  $p=.996$ ), 괴로움( $\beta=.04$ ,  $p=.230$ ), 분노( $\beta=-.02$ ,  $p=.544$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으로 지각할수록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98〉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br>특징 | 고통  | .35              | .11 | .11     | 3.15  | .002 | .01   | 2.58*      |
|                   | 암담함 | -.15             | .11 | -.04    | -1.32 | .187 |       |            |
|                   | 두려움 | .00              | .12 | .00     | .00   | .996 |       |            |
|                   | 괴로움 | .14              | .12 | .04     | 1.20  | .230 |       |            |
|                   | 분노  | -.07             | .12 | -.02    | -.61  | .544 |       |            |

\* $p < .05$ , \*\* $p < .01$ , \*\*\* $p < .001$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선정된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이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선정된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99〉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람의 속성 중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노( $\beta = .22$ ,  $p < .001$ )라고 여기는 것은 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선정된 나머지 특징인 고통( $\beta = .01$ ,  $p = .000$ ), 암담함( $\beta = .06$ ,  $p = .090$ ), 두려움( $\beta = -.01$ ,  $p = .696$ ), 괴로움( $\beta = -.03$ ,  $p = .423$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사람의 특징을 분노로 지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표 III-99〉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 고정<br>관념 | 고통  | .041                  | .128 | .01     | .319  | .750 | .052  | 10.911***  |
|                      | 암담함 | .219                  | .129 | .06     | 1.695 | .090 |       |            |
|                      | 두려움 | -.052                 | .133 | -.01    | -.391 | .696 |       |            |
|                      | 괴로움 | -.108                 | .135 | -.03    | -.802 | .423 |       |            |
|                      | 분노  | .907                  | .137 | .22     | 6.633 | .000 |       |            |

\* $p < .05$ , \*\* $p < .01$ , \*\*\* $p < .001$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선정된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사람의 속성 중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beta=.08$ ,  $p<.05$ ), 선정된 나머지 특징인 암담함( $\beta=-.04$ ,  $p=.246$ ), 두려움( $\beta=.01$ ,  $p=.774$ ), 괴로움( $\beta=.05$ ,  $p=.117$ ), 분노( $\beta=-.03$ ,  $p=.297$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으로 지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0〉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br>특징 | 고통  | .26                    | .11 | .08     | 2.36  | .018 | .01   | 2.04       |
|                   | 암담함 | -.13                   | .11 | -.04    | -1.16 | .246 |       |            |
|                   | 두려움 | .03                    | .11 | .01     | .29   | .774 |       |            |
|                   | 괴로움 | .18                    | .11 | .05     | 1.57  | .117 |       |            |
|                   | 분노  | -.12                   | .12 | -.03    | -1.04 | .297 |       |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신뢰.** 선정된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람의 속성 중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 $\beta = -.11$ ,  $p < .01$ ), 암담함( $\beta = -.13$ ,  $p < .001$ ), 분노( $\beta = -.17$ ,  $p < .001$ )라고 지각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선정된 나머지 특징인 두려움( $\beta = -.01$ ,  $p = .682$ ), 괴로움( $\beta = .02$ ,  $p = .603$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 혹은 암담함 혹은 분노라고 지각할수록 북한을 덜 신뢰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1〉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br>특징 | 고통  | -.25             | .07 | -.11    | -3.36 | .001 | .08   | 17.24***   |
|                   | 암담함 | -.30             | .08 | -.13    | -4.05 | .000 |       |            |
|                   | 두려움 | -.03             | .08 | -.01    | -.41  | .682 |       |            |
|                   | 괴로움 | .04              | .08 | .02     | .52   | .603 |       |            |
|                   | 분노  | -.42             | .08 | -.17    | -5.26 | .000 |       |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의 책임.** 선정된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이 북한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의 책임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람의 속성 중 북한사람의 특징을 암담함( $\beta=.10$ ,  $p<.01$ ), 두려움( $\beta=.09$ ,  $p<.05$ ), 분노( $\beta=.15$ ,  $p<.001$ )라고 지각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선정된 나머지 특징인 고통( $\beta=.03$ ,  $p=.342$ ), 괴로움( $\beta=.03$ ,  $p=.405$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사람의 특징을 암담함 혹은 두려움 혹은 분노라고 지각할수록 남북 간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2〉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북한의 책임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br>특징 | 고통  | .07           | .07 | .03     | .95  | .342 | .07   | 14.67***   |
|                   | 암담함 | .22           | .07 | .10     | 3.11 | .002 |       |            |
|                   | 두려움 | .19           | .07 | .09     | 2.58 | .010 |       |            |
|                   | 괴로움 | .06           | .07 | .03     | .83  | .405 |       |            |
|                   | 분노  | .35           | .07 | .15     | 4.76 | .000 |       |            |

\* $p < .05$ , \*\* $p < .01$ , \*\*\* $p < .001$

**북한에 대한 공감.** 선정된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이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사람의 속성 중 북한사람의 특징을 암담함( $\beta = -.15$ ,  $p < .001$ ), 분노( $\beta = -.09$ ,  $p < .01$ )라고 여기는 것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선정된 나머지 특징인 고통( $\beta = -.05$ ,  $p = .138$ ), 두려움( $\beta = .01$ ,  $p = .873$ ), 괴로움( $\beta = .04$ ,  $p = .278$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사람의 특징을 암담함 혹은 분노라고 지각할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3〉 북한사람에 대한 특징이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br>특징 | 고통  | -.09                      | .06 | -.05    | -1.49 | .138 | .04   | 8.47***    |
|                   | 암담함 | -.27                      | .06 | -.15    | -4.52 | .000 |       |            |
|                   | 두려움 | .01                       | .06 | .01     | .16   | .873 |       |            |
|                   | 괴로움 | .07                       | .06 | .04     | 1.09  | .278 |       |            |
|                   | 분노  | -.18                      | .06 | -.09    | -2.89 | .004 |       |            |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심층분석

북한에 대한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에 관련된 변인인 북한에 대한 태도, 정서, 고정관념, 분단중심성, 단결일치, 남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화해 관련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평화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동정심( $\beta=.18$ ,  $p<.001$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beta=-.39$ ,  $p<.001$ ), 단결·일치( $\beta=.20$ ,  $p<.001$ ), 분단중심성( $\beta=-.19$ ,  $p<.001$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희망( $\beta=-.14$ ,  $p<.001$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 $\beta=.08$ ,  $p<.001$ )은 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배타심( $\beta$

=.02,  $p=.583$ ), 우호감( $\beta=-.03$ ,  $p=.437$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 $\beta=.05$ ,  $p=.141$ ), 즐거움( $\beta=-.02$ ,  $p=.453$ ), 낙관적( $\beta=-.01$ ,  $p=.742$ ), 사랑( $\beta=.02$ ,  $p=.506$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암담함( $\beta=-.05$ ,  $p=.119$ ), 두려움( $\beta=-.02$ ,  $p=.570$ ), 괴로움( $\beta=-.00$ ,  $p=.979$ ), 분노( $\beta=.03$ ,  $p=.283$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혹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남한사람의 특징을 열정으로 지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각하고, 북한사람의 특징을 분노로 지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표 III-104〉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평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R^2$    | $\Delta F$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          |            |
|                |     | B                | se  |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04              | .07 | .02     | .55   | .583 | .267 | 22.35*** |            |
|                | 우호감 | -.04             | .05 | -.03    | -0.78 | .437 |      |          |            |
|                | 동정심 | .28              | .05 | .18     | 5.61  | .000 |      |          |            |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     | -.51             | .06 | -.39    | -8.99 | .000 |      |          |            |
| 단결·일치          |     | .32              | .06 | .20     | 5.69  | .000 |      |          |            |
| 분단 중심성         |     | -.32             | .05 | -.19    | -6.08 | .000 |      |          |            |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열정  | .15              | .10 | .04     | 1.47  | .141 |      |          |            |
|                | 희망  | .49              | .11 | .14     | 4.65  | .000 |      |          |            |
|                | 즐거움 | -.08             | .11 | -.02    | -.75  | .453 |      |          |            |
|                | 낙관적 | -.03             | .10 | -.01    | -.33  | .742 |      |          |            |
|                | 사랑  | .07              | .11 | .02     | .67   | .506 |      |          |            |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에 대한 태도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 고정<br>관념 | 고통  | .26              | .10 | .08     | 2.63  | .009 |       |            |
|                      | 암담함 | -.16             | .10 | -.05    | -1.56 | .119 |       |            |
|                      | 두려움 | -.06             | .10 | -.02    | -.57  | .570 |       |            |
|                      | 괴로움 | .00              | .10 | .00     | -.03  | .979 |       |            |
|                      | 분노  | .12              | .11 | .03     | 1.07  | .283 |       |            |

\* $p < .05$ , \*\* $p < .01$ , \*\*\* $p < .001$

## (2) 군사력을 통한 평화실현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beta = .46$ ,  $p < .001$ ), 단결·일치( $\beta = .16$ ,  $p < .001$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 $\beta = -.06$ ,  $p < .05$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분노( $\beta = .10$ ,  $p < .001$ )는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배타심( $\beta = .05$ ,  $p = .134$ ), 우호감( $\beta = .03$ ,  $p = .258$ ), 동정심( $\beta = -.01$ ,  $p = .768$ ), 분단중심성( $\beta = .03$ ,  $p = .290$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희망( $\beta = .04$ ,  $p = .162$ ), 즐거움( $\beta = .01$ ,  $p = .705$ ), 낙관적( $\beta = -.04$ ,  $p = .168$ ), 사랑( $\beta = -.01$ ,  $p = .790$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 $\beta = .00$ ,  $p = .917$ ), 암담함( $\beta = -.01$ ,  $p = .737$ ), 두려움( $\beta = -.05$ ,  $p = .076$ ), 괴로움( $\beta = -.01$ ,  $p = .651$ )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

각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열정으로 여기지 않을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나타내며,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노로 여길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표 III-105〉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군사력 |     |         |       |      |      | $R^2$    | $\Delta F$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          |            |
|                |     | B          | se  |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10        | .07 | .05     | 1.50  | .134 | .390 | 40.84*** |            |
|                | 우호감 | .06        | .05 | .03     | 1.13  | .258 |      |          |            |
|                | 동정심 | -.02       | .05 | -.01    | -.30  | .768 |      |          |            |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     | .71        | .06 | .46     | 11.79 | .000 |      |          |            |
| 단결·일치          |     | .30        | .06 | .16     | 5.08  | .000 |      |          |            |
| 분단 중심성         |     | .06        | .06 | .03     | 1.06  | .290 |      |          |            |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열정  | -.22       | .11 | -.06    | -2.04 | .041 |      |          |            |
|                | 희망  | .16        | .11 | .04     | 1.40  | .162 |      |          |            |
|                | 즐거움 | .04        | .11 | .01     | .38   | .705 |      |          |            |
|                | 낙관적 | -.15       | .11 | -.04    | -1.38 | .168 |      |          |            |
|                | 사랑  | -.03       | .12 | -.01    | -.27  | .790 |      |          |            |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고통  | .01        | .10 | .00     | .10   | .917 |      |          |            |
|                | 암담함 | -.04       | .11 | -.01    | -.34  | .737 |      |          |            |
|                | 두려움 | -.19       | .11 | -.05    | -1.78 | .076 |      |          |            |
|                | 괴로움 | -.05       | .11 | -.01    | -.45  | .651 |      |          |            |
|                | 분노  | .42        | .11 | .10     | 3.65  | .000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3)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동정심( $\beta=.25, p<.001$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beta=-.45, p<.001$ ), 단결·일치( $\beta=.10, p<.01$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희망( $\beta=.08, p<.01$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 $\beta=.06, p<.05$ )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배타심( $\beta=-.01, p=.792$ ), 우호감( $\beta=-.05, p=.167$ ), 분단 중심성( $\beta=-.04, p=.151$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 $\beta=.05, p=.073$ ), 즐거움( $\beta=.02, p=.432$ ), 낙관적( $\beta=.02, p=.505$ ), 사랑( $\beta=.02, p=.458$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암담함( $\beta=-.00, p=.940$ ), 두려움( $\beta=.01, p=.811$ ), 괴로움( $\beta=.01, p=.763$ ), 분노( $\beta=.04, p=.182$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많이 느끼거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한다. 아울러 남한사람의 특징을 희망으로 지각하거나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이라고 지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표 III-106〉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02                   | .06 | -.01    | -.26   | .792 | .278  | 25.02***   |
|                | 우호감 | -.06                   | .05 | -.05    | -1.38  | .167 |       |            |
|                | 동정심 | .38                    | .05 | .25     | 8.00   | .000 |       |            |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     | -.57                   | .05 | -.45    | -10.58 | .000 |       |            |
| 단결·일치          |     | .15                    | .05 | .10     | 2.77   | .006 |       |            |
| 분단 중심성         |     | -.07                   | .05 | -.04    | -1.44  | .151 |       |            |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열정  | .17                    | .10 | .05     | 1.80   | .073 |       |            |
|                | 희망  | .27                    | .10 | .08     | 2.65   | .008 |       |            |
|                | 즐거움 | .08                    | .10 | .02     | .79    | .432 |       |            |
|                | 낙관적 | .07                    | .10 | .02     | .67    | .505 |       |            |
|                | 사랑  | .08                    | .11 | .02     | .74    | .458 |       |            |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고통  | .20                    | .09 | .06     | 2.11   | .035 |       |            |
|                | 암담함 | -.01                   | .10 | .00     | -.08   | .940 |       |            |
|                | 두려움 | .02                    | .10 | .01     | .24    | .811 |       |            |
|                | 괴로움 | .03                    | .10 | .01     | .30    | .763 |       |            |
|                | 분노  | .14                    | .10 | .04     | 1.34   | .182 |       |            |

\* $p < .05$ , \*\* $p < .01$ , \*\*\* $p < .001$

#### (4)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정서 중 우호감( $\beta = .20$ ,  $p < .001$ ), 동정심( $\beta = .18$ ,  $p < .001$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beta = -.45$ ,  $p < .001$ ), 분단중심성( $\beta = .12$ ,  $p < .001$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사랑( $\beta = .07$ ,  $p < .01$ ), 북한사람에 대

한 고정관념 중 고통( $\beta=-.09, p<.01$ ), 분노( $\beta=-.07, p<.01$ )는 북한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배타심( $\beta=-.01, p=.673$ ), 단결·일치( $\beta=.06, p=.000$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 $\beta=-.05, p=.091$ ), 희망( $\beta=-.03, p=.257$ ), 즐거움( $\beta=-.02, p=.510$ ), 낙관적( $\beta=.02, p=.505$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암담함( $\beta=-.01, p=.756$ ), 두려움( $\beta=.02, p=.595$ ), 괴로움( $\beta=.01, p=.697$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해 우호감을 많이 느낄수록 혹은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북한을 더 신뢰롭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혹은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을 더 신뢰롭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한사람의 특징을 사랑으로 지각하거나 북한사람의 특징을 고통 또는 분노로 느끼지 않을수록 북한을 더 신뢰롭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7〉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R^2$    | $\Delta F$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          |            |
|                |     | B                | se  |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02             | .04 | -.01    | -42    | .673 | .388 | 40.57*** |            |
|                | 우호감 | .20              | .03 | .20     | 6.74   | .000 |      |          |            |
|                | 동정심 | .19              | .03 | .18     | 6.10   | .000 |      |          |            |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     | -.41             | .04 | -.45    | -11.54 | .000 |      |          |            |
| 단결·일치          |     | .06              | .03 | .06     | 1.77   | .076 |      |          |            |
| 분단 중심성         |     | .14              | .03 | .12     | 4.29   | .000 |      |          |            |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열정  | -.11             | .06 | -.05    | -1.69  | .091 |      |          |            |
|                | 희망  | -.07             | .07 | -.03    | -1.13  | .257 |      |          |            |
|                | 즐거움 | -.04             | .07 | -.02    | -.66   | .510 |      |          |            |
|                | 낙관적 | .04              | .06 | .02     | .67    | .505 |      |          |            |
|                | 사랑  | .18              | .07 | .07     | 2.63   | .009 |      |          |            |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북한에 대한 신뢰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사람에<br>대한 고정<br>관념 | 고통  | -.21             | .06 | -.09    | -3.47 | .001 |       |            |
|                      | 암담함 | -.02             | .06 | -.01    | -.31  | .756 |       |            |
|                      | 두려움 | .03              | .06 | .02     | .53   | .595 |       |            |
|                      | 괴로움 | .03              | .07 | .01     | .39   | .697 |       |            |
|                      | 분노  | -.18             | .07 | -.07    | -2.66 | .008 |       |            |

\* $p < .05$ , \*\* $p < .01$ , \*\*\* $p < .001$

### (5) 북한 책임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III-10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배타심( $\beta=.17, p<.001$ ), 우호감( $\beta=-.10, p<.001$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beta=.49, p<.001$ ), 단결·일치( $\beta=.07, p<.05$ ), 분단중심성( $\beta=.08, p<.01$ )은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동정심( $\beta=.04, p=.173$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 $\beta=.01, p=.714$ ), 희망( $\beta=.03, p=.233$ ), 즐거움( $\beta=.03, p=.176$ ), 낙관적( $\beta=-.01, p=.649$ ), 사랑( $\beta=.04, p=.138$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 $\beta=.01, p=.566$ ), 암담함( $\beta=-.00, p=.976$ ), 두려움( $\beta=.03, p=.182$ ), 괴로움( $\beta=.02, p=.333$ ), 분노( $\beta=.00, p=.967$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 우호감을 많이 느낄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혹은 북한 문제

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8〉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북한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북한의 책임 |     |      |       |      |                | R <sup>2</sup> | ΔF |    |
|----------------|-----|---------------|-----|------|-------|------|----------------|----------------|----|----|
|                |     | 비표준화계수        |     | β    | t     | p    | R <sup>2</sup> |                |    | ΔF |
|                |     | B             | se  |      |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19           | .03 | .17  | 5.72  | .000 | .502           | 63.86***       |    |    |
|                | 우호감 | -.09          | .02 | -.10 | -3.60 | .000 |                |                |    |    |
|                | 동정심 | .04           | .03 | .04  | 1.37  | .173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     | .41           | .03 | .49  | 13.88 | .000 |                |                |    |    |
| 단결·일치          |     | .07           | .03 | .07  | 2.26  | .024 |                |                |    |    |
| 분단 중심성         |     | .09           | .03 | .08  | 3.32  | .001 |                |                |    |    |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열정  | .02           | .05 | .01  | .37   | .714 |                |                |    |    |
|                | 희망  | .07           | .06 | .03  | 1.19  | .233 |                |                |    |    |
|                | 즐거움 | .07           | .06 | .03  | 1.35  | .176 |                |                |    |    |
|                | 낙관적 | -.02          | .05 | -.01 | -.46  | .649 |                |                |    |    |
|                | 사랑  | .09           | .06 | .04  | 1.48  | .138 |                |                |    |    |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고통  | .03           | .05 | .01  | .58   | .566 |                |                |    |    |
|                | 암담함 | .00           | .05 | .00  | -.03  | .976 |                |                |    |    |
|                | 두려움 | .07           | .05 | .03  | 1.33  | .182 |                |                |    |    |
|                | 괴로움 | .05           | .05 | .02  | .97   | .333 |                |                |    |    |
|                | 분노  | .00           | .06 | .00  | .04   | .967 |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6) 북한에 대한 공감

북한에 대한 정서,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핵

·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Ⅲ-10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배타심( $\beta=-.14, p<.001$ ), 우호감( $\beta=.14, p<.001$ ), 동정심( $\beta=.15, p<.001$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 $\beta=-.26, p<.001$ ), 분단중심성( $\beta=.10, p<.01$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 $\beta=-.07, p<.05$ )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단결일치( $\beta=.03, p=.098$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희망( $\beta=.01, p=.757$ ), 즐거움( $\beta=-.04, p=.201$ ), 낙관적( $\beta=.04, p=.190$ ), 사랑( $\beta=.03, p=.307$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 $\beta=-.04, p=.209$ ), 암담함( $\beta=-.05, p=.109$ ), 두려움( $\beta=.03, p=.335$ ), 괴로움( $\beta=.04, p=.208$ ), 분노( $\beta=-.02, p=.548$ )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적게 느낄수록 혹은 우호감을 많이 느낄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거나 북한에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한다. 끝으로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남한사람의 특징을 열정으로 여길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09>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과 정서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

| 예측변인      |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13                      | .04 | -.14    | -3.66 | .000 | .206  | 17.20***   |
|           | 우호감 | .11                       | .03 | .14     | 4.13  | .000 |       |            |
|           | 동정심 | .12                       | .03 | .15     | 4.45  | .000 |       |            |

| 예측변인                 | 준거변인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       |       |       |            |
|----------------------|---------------------------|------|---------|-------|-------|-------|------------|
|                      | 비표준화계수                    |      | $\beta$ | t     | p     | $R^2$ | $\Delta F$ |
|                      | B                         | se   |         |       |       |       |            |
|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 -.18                      | .03  | -.26    | -5.79 | .000  |       |            |
| 단결·일치                | .05                       | .03  | .06     | 1.66  | .098  |       |            |
| 분단 중심성               | .09                       | .03  | .10     | 3.06  | .002  |       |            |
| 남한사람에<br>대한 고정<br>관념 | 열정                        | -.12 | .06     | -.07  | -2.18 | .030  |            |
|                      | 희망                        | .02  | .06     | .01   | 0.31  | .757  |            |
|                      | 즐거움                       | -.07 | .06     | -.04  | -1.28 | .201  |            |
|                      | 낙관적                       | .08  | .06     | .04   | 1.31  | .190  |            |
| 북한사람에<br>대한 고정<br>관념 | 사랑                        | .06  | .06     | .03   | 1.02  | .307  |            |
|                      | 고통                        | -.07 | .06     | -.04  | -1.26 | .209  |            |
|                      | 암담함                       | -.09 | .06     | -.05  | -1.60 | .109  |            |
|                      | 두려움                       | .06  | .06     | .03   | .96   | .335  |            |
|                      | 괴로움                       | .07  | .06     | .04   | 1.26  | .208  |            |
|                      | 분노                        | -.04 | .06     | -.02  | -.60  | .548  |            |

\* $p < .05$ , \*\* $p < .01$ , \*\*\* $p < .001$

### (7)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정서와 화해관련 변인 간의 정준 상관분석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 및 정서에 관련된 변인과 화해의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준상관분석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III-110>에 제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결과, 4개의 함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함수 1, 2, 3의 정준상관계수는 각각 .816, .462, .427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함수 4의 정준상관계수는 .248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수 4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정준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아, 함수 1, 2, 3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정서와 화해 변인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표 III-110〉 정준상관함수의 통계적 유의성

| 정준함수                  | 1       | 2      | 3      | 4      | 5     | 6     |
|-----------------------|---------|--------|--------|--------|-------|-------|
| Canonical Correlation | .816    | .462   | .427   | .248   | .162  | .119  |
| Wilk's Lamda          | .19     | .58    | .74    | .90    | .96   | .99   |
| x 2                   | 1623.17 | 539.62 | 301.96 | 102.90 | 40.46 | 14.06 |
| df                    | 96      | 75     | 56     | 39     | 24    | 11    |
| p                     | .000    | .000   | .000   | .000   | .019  | .230  |

〈표 III-111〉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정서와 화해관련변인 간의 정준상관분석결과

|                  | 요인  | 표준정준계수 |       |       | 정준적재량 |       |       | 정준교차적재량 |       |       |
|------------------|-----|--------|-------|-------|-------|-------|-------|---------|-------|-------|
|                  |     | 1      | 2     | 3     | 1     | 2     | 3     | 1       | 2     | 3     |
| 예측변인군            |     |        |       |       |       |       |       |         |       |       |
| 북한에 대한 정서        | 배타심 | .140   | -.110 | -.177 | .670  | -.138 | -.257 | .547    | -.064 | -.110 |
|                  | 우호감 | -.120  | .384  | -.225 | -.421 | .412  | -.469 | -.344   | .190  | -.200 |
|                  | 동정심 | -.116  | -.092 | -.666 | -.352 | -.049 | -.741 | -.287   | -.023 | -.317 |
| 악마화              |     | .777   | .285  | .231  | .971  | .105  | -.097 | .793    | .049  | -.041 |
| 단결·일치            |     | .048   | -.236 | -.562 | .637  | -.165 | -.446 | .520    | -.076 | -.191 |
| 분단중심성            |     | .032   | .558  | -.221 | .284  | .719  | -.071 | .232    | .333  | -.030 |
|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열정  | -.007  | -.203 | .083  | .033  | -.429 | .026  | .027    | -.199 | .011  |
|                  | 희망  | .020   | -.298 | -.183 | .065  | -.493 | -.198 | .053    | -.228 | -.084 |
|                  | 즐거움 | .033   | -.011 | -.014 | .059  | -.160 | -.144 | .048    | -.074 | -.061 |
|                  | 낙관적 | -.034  | .049  | -.002 | .115  | -.100 | -.103 | .094    | -.046 | -.044 |
|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 사랑  | -.014  | .066  | -.187 | .016  | -.179 | -.275 | .013    | -.083 | -.117 |
|                  | 고통  | .029   | -.286 | .041  | .134  | -.434 | -.017 | .110    | -.201 | -.007 |
|                  | 암담함 | .007   | .037  | .077  | .225  | -.273 | .066  | .184    | -.126 | .028  |
|                  | 두려움 | -.007  | .058  | -.020 | .156  | -.187 | -.106 | .127    | -.086 | -.045 |
| 분노               | 괴로움 | .001   | .037  | -.057 | .092  | -.177 | -.113 | .075    | -.082 | -.048 |
|                  | 분노  | .058   | -.145 | -.047 | .305  | -.248 | -.113 | .249    | -.115 | -.048 |
| 준거변인군            |     |        |       |       |       |       |       |         |       |       |
| 평화에 대한 태도        |     | -.058  | -.805 | -.225 | -.398 | -.743 | -.471 | -.325   | -.344 | -.201 |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 |     | -.146  | -.161 | -.350 | -.528 | -.508 | -.455 | -.431   | -.235 | -.194 |

|  | 요인                    | 표준정준계수 |      |       | 정준적재량 |       |       | 정준교차적재량 |       |       |
|--|-----------------------|--------|------|-------|-------|-------|-------|---------|-------|-------|
|  |                       | 1      | 2    | 3     | 1     | 2     | 3     | 1       | 2     | 3     |
|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br>(군사력)  | .326   | .098 | -.474 | .734  | .099  | -.356 | .599    | .046  | -.152 |
|  | 북한에 대한 신뢰             | -.290  | .536 | -.613 | -.685 | .396  | -.515 | -.560   | .183  | -.220 |
|  | 북한의 책임                | .500   | .053 | -.531 | .852  | -.022 | -.312 | .695    | -.010 | -.133 |
|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br>대한 공감 | -.074  | .317 | -.216 | -.489 | .312  | -.393 | -.399   | .144  | -.168 |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정서 관련 변인과 화해 관련 변인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함수 1, 2, 3의 정준적재량과 정준교차적재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III-111>과 같다. 일반적으로 정준교차적재량이 .3 혹은 .4 이상이 되는 변인이 각 함수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3 이상이 되는 정준계수를 중요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정준교차적재량이 .3이상인 변인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II-112>와 같다.

<표 III-112> 정준교차적재량이 .30이상인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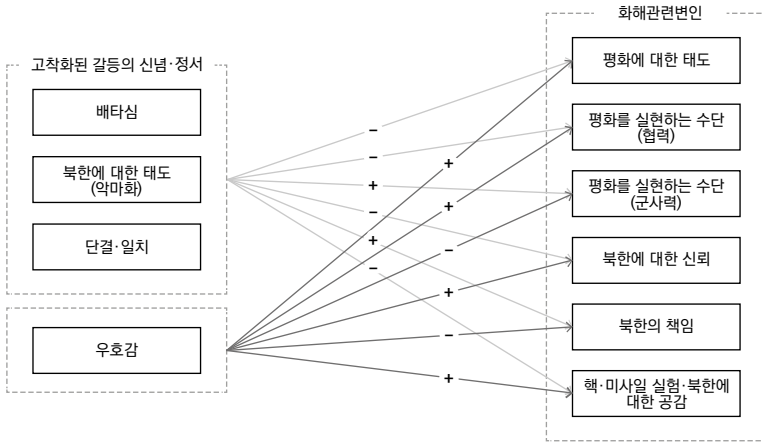
| 요인                 |     | 정준교차적재량 |       |
|--------------------|-----|---------|-------|
|                    |     | 1       | 2     |
| 예측변인군              |     |         |       |
| 북한에<br>대한 정서       | 배타심 | .547    | -.064 |
|                    | 우호감 | -.344   | .190  |
|                    | 동정심 | -.287   | -.023 |
| 악마화                |     | .793    | .049  |
| 단결·일치              |     | .520    | -.076 |
| 분단중심성              |     | .232    | .333  |
| 준거변인군              |     |         |       |
| 평화에 대한 태도          |     | -.325   | -.344 |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     | -.431   | -.235 |
|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   |     | .599    | .046  |
| 북한에 대한 신뢰          |     | -.560   | .183  |
| 북한의 책임             |     | .695    | -.010 |
|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 |     | -.399   | .1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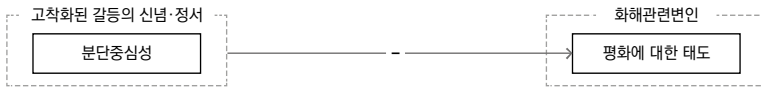
예측변인군에서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준교차부하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악마화(.793), 배타심(.547), 단결·일치(.520), 우호감(-.344)의 순으로 북한의 책임(.695),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군사력(.599), 북한에 대한 신뢰(-.560),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 협력(-.431),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399), 평화에 대한 태도(-.3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배타심, 악마화, 단결·일치는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 북한의 책임에 정적 영향력이,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북한에 대한 신뢰,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는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호감은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북한에 대한 신뢰,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 북한의 책임에는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타심,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남북한의 협력을 덜 중요한 것으로, 군사력을 더 필요한 것으로 지각했다. 더불어, 남북문제가 북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북한을 덜 신뢰하였고,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협력을 중요한 것으로, 군사력은 덜 필요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북한에 우호적일수록 북한을 더 신뢰하였고, 남북문제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행위를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함수 2에서 .3 이상인 변인이 분단중심성, 평화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분단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평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 Ⅲ-1>과 <그림 Ⅲ-2>는 이들의 관계를 표시하였다.

<그림 Ⅲ-1> 정준함수 1에서 정준교차적재량이 .30이상인 변인 간의 관계



<그림 Ⅲ-2> 정준함수 2에서 정준교차적재량이 .30이상인 변인 간의 관계



## 라. 소결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에 대한 태도, 고정관념 및 정서가 북한에 대한 화해 관련 변인 즉, 한반도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군사력), 북한에 대한 신뢰, 남북갈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공감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화해 관련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 중다회귀분석 및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화해 관련 변인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군사력),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의 책임,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평화실현 수단(군사력)에서는 유일하게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화에 대한 태도에서는 40~59세와 60대 이상이 20~39세보다 남북한 간 평화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에서는 40~59세가 20~39세와 60대 이상의 연령대보다 남북한 간 문제에 있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더 협력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신뢰에서는 20~39세와 40~59세가 60대 이상보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책임에서는 60대 이상이 20~39세와 40~59세보다 남북한 간의 갈등에서 북한의 책임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서는 40~59세가 60대 이상보다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군사력)에서는 60대 이상이 20~39세와 40~49세보다 남북한 간 문제에 있어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을 찬성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정서 차원들이 화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 북한에 대해 느끼는 20가지 정서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가지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은 배타심, 우호

감, 동정심으로 명명하였으며, 화해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 군사력)에서는 배타심과 동정심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협력이란 방식을 찬성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평화를 실현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군사력을 사용한 평화실현 수단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의 책임,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서는 배타심, 우호감, 동정심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북한의 비핵화, 평화를 원한다는 발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북한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며,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우호감과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북한의 발언에 더 신뢰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핵, 미사일 실험에 대한 북한의 행위에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가 화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는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위한 수단(협력, 군사력),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의 책임,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이며,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북한의 발언에 더 신뢰롭게 생각하

고, 남북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군사력을 이용한 평화 실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 문제에 대한 단결·일치가 화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결·일치는 화해 변인 중 평화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평화를 위한 수단(협력, 군사력), 북한에 대한 신뢰, 북한의 책임,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군사력을 이용한 평화실현에 찬성하고 있었고,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를 바란다는 발언에 신뢰롭지 않게 생각하며,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분단중심성이 화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단중심성은 평화에 대한 태도, 평화를 위한 수단(협력, 군사력), 북한의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군사력을 이용한 평화실현에 찬성하였고,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선정된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즉,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가 화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통’이라고 지각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분노’라고 여길수록 군사

력을 이용한 평화실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통’이라고 지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통’, ‘암담함’, ‘분노’라고 지각할수록 북한의 비핵화, 평화를 바란다는 발언 등에 대해 신뢰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암담함’, ‘두려움’, ‘분노’라고 지각할수록 남북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암담함’, ‘분노’라고 지각할수록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선정된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즉, 열정, 희망, 즐거움, 낙관적, 사랑이 화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열정’, ‘희망’이라고 지각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열정’, ‘희망’, ‘사랑’이라고 지각할수록 북한의 비핵화, 평화를 바란다는 발언에 더 신뢰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람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을수록 남북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사람에 대해 ‘열정’이라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을수록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남북한에 대한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 및 정서가 화해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화해변인 중 평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동정심,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희망,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이 평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혹은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남한사람의 고정관념을 희망으로 지각하거나 북한사람의 고정관념을 고통으로 지각할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아홉째,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대한 결과에선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분노가 평화를 위한 수단(군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열정으로 여기지 않을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나타내며,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노로 여길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열 번째,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동정심,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희망,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많이 느끼거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남한사람의 고

정관념을 희망으로 지각하거나 북한사람의 고정관념을 고통이라고 지각할수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한다.

열한 번째, 북한에 대한 정서 중 우호감 및 동정심,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분단중심성,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사랑,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중 고통과 분노가 북한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해 우호감 혹은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북한을 더 신뢰롭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혹은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한사람의 고정관념을 사랑으로 지각하거나 북한사람의 고정관념을 고통 또는 분노로 느끼지 않을수록 북한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열두 번째, 북한에 대한 정서 중 배타심과 우호감,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단결·일치, 분단중심성은 북한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많이 느낄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며, 북한에 대해 우호감을 많이 느낄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남북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세 번째, 북한에 대한 정서와 북한에 대한 태도(악마화), 분단중심성, 남한에 대한 고정관념 중 열정은 핵·미사일 실험·북한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 대해 배타심을 적게 느낄수록 혹은 우호감 및 동정심을 많이 느낄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한다. 끝으로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남한사람의 고정관념을 열정으로 여길수록 핵, 미사일 등 북한의 행위에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착화된 갈등의 신념·정서 관련 변인과 화해 관련 변인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준함수 1에서는 북한에 대한 배타심 및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단결에 동의할수록 평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은 덜 중요한 것으로, 군사력을 이용한 평화실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북문제가 북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평화를 원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덜 신뢰하였고,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평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협력을 중요한 것으로, 군사력은 덜 필요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북한에 우호적일수록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 발언 등 북한에 대해 더 신뢰하였고, 남북문제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행위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함수 2에서는 분단 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수록 평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지니는 신념 및 정서를 파악하여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통일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결과로는 북한에 대한 정서 및 신념이 국민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북한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지각하는 신념과 북한사람에 대한 정서(배타심, 우호감, 동정심)가 평화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신뢰·책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신념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 둘의 영향이 모두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사람에 대한 감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북한사람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이 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이 있는 대북정책 및 한반도 군사, 핵문제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일수록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이었으며, 반대로 부정적일수록 그 시선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들의 이해와 편견 및 고정관념 없이 대상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부의 주요정책중 하나인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매년 통일센터 설치와 통일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형태의 인식개선을 통해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북한과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 및 태도를 바꾸고 형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통일센터에서 실시중인 통일 프로그램은 학교단위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며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새터민들과 지역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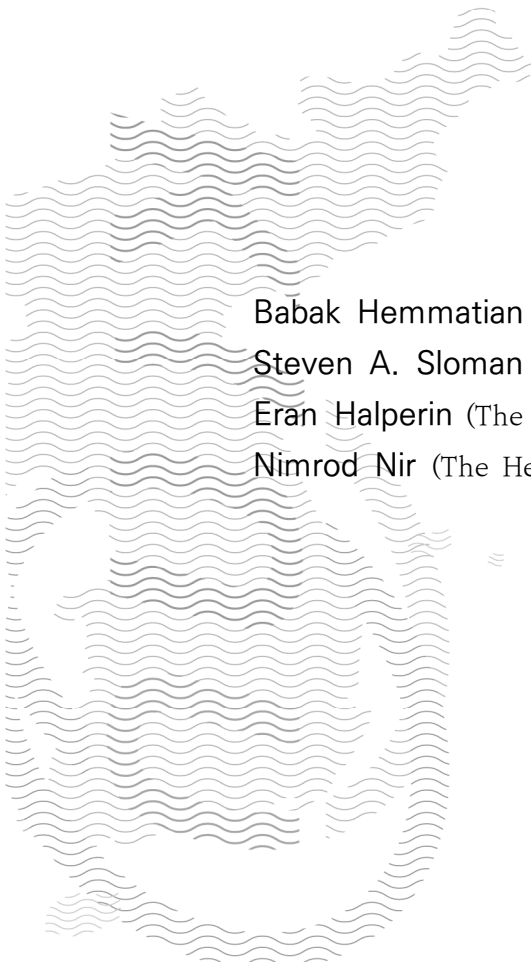
의 소통의 장 행사, 토론회 등을 통한 경험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심리적인 접근으로는 불일치 정보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접근으로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일으켜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민들에게 다양한 관점 채택과 더불어 공감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차별이나 억압을 받는 외집단의 관점을 채택하여 공감을 일으키는 활동은 공감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키고 그 집단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와 더불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평화에 대한 태도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달리 지각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차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중장년층의 성인들 보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다수의 남성이 군사력의 중요성이 '전쟁'이 아니라 '전쟁 억제'에 있다는 것을 군에서 학습했기 때문일 수 있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전쟁의 고통을 지켜보며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특정성별과 세대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주목표일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성별과 세대에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교육이 주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 IV. 해외 연구자의 시각



Babak Hemmatian (Brown University)

Steven A. Sloman (Brown University)

Erán Halperi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Nimrod Nir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1. 가치관과 결과: 한반도 통일 논쟁의 두 프레임

Babak Hemmatian and Steven A. Sloman (Brown University)

한국인이라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비록 전문가도 아니고 통일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일 문제는 한국인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통일 문제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통일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을 파악하였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있어 기저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인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류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70.8%가 통일에 일정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 반면, 나머지 29.2%는 남북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84)</sup> 한편 2019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5.8%로 떨어졌다.<sup>185)</sup> 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다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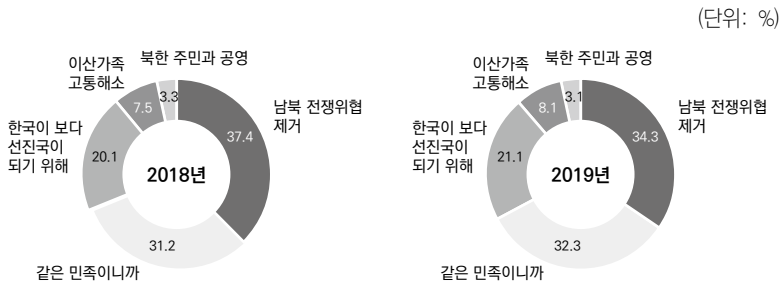
184)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7~38.

185) 2019년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연구책임자로부터 data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한국인이 밝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림 IV-1>과 같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통일의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된 세 응답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매우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한의 경제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낙관에 기반한 응답과 대조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이나 경제발전 같은 응답은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인은 한 민족”이라는 답변은 통일의 직접적인 결과가 미치는 영향, 예컨대 남한의 경제발전과는 다소 거리를 둔 일종의 굳은 신념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가 통일에 대한 여론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을까?

<그림 IV-1> 통일의 명분<sup>186)</sup>



최종 보고서는 2020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186) 2018년 결과는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p. 45; 2019년 결과는 연구책임자로부터 data를 제공받아 작성하였다.



## 가. 응답자의 의견형성 과정

### (1) 통일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8년과 2019년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한국의 번영이나 전쟁의 위협 같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응답자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통일이 야기할 파급효과에 대한 지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략적인 입장을 논증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한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한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매우 복잡하며 따라서 통일정책의 결과도 그리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발전된 대한민국”이라는 답변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발전을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논의를 위해 응답자들이 경제발전과 진보를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남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내수시장 규모도 커짐에 따라 남한의 경제성장이 더욱 촉진될 것인가? 통일 이후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낮아질 것인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결합이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이 일상의 물가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앞서 예상한 결과들은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인가?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다른 분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내 여러 정당들에 대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은 시장 요인들만을 파악해서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요인들 간 복잡한 연관성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고 또 접근 가능하지만 평균적인 유권자는 주요 정책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지식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187)</sup> 이것은 정치적 소양(political literacy)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전문가 그룹을 배제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범위한 사회적 동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사물의 작동방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sup>188)</sup>

또한 정보제약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통일의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제예측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문가들조차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

---

187) Ilya Somin, "Knowledge About Ignorance: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Political Information," *Critical Review*, vol. 18, no. 1-3 (2006), pp. 255~256.

188) Steven Sloman and Philip Fernbach,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2017), pp. 19~36, pp. 171~193.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의 예상치 못한 사망이 당내 정책, 요컨대 남북한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한 개인이 통일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과 파악할 수 있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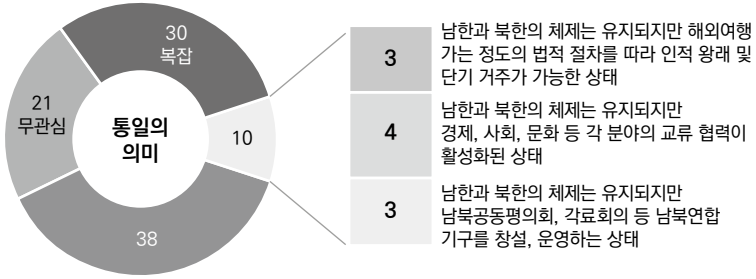
더구나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탈퇴와 관련한 논쟁을 예로 들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영 간의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한반도의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보다 한층 복잡한 문제이다. 통일연구원이 2019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통일”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본인의 동의 정도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약 1/3은 다음 정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

그러나 <그림 IV-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른 응답자들은 완전히 다른 정의를 선택하거나, 통일의 의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통일의 정의 선택에 있어 보다 복잡한 패턴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반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 IV-2〉 “통일”의 네 가지 정의 중 한 가지를 가장 선호한 응답자와, 특별히 선호하는 정의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보다 복잡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

(단위: %)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

통일에 대한 상이한 이해, 파급효과의 복잡성,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생 동안 단 한 명의 북한 주민도 만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떻게 통일의 파급효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한국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이 통일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한국인 자신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요인일 가능성은 없는가?

## (2) 실제 결과보다는 가치

압도적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켜 특정 입장에 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가치관이란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무언가라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은 행위/결정에 적용되며 하나 혹은

소수의 기준 기준에 의거하여 선택지 전체가 옳은지 아닌지, 용납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만든다.<sup>189)</sup> 예를 들어, 한국인 중 1/3은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어 “한국인은 한 민족”이라는 주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한 개략적인 주장을 논증적으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이 한 민족이라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한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된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야 한다. “한국인은 한 민족”이라는 주장은 행위를 평가하는 규칙을 도출한다.

논증의 마지막 문장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을 상당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한다. 만일 통일이 한민족의 신성한 의무로 제시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포함되지 않은 선택은 용납할 수 없으며 고려될 가치가 없다. 우리의 논의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파급효과, 예컨대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통일 그 자체의 가치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위의 규칙에 따르면 통일의 당위성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어떤 결과에 의해서도 조건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적용한다면 개인은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을 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단순화 규칙이 도출되는 가치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체성, 그리고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상적인 아이디어는 특정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의식에 부합하는 한민족(韓民族)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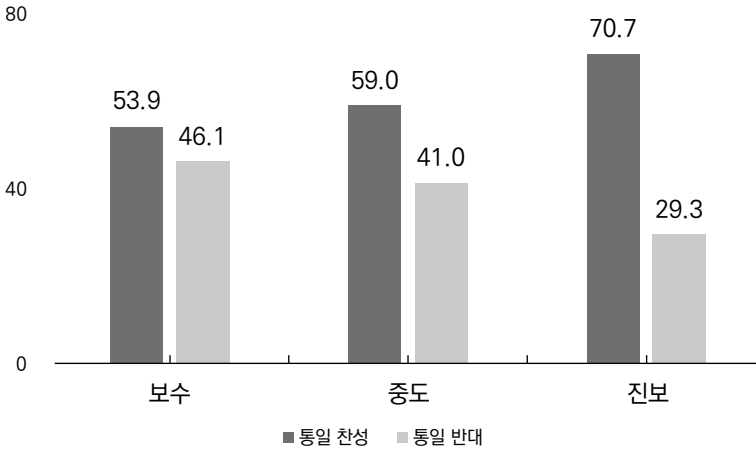
189) Jonathan Baron and Mark Spranca, “Protected Values,” pp. 1~16.

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통일의 형태나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인은 한 민족”이라는 주장을 통일의 근거로 받아들여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세상의 당위적 작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은 용납 가능한 선택을 더욱 제한한다. 예를 들어, 평화주의자라면 수많은 인명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통일 방식은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원천은 다면적이며 따라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 풍부한 다양성을 제공한다. 가치관에 의해 도출된 규칙의 또 다른 원천으로는 종교적 신념,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통 혹은 명예와 같은 추상적 구성개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하여 한국인은 특정 선택지의 용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에 기반한 규칙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림 IV-3>은 통일연구원의 2019년 설문조사 참여자의 가치관이 얼마나 상이한지, 아울러 이와 같은 가치관이 통일에 대한 응답자들의 입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24%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수에 속한다고 밝혔으며 44%는 중도, 나머지 32%는 진보 성향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는 도출되는 의사결정 규칙의 차이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IV-3>에서 보듯이, 모든 집단에 걸쳐 대다수가 통일에는 찬성하지만 중도파와 진보의 경우 통일 선호 집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IV-3〉 정치적 신념에 따라 통일에 찬성 혹은 반대한 비율

(단위: %)



정치적 신념은 가치관의 한 면만을 반영할 뿐이다. 한국인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할 때 보다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되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닐까? 통일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이 제시되었을 때 도덕적 원칙과 같은 확고부동한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실 응답자의 대다수는 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인정했다.<sup>190)</sup>

이 대안은 개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나에게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일부 의견은 그 결과에 관계 없이 확실하게 옳거나 혹은 틀리다.

190) Carmen Tanner, Douglas L. Medin, and Rumen Iliev, "Influence of deontological versus consequentialist orientations on act choices and framing effects: When principles are more important than consequenc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8, no. 5 (2008), pp. 757~769.

이들 규칙은 단순히 성취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결과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응답자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한 규칙은 말 그대로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법을 이용하여 응답자 전체에 걸친 응답 패턴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세 항목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우리가 얻은 값은 0.71이었으며 따라서 세 항목이 동일한 구성개념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신뢰도를 제공하였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이라고 불리는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세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일 디멘션(singular dimension)을 따라 각 응답자 별로 점수를 추출하였다. 이 점수는 개별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변량이 64%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어 각 응답자들이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문항의 평균을 '가치관-규칙 지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특정 가치관의 내용에 근거할 때, 참가자 전반에 걸쳐 가치관에 의존하는 순 효과는 통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 둘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통일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가치관은 북한 주민들을 완결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동일한 집단의 일부로 보게 만든다. 반면, 자유시장의 이상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강화시키는데, 일례로 “통일 이후 정부의 법규를 통해 북한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



변 가능한 질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입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 문항에 대하여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 답변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응답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 1) 남한과 북한은 단일 국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2) 남한과 북한은 2개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왕래와 단일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 3) 2개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남한과 북한은 공동 정부를 성립하기 위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
- 4) 나의 간절한 바람은 남한과 북한은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 5)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 6) 나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한 남한과 북한이 2개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도 상관 없다.
- 7) 전쟁의 위험이 없다면 남한과 북한은 단일 국가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 8) 남북한 국민은 2개의 서로 다른 국가 체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 9)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민족집단이므로 단일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 10)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형성한다면 남한에 이득이 될 것이다.
- 11) 남한과 북한이 단일 국가를 형성한다면 나와 내 가족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0.7이었으며, 단일한 개념, 즉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의미한다는 납득할만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12개 문항 중 6번, 7번, 8번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머지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후자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4%를 설명하였고, 단일국가 지향성(attached reunification attitude)으로 명명하였다. 단일국가 지향성은 “통일된 한국은 바람직한 결과이고 현재의 분단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다” 혹은 그 반대의 입장을 대변한다. 즉 이 요인에서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통일에 대해 더 큰 집착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6번, 7번, 8번 요인으로 구성된 두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0% 정도를 설명하였고 분단 지향성(detached reunification attitude)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었으나(1번, 4번, 9번 항목과 무관, 평균  $r=0.06$ ) 현상 유지는 용납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6번, 7번, 8번 항목, 평균  $r=0.63$ ). 요컨대 통일에 대한 논쟁의 결과에 무심한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상기 두 가지 태도와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 지향성이 연관이 있는 것일까? 가치관-규칙 지향성은 단일국가 지향성의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며( $r=0.32$ ,  $p<0.01$ ), 총 변량의 10%( $p<0.001$ )를 설명하였다. 통일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와 입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때 총변량의 10%를 설명하는 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분단 지향성에서는 두 태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p=0.64$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잠재적 설명들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책의 결과에 대한 무지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수십 년 간 분단 상태를 경험했으나 이들의 기억 속에 통일의 결과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다. 1990년대 동독과 서

독의 통일은 비교 가능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 전문가 중 한 명인 니더하프너(Niederhafner)가 지적한 것과 같이, 통일 이전의 독일의 상황과 통일 이전의 한국의 상황은 유사점만큼이나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sup>191)</sup> 예를 들어, 북한 정권과의 접촉이나 연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남한의 법률은 통일 후 독일이 경험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더 크다. 결정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특히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을 때 회피적 태도를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192)</sup> 만일 의사결정이 정책의 구체적인 결과에 근거한다면 이와 같은 회피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식은 디폴트 값, 다시 말해 현 상유지에 의존하는 것이 될 것이며 통일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분단 상황을 지지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우호적인 가치관에 충실하고 의사결정 규칙을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부터 도출한다면 강력한 신념을 새롭게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통일의 불확실한 결과를 용납해줄 것이다.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은 “어떻게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더 중시하며 따라서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 특히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의해 형성된 우호적 입장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중요성과 같은 가치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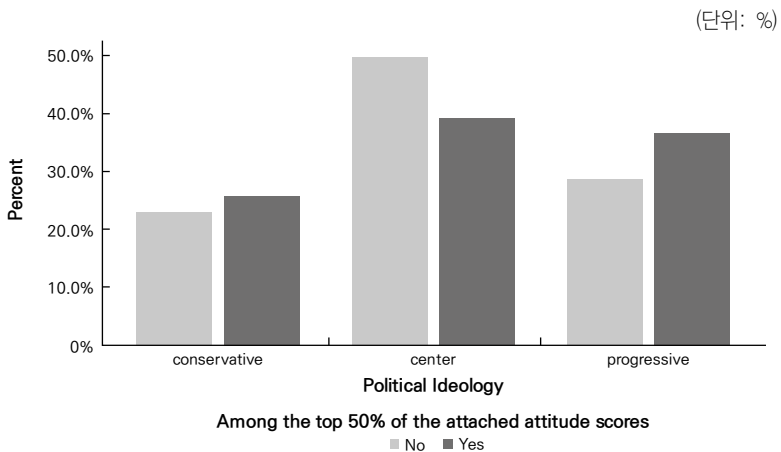
---

191) Stefan Niederhafner, “The Challenges of Reunification: Why South Korea Cannot Follow Germany’s Strategy,” *Korea Observer*, vol. 44, no. 2 (2013), pp. 280~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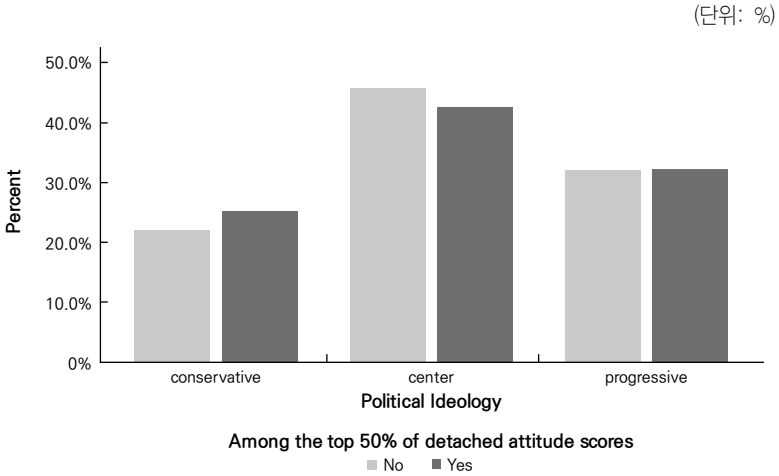
192)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Journal of Business*, vol. 59, no. 4 (1986), p. 264.

앞서 우리는 정치적 신념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정치적 신념이 단일국가 지향성과 분단 지향성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정치적 신념 간에는 차이점이 있을까? <그림 IV-4>는 정치적 신념(보수, 중도, 진보)에 따라 단일국가 지향성이 높은 상위 50% 속하는 비율과 단일국가 지향성이 낮은 하위 50%을 제시하였다. 보수의 경우 단일국가 지향성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비율이 단일국가 지향성이 낮은 범주에 속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진보는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단일국가 지향성이 낮은 범주에 속하는 비율이 단일국가 지향성이 높은 범주에 속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진보와 보수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하며 그 결과 이들이 채택한 규칙은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단일국가 지향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림 IV-4> 통일연구원의 2019년 설문조사 참가자 중 각각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집착적 태도에 있어 표본의 상위 50%에 속하는 응답자 비율



〈그림 IV-5〉 통일연구원의 2019년 설문조사 참가자 중 각각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통일에 대한 초연한 태도에 있어 표본의 상위 50%에 속하는 응답자 비율



〈그림 IV-5〉는 정치적 신념에서 분단지향성에 대해 상위 50% 및 하위 50%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각각의 정치적 신념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모두 〈그림 IV-4〉에서보다 분단지향성 태도의 상위 50%에 속하는 비율과 하위 50%에 속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치적 신념이 분단 지향성보다는 단일국가 지향성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가치관은 정보에 둔감하게 비타협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의거하며, 이와 같은 규칙은 정책의 실제 결과에 대한 지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질

문에 의존하는 것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세계는 압도적으로 복잡하며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특정 규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 가능한데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 (4)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해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취해보는 것은 복잡한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이들 이슈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대안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다음 4개 문항으로 6점 척도(1: 전적으로 동의안함, 6: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1. 내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2. 나는 남북한의 갈등에 대해 한국인들과는 어느 정도 상이한 견해를 가진 유럽 국가의 관점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
3. 나는 남북한의 갈등에 대한 북한의 관점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볼 의사가 있다.
4. 나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기 위해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뉴스를 볼 의사가 있다.

요인분석결과, 단일 요인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64%의 변량을 구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도출된 등급은 높은 신뢰도를 보임으로써(Cronbach  $\alpha=0.81$ ) 외집단의 관점이나 경로를 통해 남북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른 시각이나 매체를 기꺼이 고려하려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그 출처에 관계없이, 통일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태도와 무관하게 분단과 통일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가치관에 의존하는 태도는 대안적인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일관되게 저해하였다. 일부 가치관은 이와 같은 종류의 정보 수집을 장려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가치관은 정확히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특정 가치관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그 출처와 무관하게 남북한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이 학습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단일국가 지향성:  $r=0.45$ ,  $p<0.01$ , 분단지향성:  $r=0.21$ ,  $p<0.01$ ). 그러나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의 갈등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흥미가 그만큼 적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r=-0.13$ ,  $p<0.01$ ). 요컨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남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낮은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5)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는 단순성과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남북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흥미가 있는 경우에도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의존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유발하며 이와 같은 태도는 관련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저해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정책에 따른 결과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 중 하나에서 페른바흐(Fernbach)와 동료 연구자들은 미국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다양한 정책, 예를 들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 등과 같은 정책들이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sup>193)</sup> 그 다음 단계로 참가자들은 가능한 자세하게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기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란 국민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란 정부가 더 이상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반면, 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는 미국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경론자들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페른바흐와 동료 연구자들의 관심은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에 있지 않았다. 이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식에 대해 어떤 재평가를 내렸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대

---

193) Philip M. Fernbach et al., "Political Extremism Is Supported by an Illusion of Understanding,"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6 (2013), pp. 939~946.



부분의 참가자들은 답변 작성 이전보다 이후에 자신에 대해 보다 낮은 평가를 내렸으며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 자신이 피력했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에 대한 극단성도 줄어들었다.<sup>194)</sup>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여타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때 그 파급효과는 명약관화하다는 직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를 거치면 사실 이것이 복잡한 문제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남한이 취한 정책을 통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한국인들이 통일 정책의 결과를 예측할 때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유사한 착시현상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가정은 여전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이해에 대한 착시현상’이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한 의존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재적인 관련성을 내포한 많은 정보를 배제한다면 이와 같은 규칙들은 문제를 보다 단순하게 보이게 만든다. 만일 통일에 대한 한 개인의 입장이 그에 따른 경제적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경우 그런 결과가 연관된 정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종 결과로부터 초연한,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상당 부분을 우

---

194) *Ibid.*, pp. 939~946.

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과정이 통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작용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가치관에 근거하여 태도를 정한 사람들은 통일이 단순한 문제이며 통일에 함축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래 문항을 사용하여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자신에게 단순하게 인식되는지 알아보았다(변인 중 77% 설명, Cronbach  $\alpha=0.69$ ).

1.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2. 나에게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으로부터 파생된 규칙에 의존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는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이다( $r=0.13$ ,  $p<0.01$ ). 한반도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동일한 가치관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때 가치관의 수정에 대한 저항은 아래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변인 중 64% 설명, Cronbach  $\alpha=0.72$ ).

1. 이 문제는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없는 무언가에 관한 것이다.
2. 이 비용에 관계없이 나는 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3. 이 주제에 대하여 내가 양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치관을 근거로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문제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어떤 문제를 단순하다고 생각할수록 동일한 가치관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킨다.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통일뿐만 아니라 보다 한국의 정치 상황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도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r=0.41$ ,  $p<0.01$ ),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문항에 대한 응답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변인 중 65% 설명, Cronbach  $\alpha=0.72$ ).

1. 나는 비핵화, 평화협상 등 대북통일 정책의 의미와 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2.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3. 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보다 정치나 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단순성에 대한 지각도와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2개의 상이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은 모두 가치관에 대한 의존 및 변화에 대한 거부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양 변인 모두  $r=0.17$ ,  $p<0.01$ ).

한반도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남북이 단일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다( $r=0.20$ ,  $p<0.01$ ).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통일과 연관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성에 대한 지각도가 한편으로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매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계층적 선형회귀 분석

을 실시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단일국가 지향성 예측을 위해 단순성과 이해도가 먼저 고려되었으며 이어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과 가치관의 변경에 대한 저항을 예측변인에 포함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성과 이해도는 단일국가 지향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했다(설명된 변인 중 0.04). 두 번째 단계에서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과 가치관의 변경에 대한 저항은 설명된 변인 값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설명된 변인의 0.14), 단순성과 태도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p=0.29$ ). 이런 사실을 통해, 가치로부터 도출된 규칙이 통일과 관련된 이슈는 이해하기 쉽다는 믿음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단일국가 지향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치관과 가치관의 변경에 대한 저항은 이해도와 단순성과 무관한 방식으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이 가진 영향력의 다변화된 성격을 보여주었다.

단순성과 이해도에 대한 착시현상은 완고한 신념을 보다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다 대담한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페른바흐와 동료 연구자들은 미국에서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가진 이해에 대한 착시현상을 교정해 주려고 할 경우 그들이 주장한 신념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 그룹에 대한 기부활동에 더 큰 거부감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up>195)</sup> 확신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확신은 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만들며, 그 결과 근거가 빈약한 신념에 의해 심각한 결과가 발행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sup>196)</sup>

195) *Ibid.*, pp. 939~946.

196) Philip M. Fernbach et al., "Extreme Op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Know the Least but Think They Know the Most," *Nature Human Behaviour*,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식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경우 지식에 대한 착시와 실제 지식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한 결과는 낮은 이해도와 착시현상을 보여주는 심리학계의 보다 광범위한 연구결과와 대개 일치한다.<sup>197)</sup>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결과는 많은 응답자들이 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 (6) 가치관은 상반되는 증거에 저항하는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한 의존성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이들 정보를 근거로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반되는 증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들은 종종 실제 증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한 의존성과 타협에 대한 저항적 태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는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r=0.64$ ,  $p<0.01$ ).

앞서 언급한 규칙들이 타협할 때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에 대해 저항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이 정보수집과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 유용성이 이들의 단순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만일 규칙이 광범위하지 않다거나 추가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

---

vol. 3, no. 3 (2019), pp. 251~256.

197) 관련 연구는 Steven Sloman and Philip Fernbach,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2017)을 참고하면 된다.

어 있다면 사람들은 이들 가치관 기반 규칙 대신 정책의 복잡한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개인의 정체성 및 가치관과 연관된 감정적 흥분을 들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해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은 정보가 수집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저항적인 태도는 탈북민을 접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북자를 만난 경험은 통일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없었다(단일국가 지향성:  $r=0.03$ , 분단 지향성:  $r=0.01$ , 전체  $p > 0.05$ ). 탈북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과 남북한의 갈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에 따라 그 전에 통일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을 정한 사람들은 탈북민을 만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7) 가치관은 결과에 대하여 희망적 관측을 조장한다.

끝으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그에 따른 당위적 의무가 어떻게든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어 비타협적이며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신들이 기대한 결과의 근거가 사실은 통일된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 역시 그만큼 더 강했다. 가치관에 대한 의존도와 결과에 따른 타협에 대한 저항의 상관관계는 각각 0.47 및 0.60이었다(양측 모두  $p < 0.01$ ). 탈북민과의 만남은 통일의 결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이들의 상관관계의 강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r=0.44, 0.60$ , 양측 모두  $p<0.01$ ).

이것이 단일국가 지향성 태도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이 실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정책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기대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대는 가치관 그 자체에 대한 의존을 통해 실제로 가능한 것 이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신념이, 개인은 애초에 왜 특정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 혹은 결과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맹신을 가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믿게 된다. 요컨대,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기반한 사람의 경우 그들의 기대에 대해 일종의 확신에 찬 편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통일을 지지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통일에 대한 결과가 좋을지 혹은 나쁠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

#### (8) 가치관은 통일에 대한 국가적 담론이 전개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치관에 대한 과잉의존은 개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해 반대 편에 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즉 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지 않고 논쟁적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를 저해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양측이 특정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치관 자체가 다를 경우, 이는 통일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에 관계없이 합의를 형성하는 데 별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9) 가치관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극화가 심하다면 그 이유 중 하나로 가치관에 대한 담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양측이 다르고 비타협적인 가치관을 고수할 경우, 토론이 의견 일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논점이 공유되고 해결책이 도출될 공통점은 적어지는 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이한 가치는 정책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기대는 토론의 주제가 구체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있어서도 건설적인 대화의 기초로 기능할 수 있는 공통된 신념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아울러, 한국인들이 만일 북한 사람들도 자신들과 비슷하게 융통성 없는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자신들의 가치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근거하여 통일에 대해 보다 비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 과제의 1년차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높지만 20대는 최근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였다.<sup>198)</sup> 이와 같은 패턴은 “가치관”을 북한 사람들과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그들의 경향과 일치한다. 한편, 60세 이상의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가치관”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가장 유사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고

---

198) 통일여론의 결과는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8)을 참고하였다.



해서 60대가 가치관을 덜 중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이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에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알려주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만일 친통일-반통일을 알려주는 가치관이 있다면 이 가치관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까? 어떤 가치관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보편적 가치 설문 결과와 통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보편적 가치는 역사적으로 모든 주요 문화권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는데, 보수, 자기 초월,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 고양 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가에 따라 이들 가치를 분류한다. 본 연구와 연관된 가치관으로는 자기 고양과 보수의 가치를 들 수 있다.<sup>199)</sup> 다음 <표 IV-1>에는 이들 범주가 각각 추구하는 가치의 목표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

199) Shalom H. Schwartz,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vol. 2, no. 1 (2012), pp. 5~8.

〈표 IV-1〉 자기-고양 및 보수와 관련된 기본 가치의 정의<sup>200)</sup>

| 주가치      | 보조가치 | 정의   |
|----------|------|--|
| 자기<br>고양 | -    |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 타인에 대한 우위에 근거한 상대적인 성공과 지배의 추구를 강조하는 가치관 |
|          | 성취   | 사회 기준에 따라 드러나는 유능함을 통한 개인적 성공                          |
|          | 권력   | 사회적 지위와 위신, 통제력, 또는 사람과 자원에 미치는 지배력                    |
|          | 쾌락   | 본인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
| 보수       | -    | 질서, 자기절제, 과거의 보존, 변화에 대한 저항 등을 강조하는 가치관                |
|          | 안전   | 사회, 본인, 그리고 본인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안전, 조화, 그리고 인정              |
|          | 동조   |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성향 및 충동의 자제      |
|          | 전통   | 전통문화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 및 아이디어의 수락, 공경, 그리고 이행             |

통일에 찬성하는 참가자 중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을 중시하는 경우, “보수”에 속하는 가치인 “전통”( $r=0.27, p<0.01$ ), “동조”( $r=0.20, p<0.01$ ), “안전”( $r=0.19, p<0.01$ )에 대한 헌신과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은 무엇일까? 그 해답 중 일부는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 정체성은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을 사용하는 것( $r=0.35, p<0.01$ ), 이들 규칙에 대해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는 것( $r=0.31, p<0.01$ ), 그와 같은 결과에 따라 단일국가 지향성을 견지하는 것( $r=0.36, p<0.01$ )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컨대, 단일국가 지향성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욕구로부터 기인

200)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p. 3; Shalom H. Schwartz,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pp. 5~8.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국가를 반대하는 태도의 경우, 규칙에 기반한 접근방식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은 반면( $r=-0.03$ ,  $p > 0.05$ ), 통일의 부정적인 결과에 따른 자신들의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r=-0.34$ ,  $p < 0.01$ ). 그러나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의존한 응답자 중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 민족 정체성은 행동을 결정하는 규칙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었으며 ( $r=-0.01$ ,  $p > 0.05$ ), 이들 응답자들은 전통적이지 않은 “자기-고양”적 가치인 “성취”에 대하여 가장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r=0.15$ ,  $p < 0.01$ ). 이와 같은 결과는 통일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양 진영이 통일에 대해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때 서로 다른 가치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가치가 통일에 대한 입장의 독립적인 예측변인이라는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가 통일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 사이에서 협상과 타협을 이루기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sup>201)</sup>

#### (10) 가치관은 유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나 토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과 관련된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단일국가 지향성”으로 명명한 입장과 분단 유

---

201) Scott Atran, Robert Axelrod and Richard Davis, “Sacred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Science*, vol. 317, no. 5841 (2007), pp. 1039~1040.

지에 긍정적인 “분단유지 지향성”으로 명명한 입장을 구분한 바 있다.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의존하는 것은 단일국가 지향성의 강한 예측변인이었으나, 분단지향성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단일국가 지향성:  $r=0.64$ ,  $p<0.01$ ; 분단유지 지향성:  $r=-0.01$ ,  $p>0.05$ ). 예를 들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단일국가 지향성을 보인 한국인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분단유지 지향성을 보인 참가자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0.09$ ,  $p<0.01$ ). 여기서 분단유지 지향성을 보인 응답자들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보다는 통일에 반대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했다. 이처럼 가치관의 차이는 담론이 행동에 대한 규칙에 관한 것인 경우 통일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토론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11) 가치관의 효과는 인구통계학적 차이와 무관하다.

통일에 대한 태도와 성/연령 차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202)</sup>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타협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의존하는 정도는 남녀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은 두 집단 모두에서 통일에 대한 입장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였다(남성:  $r=0.30$ ,  $p<0.01$ ; 여성:  $r=0.32$ ,

---

202) Kyle Christensen, Thomas Dolan, and Kimberly Gill,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Korean Unification,” *Faculty Bibliography*, 503 (2014), p. 6. ([https://csuepress.columbusstate.edu/bibliography\\_faculty/503](https://csuepress.columbusstate.edu/bibliography_faculty/503)). 본 보고서는 현재 online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표기는 본 논문의 저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Jiin Jung,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p. 34~39.

$p<0.01$ ).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한 의존성과 단순성에 대한 지각도 및 이해도 간의 상관관계는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상관관계 자체는 존재했다(남성:  $r=0.25, 0.17, p<0.01$ ; 여성:  $r=0.15, 0.12, p<0.01$ ). 한편, 이해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남성:  $r=0.17, p<0.01$ ; 여성:  $r=0.16, p<0.01$ ). 이와 같은 패턴은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과 관계 없이 대개 동일했다. 가끔 남성 응답자들 사이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이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점, 그리고 상기 태도와 가치관 사이의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과정은 성별에 관계 없이 다양한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연령대에 따른 구분(40세 이상 혹은 미만)은 비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더 강한 면을 보이기는 했으나, 전체적 경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두 집단 모두에서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은 통일에 찬성하는 집착적 태도의 예측변인으로 작동했다(40세 미만:  $r=0.26, p<0.01$ ; 40세 이상:  $r=0.34, p<0.01$ ). 연령대의 경우, 비타협적인 태도와 각각의 입장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념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40세 미만:  $r=0.60, 0.37, p<0.01$ ; 40세 이상:  $r=0.68, 0.54, p<0.01$ ).

규칙에 대한 의존성과 단순성에 대한 지각도 및 이해도 간의 상관관계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0세 미만:  $r=0.17, 0.14, p<0.01$ ; 40세 이상:  $r=0.24, 0.13, p<0.01$ ). 한편, 이해도는 40세 미만 연령대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했지만 두 연령대 모두에 있어 통일에 대한 태도에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40세 미만:

$r=0.12$ ,  $p<0.01$ ; 40세 이상:  $r=0.22$ ,  $p<0.01$ ). 성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패턴은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과 관계 없이 대개 동일했다. 40세 이상 연령대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는 것 역시 이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는 점, 그리고 상기 태도와 가치관 사이의 관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대한 의존과 정책에 대한 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이들 연령대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해주었다.

## 나. 정책적 함의

이 장에서 우리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의 복잡성과, 정책의 결과에 대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정립하는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우리가 올바른 행동에 대한 특정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이 통일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는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왜곡하고 건설적인 사회적 담론을 얼마나 저해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통일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우리와 다른 진영의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 (1) 무지를 인정하고 규칙적으로 정보를 체크하라.

개개인이 가진 지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이해한다면 토론에서 지적으로 겸손해질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종종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것은 필수적이다.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가치관에 의존할 때 나타나는 단순성과 이해도에 대한 착시현상이다. 이해에 대한 착시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정보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또한 혼자서도 충분히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 (2) 내 논지가 정보가 아닌 가치관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라.

가치관 및 그와 관련된 규칙이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묘한 차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언제 가치관이 분명한 증거로 위장하는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의존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이 양립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한 저항을 유도하려 할 때, 다시 말해 정책 결정에 있어 융통성 없는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이를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준다.

### (3) 논쟁에서 반대편의 가치관을 고려하고 최소한이라도 인정하라.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논쟁에서 이들 규칙에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런 측면을 논쟁전략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증거만 가지고서는 통일과 관련한 담론에서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논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같은 편에 속한 다른 사람들조차 자신의 가치관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을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이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정책에 대한 토론 과정을 보다 깊이 있고 융통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논쟁을 유도할 때 대안적 가치관을 고려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진다.

## 다. 결론

우리는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집착적 태도 혹은 초연한 태도로 범주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일국가 지향성은 통일 혹은 분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 분단유지 경향성은 이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 다소 무심한 태도를 반영한다. 한국인들이 이들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로 꼽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시 결과에 근거한 사고 혹은 가치관에 근거한 사고로 범주화될 수 있다. 가치관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규칙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통일에 찬성하는 다소 집착적 태도를 유발한다. 그러나 가치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며 이해도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보다 경직된 태도를 견지하게 만들며



희망적 관측을 조장한다. 이는 또한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사회적 담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 연구에 의거하여 정립되고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입증된 이와 같은 논증은 한반도 통일 논쟁에 있어 가치관에 근거한 프레임 대비 결과에 근거한 프레임 대립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켜 준다.

## 2. 갈등에 있어 집단 간 증오: 남북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Eran Halperin and Nimrod Nir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가. 서론

이미 수많은 이론과 경험적 조사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다양한 사회와 국가들 간에 장기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동인으로 밝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 갈등 지향적이며 집단에 기반한 정서의 핵심적 측면과 그 해결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학계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서에는 공포, 분노, 증오 등 집단에 기반한 다양한 감정이 포함된다. 증오는 과거에 수행된 연구를 통해 대립-유화 접근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고착화된 갈등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집단에 기반한 증오는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상기 개인 혹은 집단을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비난하는 이차적이고 극단적이며 지속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sup>203)</sup> 그 결과 외집단과 화해하거나 집단 간의 관계를 정상화

하려는 내집단 구성원의 의지를 약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에 집단 간 증오, 특히 사상 최초로 남북한 갈등의 맥락에서 증오가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와 같이 갈등과 연관이 있는 중대한 결과와 갈등에 대한 대립적 접근방식에 증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해당 맥락에서 증오 이전에 선행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증오를 매개 변인으로, 대립적 접근방식을 종속 변인으로 각각 사용하여 포괄적인 중재 모델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 수집한 1,000명의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증오가 정말로 대립적 접근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감정적 예측변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감정적 변인들과는 달리 이들 나머지 변인과 여타 관련 있는 요인을 초월하여 여전히 중요한 예측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연구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 (1) 지난 70년간 남북한 갈등을 유지하게 한 심리학적 기제는 무엇이었는가?

남북한 갈등은 세계에서 가장 고착화된 갈등 중 하나가 되었다. 중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모두 무위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며 그 결과 다양한 국가들, 그리고 지정학적 적대국 간의 전쟁 위협은 여전히 상존한다.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대개 국경이나 자원, 민족 간의 주도권 다툼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남북한 갈등의 당사자들은 민족, 언어, 역사에 있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

---

203) Susan Opatow and Sara I. McClelland, "The Intensification of Hating: A Theory," *Social Justice Research*, vol. 20, no. 1 (2007), pp. 68~97.

북한 간의 실질적인 국경은 지난 수십 년 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다양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된 위협, 실제적인 공포, 집단 간의 불신 등에 의해 지속된 지난 70년간의 갈등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으며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보다 잘 이해한다면 앞서 언급한 여러 장벽을 극복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집단 간의 화해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고착화된 갈등에서 감정적 사회심리학적 장벽의 역할, 특히 남북한 갈등에 있어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고착화된 갈등과 이러한 갈등을 지속시키는 사회심리학적 장벽을 간략하게 묘사한 후, 집단에 기반한 감정, 특히 집단에 기반한 증오가 갈등과 연관된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채택한 접근방식의 변인과의 합리성을 제시한 후 연구 결과와 그 의미를 기술할 계획이다.

## (2) 고착화된 갈등

고착화된 갈등이란, 양측 모두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없거나 상호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평화적 해결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집단 간 긴장의 극단적인 유형을 지칭한다.<sup>204)</sup> 이와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폭력적이고 장기적인 논쟁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물리적, 심리적 위

---

204) Edward E. Azar, “Protracted International Conflicts: Ten Propositions,” in *Conflict: Readings in Management and Resolution*, eds. John Burton and Frank Dukes (New York: Springer, 1990), pp. 145~155; Louis Kriesberg, “Changing Conflict Asymmetries Constructively,” *Dynamics of Asymmetric Conflict*, vol. 2, no. 1 (2009), pp. 4~22.

협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은 그들의 안녕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심리학적 구성개념, 편향, 태도 등을 채택하고 유지한다.<sup>205)</sup> 이와 같은 구성개념은 인지적, 감정적, 동기 부여적 과정을 통합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조장하는 융통성 없는 신념과 감정의 조합과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정보를 선택적이고 편향적이며 왜곡된 방식으로 처리하게 만드는데,<sup>206)</sup>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적인 논쟁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저해하는 정신적 장벽을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심리적 장벽은 정신적인 폐쇄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며, 그 결과 중재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든다.<sup>207)</sup> 요컨대, 고착화된 갈등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심리학적 도구들이 오히려 이와 같은 갈등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만다.

### (3) 갈등 해결을 가로막는 사회심리학적 장벽

고착화된 갈등을 겪는 사황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장벽이 존재한다. 일반적 세계관으로 불리는 첫 번째 장벽은 그 내용 상 갈등과는 무관하지만, 개인이 해당 갈등을 인지하거나 해석하고자 할 때 특정

---

205) Peter T. Coleman, "Characteristics of Protracted, Intractable Conflict: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etaframework-1,"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9, no. 1 (2003), pp. 1~37.

206)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Intergroup Conflicts Their Resolution: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ds.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p. 220.

207) Boaz Hameiri,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Challenges for Peacemakers: How to Overcome Socio-Psychological Barriers,"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Brain Sciences*, vol. 1, no. 1 (2014), pp. 164~171.

방향(지향성)이나 시각을 제시하는 관점 및 세계관을 지칭한다(예: 일반적 신념). 이들 일반적 세계관은 두 번째 장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두 번째 장벽에 반영된다.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신념이라고 지칭되는 두 번째 장벽은 대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념으로서 해당 갈등이 존재하는 동안 진화하면서 갈등을 영속화하고, 또한 갈등 내에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sup>208)</sup> 세 번째 장벽은 보편적 인지 동기적 편향이다.<sup>209)</sup> 세 번째 장벽은 실제 협상과정에서 핵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새로운 제안이나 정보가 대중적 담론 속으로 유입될 때 이들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호혜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저해한다. 끝으로 네 번째 장벽은 적대 세력을 향한 집단 간의 부정적 감정에 관한 것으로서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신념을 동결시켜 더욱 완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4) 고착화된 갈등에서의 사회심리학적 감정 장벽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고전적 관점에 따르면, 감정은 융통성 있는 일련의 응답으로서,<sup>210)</sup> 개인이 상황을 중요한 위기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할 때 예외 없이 소환된다.<sup>211)</sup> 다시 말해,

---

208) Roni Porat,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e Effect of Sociopsychological Barriers on the Processing of New Information About Peace Opportun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1 (2015), pp. 93~119.

209) Lee Ross and Andrew Ward, "Psychological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s. Mark P. Zanna (San Diego: Academic Press, 1995), pp. 255~304.

210) William James, "On Some Omissions of Introspective Psychology," *Mind*, vol. 9, no. 33 (1884), pp. 1~26.

211) John Tooby and Leda Cosmides, "The Past Explains the Present: Emotional Adaptations and the Structure of Ancestral Environments," *Ethology & Sociobiology*, vol. 11, no. 4-5 (1990), pp. 375~424.

감정은 객관적인 사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는 동기로 변  
환시킨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갈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 데 강력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212)</sup>

감정이 개인적 수준에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특히 집단 간 감정 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사람  
들이 그들의 집단을 대신하여 특정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sup>213)</sup> 또한 집단 구성원이라는 지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단 간 상황을 실제로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관련 상  
황에 대한 경험치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입장 혹은 처지와 일치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sup>214)</sup> 사회적 정체성  
및 자기 범주화 이론은 집단에 기반한 감정에 대한 최초의 연구 및  
이론화에 요구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sup>215)</sup> 이러한 접근방식은

---

212) Daniel Bar-Tal,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pp. 1430~1453; Eran Halperin,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Emotion Review*, vol. 6, no. 1 (2014), pp. 68~76; Eran Halperin, Smadar Cohen-Chen and Amit Goldenberg, "Indirect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s: A New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25, no. 1 (2014), pp. 1~31; Jordan B. Peterson and Joseph L. Flanders, "Complexity Management Theory: Motivation for Ideological Rigidity and Social Conflict," *Cortex*, vol. 38, no. 3 (2002), pp. 429~458; Ervin Staub, "Psychology and Morality in Genocide and Violent Conflict: Perpetrators, Passive Bystanders and Rescuer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Evil*, eds. Mario Mikulincer and Phillip R. Shav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pp. 381~398.

213) Diane M. Mackie, Thierry Devos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9, no. 4 (2000), pp. 602~616.

214) Eliot R. Smith, Charles R. Seger and Diane M. Mackie,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3 (2007), pp. 431~446.

215) Henri Tajfel and John C. Turner,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집단에 기반한 감정을 특정 사회 집단에서 개별 구성원의 지위에 의존적인 감정으로서 집단 전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규정한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갈등 지역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은 극단적인 공포, 분노, 절망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구성된 총체적 경험은, 종종 이들 감정을 집단의 특정 행위 혹은 행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외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 혹은 갈등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감정적 정서로 전환시킨다.<sup>216)</sup>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중재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일시적인 개인적 수준의 감정과 집단 간의 감정이 장기적인 정서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집단 간 감정 이론에 따르면 집단에 기반한, 분노, 죄책감, 심지어 절망과 같은 감정적 반응은 처음에는 집단에 대한 동일시에 좌우되고 두 번째로는 당면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성원 나름의 평가에 좌우된다.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집단과의 동일시가 강력하고 집단 간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경우, 집단에 기반한 감정은 종종 사회 전반에 걸쳐 지체 없이 공유된다. 그러므로, 원래 단기적인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촉발된 이와 같은 감정은 연관된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로 확산되고, 공포, 증오, 분노, 절망과 같은 장기적인 집단 정서로 전환한다.

사실,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조사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양한 사

---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s.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Monterey: Brooks/Cole, 1979), pp. 33~47; Bertjan Dooje et al.,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pp. 872~886.

216) Eran Halperin and James J. Gross, “Emotion Regulation in Violent Conflict: Reappraisal, Hope, and Support for Humanitarian Aid to the Opponent in Wartime,” *Cognition and Emotion*, vol. 25, no. 7 (2011), pp. 1228~1236.

회와 국가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동인으로 지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sup>217)</sup> 이와 같은 시도는, 이들 지향적 갈등, 즉 집단에 기반한 감정이 갈등의 핵심적 측면과 그 해결의 전망에 미치는 극적인 영향력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감정적 장벽은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태도를 형성하며,<sup>218)</sup> 특정 정책을 지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대한 편향을 강화한다.<sup>219)</sup> 감정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집단 구성원의 핵심적 자의식, 정체성, 심지어 삶 그 자체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되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간 폭력의 상황에서는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집단에 기반한 감정은 갈등의 해결이나 대립의 심화와 같은,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나 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격적이거나 중재적인 집단 간 정책에 이들 집단 간 감정이 미치는 영향은 이데올로기나 사회경제적 조건 등과 같은 여타 중요한 요인이 보유한 영향력을 초월한다.<sup>220)</sup>

---

217)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5 (2005), pp. 791~808; Eran Halperin,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pp. 68~76.

218) Miles Hewstone, Mark Rubin and Hazel Willis,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no. 1 (2002), pp. 575~604; Walter G. Stephan and Cookie White Stephan,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1, no. 3 (1985), pp. 157~175.

219) Shana Cole, Emily Balcetis and David Dunning, "Affective Signals of Threat Increase Perceived Proximity,"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1 (2013), pp. 34~40.

220) Eran Halperin et al., "Anger, Hatred, and the Quest for Peace: Anger Can Be Constructive in the Absence of Hatr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2 (2011), pp. 274~291;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p. 791~808.



## (5) 고착화된 갈등에 있어 증오의 역할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증오의 감정이다. 증오는, 외집단은 본질적으로 비가역적인 악이라는 판단의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증오에 장악 당한 개인은 집단 간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타협도 단호하게 거부한다. 증오에 대한 고전적, 현대적 개념정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로이즈먼(Royzman)과 동료 연구자들은 인간 본성의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정서적 현상으로 정의했다.<sup>221)</sup> 증오는 집단 간 관계에서 폭력적인 영향을 미칠 때 특히 파괴적이다. 우리는 외집단에 대한 증오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상기 집단을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비난하는 이차적이고 극단적이며 지속적인 감정으로 정의한다. 외집단에 대한 증오는 외집단 구성원과 내집단 구성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결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을 거부하는 광범위한 인지적 스펙트럼을 구성한다. 집단적인 증오의 정서적 측면은 이차적이며 따라서 분노, 증오, 그리고 외집단 구성원을 향한 강력한 부정적 감정과 함께 불쾌한 신체적 증상 등을 불러 일으킨다.<sup>222)</sup> 또한 증오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을 박멸하려는 욕구를 유발하여 부적인 행동을 강화한다.<sup>223)</sup>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집단 간 갈등(예: 이스라엘-팔레스

---

221) Edward B. Royzman, Clark McCauley and Paul Rozin, "From Plato to Putnam: Four Ways to Think About Hate," in *The Psychology of Hate*, eds. Robert J. Sternber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pp. 4~9.

222) Robert J. Sternberg, "A Duplex Theory of Hat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Terrorism, Massacres, and Genocid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7, no. 3 (2003), pp. 299~328.

223) Rob White and Santina Perrone, "Racism, Ethnicity and Hate Crime," *Communal/Plural: Journal of Transnational Cross-Cultural Studies*, vol. 9, no. 2 (2001), pp. 161~181.

타인 갈등)의 상황에서 증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키며,<sup>224)</sup> 이들이 외집단을 겨냥한 공격적인 행위에 착수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만든다.<sup>225)</sup> 아울러 증오는 대중들이 학살이나 전쟁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sup>226)</sup> 따라서 모든 형태의 증오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물리적 혹은 사회적으로 제거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포는 도전의 경향보다는 도피의 경향을 초래하고 분노는 파괴적 교정보다는 건설적 교정을 유도하는 반면,<sup>227)</sup> 증오는 언제나 파괴적 행위를 부추기는 경향을 보인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특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외집단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혹은 개선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부질없으며, 그러므로 보다 극단적인 반응만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낳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동에서 협상 기간 중 단기적인 증오의 사례를 경험했던 개인들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고 제거하려는 감정적 목표를 표현했으며, 마찬가지로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한편(즉,

---

224)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p. 791~808;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 Studying Emotional Processes within a Unique Context," *Political Psychology*, vol. 36, no. 1 (2015), pp. 119~150.

225) Eran Halperin, "Emotional Barriers to Peace: Emotions and Public Opinion of Jewish Israelis About the Peace Process in the Middle Eas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7, no. 1 (2011), pp. 22~45.

226) Robert J. Sternberg, "A Duplex Theory of Hat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Terrorism, Massacres, and Genocide," pp. 299~328.

227) Agneta H. Fischer and Ira J. Roseman, "Beat Them or Ban Them: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Anger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1 (2007), pp. 103~115; Michal Reifen Tagar, Christopher M. Federico and Eran Halperin, "The Positive Effect of Negative Emotions in Protracted Conflict: The Case of Ang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7, no. 1 (2011), pp. 157~164.

개방성의 부족), 지속적인 교섭, 타협, 중재 노력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sup>228)</sup>

결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 간 갈등은 각각의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심리적인 장벽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갈등에 대한 해결을 저해한다. 이들 장벽(특히 감정 집단의 장벽) 중에서 증오는 갈등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할 해결책을 저해하는 데 가장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증오의 선행 변인과 갈등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증오의 영향력을 보다 잘 이해한다면 고착화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유효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개입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심층 분석

증오는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감정이며 외집단에게 가능한 많은 피해를 가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을 제거하려는 욕구를 추동하는 한편,<sup>229)</sup> 갈등이 진행중인 외집단의 관점에 대한 내집단 구성원들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외집단과의 화해와 집단 간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약화시킨다.<sup>230)</sup>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서 집단에 기반한 특정한 부정적 감정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한 다양한 질문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질문에는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선행 변

---

228) Eran Halperin, "Group-Based Hatred in Intractable Conflict in Isra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5 (2008), pp. 713~736; Eran Halperin, "Emotional Barriers to Peace: Emotions and Public Opinion of Jewish Israelis About the Peace Process in the Middle East," pp. 22~45.

229) Eran Halperin, "Group-Based Hatred in Intractable Conflict in Israel," pp. 713~736.

230) Agneta H. Fischer and Ira J. Roseman, "Beat Them or Ban Them: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Anger and Contempt," pp. 103~115.

인과 증오가 갈등과 관련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증오와 여타 핵심 변인 간의 상호작용, 고착화된 갈등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맥락에서 과거의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갈등에서 증오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신선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이다.

첫째, 증오와 같은 집단에 기반한 감정의 역할이 남북한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갈등이 고유한 특징과 함께 문화적 영향 및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집단에 기반한 감정의 맥락적 범위를 확대한다면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의 감정의 효과와 영향, 심지어 해결 지향적인 개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북한 갈등의 고유한 특징은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증오와 집단에 기반한 감정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한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집단에 기반한 감정은 내집단의 정체성으로부터 파생되는데,<sup>231)</sup> 특히 내집단이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혹은 여타 “명백한” 특징에 기반할 때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집단에 기반한 증오는 외집단을 본질적으로 비가역적인 악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남북한 갈등의 두 당사자들은 민족, 문화, 언어, 역사에 있어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집단 형성이 “엄연한” 특징이 아니라 물리적인 분단에 기반하는(따라서 집단 간의 차별화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에 기반한 감정은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방식과 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약화된 집단 간의 차별화 상황에서 어떤 변인이 집단에 기반한 증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는 남북한 갈등의 맥락에서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

231) Diane M. Mackie, Thierry Devos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pp. 602~616.

역할, 영향,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질문과 더 많은 다른 질문에 해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남북한 갈등의 맥락인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집단 간 증오의 기저를 이루는 변인과 기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응답자의 성격과 특징의 상이한 측면과 연관이 있는 인구통계학, 성격, 집단과 연관된 인식, 갈등 지향적인 신념 등의 부문에서 총 네 가지 주요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증오와 관련된 선행 변인의 완벽한 목록은 아니지만 상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장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변인들이다.

## (1) 연령

최신 연구를 통해 나이는 화해 혹은 대립 등과 같은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과 연관된, 이데올로기 같은 다양한 변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sup>232)</sup> 갈등의 정치적 사회화는 청년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갈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은 더욱 완고할 가능성이 높다.<sup>233)</sup> 따라서 우리는 집단의 범주화가 집단의 물리적 특징보다는 역사 및 정치에 기반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분단 이전의 한반도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 응답자와(냉전 중 태어난) 청년층 응답자 사이에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강도가 다를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

232) Yuval Piurko, Shalom H. Schwartz and Eldad Davidov,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Political Psychology*, vol. 32, no. 4 (2011), pp. 537~561.

233) Daniel Bar-Tal, Aurel Harrison Diamond and Meytal Nasie, "Political Socialization of Young Children in Intractable Conflicts: Conception and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41, no. 3 (2017), pp. 415~425.

## (2) 내집단 정체성과 외집단 유사성

집단에 기반한 증오는 관련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자기 범주화와 자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 간의 차이에 근거한다.<sup>234)</sup> 그러므로 우리는 내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동일시 정도가 그들의 집단에 기반한 증오에 대한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정하였다.<sup>235)</sup> 아울러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외집단과 그들 간의 유사성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두 집단이 공유하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이 외집단에 대한 증오의 강도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sup>236)</sup> 따라서 우리는 구성원의 내집단 정체성과 집단 간 유사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 간의 차이(즉, 응답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정의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또한 자신을 북한 외집단과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인식하는 강도가 낮을수록)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3) 제로섬 게임

갈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신념 중 하나(집단 간 화해를 가로막는 네 가지 사회심리학적 기준 중 하나)는 갈등을 “제로섬 게임,” 즉 한 집단의 이익은 상대편 집단의 손실이라고 보는 인식이다. 외집단의 성취를 내집단의 피해로 보는 이와 같은 신념은 타협에 대한 의지를

---

234) Thomas Kessler and Susan Hollbach, “Group-Based Emotions as Determinants of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1, no. 6 (2005), pp. 677~685.

235) Marilynn B. Brewer,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5, no. 3 (1999), pp. 429~444.

236) Richard J. Crisp and Sarah R. Beck,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Moderating Role of Ingroup Identific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8, no. 2 (2005), pp. 173~185.

약화시키며 갈등의 본질에 대한 강고한 접근방식을 조장한다. 감정적 장벽은 갈등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의 영향을 받고,<sup>237)</sup> 동시에 그 기반으로 작용하므로 우리는 응답자가 갈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강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북한 주민에 대하여, 집단에 기반한 더 강력한 증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성격 변인인 우익 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이하 RWA)를 포함하기로 했다. RWA란 사회적 관례 및 규범을 고수하고 이와 같은 관례 및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가혹한 태도를 유지하는 성격 유형으로서 이와 같은 성격 유형을 가진 개인은 확실성을 높이 평가하고 확실성을 달성하기 위해 강압 등을 포함한 집단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sup>238)</sup> 다양한 연구를 통해 RWA와 갈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신념, 그리고 행위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239)</sup> 예를 들어, 최근 수행된 한 연구는 RWA가 외집단에 대한 낮은 공감 및 신뢰를, 반면에 외집단에 대한 보다 큰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240)</sup>

우리는 증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선행 변인을 평가하고,

237) 예를 들어 공포 정서의 효과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Daniel Bar-Tal, "Why Does Fear Override Hope in Societies Engulfed by Intractable Conflict, as It Does in the Israeli Society?," *Political Psychology*, vol. 22, no. 3 (2001), pp. 601~627.

238) Bernard E. Whitley Jr,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1 (1999), pp. 126~134.

239) Christopher J. Cohrs et al., "Effects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Threat from Terrorism on Restriction of Civil Liberties," *Analyses of Social Issues Public Policy*, vol. 5, no. 1 (2005), pp. 263~276.

240) Jasper Van Assche and Dries Bostyn, "Intergroup Reconciliation between Flemings and Walloons: The Predictive Value of Cognitive Style, Authoritarian Ideology, and Intergroup Emotions," *Psychologica Belgica*, vol. 57, no. 3 (2017), pp. 132~155.

이들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증오를 매개 변인으로, 갈등에 대한 정책의 선호도를 종속 변인으로 각각 사용하여 포괄적인 중재 모델을 평가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증오가 갈등과 관련된 정책, 즉 북한에 대한 협력 정책 및 호전적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 (4) 기초 통계

먼저 8개 문항으로 RWA 수준(평균=4.77, 표준편차=0.98,  $\alpha=.807$ ),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강도(평균=6.16, 표준편차=1.5,  $\alpha=.9$ ),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서 한민족이 공유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평균=5.66, 표준편차=1.5,  $\alpha=.84$ ),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서 갈등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신념의 정도를 각각 평가하였다(평균=3.47, 표준편차=1.1,  $\alpha=.89$ ).

남북한 주민들은 민족, 언어, 역사 등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해서 북한 주민과의 정체성 공유가 반드시 약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유와 함께 통계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응답자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념 사이의 괴리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민감한 변인을 구성하였다([한국인으로서의 약한 정체성과 공통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높은 인식] -2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과 공통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낮은 인식] 7.75점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수준 및 북한 주민을 한국과 공통된 민족적 정체성 공유한다는 인식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됨: MIDgap=3.57, SDIDgap=1.31).



이어 응답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집단에 기반한 감정의 수준을 평가하게 했는데 각 항목을 통해(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 증오를 포함한 이들 감정의 강도를 측정하였다(평균=3.57, 표준편차=1.31).

끝으로,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과 활동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묻는(1-6점을 부여할 수 있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포함한 다수의 설문을 통해 갈등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평가하였고,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호전적 정책"에 동의하는지(평균=5.24, 표준편차=1.9,  $\alpha=.84$ ), 다른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협력적 정책"에 동의하는지를 각각 평가하였다(평균=6.27, 표준편차=1.6,  $\alpha=.88$ ).

## (5) 결과

양측 유의성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에서 변인들 간의 중요한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연령은 정체성 괴리(노년층 응답자들은 청년층 응답자들에 비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꼈으며 집단 간 공유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신념은 낮았다), RWA 수준(노년층 응답자들은 청년층 응답자들에 비해 RWA 점수가 더 높았다),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과 같은 변인에 대하여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 간 공유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하 정체성 괴리)는 연령,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 RWA 수준,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과 같은 변인에 대하여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WA는 연령, 정체성 괴리,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과 같은 변인에 대하여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은 정체성 괴리, RWA 수준, 북한에 대

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과 같은 변인에 대하여 양(+)<sup>1</sup>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한 협력정책의 지지에 대하여는 음(-)<sup>2</sup>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증오는 응답자들의 연령대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집단 간 공유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신념,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신념, RWA의 수준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산술평균, SD, 계측된 변인 간의 영차零次 상관관계는 <표 IV-2> 참조). 증오는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과 높은 양(+)<sup>3</sup>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한 화해, 협력의 접근방식과는 음(-)<sup>4</sup>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IV-2> 계측된 변인 간의 산술평균, SD, 영차 상관관계

|           | 평균   | 표준편차 | 1      | 2     | 3     | 4      | 5     | 6      | 7     |
|-----------|------|------|--------|-------|-------|--------|-------|--------|-------|
| 1. 증오     | 3.57 | 1.31 | -      |       |       |        |       |        |       |
| 2. 연령     | 4.6  | 13.7 | .22**  |       |       |        |       |        |       |
| 3. 정체성 괴리 | 3.57 | 1.31 | .21**  | .20** |       |        |       |        |       |
| 4. 제로섬 게임 | 3.47 | 1.1  | .47**  | -.02  | .17** | (.89)  |       |        |       |
| 5. RWA    | 4.77 | 0.98 | .25**  | .35** | .21** | .19**  | (.80) |        |       |
| 6. 호전적 정책 | 5.24 | 1.9  | .44**  | .19** | .22** | .55**  | .29** | (.84)  |       |
| 7. 협력적 정책 | 6.27 | 1.6  | -.31** | .05   | -.03  | -.49** | .03   | -.33** | (.88) |

\* $p < .01$ , \*\* $p < .001$

### (가) 회귀분석

증오가 호전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여타 감정의 영향력, 우리의 독립 변인, 응답자의 이데올로기 등을 초월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5개의 주요한 집단에 기반한 부정적 감정(즉, 과거 연구에서 핵심적인 집단에 기반한 감정으로 정립된 분노, 증오, 절망, 공포, 불안)을 이용하여, 우리의 우세 변인과 이

데올로기를 독립 변인으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종속 변인으로 두고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증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지며 ( $b=.65$ ,  $SE=.04$ ,  $t=15.6$ ,  $p<.001$ ), 증오가 호전적 정책을 예측하는데 있어 나머지 변인들이 포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독보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 $b=.23$ ,  $SE=.06$ ,  $t=3.77$ ,  $p<.001$ )이 밝혀졌다. <표 IV-3>를 통해 집단에 기반한 증오는 그 예측적 유의성의 강도가 여타 감정 및 연관 관계를 보이는 변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유일한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을 예측하는데 있어 증오의 독보적 기여도는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 바로 다음이었다(응답자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높았다).

<표 IV-3>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감정 및 선행 변인의 영향

|         | 북한에 대한 호전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 |      |       |
|---------|-----------------------|------|-------|
|         | b                     | SE B | B     |
| 정체성 괴리  | .06                   | .04  | .08*  |
| 제로섬 게임  | .42                   | .05  | .73** |
| RWA     | .11                   | .05  | .21** |
| 공포      | -.01                  | .05  | -.02  |
| 분노      | .06                   | .06  | -.09  |
| 증오      | .16                   | .06  | .23** |
| 불안      | .001                  | .06  | .002  |
| 절망      | -.04                  | .06  | -.06  |
| 연령      | .11                   | .004 | .02** |
| 이데올로기범위 | -.09                  | .07  | -.22* |

\* $p < .01$ , \*\* $p < .001$

두 번째 다중 회귀분석은 협력적 정책을 종속 변인으로, 동일한 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분석을 통해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 RWA 수준, 응답자의 이데올로기, 증오 등이 우리의 여타 변인을 초월하여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호전적 정책의 경우와는 반대로, 두 번째 분석에서는 연령과 정체성 괴리는 협력적 정책에 대한 예측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을 예측하는 데 있어 불안의 독보적 기여도는 <표 IV-4>에서와 같이 유의미했다.

### (나) 매개적 분석

우리가 제시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프로세스(모델 4)를 사용하여 매개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 RWA 수준,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 간 민족적 정체성 간의 괴리 등 이들 모두가 독립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증오가 매개 변인으로, 군사행위에 대한 지지가 성과 변인으로 각각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독립 변인은 응답자의 외집단에 대한 증오의 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년층 응답자( $b=.154$ ,  $SE=.26$ ,  $t=5.79$ ,  $p<.001$ )의 경우 RWA 수준이 높고( $b=.11$ ,  $SE=.03$ ,  $t=2.93$ ,  $p<.01$ ),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도 강했으며( $b=.51$ ,  $SE=.03$ ,  $t=15.6$ ,  $p<.001$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 간 공유되는 민족적 정체성 간의 괴리도 컸다( $b=0.7$ ,  $SE=.02$ ,  $t=2.8$ ,  $p<.01$ ). 요컨대, 그들은 외집단인 북한 주민에 대하여 더 큰 증오를 보였다. 한편, 증오는 상기 모델에 포함된 다른 독립 변인에 비해( $b=13$ ,  $SE=.03$ ,  $t=3.5$ ,  $p<.001$ ) 북한에 대한 군사행위에 대한 지지를 보다 현저하게 높이는 역할을 했다( $b=.17$ ,  $SE=.03$ ,  $t=4.6$ ,  $p<.001$ ).

〈표 IV-4〉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감정 및 선행 변인의 영향

|          |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 |      |         |
|----------|-----------------------|------|---------|
|          | b                     | SE B | B       |
| 정체성 괴리   | .045                  | .031 | .050    |
| 제로섬 게임   | -.421                 | .046 | -.612** |
| RWA      | .137                  | .048 | .225**  |
| 공포       | -.052                 | .049 | -.072   |
| 분노       | .067                  | .056 | .088    |
| 증오       | -.217                 | .054 | -.268** |
| 불안       | .118                  | .051 | .167*   |
| 절망       | .016                  | .049 | .021    |
| 연령       | .036                  | .003 | .004    |
| 이데올로기 범위 | .178                  | .061 | .388**  |

\* $p < .01$ , \*\* $p < .001$

증오가 외집단의 협력적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로섬 게임과 RWA 수준을 독립 변인으로, 증오를 매개 변인으로, 협력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나이와 정체성 괴리는 회귀 분석에서 협력적 정책의 선호도에 대한 예측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모델에서는 제외되었다) 두 번째 매개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독립 변인은 응답자의 외집단 증오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높은 RWA 수준( $b=.22$ ,  $SE=.03$ ,  $t=5.76$ ,  $p<.001$ )과 제로섬 게임에 대한 강력한 신념( $b=.51$ ,  $SE=.03$ ,  $t=15.46$ ,  $p<.001$ )은 강한 외집단 증오를 예측했는데, 이는 반대로 상기 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인을 초월하여( $b=-.16$ ,  $SE=.04$ ,  $t=-4.16$ ,  $p<.001$ )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에 대한 현저히 낮은 지지로 이어졌다.

## 다. 소결

본 연구의 목표는 집단에 기반한 감정, 특히 남북한 갈등에서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 갈등의 문맥 속에서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선행 변인과 증오가 핵심적인 갈등과 연관된 정책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가설에서 제시된 것처럼, 증오는 북한에 대한 호전적인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같은 영향력은 여타 연관된 변인과 집단에 기반한 감정을 초월한다. 증오는 외집단을 대상으로 한 협력적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강력하고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응답자의 나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 간 공유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신념 사이의 괴리, RWA 수준,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신념 등, 4개의 지배적 변인이 집단에 기반한 증오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한 것과는 달리, 나이는 집단에 기반한 증오와 음(-)이 아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의 이론적 근거 및 과거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으로 청년층 응답자들이 더 우파적이며 갈등에 대해서도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최근 수십 년 간 남북한 갈등이 보여준 “냉전적” 성격으로 인해 청년층은 이전 세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해야 했던 한국전쟁, 다양한 군사적 갈등 및 인권 위기와 같은 외상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따라서 한국의 청년층이 경험한 갈등의 실체는 노년층에 비해 덜 격심하고 덜 폭력적이며 덜 위협적일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것이 노년층이 더 강력한 외집단 증오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설명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연구 결과는 다양한 이론적,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연구 결과는 감정적 사회심리학적 장벽이 고착화된 갈등에 미치는 단호한 영향력, 즉 그 결과 이와 같은 장벽이 실제적인 의견 불일치보다 갈등의 유지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증오와 같은 집단에 기반한 감정의 역할이 남북한 갈등의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평가되었다. 오늘날 전세계에 산재한 고착화된 갈등 중 대부분은 언어, 문화, 민족,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열된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반면, 한반도의 경우 적대적인 집단 간의 차이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 기반한 감정은 어떻게든 발현하며 그 결과 외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와 행위를 강력하게 완화시킨다. 갈등과 관련된 극적인 정책 선호도(호전적 정책에 대한 지지 대비 협력적 정책에 대한 지지)에서 여타 갈등과 관련된 그 어떤 변인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증오가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집단에 기반한 증오를 해소하는 것이 화해로 가는 길을 구축하는 데(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요점일 수도 있는데, 갈등이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배후에 존재하는 심리학적 기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그런 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집단에 기반한 증오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과 선행 변인을 추적하였다. 집단에 기반한 증오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네 가지 변인으로 응답자의 연령, 갈등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신념, RWA 수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 간 공유되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신념 등이 파악되었다.

지배적인 이들 변인은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이 폭력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능한 개입 방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의 민족적 동질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 역시 한 국가가 지출하는 국방비의 규모나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sup>241)</sup>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수년 간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 집단에 기반한 감정을 평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감정들이 갈등과 연관된 다양한 태도나 정책, 행동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파악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이 상당수 도출되었다. 집단에 기반한 증오와 같은 집단에 기반한 감정은 남북한의 갈등과 같이 적대적 집단이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를 공유하는 경우에서조차 고착화된 갈등을 존속, 악화, 해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행 연구를 통해 남북한 갈등에서 집단에 기반한 증오의 역할이 고찰되었으며, 그 결과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쌍방이 화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선행 변인이 파악되었다. 증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타 변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집단에 기반한 증오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심리학적 개입에 대한 후행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착화된 갈등을 해소하고

---

241) Joanna Różycka-Tran et al., "A Warrior Society: Data from 30 Countries Show That Belief in a Zero-Sum Game Is Related to Military Expenditure and Low Civil Liberties," *Frontiers in psychology*, vol. 9 (2018), p. 2645.



평화적인 해결책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21개 감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증오가 군사적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와 관련성 있는 나머지 변인들과도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감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V. 결론

박주화 (통일연구원)





본 연구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이중성(duality)의 마음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하였다. 비핵화, 남북협력, 평화협상, 제재 등을 둘러싼 남·북·미의 줄다리기를 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의 마음 갈등을 종식하는 평화조성(peace making)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적 맥락이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70년 분단의 적대적 갈등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 즉 평화의 수사학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이중적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갈등 속에서의 마음과 평화조성의 마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착화된 갈등 이론의 틀에서 갈등의 마음을 고찰하고 화해 이론의 틀에서 평화조성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분단된 한반도가 고착화된 갈등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단이 ① 대규모 살육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였고, ② 전쟁으로 굳어진 분단은 70년 이상 장기화되었고, ③ 분단으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상대를 타자화(심지어 적대시)하는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④ 남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식으로 접근하며 사회적 갈등을 재생산하고 거기에 분단 상황을 활용해왔다. 결국 분단은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동시에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분단의 심리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장애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분단의 심리, 고착화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정”이 아닌 “공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착화된 갈등 사회의 정치·사회적 제도와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 기제는 생존을 위한 적응의 산물이며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맥락에서 본

다면 갈등의 문화와 심리의 전환은 70여 년 동안 자신과 우리 사회를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있던 핵심적 기제의 변경이다. 장기간 생존의 기제로서 정당성을 인정했던, 그리고 그 정당성으로 개인적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변화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분단과 같은 고착화된 갈등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전환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화해이다. 하지만 화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화해의 과정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화해에 접근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해의 정의와 과정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화해의 목표, 화해의 순서, 화해의 요소 등 한반도 화해의 다양한 쟁점에 있어 해외 사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화해를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화해가 정의를 제안하였다. 한반도의 화해를 남북의 신뢰, 우정, 진실, 세계관 등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상태와 과정을 목표로 제시하는 최대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는, 그래서 오히려 화해의 장애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착화된 갈등의 정도가 깊은 한반도의 경우 ‘북한과 협력을 기초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최소주의적 접근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화해를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접근으로 제시하였다.

고착화된 갈등이론과 화해이론을 중심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는 우리 국민분단의 마음과 화해의 마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간 전쟁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평화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전쟁에 대한 부정

적 태도와 평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우리 국민이 큰 틀에서 화해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은 갈등과 화해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군사력을 이용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는 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이었다,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고착화된 갈등의 심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를 제로점으로 보고 있었으며, 분단의 역사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경쟁적 피해자 인식도 높은 수준이었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월하며 남한의 대의와 목표가 북한에 비해 더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우세하며 북한에 맞서 다양성보다는 일치와 단결,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은 열정, 희망, 즐거움, 낙관적, 사랑을 남한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사람들은 고통, 암담함, 두려움, 괴로움, 분노의 특질을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았으며 남북갈등의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시에 우리 국민은 화해를 위한 지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았으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의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의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국민이 비율이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율보다 높았다. 북한을 용서할 의향도 평균 이상이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우리 국민의 갈등지향적 마음과 화해지향적 마음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분단과 화

해에 관한 심리의 연령 차이가 단순하게 소위 20대의 보수화로 대변되는 U형 패턴 문제로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관찰되었으며 이슈에 따라 이러한 선호는 역전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연령차이는 전형적인 U형 패턴을 따른다. 20대와 60대의 제로섬 인식이 가장 강했고 40대의 제로섬 인식과 가장 낮았다. 반면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경쟁적 희생자 인식은 연령대만으로 보면 U형 패턴을 따른다. 하지만 연령을 다시 성별로 구분하는 경우 20대 여성은 40대 남성과 더불어 경쟁적 희생자 의식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지만 20대 남성은 경쟁적 희생자 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도 전통적인 U형 패턴과 상반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는 어느 한 방향으로 지배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북통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남녀 공히 젊은 층에서 낮았지만 특히 20~30대 여성층에서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남북관계의 희망, 북한에 대한 신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 등에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흥미로운 결과는 분단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응답이었다. 분단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에서 20~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분단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0~30대의 응답은 20~30대의 북한과 화해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의 응답을 설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분단의 폭력성에 대한 20~30대의 무감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가능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심층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



요한 결과는 분단의 심리와 평화의 심리가 가치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별, 연령, 정치적 태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더불어 우익권위주의, 사회지배성향, 미래지향성, 개인의 주관적 안녕, 가치지향성, 민족정체성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태도,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의 심리를 극복하고 화해의 심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북한문제, 북핵문제, 대북·통일정책에만 한정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이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의와 평등, 포용의 가치와 결합될 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분석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고착화된 갈등이론이 제시하였듯이 북한에 대한 정서는 분단의 심리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정서를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북한에 대한 20개의 정서적 반응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 크게 3가지 정서-배타심, 우호감, 동정심-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타심은 ‘분노하는’, ‘화가 나는’, ‘증오스러운’, ‘두려운’, ‘무서운’, ‘불안한’, ‘수상한’, ‘긴장하는’, ‘절망스러운’, ‘성가신’, ‘걱정스러운’의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고, 우호감은 ‘즐거운’, ‘행복한’, ‘정겨운’을 포함하며, 동정심은 ‘슬픈’, ‘연민’을 포함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세 차원의 정서가 분단의 심리와 화해의 심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층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분단의 심리, 갈등의 심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다. 전쟁을 겪은 후 생존을 위해 70여 년에 걸쳐 진화해왔던 갈등과 분단의 심리에 대한 공감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

어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로 국민들의 위협인식이 높은 수준인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갈등의 심리가 발현되는 원천이며 70년 동안 공고화되었던 빙산과 같은 심리이다. 선행연구는 강력하게 결빙되어 있는 갈등의 심리를 소위 ‘깨어버리는’ 접근보다는 정서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녹여 나가는’ 접근이 더 유용하다고 조언한다. 구체적으로 평화활동가에게 주는 White의 조언은 음미해 볼만 한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42)</sup>

- (1) 군사력에 의한 억지(deterrence)를 부정하지 마라.
- (2) 적절한 수준의 군사력 보유 필요성을 부정하지 마라.
- (3)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마라
- (4) 매파가 전쟁의 끔찍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조심하라. 매파들도 당신만큼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라. 때로는 독선적인 평화운동에 대한 비판이 적절할 수도 있다.
- (5) 현실적(realistic), 실용적(practical)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저하지 마라.
- (6) 현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의 파괴적 결과를 제시하라.
- (7) 희망적 목표보다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라. 희망적 목표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White의 조언은 1980년대 미소갈등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갈등맥락과 완벽하게 조응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맥락, 즉 한반도 분단의 심리의 맥락에서 필요한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242) Ralph K. White, "Specifics in a Positive Approach to Pea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4, no. 2 (1988), pp. 193~196.

분단의 심리를 인정하는 접근은 변화를 거부하는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접근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가 제안한 대로 ‘북한과 협력을 기초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한반도의 화해라고 한다면 평화로운 관계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접근인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접근은 현상유지형 접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북의 협력과 화해를 촉진하는 적극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화해에 대한 적극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에 대한 경험의 빈도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경험의 기회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적인 정책과제는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간접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등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맥락의 변화는 평화의 마음, 평화 문화로 대표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요조건이다. 사회적 맥락의 변화는 우리 사회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회적·심리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변화가 사회적·심리적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사회적·심리적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맥락의 변화가 경험의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맥락의 변화는 특히 물리적으로는 가장 근접한 곳이었지만 방문도 경험도 할 수 없었던 북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북 경험의 진전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사회적·심리적 변화의 상호작용 고리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간접 경험은 일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나온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단의 심리, 분단의 집합적 기억, 사회적 신념, 정서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에 대한 악마화, 남한의 희생자 인식,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함에 자동적으로 개입되며, 결과적으로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편향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확증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더욱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민의 약 75%는 지상파 TV(60.9%), 종편 TV(11.2%), 케이블 TV(4.2%)등의 TV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북한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은 약 18%정도이다.<sup>243)</sup> 먼저 우리 국민의 정보획득의 쏠림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언론, 특히 TV 매체가 어떻게 북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3/4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북한 정보를 탐색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북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보의 출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북한정보생태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 정보의 객관성,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 스스로 북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동의 보도원칙 등에 대한 합의 등 평화저널리즘에 대한 논의

243) 이상신 외,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저자로부터 data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상기 보고서는 2020년 초 발간 예정으로 정확한 페이지는 출판 후 확정되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

가 시급하다.

전술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교차 검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가짜뉴스에 취약함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국민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 국민의 59%는 가짜뉴스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Youtube)에서 생산, 전파되는 정치적 극단주의적 뉴스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38%가 유튜브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기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22%만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에서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의 위험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sup>244)</sup> 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순히 악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정보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확장된다. 우리 국민의 약 76%는 ‘가짜 뉴스로 인해 진짜 뉴스를 볼 때에도 가짜인지를 의심한다’고 응답하였다.<sup>245)</sup>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가짜뉴스를 확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정보채널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을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정보센터와 북한정보포털은 북한원전과 학술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정보의 시의성과 접근성,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244) Nic Newman et al., *Digital News Report 2019* (Oxfor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9), p. 114.

245) “가짜뉴스, 진짜 뉴스까지 의심케 해,” 『미디어스』, 2017.3.29.,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752>> (검색일: 2019.6.24.).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병로·서보혁. 『분단 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파주: 아카넷, 2016.
- 김연철. 『협상의 전략: 세계를 바꾼 협상의 힘』. 서울: 휴머니스트,  
2006.
- 박주화·김갑식·이민규·최훈석·박형인·현인해·권영미. 『평화의 심  
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 1998.  
\_\_\_\_\_. 『2013년 체제 만들기』. 서울: 창작과 비평, 2012.
- 엘리자베스 콜 엮음. 김원중 옮김.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 아픈 과  
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이상신·이금순·홍석훈·윤광일·구본상·Joshua D. Kertzer.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서울: 통일  
연구원, 2018.
- 장원석. 『진실과 화해의 정치』. 서울: 온누리디앤피, 2018.
- 존 폴 레더라크 지음. 김동진 옮김.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하여)』. 서울: 후마니타스, 2012.
- 통일교육원. 『2018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서울: 통일교육원,  
2018.

- Asmal, Kader, Louise Asmal, and Ronald Suresh Roberts. *Reconciliation through Truth: A Reckoning of Apartheid's Criminal Governance*. Cape Town: David Philip, 1997.
- Bloomfield, David. *On Good Terms: Clarifying Reconciliation*. Berlin: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ve Conflict Management, 2006.
- Burton, John Wear. *Resolving Deep-Rooted Conflict: A Handbook*.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dward Miller.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1954.
- Lederach, John Paul. *The Journey toward Reconciliation*.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9.
- Long, William J., and Peter Brecke. *War and Reconciliation: Reason and Emotion in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M.A.: MIT Press, 2003.
- Newman, Nic, Richard Fletcher, Antonis Kalogeropoulos, and Rasmus Kleis Nielsen. *Digital News Report 2019*. Oxford: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9.
- Ramsbotham, Oliver, Hugh Miall, and Tom Woodhouse.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1.
- Sloman, Steven, and Philip Fernbach. *The Knowledge Illusion: Why We Never Think Alone*. New York: Penguin Random House, 2017.
- White, Ralph K. *Fearful Warriors: A Psychological Profile of Us-Soviet Relations*. New York: Free Press, 1984.



## 2. 논문

- 강혜자·한덕웅. “자기차이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0권 3호, 2005.
- 강수영. “정치적 자기효능감 척도(Pses) 제작 및 타당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3호, 2013.
- 김금미.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3호, 2011.
- 김연신·최한나.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1호, 2009.
- 김학성. “증오와 화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1권 1호, 2011.
- 김혜숙.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7권 1호, 1993.
- \_\_\_\_\_.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1호, 1999.
- \_\_\_\_\_.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 박주연·심수진·이희길.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엮음. 『2012년 상반기 연구결보고서』.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2.
- 양계민.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4호, 2009.
-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 이영화·전승우. “유권자의 정치관여가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치광고 메시지 프레이밍 간의 조절적합성(Regulatory Fit) 효과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제22권 6호, 2011.
- 이우영. “제3장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비교사회』, 제4호, 2002.
- 장승진·송진미. “허위합의(False Consensus) 효과와 쟁점투표.”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3호, 2017.
- 전우영·이훈구. “집단 대표 정보와 사회 비교 유형이 집단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 범위빈도 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0권 2호, 1996.
- 차승주.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내용으로서 ‘화해’에 대한 시론적 고찰.” 『평화학연구』, 제20권 3호, 2019.
-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권 2호, 2013.
- 최정원·이영호.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3권 3호, 2014.
- 최훈석·용정순.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게임에 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2호, 2010.
- 한덕웅·이민규.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2호, 2001.
- 한덕웅·표승연. “정서 경험에 따른 주관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7권 3호, 2002.
- 홍용표.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문화와 정치』, 제5권 2호, 2018.
- Ajzen, Icek, and Martin Fishbein.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84, no. 5, 1977.
- Ashmore, Richard D., Kay Deaux, and Tracy McLaughlin–Volpe. “An Organizing Framework for Collective Identity:

- Articulation and Significance of Multidimensi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0, no. 1, 2004.
- Atran, Scott, Robert Axelrod, and Richard Davis. “Sacred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Science*. vol. 317, no. 5841, 2007.
- Azar, Edward E. “Protracted International Conflicts: Ten Propositions.” In *Conflict: Readings in Management and Resolution*, edited by John Burton and Frank Dukes. New York: Springer, 1990.
- Balliet, Daniel, and Paul A. M. Van Lange. “Trust, Conflict, and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9, no. 5, 2013.
- Baron, Jonathan and Mark Spranca. “Protected Values.” *Organizational Behavior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70, no. 1, 1997.
- Bar-Siman-Tov, Yaacov. “Israel-Egypt Peace: Stable Peace?.” In *Stable Peace among Nations*, edited by Arie Kacowicz, Yaacov Bar-Siman-Tov, Ole Elgström and Magnus Jerneck. Bould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 Bar-Tal, Daniel.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vol. 21, no. 2, 2000.
- \_\_\_\_\_. “Why Does Fear Override Hope in Societies Engulfed by Intractable Conflict, as It Does in the Israeli Society?.” *Political Psychology*. vol. 22, no. 3, 2001.
- \_\_\_\_\_.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11, 2007.

- \_\_\_\_\_.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Conflict Resolution." In *Intergroup Conflicts Their Resolution: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Daniel Bar-Tal. New York: Psychology Press, 2011.
- Bar-Tal, Daniel, Aurel Harrison Diamond, and Meytal Nasie. "Political Socialization of Young Children in Intractable Conflicts: Conception and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41, no. 3, 2017.
- Bar-Tal, Daniel and Eran Halperin.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Bar-Tal, Daniel, Eran Halperin, and Joseph de Rivera. "Collective Emotions in Conflict Situations: Societal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3, no. 2, 2007.
- Bar-Tal, Danie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edited by Mauro Galluccio.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 Bar-Tal, Daniel and Gemma H. Bennink. "The Nature of Reconciliation as an Outcome and as a Process."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ited by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Bar-Tal, Daniel, Keren Sharvit, Eran Halperin, and Anat Zafran. "Ethos of Conflict: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8, no. 1, 2012.
- Bizumic, Boris, Rune Stubager, Scott Mellon, Nicolas Van der Linden, Ravi Iyer, and Benjamin M. Jones. “On the (in)Compatibility of Attitudes toward Peace and War.”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 5, 2013.
- Bodenhausen, Galen V., and Robert S. Wyer. “Effects of Stereotypes i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8, no. 2, 1985.
- Bond, Michael Harris “Culture and Aggression—from Context to Coerc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8, no. 1, 2004.
- Brewer, Marilynn B.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5, no. 3, 1999.
- Christensen, Kyle, Thomas Dolan, and Kimberly Gill.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Korean Unification.” *Faculty Bibliography*. 503, 2014.
- Christie, Daniel J., Richard V. Wagner, and Deborah Du Nann Ed Winter. “Introduction to Peace Psychology.” In *Peace, Conflict, Violence: Peace Psychology for the 21st Century*, edited by Daniel J. Christie, Richard V. Wagner and Deborah Du Nann Ed Winte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001.
- Cohen–Chen, Smadar, Eran Halperin, Richard J. Crisp, and James J. Gross. “Hope in the Middle East: Malleability Beliefs, Hope, and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for

- Peace.” *Social Psychological Personality Science*, vol. 5, no. 1, 2014.
- Cohen–Chen, Smadar, Richard J. Crisp, and Eran Halperin. “Perceptions of a Changing World Induce Hope and Promote Peace in Intractable Confli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1, no. 4, 2015.
- Cohrs, Christopher J., Sven Kielmann, Jürgen Maes, and Barbara Moschner. “Effects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Threat from Terrorism on Restriction of Civil Liberties.” *Analyses of Social Issues Public Policy*, vol. 5, no. 1, 2005.
- Cole, Shana, Emily Balcetis, and David Dunning. “Affective Signals of Threat Increase Perceived Proximity.”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1, 2013.
- Coleman, Peter T. “Characteristics of Protracted, Intractable Conflict: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etaframework–I.”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9, no. 1, 2003.
- Crisp, Richard J., and Sarah R. Beck.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Moderating Role of Ingroup Identific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8, no. 2, 2005.
- Crocker, David A. “Reckoning with Past Wrongs: A Normative Framework.”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1999.
- Crocker, Jennifer, Darlene B. Hannah, and Renee Weber. “Person Memory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1983.

- David, Ohad, and Daniel Bar-Tal. "A Sociopsychological Conception of Collective Identity: The Case of National Identity as an Examp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 4, 2009.
- Doosje, Bertjan, Nyla R. Branscombe, Russell Spears, and Antony S. R. Manstead.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no. 4, 1998.
- Dovidio, John F.,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3, no. 1, 2009.
- Dwyer, Susan. "Reconciliation for Realist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13, no. 1, 1999.
- Fajardo, Daniel M. "Author Race, Essay Quality, and Reverse Discrimin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5, no. 3, 1985.
- Fernbach, Philip M., Nicholas Light, Sydney E. Scott, Yoel Inbar, and Paul Rozin. "Extreme Op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Know the Least but Think They Know the Most." *Nature Human Behaviour*. vol. 3, no. 3, 2019.
- Fernbach, Philip M., Todd Rogers, Craig R. Fox, and Steven A. Sloman. "Political Extremism Is Supported by an Illusion of Understanding."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6, 2013.
- Fischer, Agneta H., and Ira J. Roseman. "Beat Them or Ban Them: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of Anger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vol. 93, no. 1, 2007.
- Fiske, Susan T., Amy J. C. Cuddy, Peter Glick, and Jun Xu.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6, 2002.
- Forsberg, Tuomas.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Dealing with the Past." In *Burying the Past, Making Peace Doing Justice after Civil Conflicts*, edited by Nigel Biggar.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 Galtung, Johan. "After Violence,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 and Resolution." In *Reconciliation, Justice Coexistence: Theory & Practice*, edited by Mohammed Abu-Nimer. New York: Lexington Books, 2001.
- Gardner-Feldman, Lily.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Reconciliation' in German Foreign Policy: Relations with France, Israel,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2, 1999.
- Gibson, James L. "Does Truth Lead to Reconciliation? Testing the Causal Assumption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2, 2004.
- Greenwald, Anthony G., Debbie E. McGhee, and Jordan L. K. Schwartz.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no. 6, 1998.
- Halperin, Eran. "Group-Based Hatred in Intractable Conflict in Isra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5, 2008.



- \_\_\_\_\_. “Emotional Barriers to Peace: Emotions and Public Opinion of Jewish Israelis About the Peace Process in the Middle Eas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7, no. 1, 2011.
- \_\_\_\_\_.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Emotion Review*, vol. 6, no. 1, 2014.
- Halperin, Eran, Alexandra G. Russell, Carol S. Dweck, and James Gross. “Anger, Hatred, and the Quest for Peace: Anger Can Be Constructive in the Absence of Hatr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5, no. 2, 2011.
- Halperin, Eran, Alexandra G. Russell, Kali H. Trzesniewski, James Gross, and Carol S. Dweck. “Promoting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by Changing Beliefs About Group Malleability.” *Science*, vol. 333, no. 6050, 2011.
- Halperin, Eran and James J. Gross. “Emotion Regulation in Violent Conflict: Reappraisal, Hope, and Support for Humanitarian Aid to the Opponent in Wartime.” *Cognition and Emotion*, vol. 25, no. 7, 2011.
- Halperin, Eran, Keren Sharvit, and James J. Gross.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ergroup Conflict: An Appraisal-Based Framework.” In *Intergroup Conflicts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Psychological Press, 2011.
- Halperin, Eran and Ruthie Pliskin.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 Studying Emotional Processes within a Unique Context.” *Political Psychology*, vol. 36, no. 1, 2015.
- Halperin, Eran, Smadar Cohen-Chen, and Amit Goldenberg.

“Indirect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s: A New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25, no. 1, 2014.

Hameiri, Boaz,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Challenges for Peacemakers: How to Overcome Socio-Psychological Barriers.”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Brain Sciences*. vol. 1, no. 1, 2014.

---

\_\_\_\_\_ . “Self-Censorship as a Socio-Psychological Barrier to Peacemaking.” In *Self-Censorship in Contexts of Conflict: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Keren Sharvit, Rafi Nets-Zehngut and Daniel Bar-Tal. Cham, Switzerland: Springer, 2017.

Hameiri, Boaz, Eden Nabet, Daniel Bar-Tal, and Eran Halperin. “Paradoxical Thinking as a Conflict-Resolution Intervention: Comparison to Alternative Interventions and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44, no. 1, 2018.

Hameiri, Boaz, Keren Sharvit, Daniel Bar-Tal, Eldad Shahar, and Eran Halperin. “Support for Self-Censorship among Israelis as a Barrier to Resolving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vol. 38, no. 5, 2017.

Hermann, Tamar. “Reconciliation: Reflections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Term.”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ited by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Hewstone, Miles, Ed Cairns, Alberto Voci, Juergen Hamberger, and Ulrike Niens. “Intergroup Contact, Forgiveness, and Experience of “the Troubl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 of Social Issues*, vol. 62, no. 1, 2006.
- Hewstone, Miles, Mark Rubin, and Hazel Willis.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no. 1, 2002.
- Higgins, Tory E.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vol. 52, no. 12, 1997.
- \_\_\_\_\_.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1998.
- Higgins, Tory E., Ronald S. Friedman, Robert E. Harlow, Lorraine Chen Idson, Ozlem N. Ayduk, and Amy Taylor.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1, no. 1, 2001.
- Ho, Arnold K., Jim Sidanius, Nour Kteily, Jennifer Sheehy-Skeffington, Felicia Pratto, and Kristin E Henkel et al.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sub>7</sub>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6, 2015.
- Hogg, Michael A. "Uncertainty and Extremism: Identification with High Entitativity Group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In *The Psychology of Group Perception: Perceived Variability, Entitativity, and Essentialism*, edited by Vincent Yzerbyt, Charles M. Judd and Olivier Corneille.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4.
- Horstmanshof, Louise, and Craig Zimitat. "Future Time Orientation Predicts Academic Engagement among First-Year University

-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7, no. 3, 2007.
- Jacobson, Dan, and Daniel Bar-Tal. “Structure of Security Beliefs among Israeli Students.” *Political Psychology*, vol. 16, no. 3, 1995.
- James, William. “On Some Omissions of Introspective Psychology.” *Mind*, vol. 9, no. 33, 1884.
- Jarymowicz, Maria, and Daniel Bar-Tal. “The Dominance of Fear over Hop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Collectiv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6, no. 3, 2006.
- Joireman, Jeff, Monte J. Shaffer, Daniel Balliet, and Alan Strathman. “Promotion Orientation Explains Why Future-Oriented People Exercise and Eat Healthy: Evidence from the Two-Factor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14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8, no. 10, 2012.
- Jung, Jiin,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vol. 37, no. 3, 2016.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Journal of Business*, vol. 59, no. 4, 1986.
- Kelman, Herbert C.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edited by Arie Nadler, Thomas E. Malloy and Jeffrey D. Fish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 Press, 2008.
- Kessler, Thomas, and Susan Hollbach. "Group-Based Emotions as Determinants of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1, no. 6, 2005.
- Kriesberg, Louis. "Coexistence and the Reconciliation of Communal Conflicts." In *The Handbook of Interethnic Coexistence*, edited by Eugene Weiner.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Company, 1998.
- \_\_\_\_\_. "Comparing Reconciliation Action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ited by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Changing Conflict Asymmetries Constructively." *Dynamics of Asymmetric Conflict*. vol. 2, no. 1, 2009.
- Kudish, Shira, Smadar Cohen-Chen, and Eran Halperin. "Increasing Support for Concession-Making in Intractable Conflicts: The Role of Conflict Uniquenes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21, no. 2, 2015.
- Lederach, John Paul. "Beyond Violence: Building Sustainable Peace." In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Company*.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Company, 1998.
- Lindeman, Marjaana, and Markku Verkasalo. "Measuring Values with the Short Schwartz's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5, no. 2, 2005.
- Lucas, Gale M., and Daniel C. Molden. "Motivating Political Preferences: Concerns with Promotion and Prevention as

- Predictors of Public Policy Attitudes.” *Motivation and Emotion*, vol. 35, no. 2, 2011.
- Mackie, Diane M., Thierry Devos, and Eliot R. Smith.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9, no. 4, 2000.
- Maoz, Ifat.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Reconciliation.”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ited by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Maoz, Ifat, and Clark McCauley.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5, 2005.
- McKeown, Shelley and Daniel J. Christie. “Social Psychology and Peace.” in *The Palgrave Handbook of Disciplinary and Regional Approaches to Peace*, edited by Oliver Richmond et 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 Miron, Anca M., Nyla R. Branscombe, and Monica Biernat. “Motivated Shifting of Justice Standards.”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6, no. 6, 2010.
- Moeschberger, Scott L., David N. Dixon, Ulrike Niens, and Ed Cairns.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A Model for Peace in the Midst of the “Trouble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1, no. 2, 2005.
- Morrow, Duncan. “Seeking Peace Amid the Memories of War: Learning from the Peace Process in Northern Ireland.” In *After the Peace: Resistance and Reconciliation*, edited by

- Robert L. Rothstei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9.
- Moscovici, Serge.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Social Representations*, edited by Robert M. Farr and Serge Moscovic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Nadler, Arie.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edited by Linda R Tropp. Oxfor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Nadler, Arie, and Tamar Saguy. "Reconciliation between Nations: Overcoming Emotional Deterrents to Ending Conflicts between Groups." In *The Psychology of Diplomacy*, edited by Harvey Langholtz and Chris E. Stout. Westport: Praeger Publishers, 2004.
- Niederhafner, Stefan. "The Challenges of Reunification: Why South Korea Cannot Follow Germany's Strategy." *Korea Observer*, vol. 44, no. 2, 2013.
- Noor, Masi, Nurit Shnabel, Samer Halabi, and Arie Nadler. "When Suffering Begets Suffering: The Psychology of Competitive Victimhood between Adversarial Groups in Violent Confli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6, no. 4, 2012.
- Noor, Masi, Rupert J. Brown, and Garry Prentice. "Precursors and Mediators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A New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7, 2008.
- Noor, Masi, Rupert J. Brown, Gonzalez Roberto, Jorge Manzi,

- and Christopher A. Lewis. "On Positive Psychological Outcomes: What Helps Groups with a History of Conflict to Forgive and Reconcile with Each 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4, no. 6, 2008.
- Opotow, Susan, and Sara I. McClelland. "The Intensification of Hating: A Theory." *Social Justice Research*, vol. 20, no. 1, 2007.
- Oyserman, Daphna, Heather M. Coon, and Markus Kimmelmeier.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8, no. 1, 2002.
- Parks, Craig D., Robert F. Henager, and Shawn D. Scamahorn. "Trust and Reactions to Messages of Intent in Social Dilemma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0, no. 1, 1996.
- Peterson, Jordan B., and Joseph L. Flanders. "Complexity Management Theory: Motivation for Ideological Rigidity and Social Conflict." *Cortex*, vol. 38, no. 3, 2002.
- Piurko, Yuval, Shalom H. Schwartz, and Eldad Davidov.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Political Psychology*, vol. 32, no. 4, 2011.
- Porat, Roni,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e Effect of Sociopsychological Barriers on the Processing of New Information About Peace Opportun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1, 2015.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 Rosoux, Valerie. “Reconciliation as a Peace-Building Process: Scope and Limits.” In *The Sag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edited by Jacob Bercovitch, Victor Kremenyuk and I William Zartman, London: Sage, 2007.
- Ross, Lee, and Andrew Ward. “Psychological Barriers to Dispute Resolu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Mark P. Zanna, San Diego: Academic Press, 1995.
- Ross, Marc Howard. “Ritual and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From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edited by Yaacov Bar-Siman-Tov,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Rouhana, Nadim N. “Group Identity and Power Asymmetry in Reconciliation Processes: The Israeli-Palestinian Case.”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vol. 10, no. 1, 2004.
- Różycka-Tran, Joanna,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46, no. 4, 2015.
- Różycka-Tran, Joanna, Paweł Jurek, Michał Olech, Jarosław Piotrowski, and Magdalena Żemojtel-Piotrowska. “A Warrior Society: Data from 30 Countries Show That Belief in a Zero-Sum Game Is Related to Military Expenditure and Low Civil Liberties.” *Frontiers in psychology*, vol. 9, 2018.

- Royzman, Edward B., Clark McCauley and Paul Rozin. "From Plato to Putnam: Four Ways to Think About Hate." In *The Psychology of Hate*, edited by Robert J. Sternber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 Sagar, Andrew H., and Janet W. Schofield.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vol. 39, no. 4, 1980.
- Schori-Eyal, Noa, Eran Halperin, and Daniel Bar-Tal. "Three Layers of Collective Victimhood: Effects of Multileveled Victimhood on Intergroup Conflicts in the Israeli-Arab Contex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2, 2014.
- Schwartz, Shalom H.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edited by Uichol Ed Kim, Harry C. Triandis, Çiğdem Ed Kâğıtçıbaşı, Sang-Chin Ed Choi and Gene Ed Yoon. Thousand Oaks: Sage, 1994.
- \_\_\_\_\_.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vol. 2, no. 1, 2012.
- Schwartz, Shalom H., Jan Cieciuch, Michele Vecchione, Eldad Davidov, Ronald Fischer, and Constanze Beierlein et al.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3, no. 4, 2012.

- Schwartz, Shalom H., Gila Melech, Arielle Lehmann, Steven Burgess, Mari Harris, and Vicki Owens.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2, no. 5. 2001.
- Schwartz, Shalom H., and Tammy Rubel.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9, no. 6, 2005.
- Sharvit, Keren, Daniel Bar-Tal, Boaz Hameiri, Anat Zafran, Eldad Shahar, and Amiram Raviv. "Self-Censorship Orientation: Scale Development, Correlates and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vol. 6, no. 2, 2018.
- Shnabel, Nurit, Samer Halabi, and Masi Noor. "Overcoming Competitive Victimhood and Facilitating Forgiveness through Re-Categorization into a Common Victim or Perpetrator Ident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9, no. 5, 2013.
- Smith, Eliot R., Charles R. Seger, and Diane M. Mackie.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3, no. 3, 2007.
- Somin, Ilya. "Knowledge About Ignorance: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Political Information." *Critical Review*. vol. 18, no. 1-3, 2006.
- Staub, Ervin. "Psychology and Morality in Genocide and Violent

- Conflict: Perpetrators, Passive Bystanders and Rescuer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Morality: Exploring the Causes of Good Evil*, edited by Mario Mikulincer and Phillip R. Shav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 Staub, Ervin, and Daniel Bar-Tal. “Genocide, Mass Killing and Intractable Conflict: Roots, Evolution,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teinberg, Laurence, Sandra Graham, Lia O’Brien, Jennifer Woolard, Elizabeth Cauffman, and Marie Banich. “Age Differences in Future Orientation and Delay Discounting.” *Child Development*, vol. 80, no. 1, 2009.
- Stephan, Walter G., and Cookie White Stephan.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1, no. 3, 1985.
- Sternberg, Robert J. “A Duplex Theory of Hat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Terrorism, Massacres, and Genocid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7, no. 3, 2003.
- Summerville, Amy, and Neal Roese. “Self-Report Measur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Regulatory Focus: A Cautionary Not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42, no. 1, 2008.
- Tagar, Michal Reifen, Christopher M. Federico, and Eran Halperin. “The Positive Effect of Negative Emotions in Protracted Conflict: The Case of Ang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7, no. 1, 2011.
- Tajfel, Henri.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 Scientific American*, vol. 223, no. 5, 1970.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Monterey: Brooks/Cole, 1979.
- Tam, Tania, Miles Hewstone, Edward Cairns, Nicole Tausch, Greg Maio, and Jared Kenworthy. "The Impact of Intergroup Emotions on Forgiveness in Northern Ireland."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vol. 10, no. 1, 2007.
- Tam, Tania, Miles Hewstone, Jared Kenworthy, and Edward Cairns. "Intergroup Trust in Northern Irel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5, no. 1, 2009.
- Tanner, Carmen, Douglas L. Medin, and Rumen Iliev. "Influence of deontological versus consequentialist orientations on act choices and framing effects: When principles are more important than consequenc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8, no. 5, 2008.
- Tooby, John, and Leda Cosmides. "The Past Explains the Present: Emotional Adaptations and the Structure of Ancestral Environments." *Ethology & Sociobiology*, vol. 11, no. 4-5, 1990.
- Triandis, Harry C., and Michele J. Gelfand.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Paul A. Van Lange, Arie W. Kruglanski and Tory E. Higgins, Thousand Oaks, C.A.: SAGE, 2012.
- Van Assche, Jasper, and Dries. Bostyn. "Intergroup Reconciliation

- between Flemings and Walloons: The Predictive Value of Cognitive Style, Authoritarian Ideology, and Intergroup Emotions.” *Psychologica Belgica*, vol. 57, no. 3, 2017.
- Vollhardt, Johanna Ray. “Victim Consciousness and Its Effects on Intergroup Relations—a Double-Edged Swor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2009.
- White, Ralph K. “Specifics in a Positive Approach to Pea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4, no. 2, 1988.
- White, Rob, and Santina Perrone. “Racism, Ethnicity and Hate Crime.” *Communal/Plural: Journal of Transnational Cross-Cultural Studies*, vol. 9, no. 2, 2001.
- Whitley Jr., Bernard E.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1, 1999.
- Wilmer, Franke.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 the Former Yugoslavia.” *Social Justice*, vol. 25, no. 4, 1998.
- Wyer, Robert S. and Thomas K. Srull. “Category Accessibility: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Social Stimulus Information.” In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edited by Edward Tory Higgins, Peter C. Herman and Mark P. Zanna. Hillsdale: Erlbaum, 1981.
- Zimbardo, Philip G. and John N. Boyd.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7, no. 6, 1999.
- Zimbardo, Philip G., Kelli A. Keough, and John N. Boyd.

“Present Time Perspective as a Predictor of Risky Driving.”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s*, vol. 23, no. 6, 1997.

### 3. 기타자료

『미디어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http://kgss.skku.edu>>.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s://www.nesdc.go.kr>>.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www.israel.org>>.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2017-01    |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 이규창 외      | 11,500원 |
| 2017-03    |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박주화 외      | 12,000원 |
| 2017-04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 이상신 외      | 8,500원  |
| 2017-05    |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 민태은 외      | 9,500원  |
| 2017-06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 민태은 외      | 13,000원 |
| 2017-07    |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 조한범 외      | 7,500원  |
| 2017-08    |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 홍 민 외      | 7,000원  |
| 2017-09    |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 임강택        | 8,000원  |
| 2017-1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 정성윤 외      | 8,000원  |
| 2017-11    |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 조정아, 최은영   | 9,500원  |
| 2017-12    |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 임강택 외      | 12,000원 |
| 2017-13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김상기 외      | 11,000원 |
| 2017-14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정구연 외      | 7,000원  |
| 2017-15    |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 한동호 외      | 7,500원  |
| 2017-16    |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 임예준, 이규창   | 9,000원  |
| 2017-17    |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 박영자        | 13,000원 |
| 2017-18    |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 홍제환        | 7,500원  |
| 2017-19    |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 홍 민        | 6,000원  |
| 2017-20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 정성윤        | 6,500원  |
| 2017-21-01 |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 전병곤 외      | 9,500원  |
| 2017-21-02 |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 전병곤 외      | 9,500원  |
| 2017-22-01 |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 현승수 외      | 10,000원 |
| 2017-22-02 |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 현승수 외      | 9,500원  |
| 2017       |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 13,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17-01 |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 이규창 외    |
| 2017-02 |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 조한범, 이우태 |

|         |                           |          |
|---------|---------------------------|----------|
| 2017-03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 이상신 외    |
| 2017-04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 임강택, 홍제환 |
| 2017-0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  |                          |
|---------|--|--------------------------|
| 2017-01 |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 Chung, Sung-Yoon et al.  |
| 2017-02 |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 Rim, Ye Joon et al.      |
| 2017-03 |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 Chung, Kuyoun·Lee, Kitae |
| 2017-04 |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 Kim, Soo-Am et al.       |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 2018-01 |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 박주화 외 19,000원 |
| 2018-02 |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 이규창 외 14,000원 |
| 2018-03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 성기영 외 10,500원 |
| 2018-04 |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 이기태 외 9,000원  |
| 2018-05 |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 이기태 외 8,000원  |
| 2018-06 |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 현상백 외 12,000원 |
| 2018-07 | KINU 통일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인식     | 이상신 외 11,000원 |
| 2018-08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 조한범 외 8,000원  |
| 2018-09 |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 박영자 외 11,500원 |
| 2018-10 |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 임강택 외 9,500원  |
| 2018-11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 김진하 외 9,500원  |
| 2018-12 |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 홍제환 외 9,000원  |
| 2018-13 |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 이우태 외 11,000원 |
| 2018-14 | 북한의 핵전략 분석                          | 홍우택 외 6,500원  |
| 2018-15 |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 도경옥 외 10,000원 |
| 2018-16 |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 김상기 외 5,500원  |
| 2018-17 |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 정성윤 외 21,000원 |
| 2018-18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 이기태 외 12,000원 |
| 2018-19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 민 외 20,500원 |
| 2018-2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 김상기 외 10,000원 |

|         |                           |               |
|---------|---------------------------|---------------|
| 2018-21 |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 한동호 외 14,000원 |
| 2018-22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 박영자 외 13,500원 |
| 2018-23 |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 오경섭 외 12,000원 |
| 2018-24 |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 정은이 외 9,500원  |
| 2018-25 |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 신종호 8,500원    |
| 2018-26 |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 신종호 외 12,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18-01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 박영자 외 |
| 2018-02 |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2018-03 |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 서보혁 외 |
| 2018-04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 나용우 외 |

### 〈Study Series〉

|         |   |   |
|---------|---|---|
| 2018-01 |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
| 2018-02 |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
| 2018-03 |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 Hong, Jea Hwan                                |
| 2018-04 |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
| 2018-05 |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 Park, Young-Ja et al.                         |

##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2019-01 |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br>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이기태 외 8,000원    |
| 2019-02 |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 김갑식 외 17,500원   |
| 2019-03 |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도경욱, 안준형 8,500원 |
| 2019-04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 이재연, 김주리 8,000원 |
| 2019-05 |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 서보혁 외 12,000원   |
| 2019-0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 이재영 외 11,500원   |
| 2019-07 |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 조정아 외 11,000원   |
| 2019-08 |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 박영자 외 11,000원   |
| 2019-09 |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이무철 외 15,000원   |

|            |   |           |         |
|------------|---|-----------|---------|
| 2019-10    |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 신종호 외     | 18,000원 |
| 2019-11    |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 홍석훈 외     | 9,000원  |
| 2019-12    |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 이우태 외     | 9,000원  |
| 2019-13    |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나용우 외     | 10,000원 |
| 2019-14    |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 김진하 외     | 10,000원 |
| 2019-15    |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 오경섭 외     | 9,500원  |
| 2019-16    |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 김수경 외     | 7,500원  |
| 2019-17    |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 조한범 외     | 14,500원 |
| 2019-18    |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 이규창 외     | 11,500원 |
| 2019-19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 이상신 외     | 24,000원 |
| 2019-20    |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 서보혁       | 10,000원 |
| 2019-21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 서보혁 외     | 14,000원 |
| 2019-22    |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19,000원 |
| 2019-22-01 |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 박주화       | 18,500원 |
| 2019-22-02 |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 박주화       | 14,500원 |
| 2019-23    |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 조정아 외     | 12,000원 |
| 2019-24    |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 홍민 외      | 21,500원 |
| 2019-25    |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 정은이 외     | 14,000원 |
| 2019-26    |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 김석진, 홍제환  | 10,000원 |
| 2019-27    |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 현승수 외     | 14,000원 |
| 2019-28    |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 최장호 외     | 10,000원 |
| 2019-29    | 주변국의 사이버 현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채재병 외     | 8,500원  |
| 2019       | 제3세대 인권과 북한   | 인도협력연구실 편 | 16,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19-01 |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 김상기 외    |
| 2019-02 |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 이기태, 배정호 |
| 2019-03 |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 김석진, 홍제환 |
| 2019-04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 이상신 외    |

### <Study Series>

|         |  |                |
|---------|--|----------------|
| 2019-01 |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br>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 Hong, Jea Hwan |
|---------|--|----------------|

-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 KINU Insight

|         |   |       |
|---------|---|-------|
| 2017-01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 홍 민   |
| 2017-02 |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 전병곤   |
| 2017-03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 박영자   |
| 2018-01 |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19-01 |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 2019-02 |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 정은미   |
| 2019-03 |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 김주리   |
| 2019-04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 이지순   |
| 2019-05 |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 이재영   |
| 2019-06 |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서보혁   |
| 2019-07 |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 조한범   |
| 2019-08 |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 김갑식 외 |

### 북한인권백서

|   |               |
|---|---------------|
| 북한인권백서 2016                                     | 도경옥 외 18,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 도경옥 외 22,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7                                     | 도경옥 외 2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 도경옥 외 24,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8                                     | 한동호 외 2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 한동호 외 24,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9                                     | 김수경 외 2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 김수경 외 24,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16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 통일연구원 |
| 2017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 통일연구원 |
| 2018 |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19 |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정기간행물

|  |         |
|--|---------|
|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 10,000원 |

## 기타

|      |   |                      |
|------|---|----------------------|
| 2016 |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 한동호 외                |
| 2016 |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 Han, Dong-ho et al.  |
| 2016 |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 도경옥 외                |
| 2016 |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 Do, Kyung-ok et al.  |
| 2016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이애리아 외               |
| 2017 | 북한 내 이동의 자유   | 한동호 외                |
| 2017 |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 Han, Dong-ho et al.  |
| 2017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이애리아 외               |
| 2018 |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
| 2018 | 북한의 건강권   | 이금순 외                |
| 2018 |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 Lee, Keumsoon et al. |
| 2018 |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김진하 외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 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                               |           |          |              |
|-------------------------------|-----------|----------|--------------|
| 신청자 성명*<br>(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           | 소 속*     |              |
| 간 행 물*<br>받 을 주 소             | (우편번호 : ) |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
| 연 락 처*                        | TEL       |          | 이메일          |
| 이메일 서비스                       | 수신 ( )    |          | 수신거부 ( )     |
| 회 원 구 분*                      | 학생회원 ( )  | 일반회원 ( ) | 기관회원 (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성 명 (인)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통일연구원

